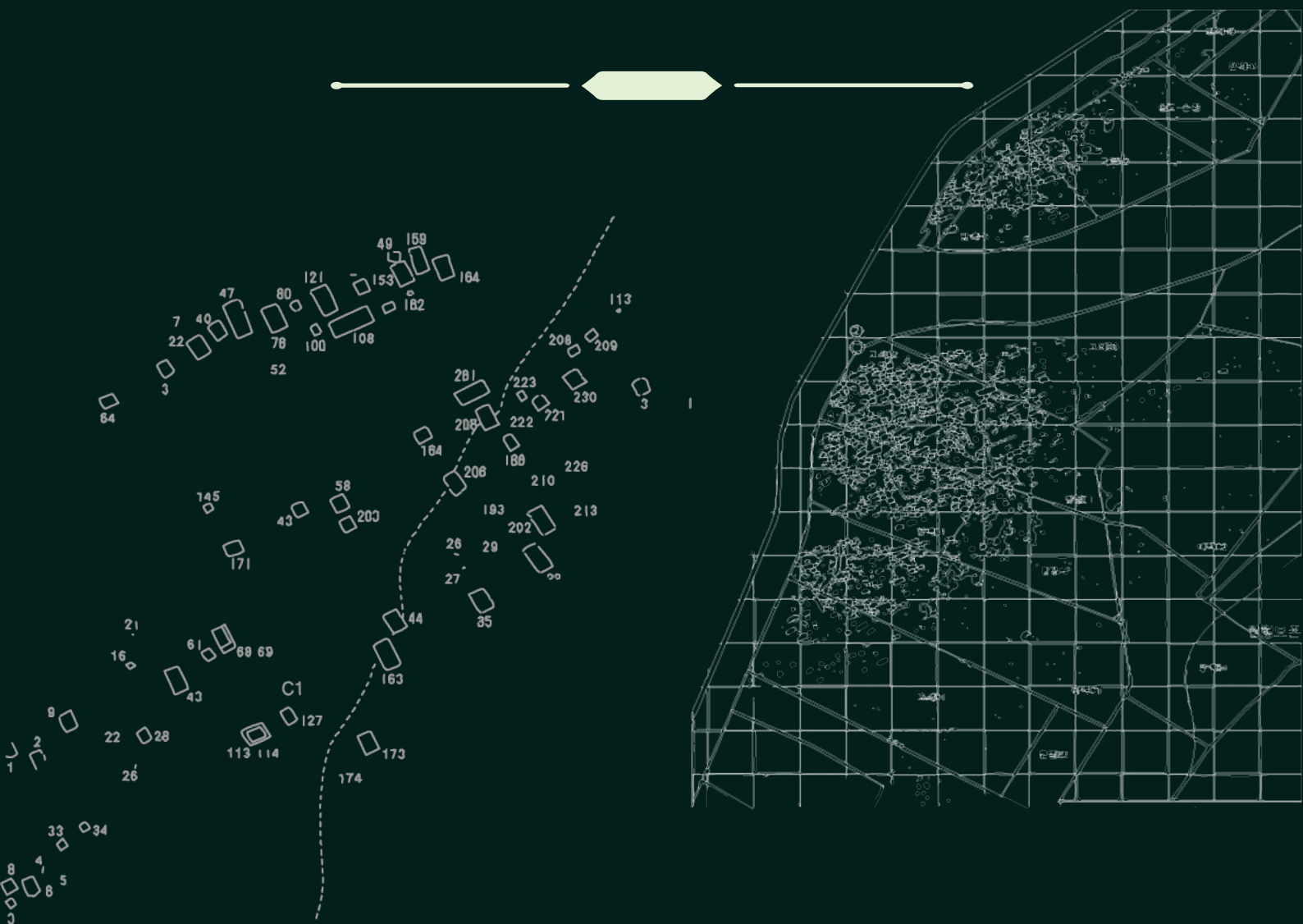


2024년 한국청동기학회 정기학술대회

청동기시대 취락 유형의 경계와 교류



일시 2024. 10. 25 (금) 10 : 30~18:00

장소 부산대학교 대학본부동 3층 대회의실

2024년 한국청동기학회 정기학술대회

청동기시대 취락 유형의 경계와 교류

2024.10.25 (금) 10:30~18:00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장소: 부산대학교		사회: 정대봉(한국청동기학회 총무)	
10:30~10:40	개회	개회사	박영구(한국청동기학회 회장)
10:40~10:55	발표 1	학술대회 취지 및 제안	발표: 허의행(수원대학교)
11:00~11:30	발표 2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경계와 교류	발표: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
11:30~12:00	발표 3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분포와 전개	발표: 구준모(중부고고학연구소)
12:00~13:30		점심 식사	
13:30~14:00	발표 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분포와 경계	발표: 문수균(미래문화유산연구소)
14:00~14:15		휴 식	
14:15~14:45	발표 5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분포와 경계	발표: 김규정(전북문화유산연구원)
14:45~15:15	발표 6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분포와 경계	발표: 강동석·박수빈(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15:15~15:30		휴 식	
15:30~17:30	종합 토론	좌장: 김범철(충북대학교) 토론: 홍주희(강원고고문화연구원) / 천선행(조선대학교) 강병학(한양문화재연구원) / 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박주영(충북대학교)	
17:30~18:00		정기 총회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경계와 교류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

I. 머리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은 남한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편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취락집단의 정체성과 지형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영서지역의 지형적 특징인 험준한 산악지대로 인해 충적지에 집중적으로 취락이 발달하고, 구릉지는 협소하여 소규모 취락만이 형성된다.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은 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을 제외한 전국단위의 유형이 존재하지만 천전리유형이나 조동리유형과 같이 지역성이 두드러진 취락이 생성되기도 한다.

영서지역은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구분되고 유사한 지형구조를 보이지만 유역별로 취락유형의 전개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외래집단과 재지집단의 정체성이나 물질문화의 선택과 수용태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집단 간의 상호작용 결과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시공간적 경계와 흐름을 파악하고, 유형 간의 교류양상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영서지역의 지형적 특성-험준한 산악지대와 그 사이에 발달된 충적지라는 조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취락점유가 반복되고 밀집도가 높아 각각의 단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유적의 일부분만 조사되는 경우가 많아 취락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 발표는 강원 영서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행정구역이 다른 경기도 가평과 양평, 충청북도 충주와 제천 등도 동일 수계에 속하기 때문에 포함한다.

II. 취락유형의 종류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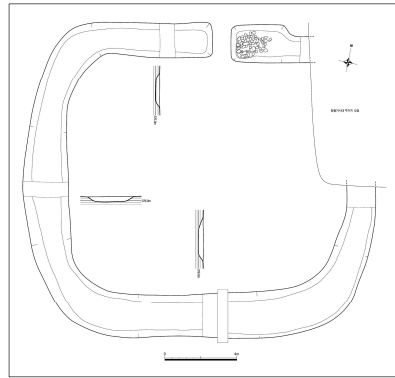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은 유형에 따라 미사리유형, 역삼동유형, 조동리유형, 천전리유형, 수석리유형의 취락이 확인된다. 먼저 취락유형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¹⁾.

1) 원주 동화리 주거지를 비롯하여 원주 포진리 1~6호, 춘천 삼천동 269~3번지(7호 9호 등), 춘천 현암리 1~5호 등은 위석식노를 갖춘 방형계 주거지와 이중구연토기요소로 구성된 유구유물복합체이다. 동화리유형으로 설정한 바(김권중 2020) 있지만, 유형으로 설정하기에는 소수이고 논란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제외한다.

1. 미사리유형취락

미사리유형취락은 미사리식주거지와 돌대문토기요소로 구성되며 이중구연과 구순각목 요소도 포함된다. 주거지는 미사리식(Ⅰ 유형)과 춘천의 중도동과 천전리Ⅰ, 정선의 아우라지와 같이 소형의 방형(Ⅱ 유형)으로 구분되고, 수혈유구와 환구, 경작유구가 취락의 구성요소이다. 취락의 구조 파악이 가능한 유적으로는 북한강유역의 춘천 중도동과 사농동, 흥천 외삼포리와 철정리Ⅱ, 화천 거례리(3구간), 가평 연하리와 대성리 등과 남한강유역의 아우라지 등이다. 춘천지역은 신매리(사적), 천전리(Ⅰ, 121-23번지), 금산리, 근화동 일대에서도 폭넓게 취락이 확인된다.

미사리유형취락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線狀構造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형취락은 주거지 2기 정도의 단위이고 철정리Ⅱ(A지구)와 거례리(3구간)는 이러한 단위가 복수로 구성되는 중형취락이다. 중도동과 아우라지는 (초)대형취락에 해당되는데 확장된 양상인 다중의 선상구조를 보이며 영서지역(초)대형취락의 특징이기도 하다. 미사리유형취락의 구성요소는 주거지 외에 관련 시설이 없거나 소수의 수혈유구 정도가 확인되어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중도동의 경작유구와 아우라지 환구는 (초)대형취락의 구성요소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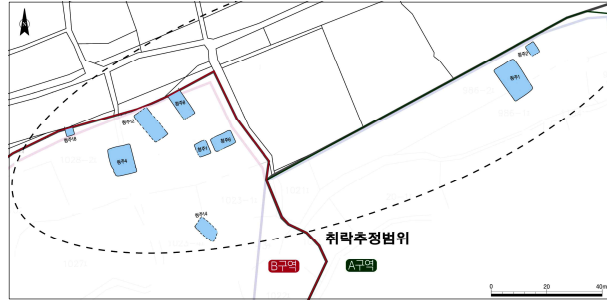
<도면 1> 아우라지 환구

한편 중도동은 국내 최대규모의 미사리유형취락으로 55기의 주거지(Ⅰ 유형)와 소형의 방형주거지(Ⅱ 유형) 23기로 구성된다. 소형방형주거지는 대부분 길이 2~3m, 면적 10m² 이하의 규모이고, 수혈식노나 소수의 석상위석식노 1기가 갖추어진 것이 특징이다. 아우라지Ⅱ-15·16호 등도 성격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주거지에서는 심발, 호 등의 토기류 출토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주거지 중앙에 노를 갖추었지만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고 소수의 저장공을 제외하면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형방형주거지에서 취사용의 심발과 저장용의 대형호, 연석과 연석봉 등의 식량처리구가 주로 출토되지만 무기류(석촉, 석검, 석창 등)는 거의 없다. 따라서 소형방형주거지는 취사전용의 유구로 판단된다. 소형방형주거지가 (초)대형취락에서 확인되므로 동일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된 천전리Ⅰ 유적과 121-3번지유적도 (초)대형취락의 가능성이 높다²⁾. (초)대형취락의 구성을 가능

2) 천전리Ⅰ 유적은 조사구역이 線形에 해당되지만 돌대문토기가 출토되거나(2·64호) 조기의 연대(21·59호)가 검출되어 미사리유형취락의 존재가 추정되고, 소형의 방형주거지(21·49·54·56호 등)가 조사되었다. 천전리 121-23번지유적도 1~5호, 9호, 10호, 33호 등이 미사리식주거지로 판단되고 이 가운데 9호와 10호는 소형의 방형주거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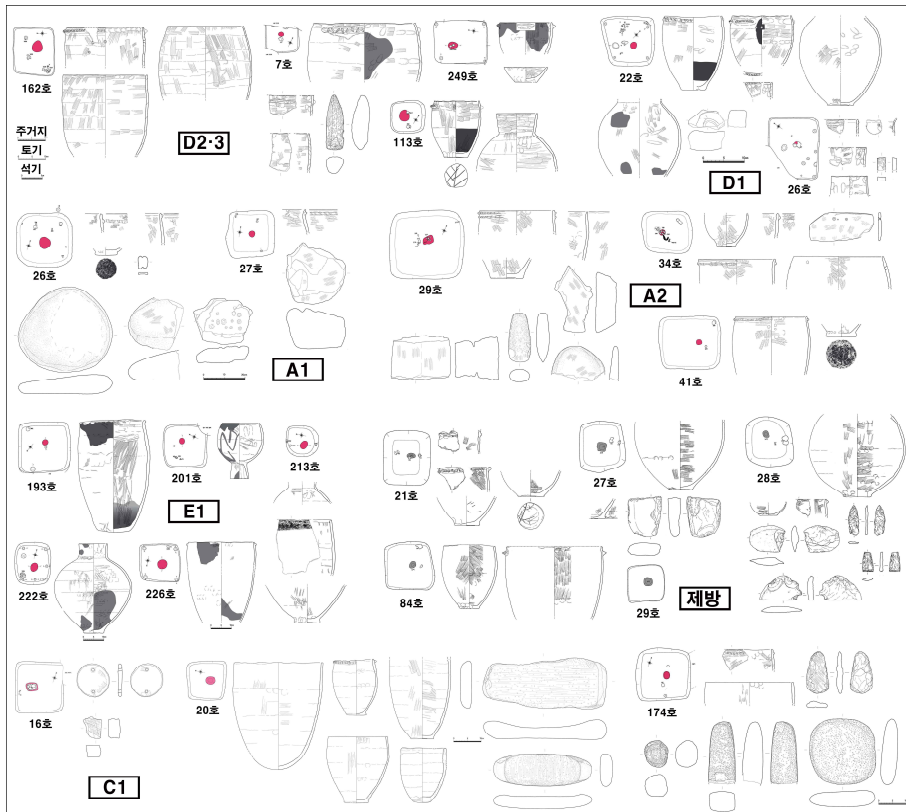
하게 하고 식량생산의 기반이 되는 경작유구(구구획경작유구)가 중도동에서 약 25만㎡의 범위로 확인되었다.

미사리유형취락의 선상구조는 화천 원천리와 같이 전기 전반에도 이어지지만, 대형취락으로 추정되는 금산리는 面狀構造로의 변화가 보인다. 금산리취락은 미사리유형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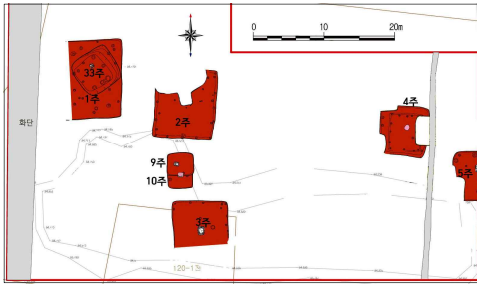


<도면 2> 금산리 미사리유형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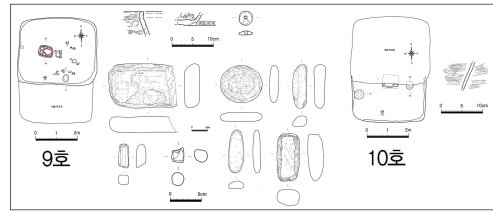
이 중도동에서 이주한 결과로 추정되고, 중도동의 전기 부재를 설명할 유적으로 판단하였다 (김권중 2020). 금산리취락의 주거구조는 초석(B-8호)의 존재와 같이 미사리식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점토상)위석식노로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평면형태의 세장화 경향을 보인다. 유물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렬토기요소가 복합된 양상이기 때문에 공렬토기문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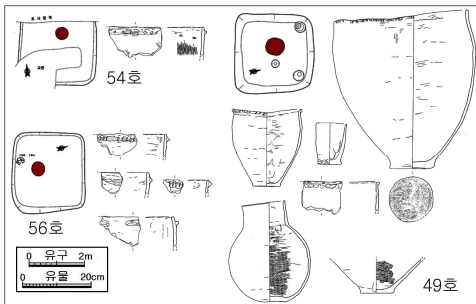
<도면 3> 중도동취락 소형방형주거지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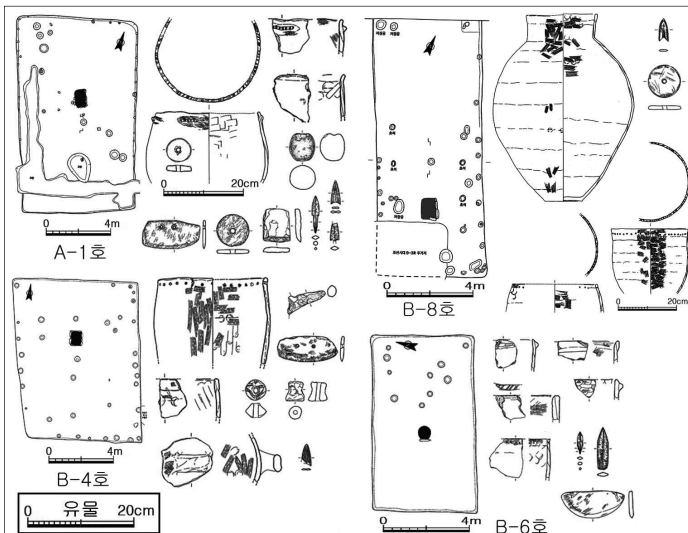
<도면 4> 천전리 121-23번지 미사리유
형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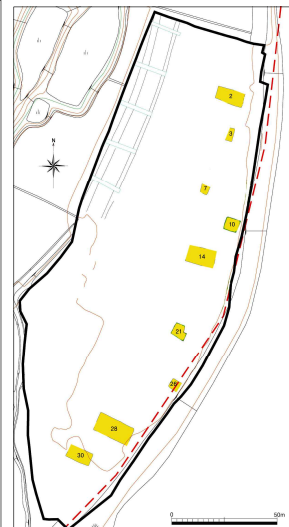
<도면 5> 천전리 121-23번지 소형방형
주거지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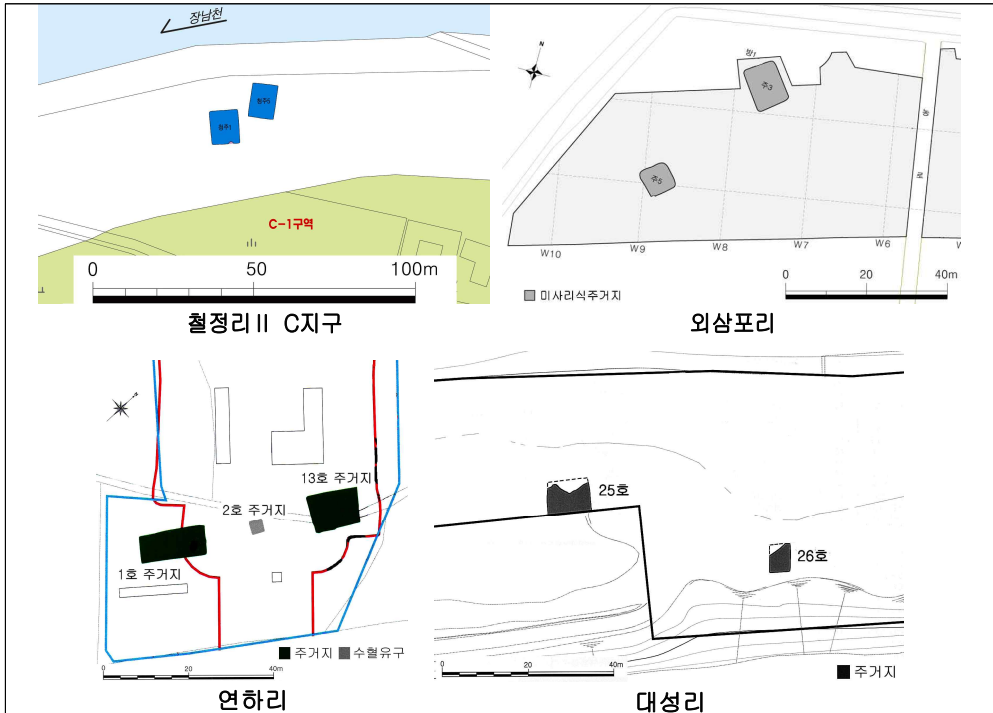
<도면 6> 천전리 I 유적 소형방형주거지 <사진 1> 중도동 구구획경작유구(F구역)
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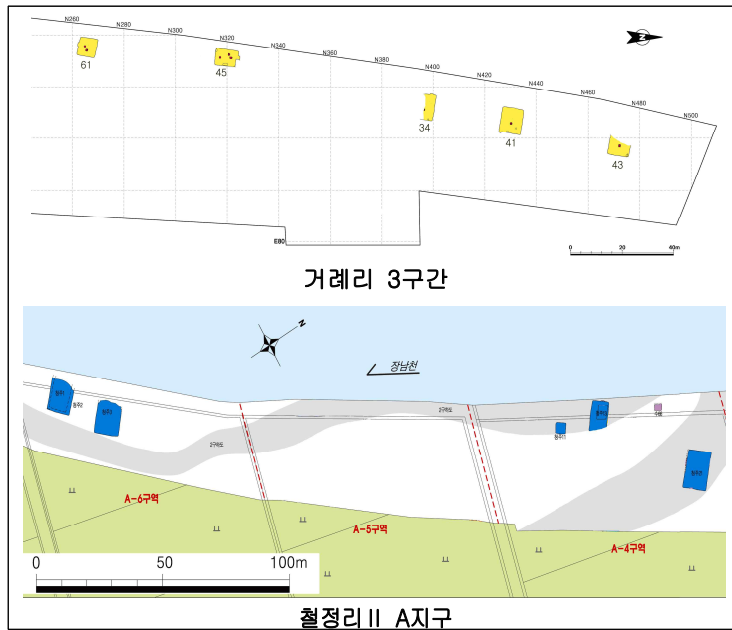
<도면 7> 금산리 미사리유형취락의 주거지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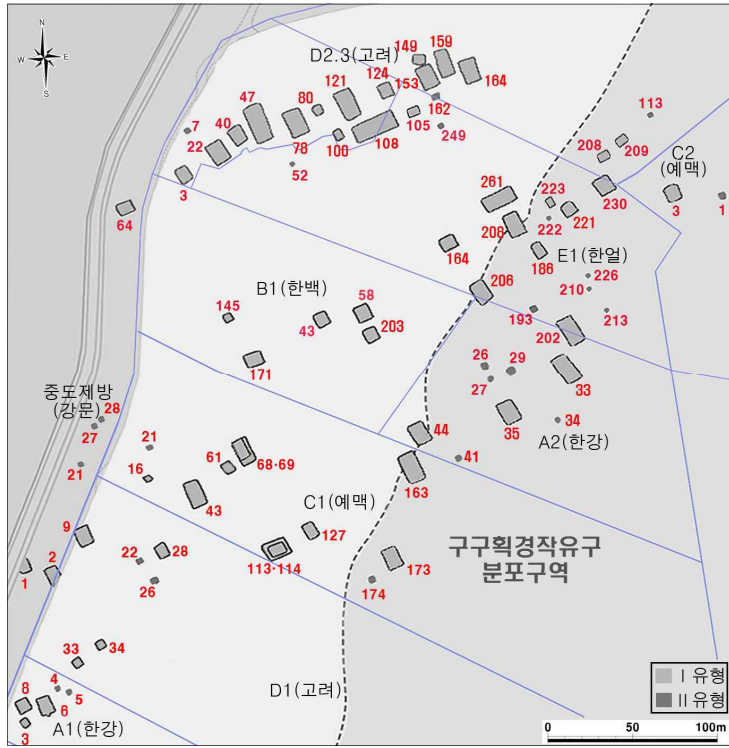
<도면 8> 원천리 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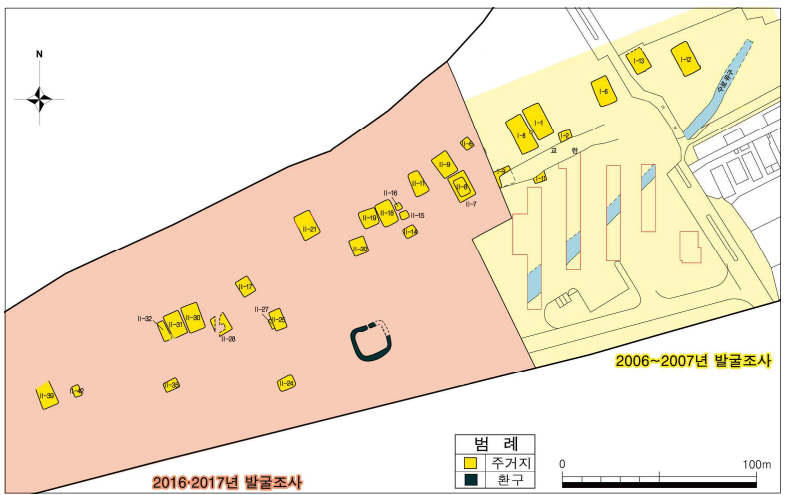
<도면 9> 미사리유형의 소형취락



<도면 10> 미사리유형의 중형취락



<도면 11> 미사리유형의 (초)대형취락(중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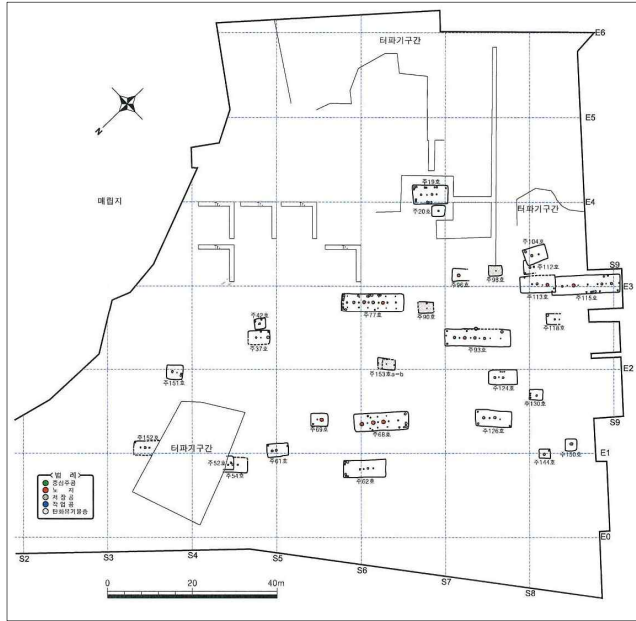
<도면 12> 미사리유형의 (초)대형취락(아우라지)

2. 역삼동유형취락

영서지역 역삼동유형취락은 북한강유역에만 분포하고 역삼동식주거지와 공렬토기요소를 주속성으로 한다. 취락은 화천 용암리와 거례리(3~4구간), 춘천 거두2지구와 신매리(주차장 부지), 홍천 철정리Ⅱ(A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취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소형취락은 面狀構造를 보이고 대형취락은 多面構造를 보인다.

역삼동유형취락은 주거구조에서 노 형식이 차이를 보이는데 용암리, 신매리(주차장부지), 위라리, 천전리 등과 같이 수혈식노로만 구성된 주거지와 미사리식주거지의 석상위석식노가 粘土土이나 土床으로 변모한 노가 복합된 철정리Ⅱ(A-32·54호)와 외삼포리(2호), 춘천 신매대교(26호)와 거두2지구(1·4·13호), 거례리(2~4구간 다수), 신매사적(1-4호) 등과 같이 위석식노를 채용한 주거지가 다수 있다. 이들 주거지 중심기둥은 2열의 주공식을 갖춘 것도 다수 있는데 미사리식주거지 2열초석의 영향 가능성이 높다.

역삼동유형취락은 전반적으로 주거지와 수혈유구, 공방 정도로 구성되어 단순한 편이고, 대형취락으로 추정되는 용암리도 공방주거지(炭床住居址), 소형방형주거지, 수혈유구 등으로



<도면 13> 용암리 역삼동유형취락



<도면 14> 거례리(3~4구간) 역삼동유형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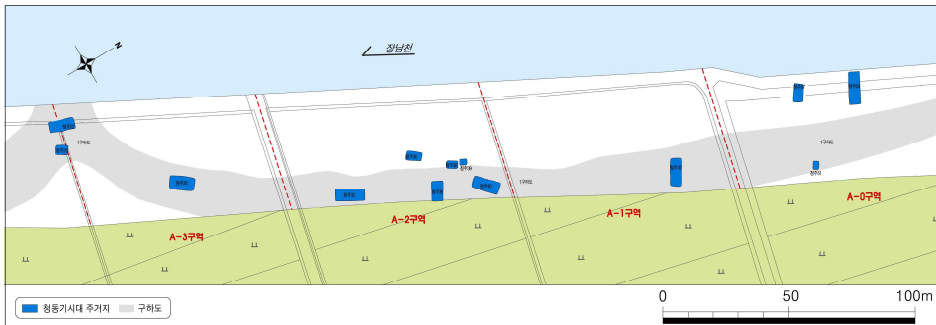
유사하다. 역삼동유형취락과 관련하여 우두동, 철정리Ⅱ, 외삼포리 등의 유적에서는 소수의 석관묘나 석곽묘, 주구묘가 취락 주변에 독립적 분포 양상을 보이지만, 후반에(말)는 천전리 A지역에서 주구묘가 군집을 이루기 시작하고 주거공간과 구분된 분묘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구묘는 천전리, 신매리, 중도동 등 춘천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홍천강유역의 철정리(Ⅱ), 북한강 최상류의 양구 고대리와 하류의 양평 양수리, 남한강유역의 아우라지와 평

창 천동리와 종부리에서도 확인된다.



<도면 15> 거두2지구 역삼동유형취락

<도면 16> 위라리 역삼동유형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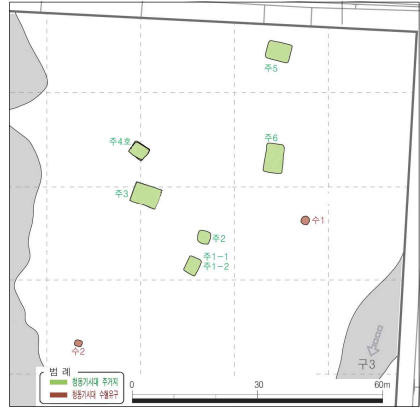
<도면 17> 철정리(Ⅱ) 역삼동유형취락

3. 조동리유형취락

남한강유역에 분포하고 조동리식주거지와 공렬토기요소로 구성된다. 조동리유형에 대하여 모호성의 지적(문수균 2024)이나 범위와 계보에 대한 이견(송만영 2013)이 있지만 발표자의 견해(2016)를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조동리유형의 취락 구조를 알 수 있는 유적은 충주 조동리, 정선 아우라지, 평창 천동리, 약수리, 후평리, 영월 주천리, 원주 태장동, 가현동, 문막리 등이다. 입지는 기본적으로 충적지이지만 후반에는 제천 능강리, 원주 반곡동, 횡성 법주리 등 소형취락이 구릉지에 분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형취락은 10기 이내의 주거지가 군집을 이루어 밀집된 面狀構造를 보이며, 가현동과 같이 취락의 규모가 커지면 多面構造를 띤다. 약수리나 아우라지와 같은 (초)대형취락의 경우 10기 이상의 단위로 복수의 주거군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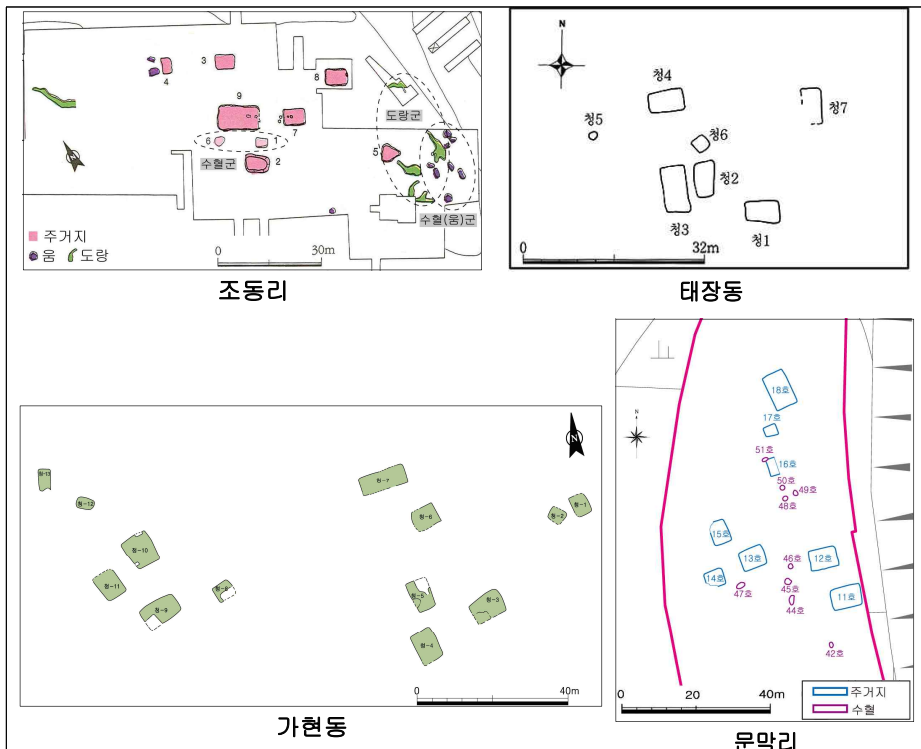
조동리유형취락의 구성을 살펴보면 소형은 비교적 단순하여 수혈유구와 구(조동리) 정도인데, 대형의 경우도 약수리와 같이 수혈유구(17기)로만 구성되기도 한다. 취락의 규모는 다양

하지만 취사시설(소형방형주거지)이 아우라지, 와석리, 태장동 등에서 1~3기씩 확인되는 것도 특징이다. 초대형취락인 아우라지(Ⅰ·Ⅱ유적)는 37기의 주거지와 수혈유구(10기) 외에 취락의 일부로 보이는 동쪽의 Ⅲ유적(어린이놀이터부지)에서 주거군 내부에 환구, 외곽에 구(환호?)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취락 인근에 전기에는 석곽묘(아우라지), 후반~말(과도기)에는 대형취락을 중심으로 석관묘(아우라지), 주구묘(아우라지, 종부리, 천동리) 등의 분묘가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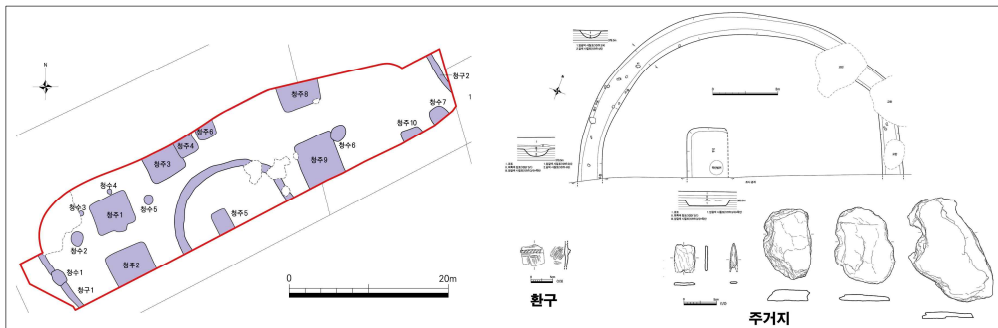


<도면 18> 후평리 조동리유형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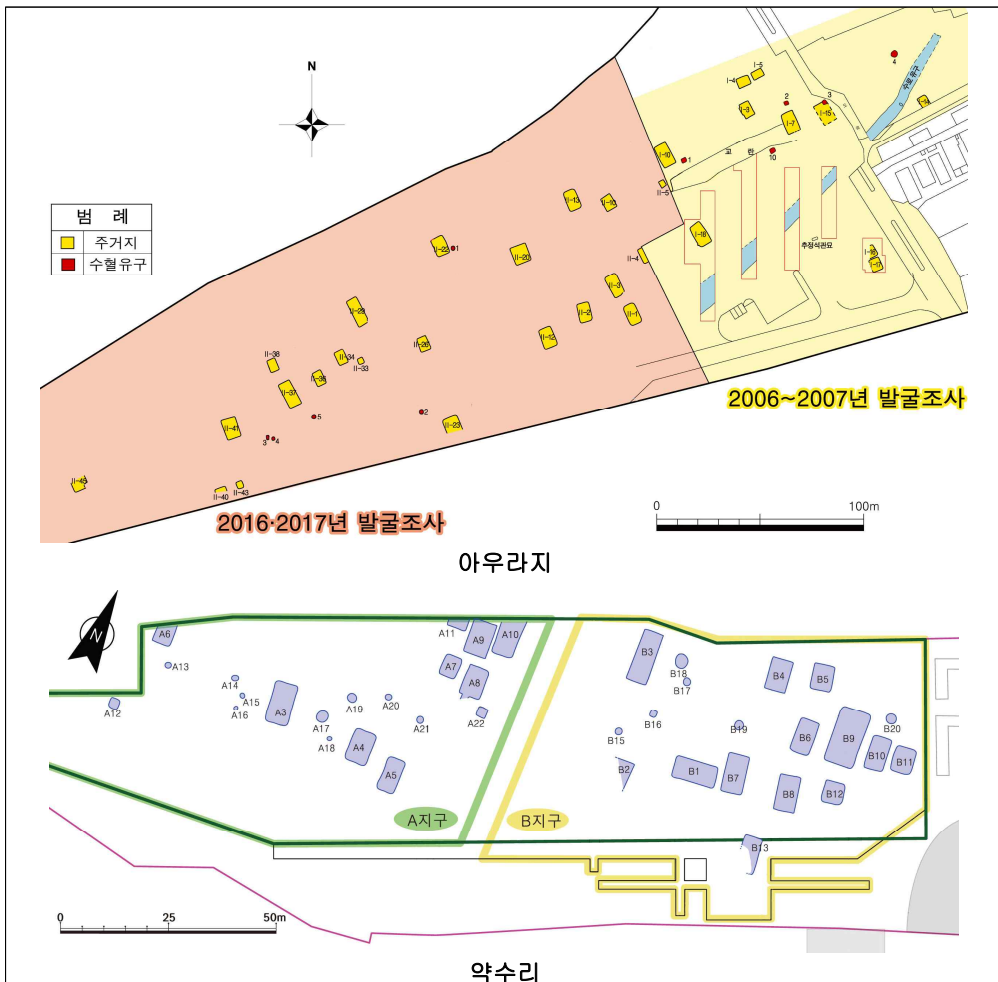
조동리유형의 일반적인 취락의 기능과 달리 출토 유물 양상으로 볼 때 석기(후평리, 마지리), 옥(조동리) 등을 제작하여 주변이나 대형 취락에 공급(김권중 2020)하는 등, 전기 후반부터 취락의 기능이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홍주희 2017)이 중기까지 이어진다. 중기에도 조동리유형취락이 지속되지만 전반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거나 감소되어 평창 마지리, 원주 반곡동(8지점) 등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현동(14호), 종부리(Ⅲ-1호) 등의 주거지가 소수만 확인되어 구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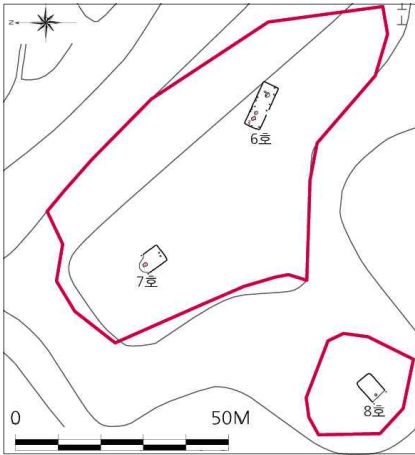
<도면 19> 조동리유형의 소형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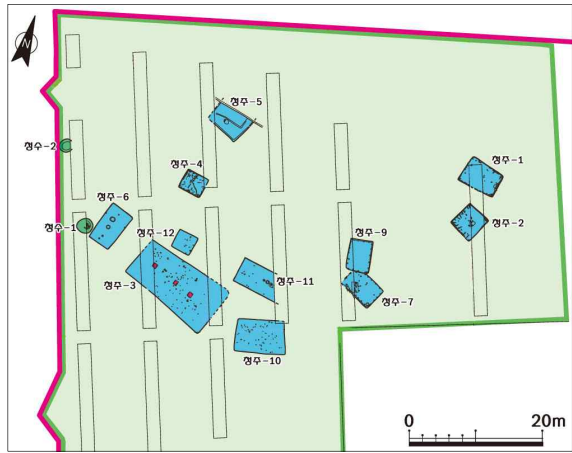
<도면 20> 아우라지Ⅲ유적 조동리유형취락의 5호 주거지와 환구



<도면 21> 조동리유형의 대형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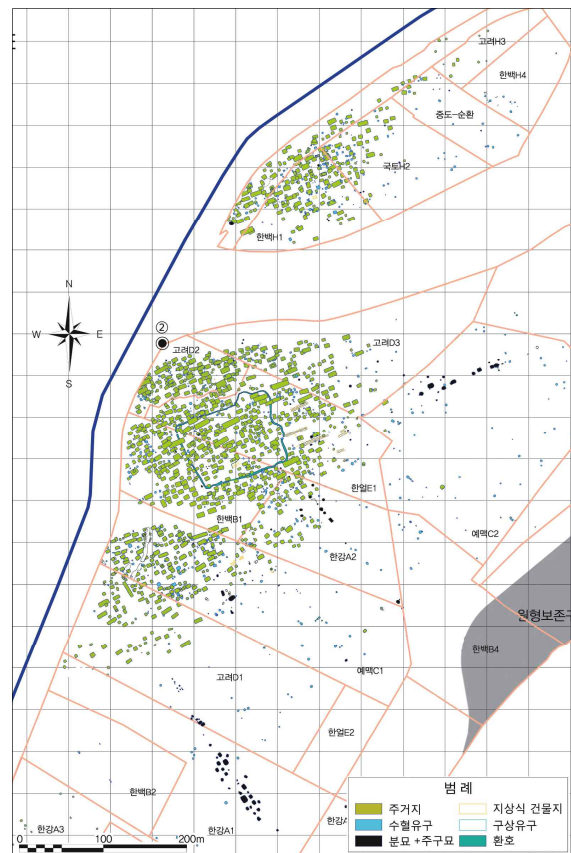
<도면 22> 반곡동 조동리유형취락



<도면 23>마지리 조동리유형취락

4. 천전리유형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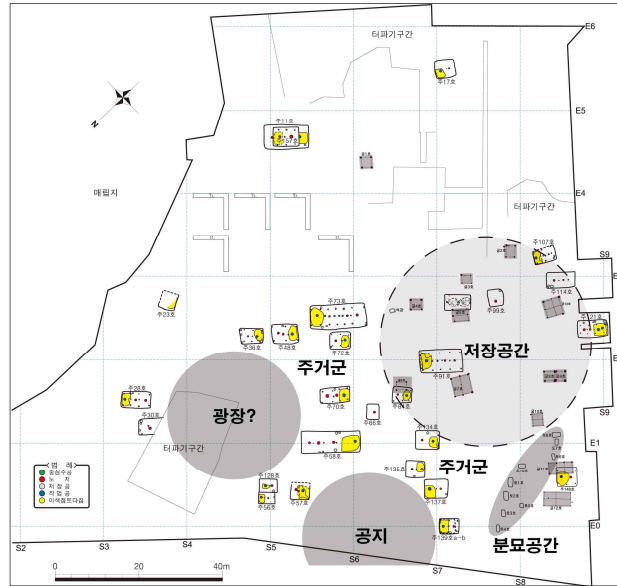
천전리유형취락은 이색점토구역과 작업공을 갖춘 천전리식주거지와 공렬 토기요소를 비롯한 각종 호류와 내만 구연토기, 일체형석축, 유구석부 등이 중요 유물이다. 취락의 구조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한 유적은 화천 용암리와 거례리를 비롯하여 천전리, 중도동, 울문리, 신매리, 우두동, 현암리 등 주로 춘천을 중심으로 북한강유역에 집중분포하고, 지류인 홍천강유역과 한강 지류에도 분포한다. 취락구조는 기본적으로 소규모는 면상구조, 대규모는 다면 구조를 띠며 환호, 수혈유구, 공방, (대형)굴립주유구와 인근에 분묘군, 함정, 경작유구 등 구성요소가 다양해진다. 천전리유형의 소형취락은 대부분 대형 취락의 일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례리(1구간)나 위라리, 문막리와 같이 독립된 소형취락은 잘 확인되지 않는 편



<도면 24> 중도동 천전리유형취락

이고 기능취락(거례리 1구간)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천전리유형의 대형취락은 중도동, 용암리, 천전리, 중도동, 읍문리 대표적이다. 각각의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중도동의 경우 환호, 공방, 저장시설(대형굴립주유구, 대규모 수혈군), 분묘군 등 취락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확인되었다. 용암리는 취락의 일부이지만 굴립주유구가 밀집되어 저장공간을 형성하고 주거군의 남서쪽으로 분묘군(토광묘), 남쪽의 공지로 구성된다. 천전리는 공간 이용방식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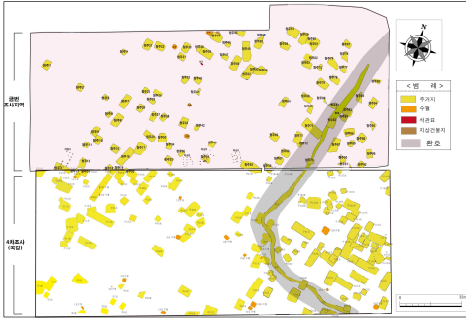
<도면 25> 용암리 천전리유형취락의 구조

적으로 A지역의 주거공간(주거지), 저장공간(굴립주유구, 수혈유구), 분묘공간(지석묘)과 B지역의 생산공간(경작유구), 수렵공간(함정)으로 구분된다. 주거지는 일반주거와 공방으로 구분되며, 분묘는 주구묘에서 지석묘로 대체되고 공간도 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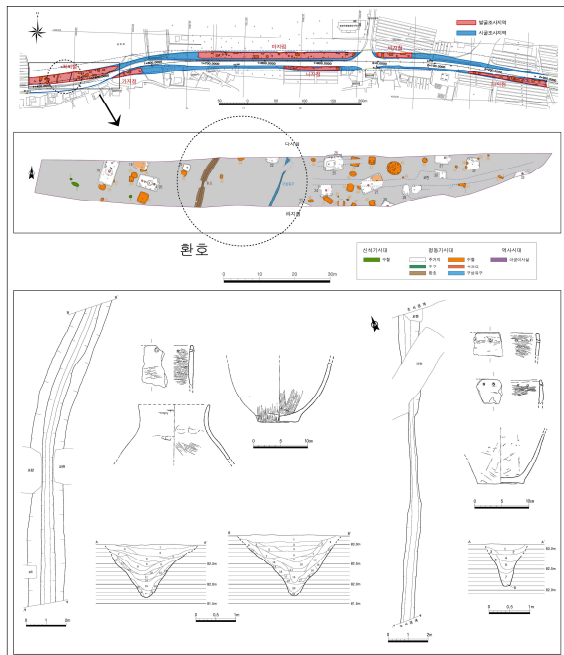
<도면 26> 천전리 천전리유형취락의 공간구조

천전리유형취락에서 환호와 (대형)굴립주유구, 대규모 저장시설은 (초)대형취락의 구성요소이다. 중도동과 97번지 일원, 울문리 84-4번지를 비롯하여 천전리 I 과 신매리 66-14번지의 구상유구도 환호로 추정된다. 환호는 출입구를 갖춘 방형이라는 점이 특징이고 천전리 I 유적은 다중환호의 가능성도 있다.



<도면 27> 울문리 84-1번지유적 환호 <도면 28> 천전리 97번지 일원 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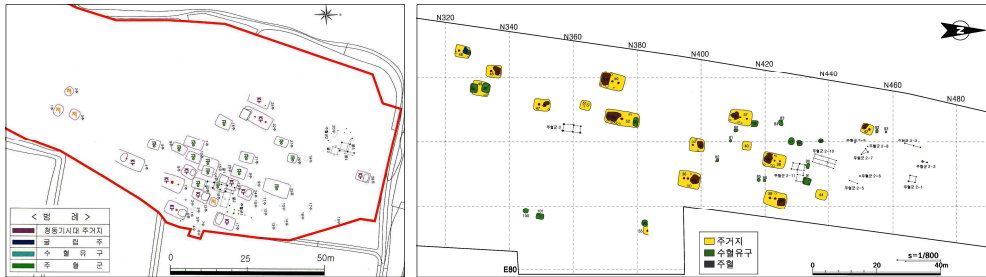
대규모 저장시설의 경우 천전리는 200기, 중도는 100기 이상의 수혈유구가 취락 외곽이나 주변의 일정구역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거례리 3구간 (강고) 북쪽구역은 천전리유형취락의 일부로서 11기의 일반주거지와 4기의 공방주거지(40·44·49·51호) 1기의 취사주거지(55호)와 10여기의 고상식창고(주혈군), 20여기의 수혈식창고(수혈유구)로 구성되어 수공업생산은 물론 다양한 저장기능을 갖춘 구성을 보이고 있다. 거례리 4-B구역서도 주거군 사이에 약 50기의 수혈유구가 두 개의 군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기 천전리유형취락은 거례리 5구간과 철정리Ⅱ 유적과 같이 여전히 대 <도면 29> 천전리 I 유적 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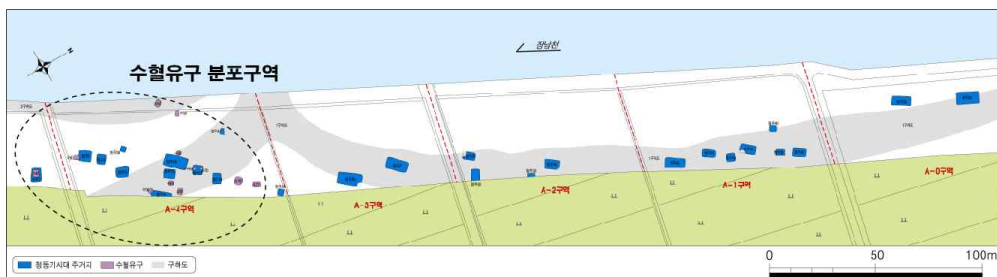
규모로 형성되지만 취락의 구성은 비교적 단순해지거나 남한강유역의 문막리와 같이 소규모로 축소되기도 한다. 철정리Ⅱ취락은 33기의 주거지와 약 50기의 수혈유구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지는 대형도 있지만 중·소형의 방형과 장방형 22기가 천전리식주거구조이며 이와 관련된 주거지가 다수 확인된다. 주거지 가운데 출토유물과 내부시설로 볼 때 노가 설치되

지 않고 탄화유기물층이나 2주공식의 주거지(18·38·44호)와 소형의 방형주거지(20·24·46·58호)는 각각 공방과 취사의 기능이 상정된다.



<도면 30> 거례리 1구간 취락

<도면 31> 거례리 3구간(북쪽구역) 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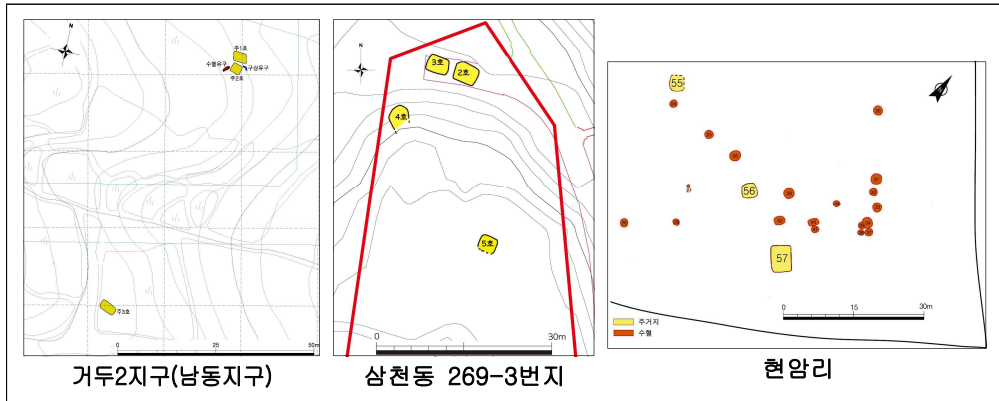
<도면 32> 철정리Ⅱ 천전리유형취락(후기)

5. 수석리유형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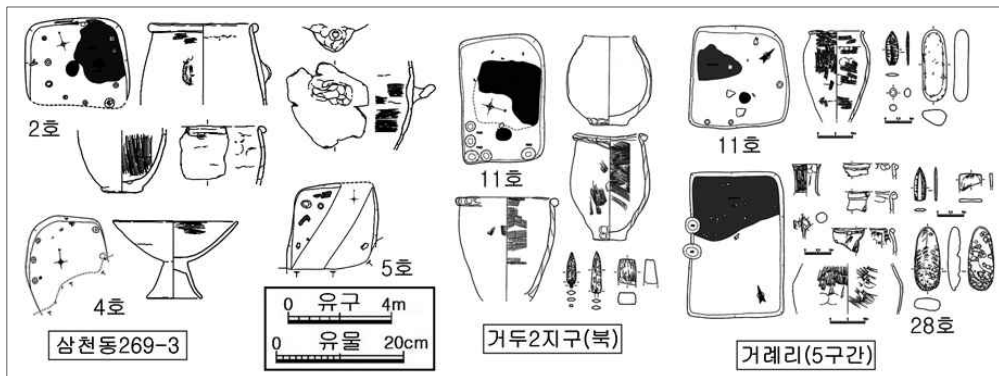
영서지역 수석리유형취락은 수석리식주거지와 점토대토기요소로 구성되지만 천전리식주거지도 포함하고 있다. 수석리유형취락은 4기 이내의 주거지와 수혈유구로 구성되며 구조상의 정형성이 보이지 않는 소형취락만 확인된다. 북한강유역의 춘천 현암리, 거두2지구(북·남동지구), 삼천동 269-3번지, 화천 거례리 등에서 취락의 구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남한강유역은 충적지인 원주 법천리 23호 주거지, 구릉지인 영월 연당리 주거지와 수혈유구 3기, 영월 삼옥리 Ⅲ지구에서 관련 수혈유구(26·28·33호)가 확인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취락의 구체적인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아우라지 I-1호 지석묘와 하리 2호 석관묘에서 점토대토기와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취락의 형성 가능성은 있다

북한강유역 수석리유형취락은 거두2지구(북·남동지구)와 같이 구릉지에 입지하기도 하지만, 현암리(55·56·57호), 거례리(5구간 11·26호)와 같이 충적지 분포가 특징이기도 하고, 또 다른 특징은 삼천동 269-3번지 2호, 거두2지구 북-11호, 거례리(5구간) 11·28호 등이 천전리식주거지라는 점이다. 한편 중도동유적에서도 6기의 주거지(E1-45호, D2·3-173호, H2-1·20호, A2-12호, 순환-12호)에서 점토대토기 관련유물이 1점씩만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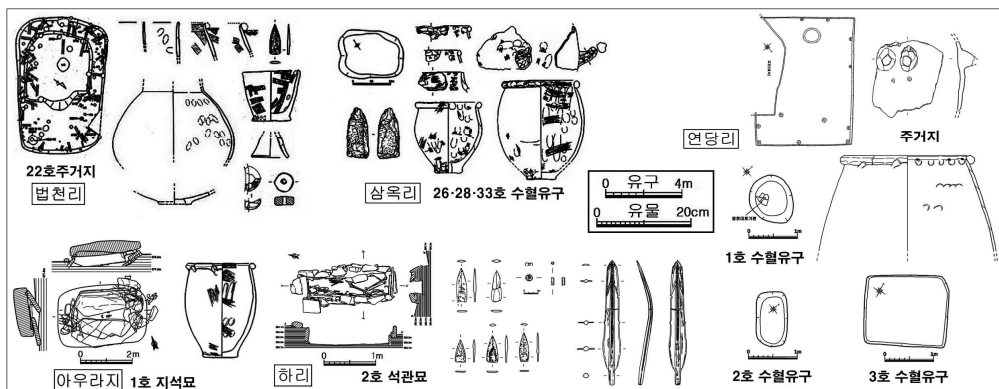
이 천전리식주거지이다. 한편 현암리취락은 다수(19기)의 수혈유구를 갖춘 특징이 있고,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천전리 B지역에서는 약 200기 이상의 수혈유구³⁾가 확인되었다.



<도면 33> 북한강유역 수석리유형의 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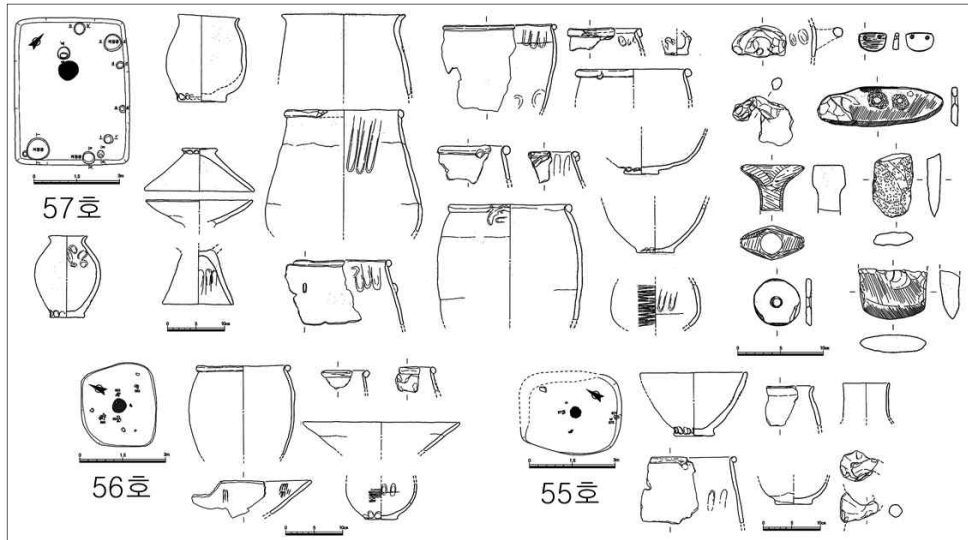


<도면 34> 북한강유역 수석리유형취락의 주거지와 출토유물



<도면 35> 남한강유역 수석리유형취락의 주거지 및 관련유구와 출토유물

3) 수혈유구에서 5점, 지표에서 2점의 점토대토기 관련유물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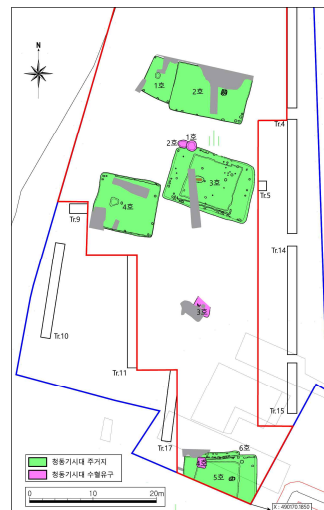
<도면 36> 현암리 수석리유형취락의 주거지와 출토유물

III. 취락유형의 시공간적 경계와 변화

1. 취락유형의 시공간적 경계

1) 미사리유형취락

영서지역에서 미사리유형취락이 형성되는 시기는 조기 전 반으로 흥천 철정리Ⅱ(C-1호 3110±60BP)와 외삼포리(3호 3080±60BP, 5호 3120±80BP) 등 3100BP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지만 상한은 명확하지 않다. 춘천 사농동의 경우 절대연대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거구조와 유물로 볼 때 조기 전반의 가능성이 있다. 철정리Ⅱ C-1·5호에서 3300BP를 상회하는 탄소연대측정치가 검출되기도 하고, 중도 동 C구역(예맥) 미사리식주거지의 팔레오라보(측정기관) 탄소 연대측정치(3240~3115BP)에 의문이 제기(김권중 2022)되기 때문에 이들 절대연대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도 동 미사리유형 취락과 동일단계로 추정되는 천전리 I 유적 주거지(56-59·64호:Ⅱ유형주거지)의 절대연대(3190~3170BP)도 천전리 일대의 주변 유적에 비해 높게 형성⁴⁾되기 때문에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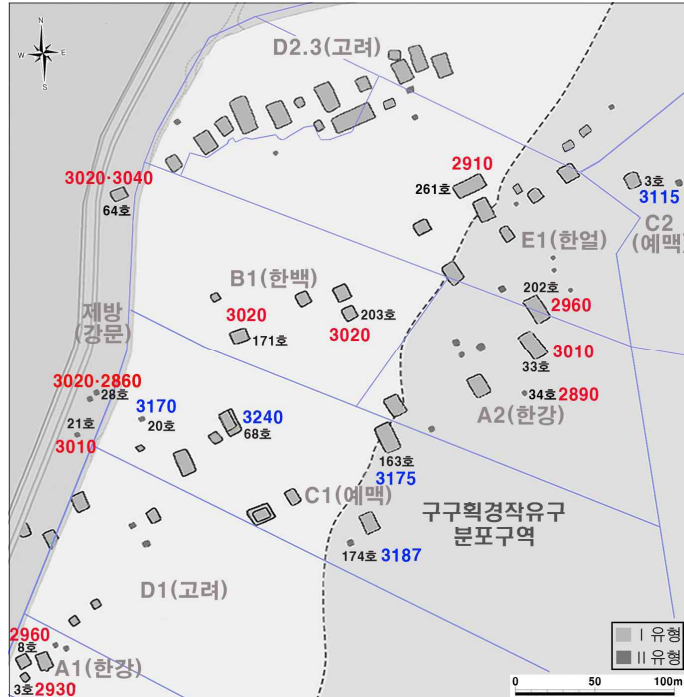


<도면 37> 사농동취락

4) 천전리유형의 주거지도 2550BP를 상회하여 천전리 일대의 유적들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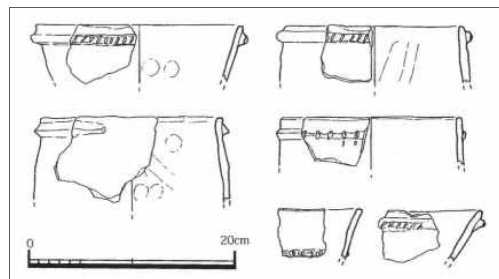
고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초기 전반에는 흥천과 춘천을 중심으로 소형취락을 형성하고, 후반에는 춘천의 신매리, 근화동, 거례리와 화천, 흥천, 가평 등으로 확산된다. 미사리유형취락은 전기 전반까지 이어지는 금산리(2950~2820BP)와 신매사적(2920~2860BP)을 감안하면 적어도 2850BP경까지 존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강유역은 초기 후반에서야 미사리유형취락이 등장한다. 많은 유적이 조사되지 않았고, 유물의 형식으로 볼 때 이르게 판단되는 제원 황석리를 감안한다면 여전히 이른 시기에 취락 형성 가능성은 있다. 탄소연대측정치가 천동리(예맥) 2호 3120±50BP, 아우라지 II-11호 3100±40BP로 검출되었지만 나머지는 3010BP 이하가 대부분이다. 결국 현재까지 초기 전반이나 3100BP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사리유형취락은 정선 아우



<도면 38> 중도동 미사리유형취락의 절대연대

라지를 비롯하여 평창(종부리, 천동리), 영월(주천리) 등에 집중분포한다. 대부분 1~2기로 구성된 소형취락이고 아우라지와 같이 (초)대형취락으로의 성장은 초기 후반의 늦은 시점 시점(2990~2930BP)이다. 미사리유형취락의 하한은 종부리 II-2호(2910±40BP), 천동리(예맥) 2호(2930~2860BP) 등을 감안하면 2900BP를 전후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주천리(6·7호)와 아우라지(I-2호) 등 미사리유형취락에서 조동리유형취락으로의 변화는 초기 말~전기 초(2950BP경)로 판단된다.



<도면 39> 황석리 돌대문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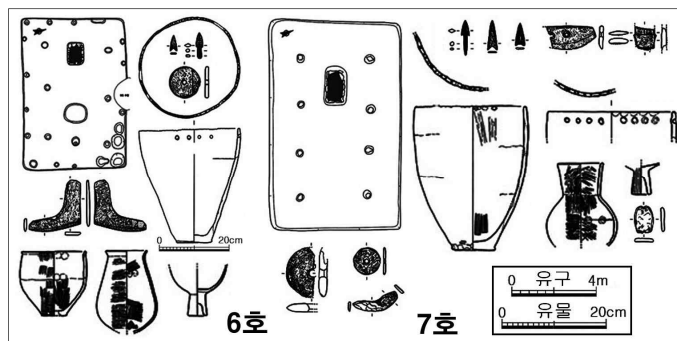
2) 역삼동유형취락

역삼동유형취락의 형성은 거두2지구 2호, 6호 등 2950BP를 상회하는 절대연대도 있지만

천전리 121-23번지 7호($2930 \pm 30\text{BP}$), 외삼포리 2호($2940 \pm 60\text{BP}$), 용암리 93호($2930 \pm 50\text{BP}$) 등의 연대를 고려하면 역삼동유형 취락의 형성은 2950BP경으로 판단된다. 이후 역삼동유형 취락은 춘천을 비롯하여 화천, 홍천 등 북한강 상류 전역과 홍천강유역에서 확인되고, 후반에는 하류(대성리)와 남한강의 합수지점(양수리), 최상류인 양구(고대리)까지 확산되는데 주구묘의 분포와 등장시점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역삼동유형취락의 하한은 위라리(1호 $2760 \pm 29\text{BP}$, 15호 $2785 \pm 21\text{BP}$), 천전리 I(20호 $2760 \pm 25\text{BP}$), 양수리 1138번지(3호 $2725 \pm 20\text{BP}$) 등의 주거지 절대연대를 감안하면 2750BP 전후로 판단된다. 이보다 이른 시점(2800BP경)인 전기 후반(말)부터 역삼동식주거지의 변이가 발생하여 용암리식과 고대리식 주거지가 등장한다.

3) 조동리유형취락

조동리유형은 미사리유형을 기반으로 한 주거구조의 변화와 공렬토기문화의 영향이나 수용으로 형성된다. 취락의 본격적인 조성은 전기 전반으로 남한강 상류인 정선, 영월 평창 등 미사리유형취락의 주분포지와 동일하게 확인된다. 점차 주 <도면 40> 주천리 6·7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변지역으로 확대되어 전기 후반에는 남한강유역 전체와 남쪽으로 낙동강 상류역(영주 가흥동)까지도 확장된다. 조동리유형의 형성시점⁵⁾은 조기 말~전기 초인 2950BP 전후로 판단된다. 미사리유형에서 조동리유형으로의 계기적인 변화는 주천리 6·7호 주거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주거구조는 석상위석식노의 소멸과 점토상이나 토상 노로의 변화와 소형화, 격벽 구조⁶⁾의 소멸, 복수노의 증가, 초대형주거의 감소, 초석의 탈락 등(김관중 2020)을 들 수 있다. 조동리유형취락은 2800BP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중기까지 이어지지만, 중기의 편년 가능성(金權中 2010, 2016)을 제시할 정도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는 마지리, 반곡동(8지점), 가현동(14호, 지표), 태장동(지표), 종부리(Ⅲ-1호) 등의 유구와 유물, 중기의 절대연대⁷⁾로 볼 때 2750~2600BP 사이에 존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조동리유형의 물질문화는 거의 확인되지 않아 취락의 해체나 소멸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후평리(중부), 천동리(예맥: $2460 \pm 40\text{BP}$), 태장동 8호 유구($2520 \pm 50\text{BP}$) 등을 감안하면 소규모 집단으로 존속

5) 문막리 12호 $2990 \pm 50\text{BP}$, 종부리 Ⅱ-3호 $2970 \pm 50\text{BP}$, 와석리 Ⅰ-3호 $2980 \pm 40\text{BP}$, 아우라지 167-9번지 $2950 \pm 30\text{BP}$ 로 검출되어 2950BP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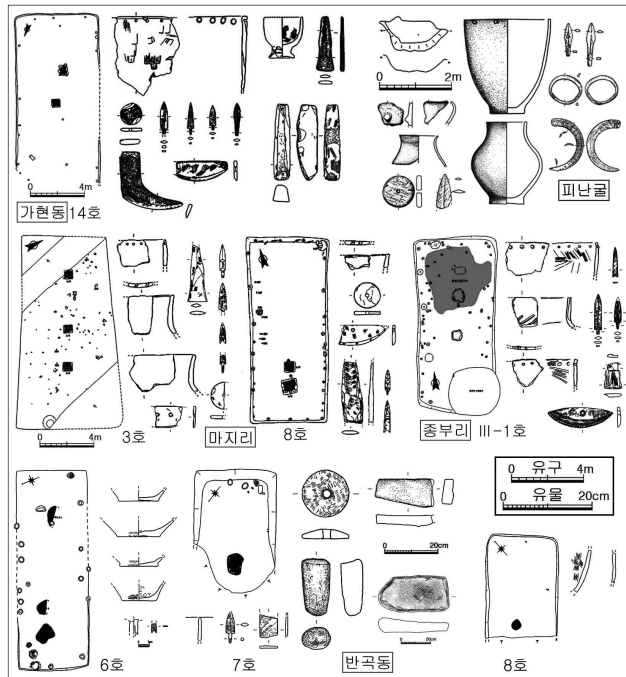
6) 아우라지 167-9번지와 같이 격벽구조가 남는 경우도 있다.

7) 종부리 Ⅲ-1호 $2740 \pm 60\text{BP}$, 마지리 4호 $2685 \pm 50\text{BP}$ 와 8호 $2620 \pm 50\text{BP}$ 이다.

가능성이 있다.

4) 천전리유형취락

천전리유형취락의 형성에 앞서 역삼동식주거지가 자체적으로 용암리식과 고대리식 주거지의 변이과정을 거쳐 천전리식주거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는데, 용암리식과 고대리식 주거지의 절대연대⁸⁾는 2800~2750BP이고 전기 후반의 늦은 시점이나 말이다. 천전리유형이 완성되는 시기는 이보다 늦은 2750BP를 전후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천전리유형취락의 형성은 북한강 상류인 화천과 춘천, 양구 일대로 추정되고, 중도동과 같은 (초)대형 취락의 형성은 2600BP 이후인 중기의 늦은 단계로 판단된다. 후기에도 중심취락을 형성하며 2350BP까지 지속되고 이후 급



<도면 41> 남한강유역 중기의 편년

격하게 소멸된다. 천전리유형취락은 중기 늦은 시점이나 후기에는 북한강 하류(양평 양수리)와 한강 지류(왕숙천, 경안천)의 충적지-남양주 장현리, 진접지구와 구릉지-광주 역동, 용인 영문리 등으로 넓어진다. 후기에는 남한강유역(원주 문막리)과 원거리인 한탄강유역(연천 합수리)까지도 확산된다.

5) 수석리유형의 취락

강원 영서지역에서 수석리유형취락의 형성은 절대연대를⁹⁾ 감안하면 적어도 2500BP경으로 보이지만,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중도동 A2구역 12호 주거지(2520±40BP), 온의동 3호

8) 고대리유적 고대리식주거지의 절대연대는 이상치로 판단되는 것(13·31·48·83호)을 제외하면 2830~2600BP로 비교적 폭넓게 확인된다.

9) 철정리Ⅱ 46호(2460±50BP), 현암리 55호(2340±40BP)와 57호(2460±50BP), 거례리(江文) 11호(2410±40BP, 2360±40BP), 거례리(한백) 103호(2340±40BP), 삼천동 269-3번지(2호 2440±40BP, 3호 2450±40BP, 4호 2510±40BP), 법천리 22호(2370±30BP), 천동리(예맥) 1호(2460±40BP) 주거지 등이다.

수혈유구(2505±25) 등으로 볼 때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석리유형취락은 춘천(중도동, 천전리, 현암리, 거두리, 삼천동, 온의동, 칠전동), 홍천(철정리, 성산리), 화천(거례리)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강유역에 비해 북한강유역에서 안정적인 취락의 형성 가능성이 높고 광범위하다. 전반적으로 영서지역 수석리유형취락은 2350BP를 전후하여 감소하는 경향이고 하한은 2300BP 이후로 보인다.

2. 취락유형의 변천과정

취락유형의 변천과정은 양 유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취락유형 간 상호교류에서 주체가 되는 집단의 태도나 선택에 따라 재지문화와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변천과정은 발표자의 시기구분에 따라 초기-전기-중기-후기의 4단계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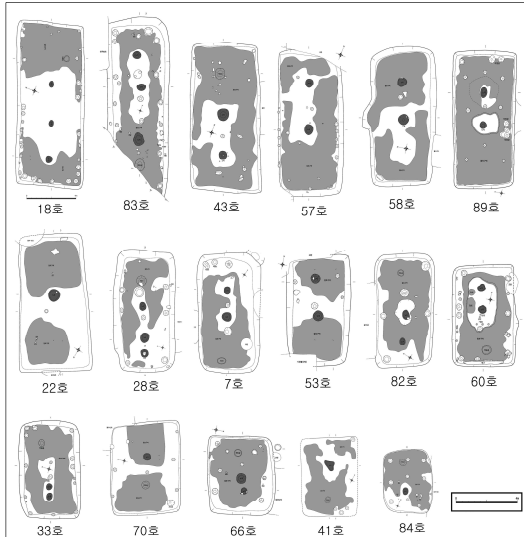
1) 북한강유역

북한강유역 취락유형의 시기별 변천은 미사리유형 → 미사리·역삼동유형 → 천전리유형 → 천전리·수석리유형으로 정리된다. 한강 하류에서 유입된 미사리유형 집단은 초기 전반에는 소형 취락을 형성하고 후반에는 곳곳에서 (초)대형취락으로 성장한다. 이후 미사리유형은 전기의 이른 시기까지 지속되지만 감소하는 경향이다. 초기 후반(말?)부터 공렬토기문화의 영향으로 일부 요소-토기, 석기, 주거구조(평면형태, 노)를 수용하는 양상도 보인다. 전기 전반부터 역삼동유형 집단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재지 주거문화에 영향을 끼쳐 복합 또는 변이의 양상을 보이지만 길게 지속되지 않는다. 미사리유형집단의 감소와 더불어 외래집단인 역삼동유형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역삼동유형취락은 미사리유형의 주거구조-위석식노와 일부 유물-토기, 석기를 수용하기도 하지만 북한강유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취락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역삼동유형은 기원지가 분명하지 않은 탓에 영서지역도 어느 지역에서 유입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한강유역으로 추정(김권중 2005)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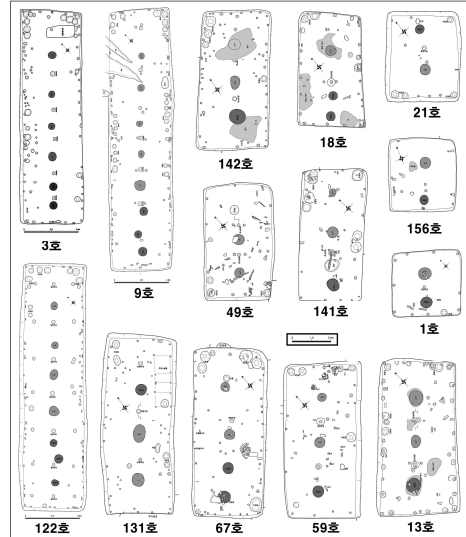
전기 후반에는 미사리유형취락을 대체하여 역삼동유형취락이 주류를 이루고 재지집단으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천전리, 신매리, 거례리, 철정리(Ⅱ) 등의 지역에 분묘군이 형성되고 지역성이 강해져 경기지역이나 다른 지역 역삼동유형과 차별성을 보인다.(김권중 2008)

역삼동유형취락은 전기 후반의 늦은 시점에 내적변화가 발생한다. 소위 용암리식과 고대리식이라는 과도기적 주거구조가 형성되며 이 과정을 거쳐 천전리식주거지가 완성된다. 천전리식주거지의 계보는 역삼동식주거지에 작업공과 이색점토구역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형성되는 설(김권중 2004)과 양구 고대리유적 발굴조사를 계기로 노 주변을 제외한 전면에 점토다짐을 한 고대리식주거지를 거쳐 완성되었다는 설(홍주희 2016)로 구분된다. 고대리식주거지에 대해 천전리유형 중심지인 춘천, 화천 지역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역

적 변이로 보았지만(김권중 2020), 춘천지역에도 다수의 고대리식주거지¹⁰⁾가 천전리식주거지에 앞선 이른 절대연대치(2760~2720BP)도 보이고, 유물상에서 용암리식주거지단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갈래의 변화과정을 모두 인정할 만하다.



<도면 42> 고대리식주거지(고대리)



<도면 43> 용암리식주거지(용암리)

천전리유형취락은 중기 전반부터 춘천, 화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후반부터 중도동, 천전리, 울문리 등에 환호, 대형굴립주유구, 대규모 저장시설(수혈유구), 공방 등을 갖춘 초대형 취락을 형성하여 중심취락으로 성장하며 후기에도 지속된다. 후기에는 수석리유형의 집단이 유입되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재지집단과의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재지집단이 취락 내부나 인근지역에 외래집단의 정착을 허용하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배려하는 호혜적 관계를 이룬다.

2) 남한강유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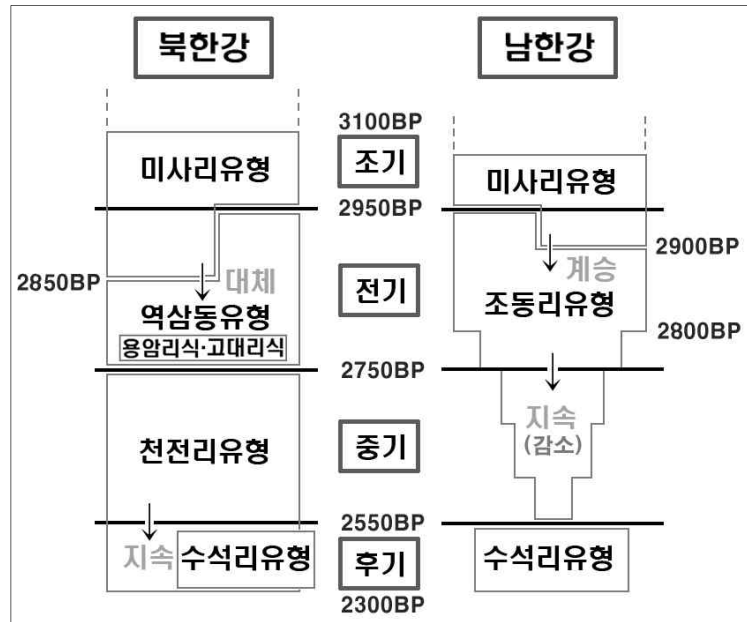
남한강유역 취락유형은 미사리유형 → 조동리유형 → 조동리유형 → 수석리유형으로의 변천과정을 보인다. 미사리유형취락은 초기 전반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초기 후반에 이르러 다양한 규모의 집단이 이주·정착하여 재지집단으로 성장하고 전기의 이른 시기까지 지속된다. 미사리유형은 초기 말~전기 초에 주거구조-(점토상)위석식노로의 전환과 소형화, 격벽 구조와 초석 탈락 등 내적변화를 보인다. 공렬토기문화-토기·석기 등이 재지문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지만 미사리유형집단을 대체할 역삼동유형집단의 대규모 유입은 설명하기 어렵다.

10) 천전리 78-1번지 3·4호(2490±40), 중도동 E1-74·102호 등의 주거지를 고려하면 늦은 시기까지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 전반부터 재지문화로 성장한 조동리유형은 (초)대형취락을 형성하고 후반에는 기능취락이 등장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며, 중기까지 지속되지만 급감하는 양상이다. 중기 조동리유형취락의 해체는 급속하게 진행되지만, 원주를 중심으로 존속하거나 구릉지로의 입지 변화도 보인다.

후기에는 조동리유형취락 해체의 결과로 천동리(예맥), 후평리 등과 같이 극히 일부가 소규모 취락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멸에 가까운 양상이다.

따라서 외래의 수석리유형집단과의 교류양상도 확인하기 어렵다. 수석리유형취락이나 점토대토기문화도 산발적 양상이며 대규모 취락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점차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석리유형집단의 분묘조성도 보이지만 재지분묘-지석묘를 수용(재사용)하는 양상이



<도면 44> 영서지역 취락유형의 변천 모식도
확인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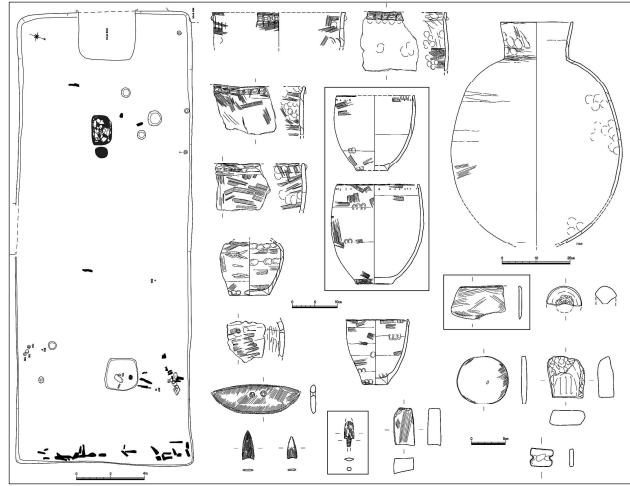
IV. 취락유형의 교류양상

영서지역에서 상호교류를 통한 물질문화의 변동의 원인을 주민이주, 기술전파, 단순유통, 문화수용(김권중 2020) 등으로 설명한 바 있다.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 간 상호교류는 몇 가지 형태로 확인되며 집단의 정체성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직접적인 주민이주에 따른 문화-도구, 기술의 전파에 따라 외래문화나 재지문화를 수용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주민이주는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된다. 대규모 이주는 미사리유형, 역삼동유형, 수석리유형 집단의 이주이다. 미사리유형집단은 공백지에 가까운 영서지역에 순조로운 이주과정을 보이며 재지집단-즐문토기집단과의 교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다. 다만 중도동유적 환저무문토기는 재지집단과의 교류에 의한 변이의 가능성도 있지만 영서지역에서 즐문토기집단과의 시기적 접점이 없어 가능성은 낮다.

북한강유역에서 역삼동유형 집단의 이주에 따른 취락의 본격적인 형성은 전기부터이지만 초기 후반부터 공렬토기문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도동 D2·3구역 108호, 거례리 20호, 달전리 33호 주거지 출토



<도면 45> 중도동 D2·3구역 108호 주거지와 출토 유물(공렬토기, 이단경식석축, 편인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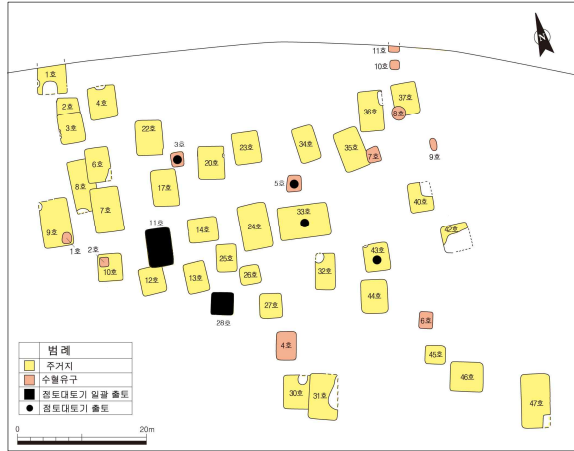
리유형취락에서 보이지 않던 유물의 종류와 형식이다. 이 시기 외래의 역삼동유형취락의 존재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렬토기문화-도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미사리식주거지의 세장화 경향도 역삼동유형의 주거구조의 영향으로 보이고, 전기 전반의 금산리, 신매대교 등에서도 확인된다.

전기에는 역삼동유형집단의 본격적인 이주로 인해 미사리유형집단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미사리유형집단은 공렬토기문화의 수용, 주거구조의 세장화, 석상위석식노의 위석식화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반면, 외래의 역삼동유형집단은 미사리유형의 주거구조(위석식노)와 유물(돌대문토기요소)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양집단의 개방적 관계 형성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남한강유역은 역삼동유형집단의 대규모 이주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지의 미사리유형집단이 공렬토기문화-공렬토기, 편인석도, 이단경식석축 등을 수용하는 변화와 전기까지 미사리식 주거구조-평면 장방형화, 2열주공, (점토상)위석식노 등의 변화가 보이지만 역삼동식 주거구조의 적극적인 수용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미사리식주거지 자체변화의 결과이고 조동리유형의 형성을 공렬토기문화가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김권중 2016)로, 북한강유역의 미사리식주거지 변화와 차이를 보인다.

수석리유형집단의 이주에 따른 교류양상은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강유역 외래의 수석리유형집단은 재지의 천전리유형집단과 상호교류를 통해 특정한 관계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수석리유형집단이 재지집단과의 마찰을 피해 高地에 입지하는 양상과 달리, 북한강유역에서는 재지취락의 내부나 주변에서 공존양상을 보인다. 재지취락 내의 공존양상을 보면, 거례리(강문)유적은 천전리유형취락으로 11·28호는 천전리식주거지에 점토대토기 일괄유물이 출토되어 재지집단이 외래집단의 취락 내 거주를 허용한 것으로 보

인다. 이형원(2005)¹¹⁾의 가설인 관창리형 취락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이와 달리 현암리유적의 경우 남쪽 중도동 취락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바 있는데, 취락의 규모에 비해 다수의 저장시설(수혈-대형토기)¹²⁾을 갖춘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저장이나 유통을 담당하는 기능취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김권중 2020). 현암리 수석리유형집단은 재지취락 내부가 아닌 주변에 분포하며, 재지집단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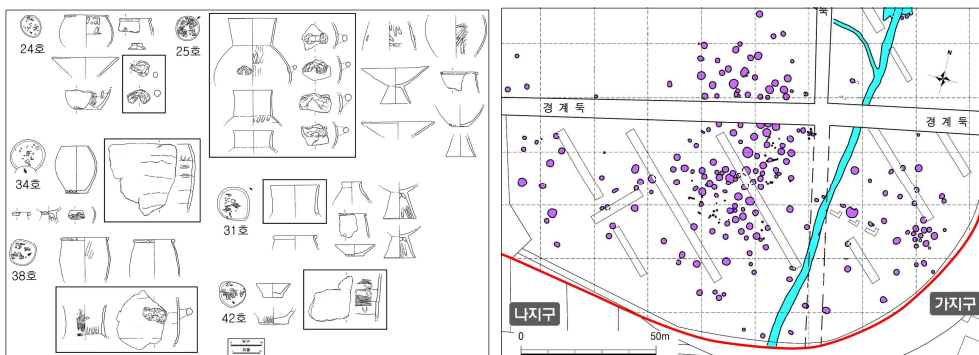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여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전리유적(B지역)도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약 200기의 대규모 저장시설-수혈유구는 이를 관리하는 (외래)집단의 가능성이 추정된다. 결국 이들 수석리유형취락이나 관련 유구는 재지집단이 외래집단의 공존을 허용하거나 일정한 기능적 역할 부여를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공존양상은 양 집단의 상호교류를 통한 호혜적 관계 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도동과 같이 재지집단이 외래 점토대토기문화를 일부 수용하기도 하며, 외래집단이 거두리(2지구)와 삼천동(269-3번지)과 같이 독립적인 취락을 형성하지만 구릉지임에도 재지 집단의 주거구조-천전리식주거지를 채용하기도 한다.

남한강유역은 재지취락-조동리유형취락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될 정도로 급감하기 때문에 수석리유형집단과의 교류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수석리유형집단이 재지분묘-지석묘의 재사용 가능성을 추정할 바 있다(김권중 2022).

11) 관창리취락(송국리유형)과 교성리취락(수석리유형)의 접촉양상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창리유적은 재지문화(주거구조, 유물)가 주체를 이루면서 외래요소(유물)를 수용하는 양상인 반면 교성리유적은 외래문화(주거구조, 유물)가 주체를 이루면서 재지요소를 일부 수용하는 양상으로 이해하였다. 전자를 “관창리형 취락”, 후자를 “교성리형 취락”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재지계 선주민과 외래계 이주민 간에 상대방 집단의 특징적인 유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공유하는 “교류”의 양상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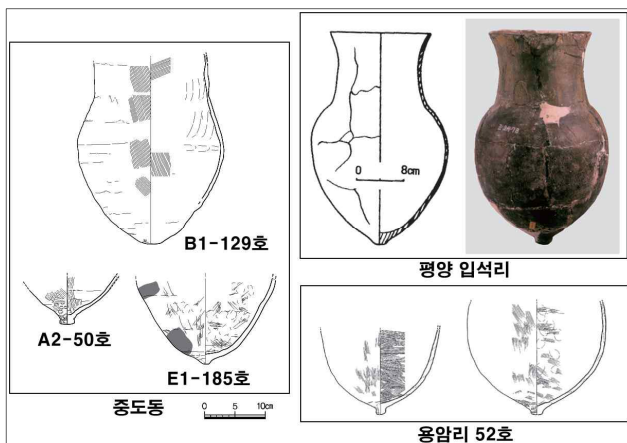
12) 19기 가운데 18기에서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소형토기를 비롯하여 대형의 (우각형파수부)장경호와 대형토기 등 96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유구당 석기는 1~2점으로 13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두 단순한 파손품이다. 대형토기는 8기의 수혈유구에서 17점이 출토되었고 25호에서는 7점이 출토되었다. 이들 수혈유구는 소형인 27호가 지름 1.0m, 나머지는 지름 1.2~2.3m 정도의 규모이다.



<도면 47> 현암리 수혈유구와 출토 토기류(□ : 대형토기)
<도면 48> 천전리 B지역 수혈유구

소규모 집단의 이주는 각형토기집단과 송국리집단의 유입 사례가 있다. 각형토기집단의 이주 사례는 용암리 52호와 중도동 A2-50호, B1-129호, E1-185호 주거지에서 변형각형토기가 출토된 것이다. 용암리 52호 주거지는 각형토기문화의 편년에서 대동강유역 각형토기문화 확산기인 3단계-중기로 설정된 바(최종모 외 2006) 있고, 절대연대¹³⁾로 보아 소규모 각형토기집단의 존속이나 기술적 전통이 후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국리집단의 이주 사례는 달전리 8호 송국리식주거지와 거례리 4-B구역 14호 주거지 출토 삼각형석도를 들 수 있다. 달전리 8호 송국리식주거지는 재고의 여지가 다소 있지만, 거례리 4-B구역 14호 주거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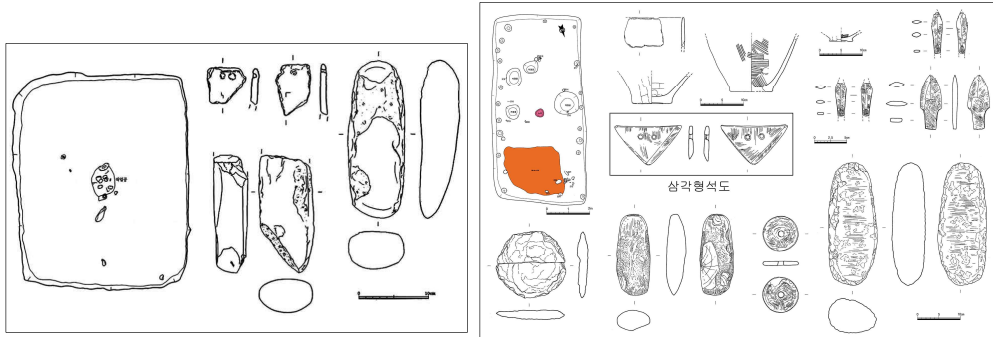


<도면 49> 평양 입석리와 영서지역 출토 변형각형토기

천전리식주거지이다. 영서지역에서 송국리식주거지와 삼각형석도 외에는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각형석도는 단순유통의 가능성도 있다. 송국리문화가 경기 남부지역까지 확인(김권중 2019)되지만 영서지역은 그다지 영향이 없다. 따라서 송국리집단의 소규모 이주에 의한 단순한 유물의 수용이나 유통의 양상으로 보아 기술적 전승 없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13) 용암리 52호, 2630±50BP, 중도동 A2-50호 2500±40BP, B1-129호 2480±30BP, 2490±40BP이다.

결국 소규모 집단의 이주에 따른 재지집단과의 교류 결과이지만, 큰 영향은 없고 지속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도면 50> 달전리 8호 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51> 거례리 4-B구역 14호 주거지와 삼각형석도

한편, 양 유역 취락유형 간 상호교류 양상도 추정된다. 남한강유역 문막리취락의 사례를 본다면 북한강유역 천전리유형집단의 확산에 따라 소규모의 주민이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우라지, 천동리, 종부리의 주구묘와 종부리 Ⅲ-1호 천전리식주거지 등도 소규모 이주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양 유역의 취락 간 상호교류를 통해 역삼동유형의 주거문화나 분묘문화가 조동리유형취락에 전파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V. 맺음말

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은 전국 단위의 미사리유형, 역삼동유형, 수석리유형은 물론 재지화한 지역유형인 천전리유형과 조동리유형이 새로이 생성되어 취락을 형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동화리유형(이중구연토기유형)취락의 상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영서지역의 지역유형인 조동리유형과 천전리유형을 파생유형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성춘택 외 2018). 전국 단위에서 보면 기층유형에서 갈라져 나와 생성된 것이므로 파생유형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기존의 기층유형이 사라지고 이를 계보적으로 대체한 유형이므로 새로운 기층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각의 취락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의 이주에 따른 문화전파와 상호교류 또는 내적요인에 의해 새로운 물질문화의 생성과 발전, 소멸 과정을 거친다. 기존 물질문화를 계승하거나 대체하는 과정이 파악되고, 이 과정에서 복합이나 변이의 양상도 확인하였다. 특히 재지집단과 이주집단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여러 결과와 함께 특정관계의 형성도 확인되었다.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양 유역의 전개과정 또한 상이한데, 이러한 차이는 취락집단이 가진 정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형적 요인도 함께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일한 유형의 취락집단이라도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적응방식과 선택, 물질문화의 수용태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체성 차이는 집단 간의 교류양상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참고문헌>

- 金權中, 2004, 「北漢江流域 青銅器時代 住居 類型과 中期 設定 試論」, 『文化史學』22, 韓國文化史學會.
- 金權中, 2005, 「北漢江流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龍岩里, 泉田里 遺蹟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權中, 2008, 「青銅器時代 周溝墓의 發生과 變遷」, 『韓國青銅器學報』3, 韓國青銅器學會.
- 김권중, 2016, 「早洞里類型의 時·空間的 正體性」, 『고고학』15-1, 서울경기고고학회.
- 김권중, 2019, 「중부지방 송국리문화의 제 양상과 성격 연구」, 『韓國青銅器學報』25, 韓國青銅器學會.
- 金權中, 2020, 「嶺西地域 青銅器時代 文化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김권중, 2022,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이상길교수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이상길 교수 10주기 추모 행사추진위원회·한국청동기학회.
- 김권중, 2022, 「남한강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의 변천과 그 의미」,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개설 50주년 기념 논총:지역문화연구의 탐색과 전망』, 헤리티지 연구총서2, 영남대학교.
- 문수균, 2024, 「남한강 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전개양상과 조동리유형」, 『조동리유적 재조명』 제3회 CBNU 박물관 학술포럼.
- 성춘택·문수균·양혜민, 2018, 「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한국 청동기시대 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09, 한국고고학회.
- 송만영, 2013, 「欣岩里式 土器 發生의 再檢討」, 『韓國上古史學報』79, 韓國上古史學會.
- 李亨源, 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 『湖西考古學』12, 湖西考古學會.
- 홍주희, 2016, 「천전리식 주거의 출현과정에 관한 새로운 견해」, 『韓國青銅器學報』19, 韓國青銅器學會.
- 홍주희, 2017,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공방에서의 석기 생산방식 검토」, 『韓國青銅器學報』20, 韓國青銅器學會.
- 최종모·김권중·홍주희, 2006, 「각형토기문화유형의 연구」, 『야외고고학』창간호, 한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회.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경계와 교류」에 대한 토론

홍주희(강원고고문화연구원)

금번 학술대회는 아마도 특정 문화유형으로 대표되는 지역집단의 시·공간적 경계와, 문화 접촉의 결과를 통해 집단 간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계획된 것이라 짐작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발표자는 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전 시기 취락을 대상으로 문화유형의 시·공간적 변화와 집단 간 상호작용에 대해 논하였다.

토론자 역시 발표자가 제시한 문화 전반의 변천과정에 동의하지만, 발표자가 제시한 문화유형의 설정과 편년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이견이 있다. 토론에 앞서 전 시기에 걸친 각각의 문화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모두 고려하기에는 토론자의 역량이 부족함을 밝혀둔다. 본 토론문은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1. 미사리유형취락과 관련하여

1) 발표자는 미사리유형취락의 시간적 범위가 초기에서 전기 전반(절대연대 상으로는 약 250여년)에 이르며, 대형과 소형 방형주거지를 합산해 78동의 주거지가 조사된 중도동유적과 아우라지유적을 (초)대형취락으로 보았다. 유구배치도 상에서 주거지간 중복관계가 없다하더라도,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돌대문토기에 부착된 돌대의 위치이동, 구순외단각목문토기, 공열문·구순각목문토기 등의 유물조합이나 전기 토기문양의 복합이 어느 정도 시간성을 보이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토론자는 세부 편년이 가능하다면 취락의 규모는 동시기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두 유적 모두 동시기로 판단하는지 세부편년이 가능한지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발표자는 중도동유적의 전기 취락의 부재를 유적 내 미사리유형취락의 금산리유적으로의 이주로 설명하였다. 토론자는 동 유적 내 4대강 사업구간에서 조사된 주구묘 조사가 있어 전기에 묘역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중도동유적 미사리유형취락의 시기를 초기로 한정하는 것인지와, 전기 취락(주거지)의 부재 즉, 공백기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미사리유형취락의 소형 방형주거지에 대한 언급 중 「식량처리구가 주로 출토되지만 무기류(석촉, 석검, 석창 등)는 거의 없다」는 서술이 있다. 소형 방형주거지는 중대형 주거지에 비해 유물의 출토량이 적은 편이고, 석검과 석창은 초기의 미사리유형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출토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역삼동유형취락과 관련하여

토론자는 천전리유형의 유물양상과 유사한 현암리유적과, 중도동유적의 일부 장방형 주거지

(천전리식 주거지의 점토다짐구역이 없는)을 통해 역삼동유형취락의 중기 또는 후기까지의 연속 점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역삼동유형취락의 전기 이후 지속적인 점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 천전리유형취락과 관련하여

1) 2000년 중반 북한강유역 중기의 대표적인 문화유형인 천전리유형을 설정한 후 중도동유적 발굴조사를 통하여 천전리유형이 후기에 이름을 인지하였고, 【도면 44】에서의 도식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기로 편년했던 기존 유적자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점토대토기유물조합과 청동기 등과 공반된 중도동유적 후기 유물조합과 비교할 때 A지구 주거지의 대부분은 후기로 편년할 수 있다.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취락의 시공간적 변화, 취락 간 관계 설정 등 취락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소지역 단위 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서 출발해야 하며, 세부편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발표자가 제시한 분묘공간, 주거 및 저장공간, 생산공간(경작유구), 수렵공간(함정군)으로 구분한 천전리유적 천전리유형취락의 구성은 취락 내 거주민의 다양한 생계활동을 반영하는 취락연구의 지향점임은 분명하다.

천전리유적의 수렵과 생산공간으로 비정한 B지역은 A지역 주거 및 저장공간, 분묘공간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살펴볼 만한 유물자료가 빈약한 편이다. 함정유구에서는 109호와 122호 단위 기에서만 석부와 일단경석축(축신이 길고 납작하고 편평한 경부와 곡선 상으로 연결된 형태)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반면 B지역의 소형 수혈(군)에서는 소형 발형토기(142호)¹⁾, 두형토기(48 . 65호), 파수(57호), 점토대토기(65 . 185호), 일체형석축(189호), 단공투공석도(82호) 등이 출토되었다. 1)의 질문에서 제시하였던 중도동유적의 후기 유물조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소형 수혈유구군을 취락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4. 수석리유형취락과 관련하여

점토대토기 구연부의 형태변화와 두형토기의 유입시점에 따라 점토대토기문화는 두 차례 가량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²⁾가 있다. 발표자가 제시한 수석리유형취락의 주거지와 출토유물을 살펴보다라도 「점토대토기+흑도장경호+무경축」과 「점토대토기+흑도장경호+두형토기+무경축」의 조합이 혼재하고, 중부지역에서 두형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지는 말각(장)방형의 평면형태에 부벽노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 점토대토기문화의 지속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이를 근거한 세부편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5. 취락의 변천과정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1) 발표자는 초기 후반에서 전기 전반의 미사리유형 집단에서 보이는 공열문토기, 석축, 석도 등의 유물조합을 역삼동유형 취락으로부터의 공열토기문화 도구 수용의 결과이며, 전기에

1) 굽 축약이 되지 않은 기면 직사선의 소형 발형토기로, 중도동유적 후기 천전리유형취락 주거지에서 주로 출토되어 후기 편년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김민경, 2014, 「요령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변천과 파급」, 『한국청동기학보』 15, 한국청동기학보.

역삼동유형 집단의 본격적인 이주로 미사리유형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하남 미사리유적 역삼동식 주거지 내부토에서의 공열문토기편 출토사례와 절대 연대를 근거로 역삼동유형을 조기로 소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자료들 중 영서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역삼동유형 자료에 대한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취락유형 변화의 동인을 취락집단 간 상호작용으로 보는 발표자의 견해에는 토론자 역시 공감한다. 하지만 거의 정설이 되고 있는 조기와 후기의 주민유입설을 제외하고, 각 시기별로 여러 성격의 물질문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각형토기 및 송국리집단의 유입 등 집단의 유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가령 재지 유물조합에 외래(계) 유물이라든가 모방 . 절충토기의 혼재 현상은 혼인이나 교역 등 다양한 방식의 인적 . 물적 교류와 수용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분포와 전개

구준모(중부고고학연구소)

I 머리말

유형론은 청동기시대 물질문화연구의 유용한 방법론으로써 그간 청동기시대 문화를 규정하고 그 성격을 밝히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물질문화를 범주화하여 집단을 구체화하고 이를 거시적인 행위의 주체로 파악한 것은 청동기시대를 단순히 생계경제에 집중하는 시대가 아닌, 세력 간의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시대임을 밝혀낸 유형론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더불어 유형론의 변질과 그에 따른 문제의식, 대안 등을 제시하는 성찰적 논의(성춘택 외 2018 ; 천선행 2024) 또한 분명 숙고하고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거론할 사안은 아니나 두 견해 모두 유형론의 유용성에 대하여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고는 이 유형론을 바탕으로 그간 진척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취락유형을 정리하여 시공간적인 분포와 전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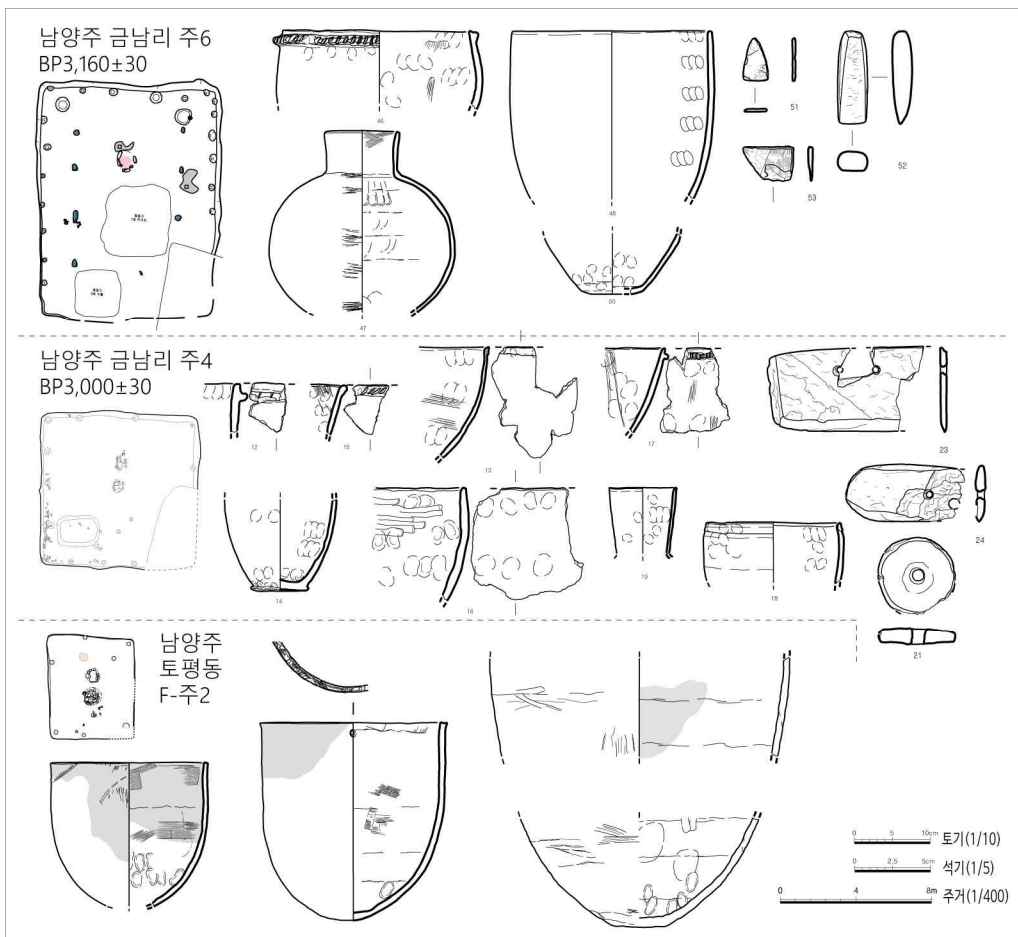
II 경기지역의 취락유형

경기지역은 서해안에 맞닿은 한반도 중서부 지역으로 물질문화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파된 경향성으로 볼 때 그 교두보에 해당하여 다양한 문화의 이동과 그로 인한 접변 등 복잡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경기지역 청동기시대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시대 전반에 걸쳐 7개 취락유형의 발생과 소멸, 확산 및 공존과 병존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장에서는 각 취락유형별 특징과 논점을 살펴보겠다.

1) 미사리유형

미사리유형의 대표적인 인식요소로 유물은 돌대문발형토기, 구순부가 각진 무문토기발, 구연이 직립하고 건동부가 구분되며 동체가 등근 호형토기, 장방형석도, 공이, 주거는 평면형태 (장)방형(단축 6~8m 이상 대형중심, 4m 이하 중소형 병존) 중심에 시설은 석상위석식노(단수), 저장공, 구조는 내측2주열의 초석(주혈식 초석, 일부 주혈) 등이다. 분포는 한반도 남한 전역으로 대부분 하천충적지에 입지한다¹⁾. 경기지역에서는 11개소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대체로 한강중상류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취락은 주로 하천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열을 지어 배치(선상구조)되며 대략 5기 이내의 소규모로 구성되나 남양주 금남리(9기), 남양주 연평리(진접2지구_약 20여기) 등 대규모 취락이 조성되기도 한다.



도1_ 경기지역 미사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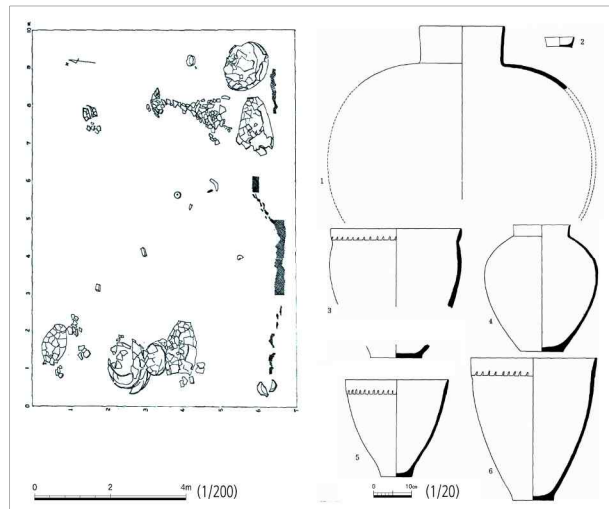
1) 예외적으로 화성 정문리는 하천 인접 구릉상부에 1기가 단독으로 입지한다.

2) 이중구연토기유형

1963년 가락동유적 조사를 계기로 이중구연에 단사선이 시문된 토기를 가락동식 토기로 명명하고, 이후 호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둔산식 주거에서 해당 형식 토기가 집중 출토되면서 이를 가락동유형으로 설정하게 된다. 가락동식토기와 가락동유형은 수십 년간 한국고고학에서 토기와 취락 유형분류의 유용한 틀로 사용된다.

하지만 경기지역의 청동기시대 양상이 좀 더 선명해진 현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락동유적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호서지방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다른 계통으로 판단된다.

가락동유적 출토품을 보면 우선 토기는 기형상 웅, 발형으로 비교적 두툼한 이중구연에 짧은 단사선을 시문했으며, 호는 동체가 둥글고 견동부가 구분된 형태²⁾이다. 주거형태는 약 10X7m 규모의 단축폭이 넓은 장방형에 무시설식(수혈식) 노를 시설하고 초석이 부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은 가락동유형의 이중구연토기 및 둔산식 주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양상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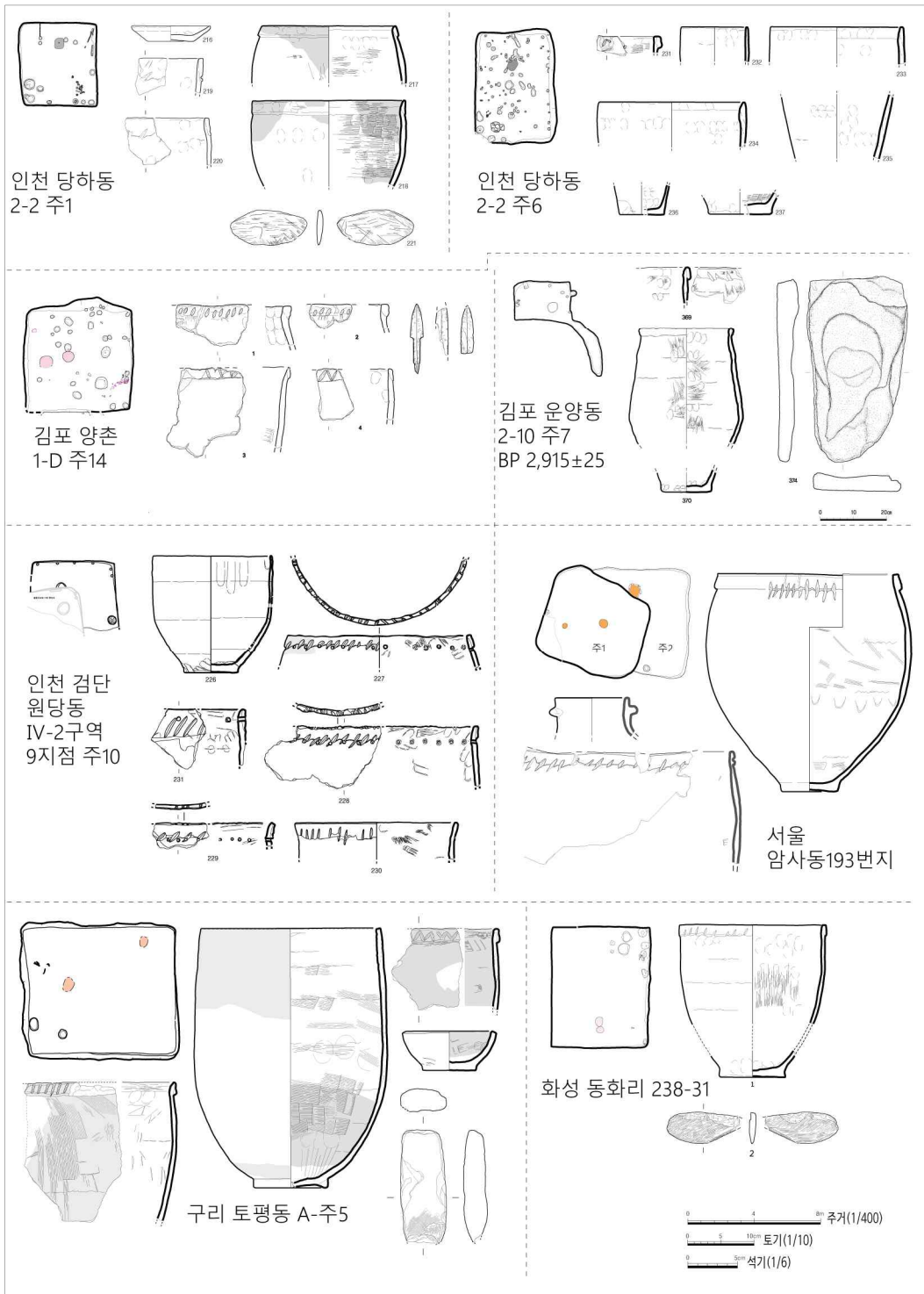
도2. 가락동유적 유구 유물

2013년 김포 운양동에서 이와 관련된 이중구연토기계 유적이 보고된 이후 김포 인천을 중심으로 동일한 조합의 유적이 점차 확인되었고 2017년 보고된 구리 토평동 유적의 대규모 취락으로 그 양상이 좀 더 선명해졌다.

2) 대호의 규모는 복원 높이 약 80cm 정도의 초대형인데 미사리유형 토기에서 유사한 규모와 형태가 확인된다.

3) 이제껏 가락동식토기로 일괄 분류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남한 내에서는 충청일대 둔산식주거를 중심으로 한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이중구연의 폭이 넓고 얇으며, 단사선이 얇고 길게 시문된 형태)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이는 곧 지역성과 시대상이 암묵적으로 반영됐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중구연단사선의 일률적인 가락동식토기라는 명칭은 현재 청동기시대 문화양상 해석, 특히 경기 북부 일대 토기문화를 설명하는데 혼선을 줄 여지가 있다. 이 간극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미사리식 이중구연토기/가락동식 이중구연토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도3_ 경기지역 이종구연토기유형

유구는 방형, 장방형(장단비 1/2이하)에 내부시설은 무시설식(수혈식) 노(1기), 저장공, 기둥구조는 불명확하다. 유물은 토기는 기형상 발형(구연 외경 포함), 옹형에 구연부 장식은 이중구연계, 이중구연단사선계, 무문계 등 다양⁴⁾하며, 호는 구연은 직립하며 견동부가 명확히 구분되고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위치하는 전체적으로 구(球)상인 형태를 보인다⁵⁾. 석기로는 삼각만입촉, 이단경식석촉, 반월형석도, 방추차 등의 조합양상을 보인다.

분포는 한강 하류 김포 일대와 한강중상류 하남 일대로 집중 분포하며 입지는 구릉지가 중심이나 토평동은 충적지에 조성되어 있다.

한편, 한강 일대 이중구연계 토기를 각형토기로 보기도 하는데, 기존 경기 일대에서 각형토기로 분류하던 것은 대부분 구연부편이거나 기형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각형토기의 영향 정도로 인식되는 한정된 요소들뿐이었다.

하지만 동시기 전형의 각형토기유형 취락이 강화도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었고 한강 일대 이중구연토기계 유적에서 주거와 석기의 조합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각형토기계와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정리하면 토기 기형 및 구연장식, 석기상 및 주거요소의 차이와 지역 내 동질성을 감안하면 한강 일대에서 확인되는 이중구연계토기 유적은 각형토기와는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 기원은 아직 특정할 순 없지만 각형토기와 미사리유형 토기의 영향을 받아 한강 일대에서 지역성을 띤 형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적으로는 미사리유형과 일정부분 간섭되나 대체로 이후 시기⁶⁾로 볼 수 있으며 대체로 2,900~2,800BP 범위⁷⁾에 해당하여 조기후반~전기전반의 시간축을 가진다.

4) 이중구연계, 무문계, 이중구연단사선계 토기조합은 연천 삼거리유적(주3)에서 공반되어 출토되며 한강일대에서도 조합양상이 확인된다.

5) 미사리유형요소와는 토기기형 상에서 일부 친연성이 보이는데 AMS 연대상으로 미사리유형과 중복되는 조기단계까지 확인되며 하남 풍산동 유적에서는 이중구연계에 절상각목돌대문토기가 포함되어 출토되기도 하였다.

6) 서울 암사동 193번지 방형주거_무시설식노에서 이중구연단사선발/선대중복 위 석식노 돌대문주거지의 중복관계로 확인 가능하다.

7) 3,370BP(운양동), 2,900BP(삼거리), 2,910BP(수산동), 2,880BP(덕풍동)

3) 각형토기유형

경기도의 각형토기유형은 강화 삼거리, 강화 장정리를 중심으로 주로 서해안 일대 외곽지역에서 분포하나 김포-인천 일대 역삼동주거 내 관련 유물이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경기도 북서부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각형토기 관련 유적들은 한강 일대의 이중구연토기유형과의 관련성이 상정되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중 강화 장정리유적은 토기에서 이중구연 내 거치문, 석기상에서 장주형 석도와 유경식석검, 유단석부 등의 대동강지역 각형토기문화 조합을 대부분 갖추고 있으며 유구에서도 중앙주열식 구조의 장방형과 위석식 노, 수혈식 노를 갖추고 있는 점 등에서 각형토기문화의 범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접한 강화 삼거리나 김포 양곡, 김포 학운리 정도가 각형토기관련 유적으로 판단된다.

각형토기유형은 전기전반 강화도 일대로 분포하였고, 전기후반 인천-김포를 중심으로 한 역삼동유형 취락에서 각형토기유형의 석기가 간간히 역삼동 유물군과 조합되어 나오고 있어 이 유형의 한강일대 진출은 전기 이른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각 재지문화(전기전반 당시 이중구연토기유형, 전기후반 역삼동유형)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부내륙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다만 그 영향은 대동강 유역 묘제로 인식되는 지석묘가 한강 하류부터 내륙으로 넓게 분포하며 지속되는 것(황재훈 2017, 22쪽)으로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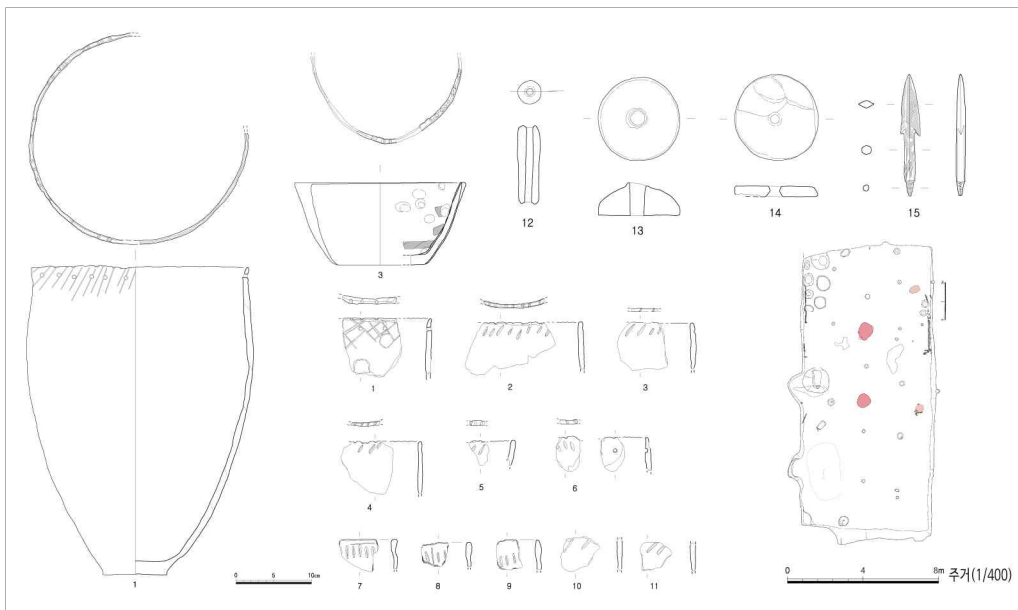
도4_ 경기지역 각형토기유형

4) 역삼동유형⁸⁾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은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폭발적인 확장세와 더불어 지정학적 위치와 맞물린 타문화와의 상호작용, 중기 이후에는 급격한 취락의 축소와 함께 내적변이를 통해 지속되나 타문화와 공존하며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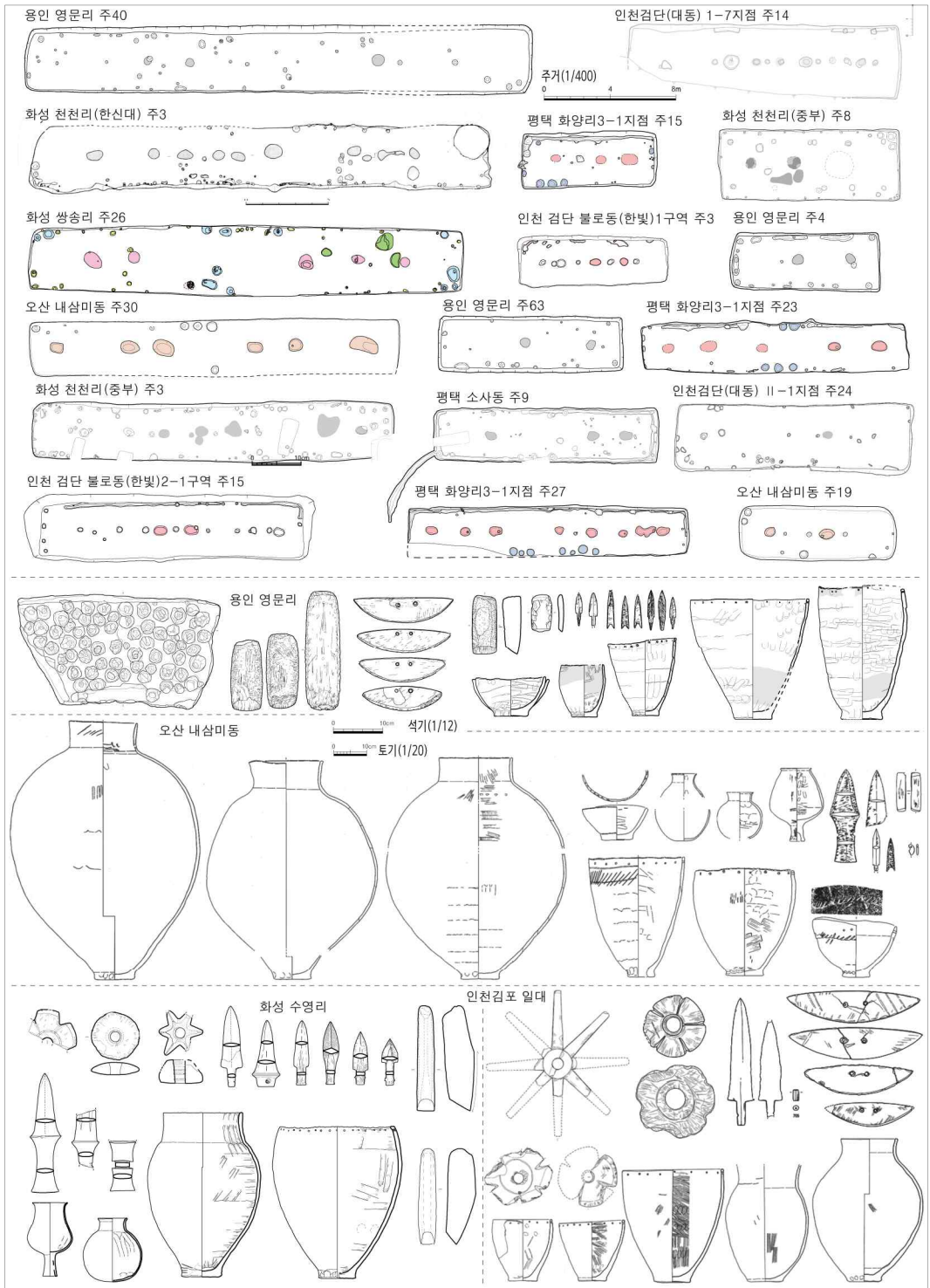
역삼동 유형의 표지유물인 공렬토기의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자생설(황재훈 2017)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시기적으로는 AMS수치를 근거로 전기의 이른 시기부터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영역권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이 시기 요소를 추출할 기준은 모호하다.

단 수원 이목동 유적은 주거에서 조기, 전기전반의 미사리계 요소(단축 7m 이상 대형 장방형, 중앙주열+내측2주열 구조, 벽가 이중저장공 등)에 공렬문단사선발이 공반되며 AMS연대도 $2,960 \pm 60\text{BP}$ 로 확인되어 역삼동유형의 이른 시기를 판별하는 과도기적 근거로 삼을만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인천 구월동, 시흥 능곡동 4호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도5_ 역삼동유형 수원 이목동유적

8) 역삼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 등으로 일컫는데 주 속성은 역삼동식토기와 역삼동식(관산리식)주거이고 혼암리식토기는 접변의 산물로서 유형적 요소를 갖추지 못하므로 본 고에서는 역삼동유형으로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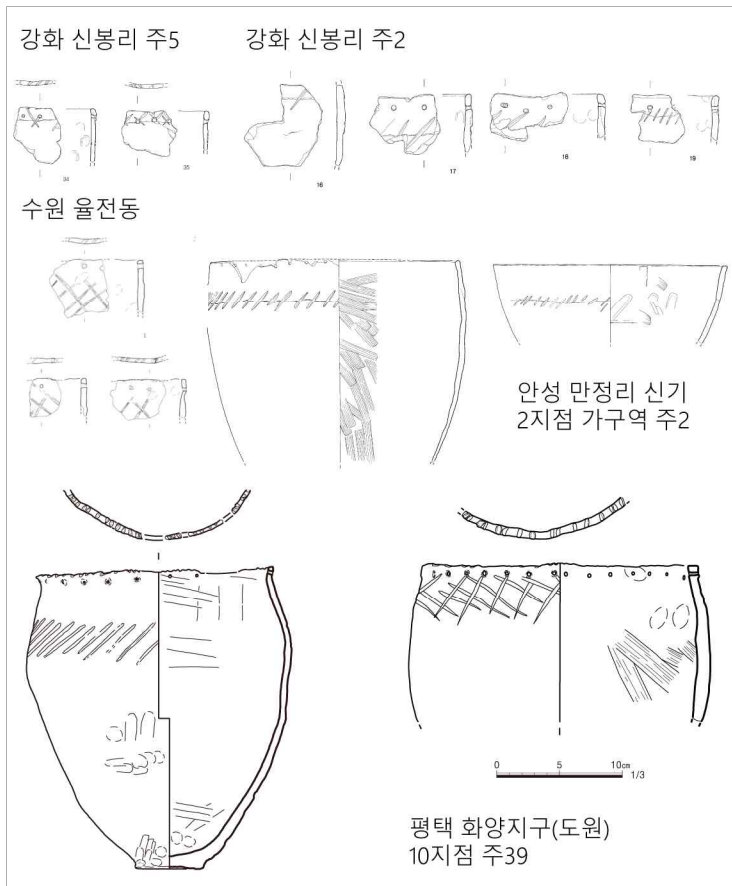


도6_ 경기지역 역삼동유형 전기

역삼동식 주거는 단축 3m 이내의 세장방형-장방형 형태로 이전 시기(미사리유형, 이중구연토기유형)주거와는 형태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장단비의 변화만이 아닌 공간구성에 있어 칸 개념의 정립과 주거의 확장성을 담보하는 의미를 지닌다(구준모 2013). 주거 내 시설은 무시설식(수혈식) 노(복수 이상, 길이 비례 증가), 저장공으로 단순하며 구조는 중앙주열식을 기본으로 하나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서는 내측2주열식의 채택 비율이 높아진다.

전기에는 동시기 북쪽의 각형토기유형권, 남쪽의 가락동유형권의 사이에 위치하다 보니 양쪽 문화의 영향을 여러 요소(주로 토기문양)에서 받아들였다.

공렬문에 이중구연과 단사선이 불규칙적으로 시문되는 ‘흔암리식토기’는 주로 경기도 남쪽 일대와 북쪽 일부에서 확인된다.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대체로 20개소 내외이며 유적 내에서도 관련 주거는 전체의 10~15% 정도로 구순각목공렬문토기도 함께 조합되는 경우가 많아 문양 채택에 있어 보편성과 지속성은 없다. 문양



도7_ 경기지역 역삼동유형 흔암리식토기(1/10)

은 다양한 형태(이중구연/횡침선/무문+/X 등)가 공반되며 각각의 시간성도 선명하진 않다.

한편 경기 북쪽 일대의 흔암리식토기는 남쪽과는 양상이 다르다. 이중구연의 두께가 두텁고 공렬의 시문위치도 이중구연 아래나 중간, 단사선은 압인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각형토기 혹은 이중구연토기유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경기도에 전반적으로 산재한 흔암리

식토기는 주변 문화 접변의 결과물로서 접변지 인근에서 나타나는 유행, 현상 정도로 이해된다. 가락동유형이 소멸한 중기 이후로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혼암리식토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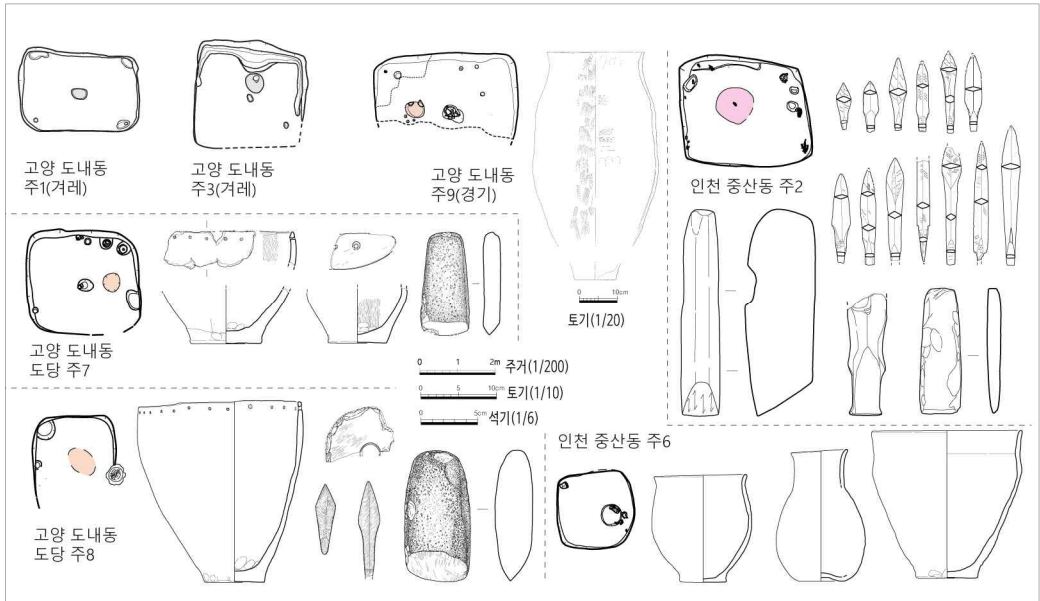
주거에서는 내측2주열식 기둥구조가 경기 남부지방과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채택되는데 혼암리식 토기가 공반되는 경우가 많아 유구와 유물상에서 복합적으로 가락동유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석기는 동시대 여타 문화권과 구성상 대동소이하다. 다만 형태에 따른 시간성은 존재하는데 석촉은 이른 시기에는 이단경식에서 후대로 갈수록 일단경식으로, 석검은 이단병식에서 일단병식으로 변모하는 정도이다. 경기 북서부 한강 하류일대에서는 북한지방 각형토기문화의 영향으로 일부 다양성이 조합되는데 장주형석도, 유(구)경식석검, 다두(환형)석부 등의 형태변이 또는 수용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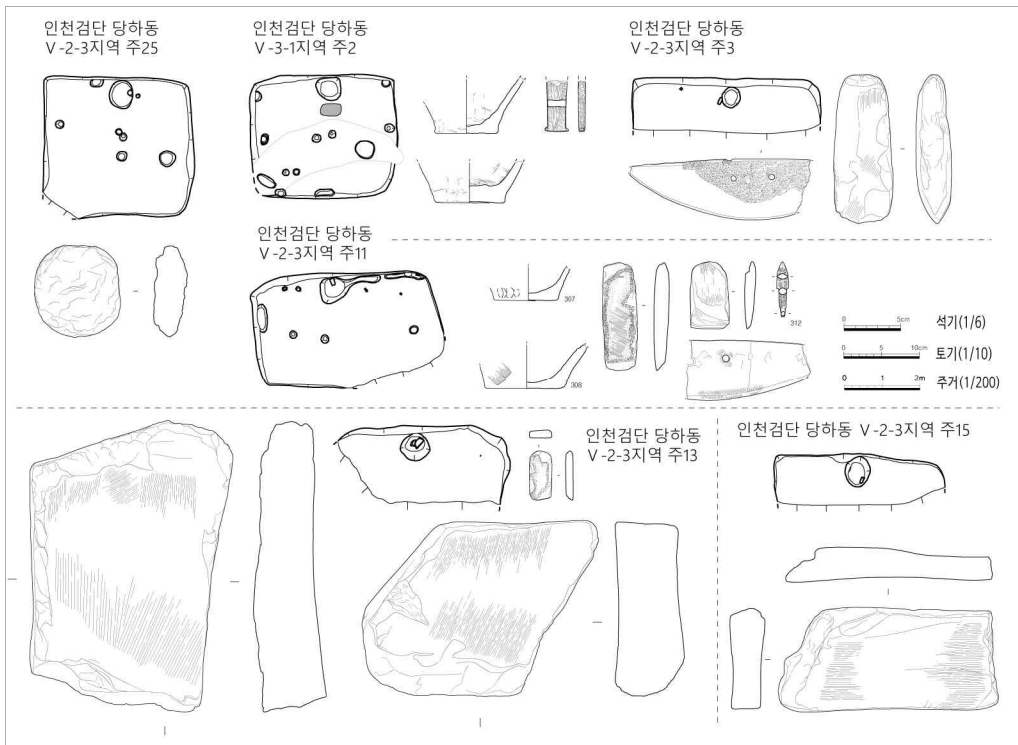
중기에는 타지역은 호서호남의 송국리유형, 영서의 천전리유형, 영남의 검단리유형 등 지역기반의 문화유형들이 등장했으나 경기지역은 중기로 특정할 만한 뚜렷한 문화요소가 감지되지 않아 한때 경기지역 중기부재론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역삼동유형의 내적변이에 의한 중기의 설정이(김한식2006: 이진민2004) 이루어지고 이후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여러 유적(인천 검단, 고양 도내동 등)이 확인되며 이 지역 중기문화의 실체(문수균2016)가 선명해지고 있다.

주거는 전기의 세장방형주거에서 장방형화, 크기는 중소형으로 축소되고 유물은 토기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의 소멸과 무문화 진행,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등의 변화가 수반되며, 주거 이외에 창고나 공방 등 기타 성격의 부수시설도 취락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중기단계 물질문화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으로는 가족공동체에서 취락공동체로의 변화, 전문화 및 위계의 심화 등 큰 변화를 수반한 결과이지만, 개별 유구와 유물만으로 시기를 인식하기에는 변이의 외형이 이전 시기와 큰 차이가 없어 어려운 점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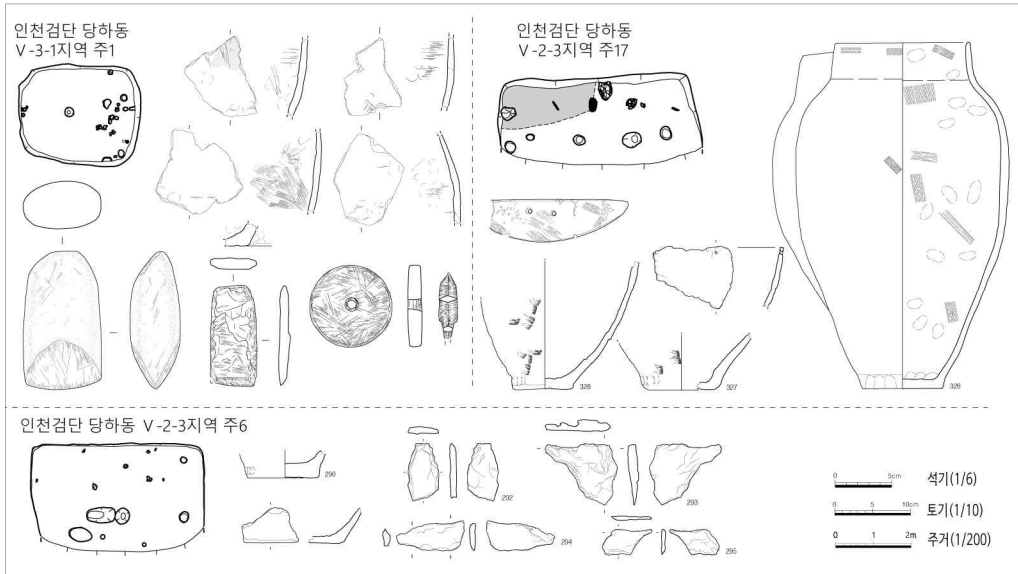
9) 일반 도식으로 세장방형주거는 전기, 장방형 주거는 중기 이후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유적 간 다양성, 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기구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중기 이후에도 단위취락에서 중소형 주거 중심에 대형 세장방형 주거가 병존하여 위계의 심화를 반영하는 유적(춘천 중도 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유적의 지형단위와 중복양상 및 AMS, 유구 배치양상 등의 복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출해야 한다.



도8_ 경기지역 역삼동유형 중기_주거



도9_ 경기지역 역삼동유형 중기_공방(수혈부 소형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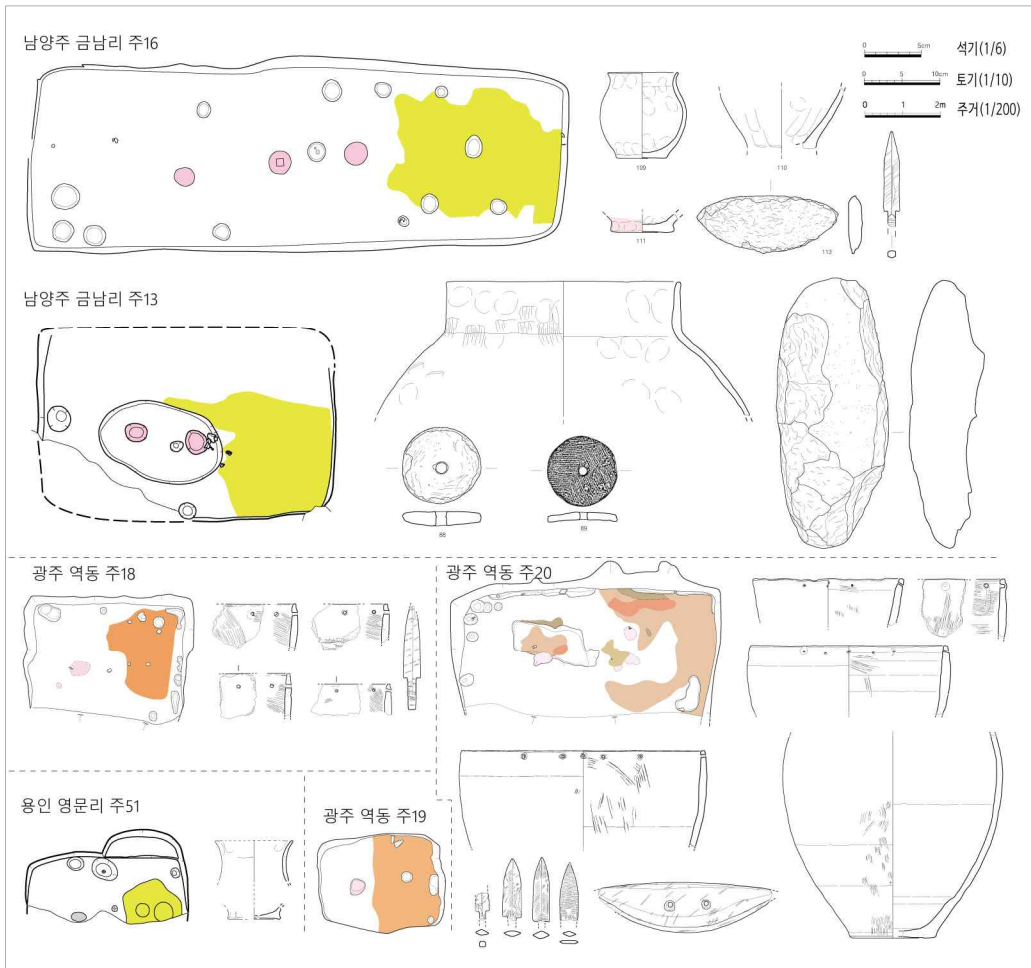
도10_ 경기지역 역삼동유형 중기_참고

5) 천전리유형

천전리유형은 역삼동유형취락이 영서지방에서 지역화하면서 변이된 중기단계의 문화유형(김권중2020)으로 문화요소의 구별성과 지속성, 영역권 형성 등에서 역삼동유형을 대체한 지역문화로 평가된다.

역삼동유형을 기반으로 한 만큼 대체로 문화요소를 계승하나 주거와 유물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 주거는 소위 천전리식주거로 대표되는 이색점토구역이 시설되었으며 이는 유형을 판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별요소이다. 형태는 장방형 중심으로 전시기의 세장방형에서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구조는 중앙주열식과 내측2주열이 단독 혹은 조합되며, 이색점토구역 내 시설된 수혈(작업공), 벽가 저장공 등이 특징이다. 유물로는 역삼동유형의 요소를 중심으로 중기단계의 시간적 속성을 반영한 요소가 차별점이다. 토기는 구순각목공렬토기 중심이나 후기로 갈수록 내측반투공공렬이 우세해지며 석기에서는 유연식석촉과 유구석부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지역은 천전리유형의 중심지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으나 천전리유형의 서남쪽 진출과 주변 문화와의 접변 등에서 상호관계를 감지할 수 있는 사례가 몇 가지 있다. 경기도 북서쪽으로는 연천 합수리, 서쪽으로는 남양주 연평리(진접2, 왕숙), 남서쪽으로는 광주 역동, 용인 영문리까지가 현재로서는 취락유형의 남서한계선이다. 주 이동경로는 남쪽으로는 북한강-경안천 루트, 서쪽으로는 포천의 영평천-한탄강



도11_ 경기지역 천전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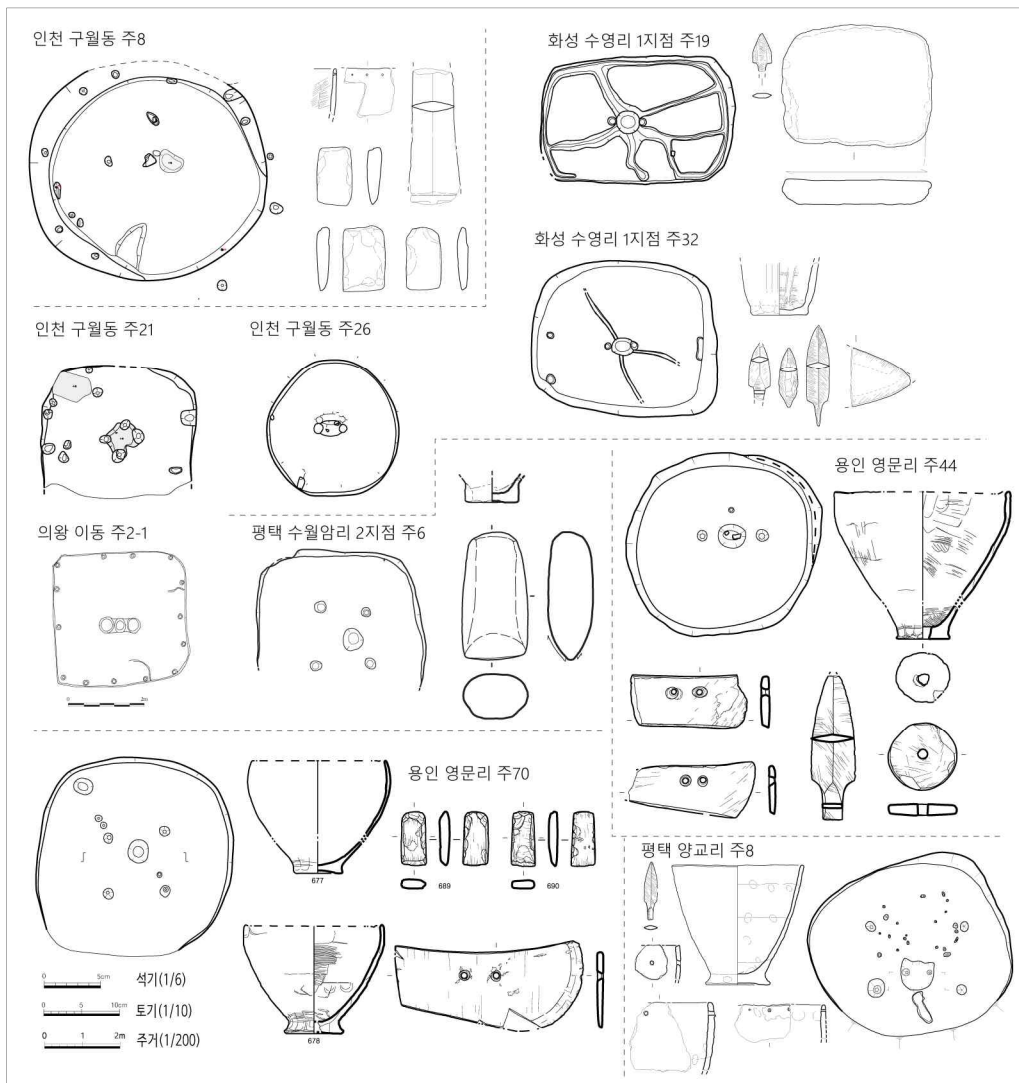
-임진강 루트가 상정된다.

이 중 단독취락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적은 남양주 연평리(진접2), 연천 합수리 정도이다. 광주 역동은 역삼동계 취락 중심에 천전리식 주거가 5기 병존, 용인 영문리는 송국리계 취락 중심에 1기가 병존하여 본격적인 집단의 이주와 확장보다는 재지문화에 상호접촉한 점이지대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대체로 이들 상호접촉 유적들에서는 천전리식주거의 전형보다는 좀 축소된 규모와 소략한 내부시설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거들이 구릉상에 입지하고 있어 천전리유형의 일반적인 충적지 입지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취락 내 주거의 규모차이는 위계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송국리유형

경기지역의 송국리유형 주거는 중심지인 호남 일대의 전형(평면원형, 구조_중앙2주공, 시설_중앙타원형수혈)에서 변화된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김권중2018, 86 쪽). 소위 ‘반송리식(이형원 2006)’으로 구분된 이 주거형태는 평면형태는 장축 3m 이내의 (말각)(장)방형에 중앙2주공의 간격이 넓고¹⁰⁾ 내부시설인 타원형수혈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장벽으로 편재되어 시설된 것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4주식,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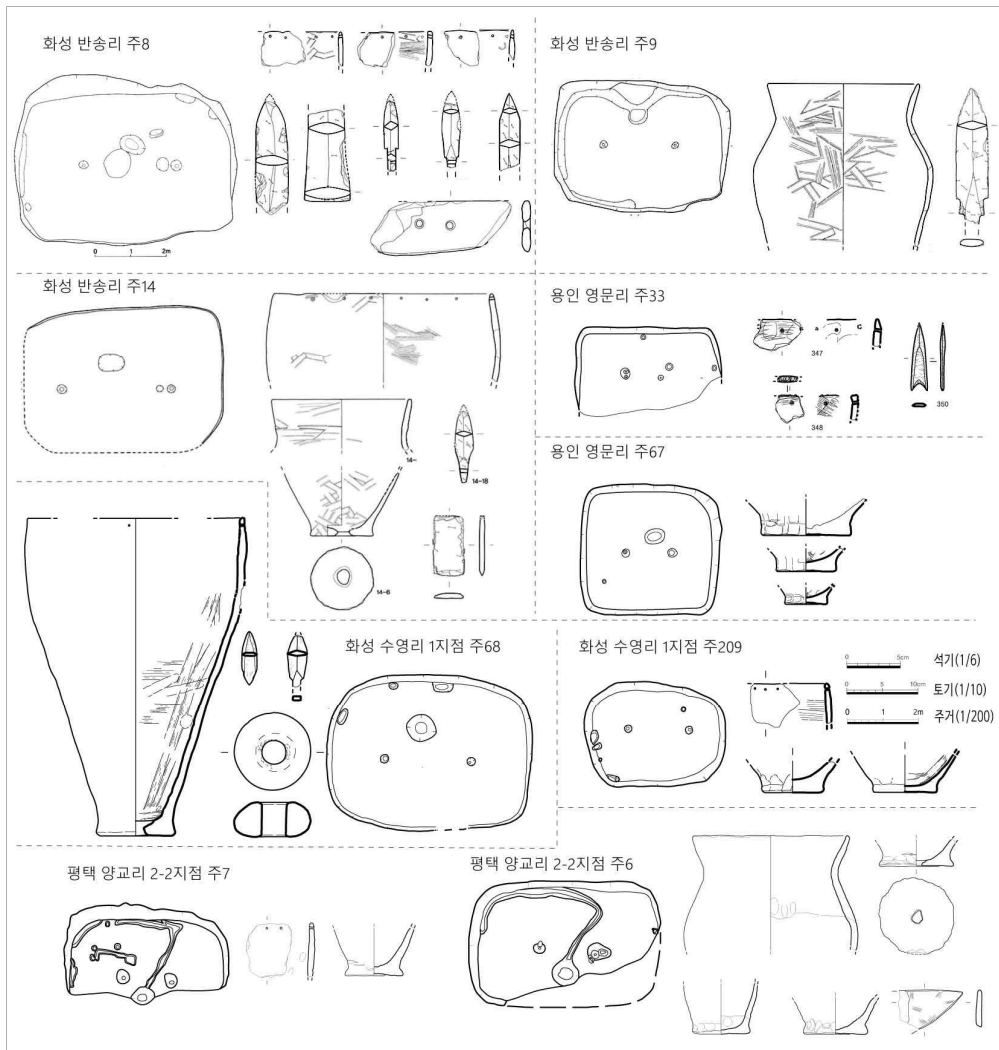


도12_ 경기지역 송국리유형(송국리식 주거)

10) 송국리식주거의 중앙주혈은 일반적으로 1.2m 이내이나 반송리식주거는 1.5m이상인 것

주식, 수혈탈락 등 다양한 변이를 포함한다. 여러 변이에도 불구하고 유형판단의 핵심요소는 평면말각장방형과 기둥구조 배치이다. 반송리식 주거의 설정을 계기로 송국리식 원형주거의 발생에 대하여 장방형주거에서의 내적변이(나건주 2005; 이형원 2007)와 외부기원으로 인한 접변의 산물(송만영 2010)로 인식하는 ‘선송국리 논쟁’이 한때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전체적인 구조와 시설에서 송국리식 주거의 속성과 유사하여 넓은 의미로 송국리식 주거의 범주로 보지만 개별 유구의 세부양상을 분석하여 유적별로 변이 주체를 다르게 보기도 한다(김권중 2018, 93쪽).

경기지역에서 송국리유형은 대부분 단독취락을 형성하진 않고 역삼동 후기유형과



도13_ 경기지역 송국리유형(반송리식 주거)

이 대부분이다(김권중 2018, 81쪽)

병존하며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주로 역삼동계 취락중심에 병존하느냐 송국리계 취락중심에 병존하느냐의 차이인데 양자가 어쩔든 간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유물상은 대체로 역삼동식 재지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이 꼭 역삼동계 집단중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상징요소인 공렬문토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재지문화의 수용과 공존을 엿볼 수 있다.

반송리식 주거를 송국리유형의 범주로 본다면 여러 유형이 공반하는 중기취락에서 오산 일대를 중심으로 남쪽은 송국리계 우세, 북쪽은 역삼동계 우세의 역학관계가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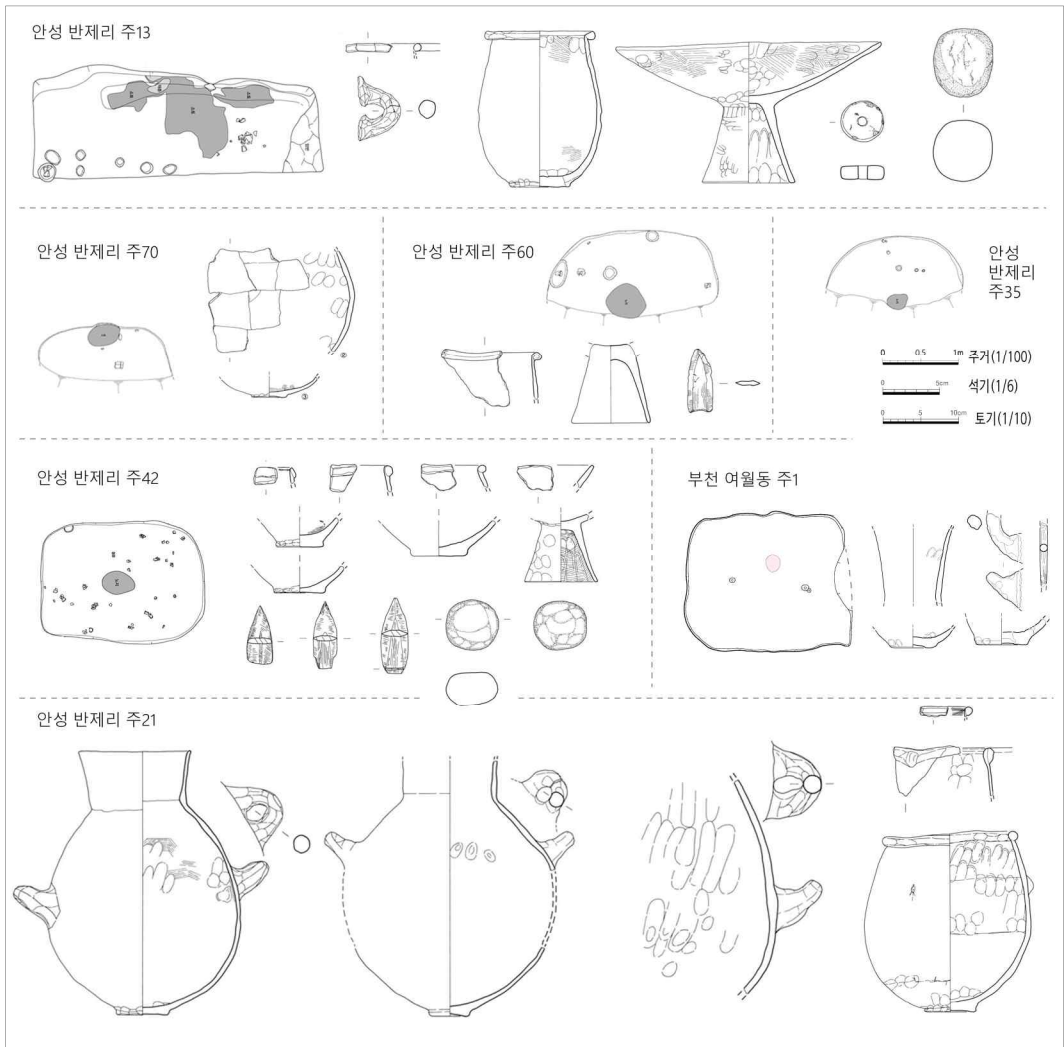
송국리취락유형은 경기도로 확산하면서 서해안 쪽으로는 인천 구월동, 중앙으로는 의왕 이동, 동쪽으로는 오산천-경안천-북한강 루트를 따라 용인 영문리-광주 장지동-가평 달전리까지 분포하나 대체로 주영역권은 진위천을 경계로 하는 오산 일대까지로 판단된다. 그 외 분포는 타문화와의 접경지역 또는 영역권 내로 송국리식 소규모 주거가 재지문화에 공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 점토대토기유형

점토대토기유형의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를 중심으로 흑도장경호, 조합식우각형과 수부호, 두형토기가 대표적이며 주거는 (말각)방형 중심에 대부분 20㎡이하의 소형으로 내부시설은 수혈(무시설식)노가 단독으로 벽가편제(벽부노), 중앙 등에 배치된다.

경기지역에서 점토대토기유형은 그 성격을 특징짓기가 어렵다. 유적은 경기 전역으로 20여기 가량 분포하나 주거유적은 8개소 정도이며 이 중 안성 반제리(주거 72기와 환구, 분묘 등)와 남양주 수석리(주거 6기)를 제외하면 모두 주거 1~2기 이내의 소규모이고, 나머지 유적도 소규모의 수혈과 분묘 등에 한정된다. 이처럼 정주성의 근거가 희박한 정황에서도 환호와 환구는 6기(안성 반제리, 부천 고강동, 화성 정문리, 화성 동학산, 오산 청학동, 수원 읍전동 등)가 확인되는데 이에 대응되는 생활유적은 안성 반제리를 제외하면 명확하지 않다.

이는 경기도 외곽으로 시야를 확장해도 비슷한 양상이다. 환구가 중서부지역에 집중되는 데 반해 충청·전라지역은 다수의 청동기가 부장된 무덤이 집중되는데, 이를 수장권력의 상징성이 반영(이형원2011)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처럼 이전 시기에 비하여 수장층의 존재, 권력의 상징성이 선명하게 대두되는 데 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기층문화, 생활유적의 규모가 매우 소략한 점은 점토대토기문화를 일반적인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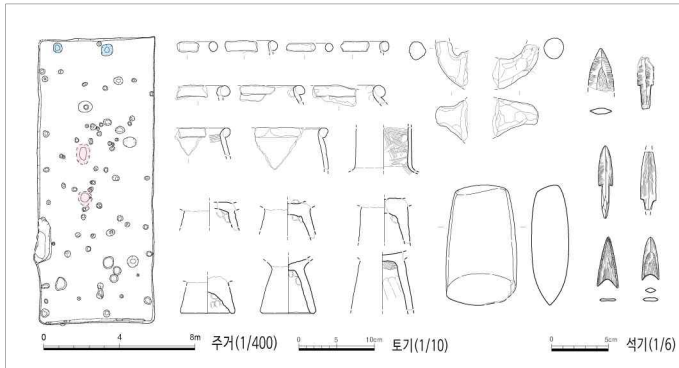


도14_ 경기지역 점토대토기유형

화확산의 선구조로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재지계 집단(역삼동유형, 송국리유형)이 점유하고 있던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유입된 점토대토기문화집단이 전반적인 영역확장을 이룰 기제가 부족하였을 것이고, 이에 거점취락(안성 반제리)을 중심으로 소규모 인원이 재지집단의 미점유영역으로 전개하며 산발적으로 점유(점상취락)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구준모2023, 141쪽).

경기도권에서 거점취락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은 안성 반제리가 유일하나 주거가 부재한 환호나 환구유적도 배제할 순 없다. 이를 감안하고 봤을 때는 환호(환구)가 집중 분포된 황구지천-오산천 사이의 잔구릉지, 적석환구유구와 초대형주거가 인접



도15_ 부천 여월동 IV지점 주거

밝히는데 주목되는 지역이다.

한 부천 고강동과 여월동¹¹⁾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중 오산 일대 환구(환호) 유적은 주거가 전무한 단독유적이거나 부천 고강동은 동일 구릉상에 관련주거 1기 이상¹²⁾이 확인되어 향후 이 시기 유적성격을

11) 예외적으로 부천 여월동의 구릉 정상부에는 14.9×6.2m의 초대형장방형주거가 확인되는데 출토유물에서 다수의 두형토기들, 동일 구릉 하단의 점토대토기유형 주거 및 지표상에 산재한 점토대토기편들, 인접한 고강동의 적석환구유구 등의 입지요소를 감안하면 의례관련 성격으로도 보인다.

12) 트렌치 조사만 진행한 16호 주거도 출토유물로 볼 때 동일시기로 상정되며 이 외 동구릉 내 점토대토기가 다수 산재하여 미조사구간이 많은 점 등 관련 유적의 부존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경기지역 시기별 취락유형의 분포와 전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는 여러 연구(강병학2013, 김권중2016, 황재훈2017)에 의해 대략적인 시간성이 정립된 바 있다. 이후 조사된 유적들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이전에 규명되지 못했던 유구나 유물의 성격 등이 좀 더 선명해졌다.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경기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개양상을 시간순으로 검토하여 각 취락유형 전개의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겠다.

시기적으로는 ‘조기-전기전-전기후-중기-후기¹³⁾’로 구분하였다. 먼저 전제할 것은 각 시기별로 문화유형이 단절적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개별유형의 성행기 이전 발생기에 소수의 관련 유구들이 앞선 시기부터 확인되고 이후까지도 잔재가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는 사례는 많다. 또한 상기의 시기구분은 문화사를 중심으로 설정한 것으로 절대연대상으로는 중첩구간이 넓어 온전히 시기순으로 볼 수 없고 문화전개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1_조기

경기지역의 청동기시대 가장 이른시기 문화는 미사리유형이다. 기원전 14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확인되어 하한은 대략 10세기(BP2,950)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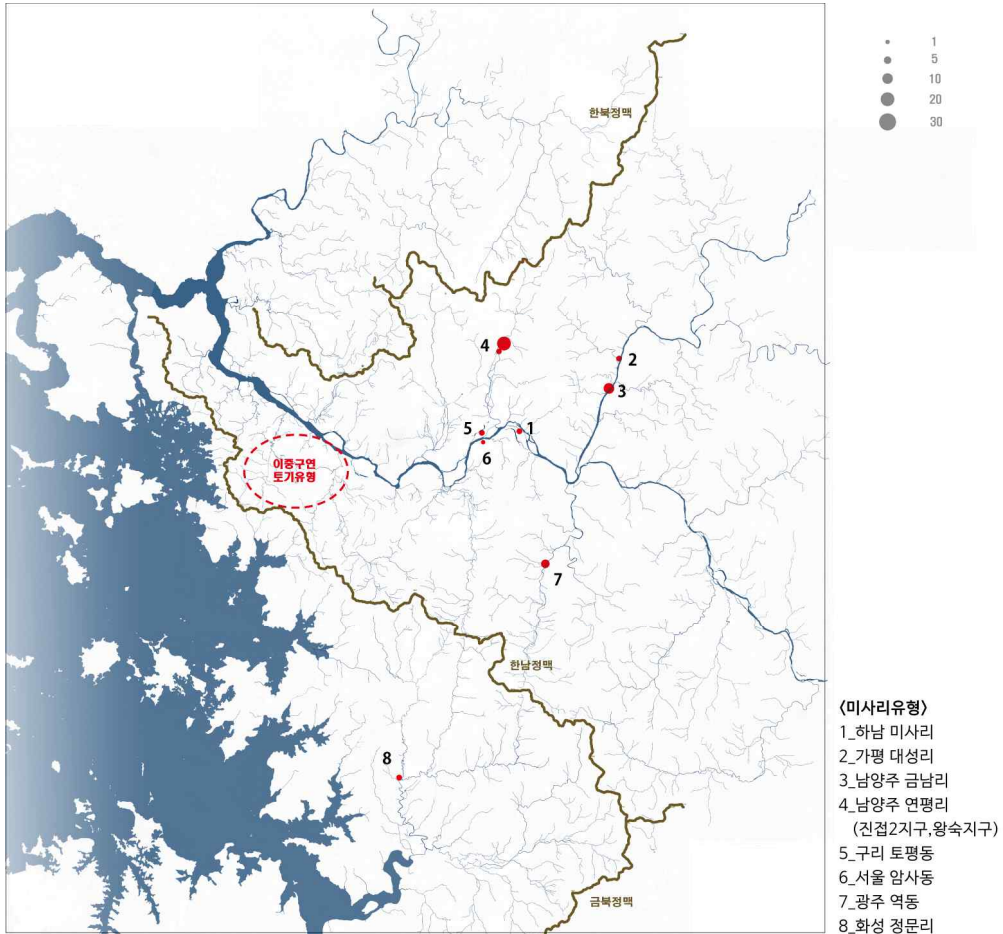
조기에는 미사리유형이 한반도 남한 전역에서 분포하는데 AMS 연대상으로는 한강 하류 일대로 이종구연계토기 유적이 일부 병존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시기에는 분포권역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소규모 개별 유구 단위이다. 북한지방으로도 각형토기문화권과 시기적으로 병존하였을 것이나 경기도권에서는 관련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그 경계는 파악할 수 없다.

미사리취락유형의 서북쪽 한계는 한강 중상류 일대로, 유적으로는 남양주 연평리(진접2, 왕숙지구)가 최북단에 위치한다. 근래 조사가 완료되어 아직 온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기도 최대 미사리유형 취락유적(주거22기 이상)이다.

그 외 한강본류역으로 구리 토평동, 서울 암사동, 하남 미사리에 취락이 밀집되어 있고 북한강유역에 남양주 금남리, 가평 대성리, 가평 연하리, 경안천 일대에 광주역동에서도 취락이 분포한다.

인근 영서지방과 중원지방의 AMS연대를 참고하면 대략 한강 일대에서 내륙 쪽으

13) 청동기시대 후기는 청동기가 출토되는 원형점토대토기단계까지, 이후 철기가 공반되는 삼각형점토대단계의 기원전 300년경부터 원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100년 이전까지를 초기철기시대로 구분(이형원 2011)한다.



도16_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조기

로 확산되는 경향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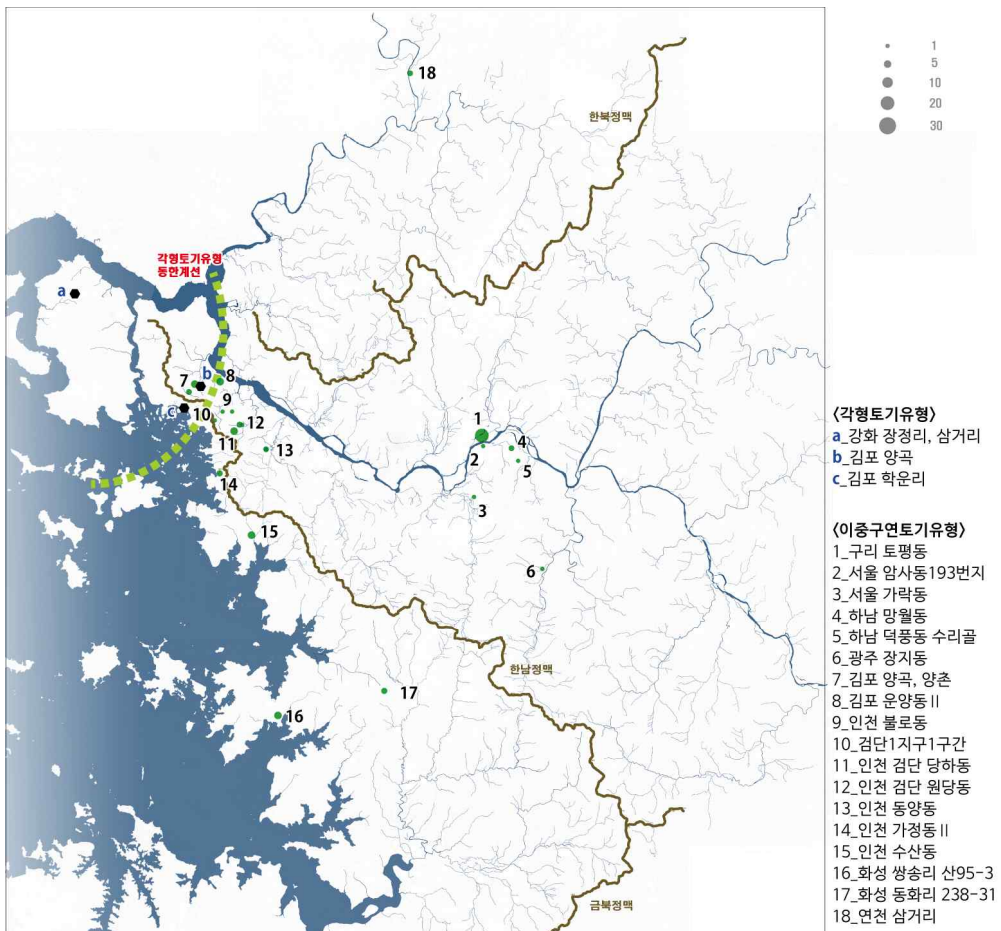
2_전기

전기는 대략 2,950~2,700BP에 위치한다. 각 지역마다 지역성을 갖춘 문화유형들이 발생하였는데 전기전반에는 한반도 북쪽 대동강 일대에서 각형토기유형, 경기 일대에서는 이중구연토기유형, 역삼동유형, 남쪽으로는 가락동유형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중구연토기유형은 초기 단계에서도 더러 확인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조합과 분포는 초기 이후로 보인다. AMS로도 약간 느린 양상이지만 직접적인 선후관계는 서울 암사동 193번지 유적에서 돌대문토기주거와의 중복관계로 확인된다.

이중구연토기문화는 이전 시기 미사리유형을 대체하여 한강본류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하는데 한강중상류 구리 토평동에서 환구가 조성된 주거 22기의 최대 규모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서울 가락동, 암사동, 하남 망월동, 덕풍골수리골 등의 중소규모 유적이 인접하여 일대가 중심지였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한강 하류 김포-인천 일대로는 약 10여 개 유적에서 20기 이상의 주거가 확인되어 또 다른 분포권역을 이룬다. 남쪽으로 화성 동화리238-31번지 유적(1기), 화성 쌍송리 산95-3유적(3기)에서 소규모 취락이 확인되나 분포권을 형성할 정도로 유적이 집중되진 않았다. 북쪽으로는 연천 삼거리에서 단독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한강과 거리가 멀어 뚜렷한 분포 범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각형토기유형도 이 시기에 강화 장정리에서 주거 5기의 단독취락이 확인된다. 토



도17_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전반
기기형이 온전히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구연수법과 석기구성에서 각형토기문화로

분류할 수 있는 유적이다. 대동강 일대에서 서해 해로를 따라 강화에 정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동쪽 내륙으로의 확산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김포 인천 일대로 분포한 이중구연토기유형의 원인이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역삼동유형의 물질문화도 확인되는데 2,950BP를 상회하는 김포 양촌, 시흥 능곡동, 수원 이목동, 수원 울전동 등으로 주로 한강 이남 지역으로 분포가 상정되나 해당 주거들의 취락화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경기일대와 충청 천안 일대까지 이른 공렬토기를 사용하는 집단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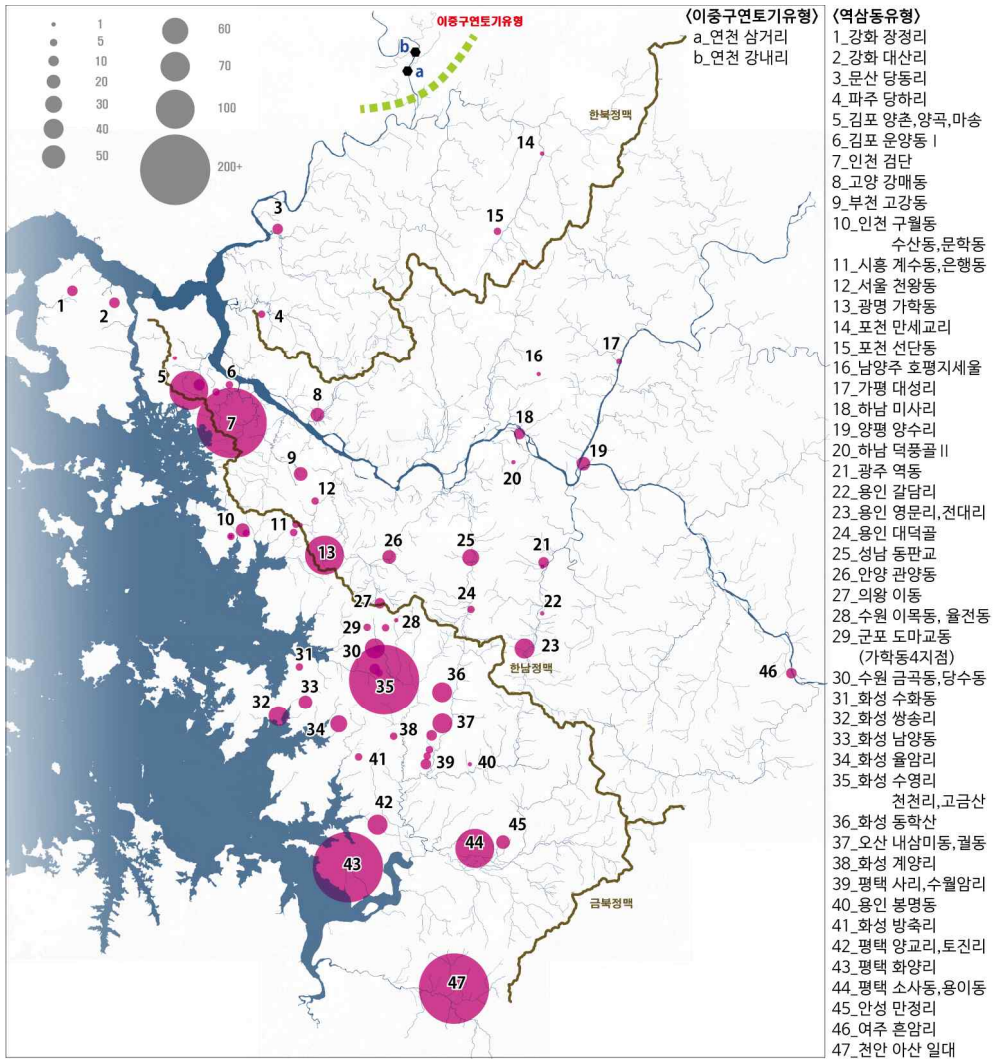
전기 후반에는 공렬문토기를 표지로 한 역삼동유형이 경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분포 범위는 남쪽으로는 차령산맥(금북정맥)을 경계로 가락동유형과 대치하며 동쪽으로는 내륙 수계를 따라 영서(북한강)와 중원(남한강) 루트로도 취락이 분포하지만 소수에 그친다.

경기지역만으로 한정해서 살펴본다면 취락지의 선택과 전개에 있어서 몇 가지 경향성을 보인다. 역삼동유형이 구릉에 입지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우선 경기지역에서는 한남정맥-금북정맥의 동쪽 서해안 유역권(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안성천 등)으로 주로 취락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 취락의 집중지는 한강 하류의 인천-김포 일대, 광명(안양천) 일대, 오산-화성(황구지천-오산천) 일대, 평택(안성천) 일대로 대부분 한강 이남의 서부 강, 하천에 인접한 잔구릉 지역에 대규모 취락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으로 중소규모 취락도 많다. 이에 반해 내륙(한남정맥 동쪽 한강유역권)으로는 분포 빈도가 급감하는데 이곳에서도 강, 하천 일대로만 취락이 확인된다.

경기도의 지형상 동쪽 내륙은 분수계로 구분되는 자연 경계는 없지만 저산성 산지-고산성 산지로 이어지는 광주산맥이 진출을 막고 있어 강(한강,북한강,남한강)과 하천을 통해 내륙으로 이동하는 루트를 타게 되므로 확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¹⁴⁾.

한강 이북으로도 비슷한 양상인데 파주에서 고양-서울-양주-포천을 잇는 '한북정맥'의 산지가 넓게 분포하여 일종의 자연장벽 같은 지형환경을 갖추고 있어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삼동유형의 경기북쪽 경계는 한북정맥을 기준으로 하는 한강유역권 일대까지로 보인다. 임진강변을 따라 소수의 취락이 분포하지만 수계를 따라 차수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상으로 소규모 취락들만 확인되고 있다.

14) 이는 미사리취락유형의 내륙 전개루트와 동일하다.



도18_ 경기지역(중서부, 호서일부 포함) 청동기시대 전기후반

경기 최북단 임진강변의 연천 강내리와 연천 삼거리는 이중구연토기유형 분포지로 이중 삼거리에서는 전기전반부터 전기후반까지 취락이 존속되었다. 강내리에서는 이중구연토기 중심에 공렬토기가 일부 공반되었는데 접변에 의한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남쪽으로는 경기도권역을 넘어 천안-아산 일대까지 분포한다. 금북정맥(차령산맥)을 기준으로 이서의 역삼동유형, 이동의 가락동유형으로 구분되어 자연경계인 분수계가 분포권을 구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3_중기

중기는 사회경제적으로 전시기와 구분되는 주거와 취락의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이다. 대략 2,700~2,500BP 정도의 시간 폭을 가지며 대체로 송국리유형의 성립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기의 타지역은 호서호남의 송국리유형, 영서의 천전리유형, 영남의 검단리유형 등 지역 기반이 뚜렷한 문화유형들이 등장하였다.

경기지역은 역삼동유형의 내적 변이가 지속되며 주변 문화들과의 간섭 및 상호작용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또한 전기에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역삼동문화유형의 분포가 축소되는데 당시의 (주로 남쪽 지역에 위치한 유적들을 중심으로) 대형 취락들이 소형화되거나 해체되어 지역거점(인천, 광명, 화성 수영리, 평택 화양리 등)으로 집산하며, 특히 인천 김포 일대로는 전 시기에 이어 인구가 보다 밀집되는 현상을 보인다. 더불어 전기에는 대부분 한강 이남으로 취락들이 분포하던 것과 달리 중기에는 한강 이북으로 취락이 확장(남양주 지금동, 고양 도내동, 파주 당동리, 당하리 등)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남쪽에서 송국리유형이 복상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데 그 분포양상을 보면 단순히 송국리형 취락이 문화요소를 갖추고 확장되는 것 보다 경기지역의 재지문화를 받아들이고(공렬토기 등 역삼동식 유물 중심) 내적으로는 일부 요소를 변화(반송리식 주거)하며 전개한다.

즉 역삼동유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분포영역을 확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송국리식주거가 공존한 역삼동유형 취락을 검토하면 경기남부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서쪽으로는 인천 구월동, 중부로는 화성 수영리, 동북쪽 내륙으로는 용인 영문리와 광주 역동에까지 분포한다.

단일취락 내 주거 비율도 중심 문화권과의 역학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인데, 진위천 이남의 평택 일대까지는 송국리계가 우세한 편이나 그 이북으로는 대체로 역삼동계가 점유하는 양상이다.

한편 북한강 중류의 가평 연하리에서도 송국리식 주거 1동이 확인되는데 천전리식 중심 취락에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안천변의 용인 영문리유적에서는 송국리계 취락 중심에 천전리식 주거가 1동 확인되는 것과 대비되어 각 문화간 교류의 성격을 참고할 만하다.

이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유물상을 받아들이고 주거요소를 변화시키는 등 송국리 집단 자체적으로 재지문화에 동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도19_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중기

경기 북동쪽으로는 영서지방에 기반을 둔 천전리유형의 분포 영역이 확장된다. 일대는 전기후반에도 역삼동유형의 점유가 거의 없었던 지역¹⁵⁾으로 천전리유형이 주로 북한강변을 통해 확산하며 취락을 형성하였다. 가평 대성리-남양주 금남리-양평 양수리로 이어지는 북한강 라인을 따라 유적들이 분포하며 남양주 내륙은 왕숙천변으로도 남양주 장현리, 연평리(진접2지구, 왕숙지구) 등에서 취락들이 입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 남쪽으로는 경안천변의 광주 역동과 용인 영문리까지 천전리식 주거가 확인되나 이곳은 천전리식주거의 주 입지인 충적지가 아닌 구릉상에 위치하고 규모도 소형이며 각각 역삼동유형, 송국리유형 중심 취락 내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 직접적인 확산이라기보다는 교류의 산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대부분의 천전리유형 취락은 송국리유형과는 달리 재지문화(역삼동)와 공존하지 않고 단독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임진강변의 연천 합수리유적은 12기의 주거¹⁶⁾로 형성된 취락으로 그 진출경로가 명확하진 않으나 아마 포천의 영평천변을 따라 이동하다 한탄강-임진강으로 이어지는 루트로 추정된다. 인접하여 이중구연토기 취락유형의 연천 강내리, 삼거리가 위치하고 있어 천전리유형의 서북쪽 경계로 생각되나 주변으로 유적양상이 더 밝혀져야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4_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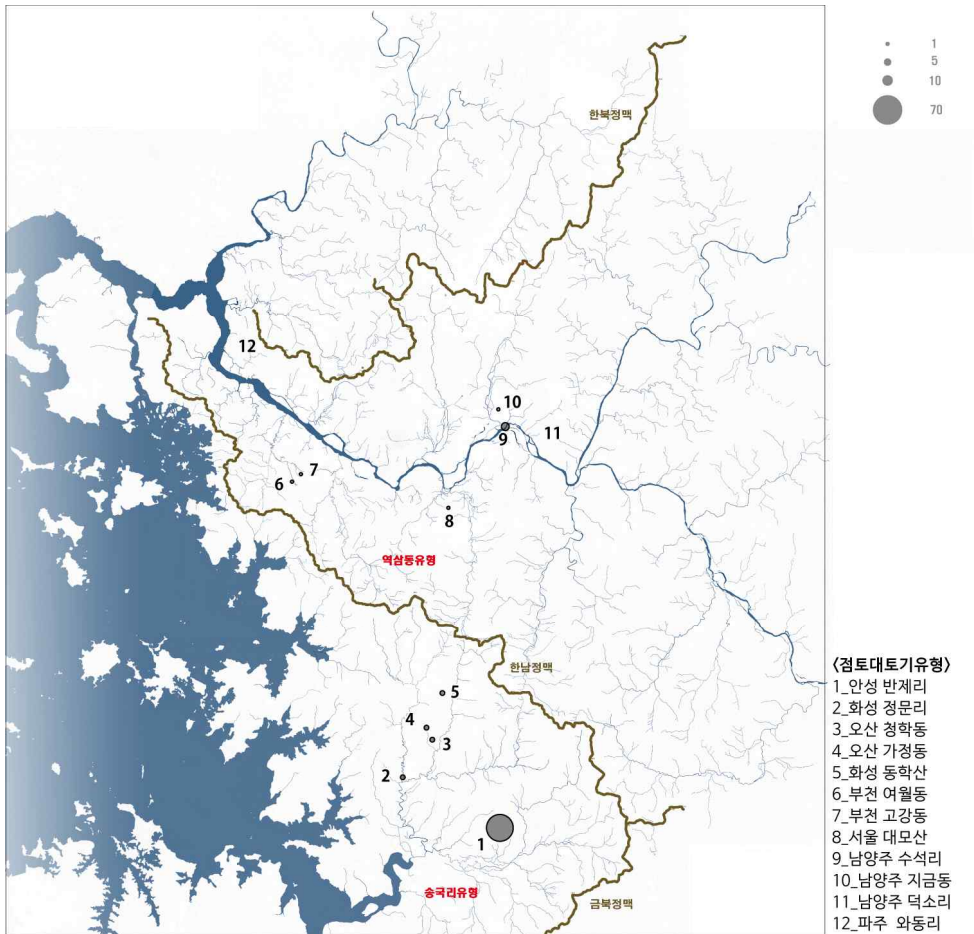
점토대토기유형이 한반도에 유입된 시점(약 6세기¹⁷⁾)에 송국리유형과 역삼동유형이 재지집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재지문화와 점토대토기유형간의 접변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분포상에서도 점토대토기유적이 중기 이후의 역삼동유형 취락이나 송국리유형 취락과 입지가 겹치는 경우는 없으며 유물이 출토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타 유형과 중복되거나 동일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는 모두 전기 역삼동유형취락의 입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호서지역에서는 송국리유형 원형주거에서 점토대토기 관련 유물이 출토되

15) 양평 양수리와 가평 대성리 정도에서 확인되며 모두 10여기 이내의 소규모 취락이다.

16) 합수리 유적에서는 1기의 송국리계 주거가 확인되었는데 취락의 구성 및 주거의 형태나 시설 등에서 가평 달전리와 매우 유사하며 관련성이 상정된다.

17) 남한 내 절대연대자료의 연속성과 타유형과의 관계성 등을 감안하여 원형점토대토기가 세형동검에 선행하는 비파형동검단계(6세기 즈음)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견해(이형원2011)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도 20_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고 있으며, 영서지역으로도 천전리식 주거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춘천 현암리의 점토대토기유형 취락은 북한강 맞은 편인 춘천 중도동 천전리유형 취락과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중기 이후 취락유형 간의 접점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주변 지역의 접변 및 공존 상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권 내에서 이들 재지유형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존/병존은 명확하였을 것이다.

IV 맺음말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확산은 필연적으로 지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가장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특히 서해안의 간척과 운하로 인해 과거 지형이 상당부분 남아있지 않다. 때문에 취락유형 분포와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지형의 해안과 수계상에서 유적의 공간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도 그러한 관점에서 기초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지형 요소, 분수계, 유역권 단위로 의미 있는 구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관 짓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병학, 2013, 「서울·경기지역의 초기-전기문화 편년」,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한국청동기학회 학술총서2, 서경문화사.
- 구숙현, 2023,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취락의 특징과 의미-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고고광장』제32호.
- 구혜영, 2022, 「강화도 무문토기문화의 전개 과정」, 『고고학』제21권 제3호, 중부고고학회.
- 구준모, 2013, 「청동기시대 주거의 구조와 공간-중서부지역 전기유적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구준모, 2023, 「부천의 고고학적 경관」, 『굴포문화연구』창간호, 부천시·부천문화원.
- 김권중·구준모, 2019, 「인천 검단의 청동기 · 초기철기시대」, 『인천 검단의 고고학』중부고고학회 학술총서1.
- 김권중, 2016, 「제2장 중부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편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12.
- 김권중, 2018, 「송국리문화와 중부지역-송국리문화의 제 양상과 편년, 성격-」, 『청동기시대 송국리 유적, 왜 중요한가?』, 서울대학교박물관·중부고고학회 공동 학술대회.
- 金權中, 2020, 「嶺西地域 靑銅器時代 文化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5-1, 서울경기고고학회.
- 문수균, 2024, 「남한강 유적 청동기시대 문화의 전개양상 및 조동리유형」, 『조동리유적 재조명』, 제3회 CBNU박물관 학술포럼.
- 문수균, 2016, 「경기서북지역 청동기시대 중·소형주거지 검토」, 『한국청동기학보』제19호, 한국청동기학회.
- 박성희, 2015, 「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권역」, 『고고학』14-1, 중부고고학회.
- 성춘택·문수균·양혜민, 2018, 「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한국 청동기시대 유형

론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第109輯, 한국고고학회.

宋滿榮, 2010, 「中部地方 青銅器時代 中期 編年の 再檢討-聚落 編年을 中心으로-」, 『한일 취락연구의 새로운 視角을 찾아서』, 韓日聚落研究會.

李亨源, 2011,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間性과 空間性」, 『湖西考古學』24, 호서고고학회.

진영민, 2024, 「중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 再考-취락과 토기를 중심으로」, 『중부지역 초기철기시대의 여명』, 제21회 매산기념강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천선행, 2024, 「유형론과 청동기시대 문화 인식」, 『조동리유적 재조명』, 제3회 CBNU박물관 학술포럼.

천선행, 2020, 「청동기시대 성립 전후의 지역 관계망 형성과 변화」, 『한국고고학보』제116집, 한국고고학회.

許義行, 2014,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前期 聚落의 中心과 境界」, 『湖西考古學』31, 호서고고학회.

황재훈, 2015,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연구 검토:형식 편년과 유형론,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 『고고학』14-1, 중부고고학회.

황재훈, 2017, 「중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동향-공렬토기의 확산과 문화변동에 주목하여-」, 『嶺南考古學』78號, 영남고고학회.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분포와 전개’에 대한 토론문

강병학(한양문화재연구원)

발표자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를 7개의 취락 유형(미사리 유형, 이중구연토기유형, 각형토기유형, 역삼동유형, 천전리유형, 송국리유형, 점토대토기유형)으로 정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동기시대를 ‘조기-전기(전반·후반)-중기-후기’의 4시기로 구분한 후 시공간적으로 검토하여 각 취락유형의 분포와 전개양상을 살폈다.

즉,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초기(기원전 14세기~10세기)는 미사리유형, 전기(2,950~2,700BP)는 이중구연토기유형, 각형토기유형, 역삼동유형, 중기(2,700~2,500BP)는 역삼동유형, 송국리유형, 천전리유형, 후기(기원전 6세기 이후~)는 역삼동유형, 송국리유형, 점토대토기유형으로 보았으며, 경기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의 이동과 접변 등 7개 諸 유형은 발생과 소멸, 확산 그리고 공존 및 병존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론자 역시 큰 틀에서 발표자의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유형의 분포상에 대한 견해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논지 전개를 위한 시기 구분과 유형 설정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에 대하여 글의 완성도나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1. 시기구분과 관련하여

고고학에서 편년(chronology)은 다양한 고고학 자료의 변화과정과 그 시간적 관계를 추적하여 각 자료들의 생성과 소멸 및 병행관계를 일종의 연표(chronicle 또는 chronological table)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 그 자료에 시간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이에 반해 시기구분(periodization)은 편년에서 간취된 다양한 자료의 시간성을 종합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에 시간적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앞과 뒤를 구분하는 작업이다¹⁾. 이 시기구분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분의 목적과 기준,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구분 잣대가 명확해야 한다.

발표자는 논지전개를 하면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를 초기-전기-중기-후기의 4시기로 구분을 하였고, 초기-미사리유형, 전기-이중구연토기, 각형토기, 역삼동유형, 중기-역삼동, 송국리, 천전리유형, 후기-역삼동, 송국리, 점토대토기유형으로 시기에 따른 유형 분포를 상정하였다. 상기에 따르면 역삼동유형은 전기(전반)~후기까지, 송국리유형은 중기~후기까지 지속된다. 하나의 유형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연속된 시간적 위치를 부여한 데에는 그만큼의 문화사적인 구분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의 이러한 시기구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 설정의 개념과 범주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2. 유형설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청동기시대 연구는 주거지, 분묘, 토기, 석기 등 유구와 유물을 구분하여 유형을 설

1) 김장석, 2018, 「한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과 초기청동기시대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109』, 韓國考古學會.

정하고 특정 유구와 유물은 그 선별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송국리유형 등이 기층유형이며, 토기의 구연부 문양과 주거지의 형태, 노지의 구조, 석기 조합상 등 양식적 변천과정을 유형화시켜 편년이나 시기구분, 지역성, 종족 등을 구분하는 단위로 이용되어 왔다. 이 외에 혼암리유형, 검단리유형, 천전리유형, 조동리유형, 당동리유형, 백석동유형, 포월리유형, 도내동·중산동유형, 반송리유형, 대평리유형 등의 파생유형도 있다. 이들 파생유형은 기층유형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기층유형의 혼합, 또는 계승적 의미가 제시된 것으로, 시공간적으로 계승하기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역삼동식토기의 분포권을 나타내기도, 송국리유형과 대응되는 시기의 지역성을 비춰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기층유형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혀도 새로운 자료를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또 다른 유형을 설정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²⁾.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자가 설정한 이중구연토기유형은 기존의 가락동유형, 미사리유형, 각형토기유형의 토기와 의 관련성이 상정될 정도로 유물상에서 친연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주거형태와 구조의 차이를 들어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기에는 이 유형을 구성하는 유물·유구복합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 요소 이외의 구분 가능한 다른 요소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각형토기와 구분 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토기 구연부 형태와 처리기법만으로 이중구연토기와 각형토기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아울러, 필자가 제시한 점토대토기유형은 소위 '수석리유형'과는 일정부분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유형이란 애초에 물질 자료의 변이를 정리하고 문화사 편년을 위한 개념도구로 쓰였지만,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은 오히려 연구자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분포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3. 미시적 관점에서의 문화변동과 관련하여

한국 청동기시대 유형은 시기·지역별 특징을 가지며, 각 유형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소규모 주거군은 다른 문화[유형]의 성장 확산에 쉽게 영향을 받아 강압적이든 자발적이든 여러 형태로 흡수, 통합, 복합, 공존, 변이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는 경기지역 중기의 역삼동유형은 가옥의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하고, 크기는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축소하며,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의 소멸과 무문화로의 진행, 일단병식석검과 일단경식석촉으로의 변화가 수반되며, 일반 가옥 외에 창고나 공방 등 기타 성격의 시설물이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중기 물질문화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족공동체에서 취락공동체로의 전환, 전문화 및 위계의 심화 등 큰 변화를 수반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중기의 이러한 변화상의 결과로 나타난 핵심요소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완 설명을 부탁드린다. 연관하여, 도면으로 제시한 역삼동유형 중기의 공방(수혈부 소형주거)과 창고는 一見 주거 시설 중 노지의 부재와 벽가에 부가된 수혈정도가 차이점으로, 출토유물 상으로 볼 때 일반 주거의 유물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공방 및 창고로 볼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질문화와 관련된 공방 및 창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발표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2) 성춘택·문수균·양혜민, 2018, 「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한국 청동기시대 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9』, 韓國考古學會.

4.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청동기시대 취락 유형의 경계와 교류’라는 금 번 학술대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유형의 ‘경계’라 함은 (단수이든 복수이든)집단의 상징이 필요조건으로 보이며, ‘교류’는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유형의 개념 속에 집단, 혹은 종족의 의미가 내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의 청동기시대 ‘유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일련의 비판적 상황³⁾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 방법론상 유형의 개념과 범주의 재정립 필요성 및 대안에 대하여 발표, 토론자분들의 다양한 高見을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3) 이성주, 2006, 「韓國 靑銅器時代 ‘社會’ 考古學의 問題」, 『고문화』 6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김민철, 2008, 「類型과 種族性(ethnicity)에 관한 비판적 검토-청동기시대 전기 諸무문토기유형과 관련하여-」, 『한국상고사학보』 62, 한국상고사학회.

황재훈, 2015,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연구 검토-형식 편년과 유형론,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 『고고학』 제14권 제1호, 중부고고학회.

성춘택·문수균·양혜민, 2018, 「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한국 청동기시대 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9』, 韓國考古學會.

천선행, 2024, 「유형론과 청동기시대 문화 인식」, 『조동리유적 재조명』, 제3화CBNU박물관학술포럼. 등

호서지역 취락 유형의 분포와 경계

-전기 유적을 중심으로-

문 수 균(미래문화유산연구원)

I. 머리말

II. 청동기시대 유형론

1.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유형의 종류
2. 청동기시대 전기 유형의 충돌과 파생

III.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유형의 시공간성

1. 전기 유형의 공간적 분포
2. 전기 유형의 시간적 분포

IV. 취락 유형의 경계와 상호작용

1. 취락 유형의 경계형태
2. 청동기시대 전기 집단의 이주와 정주
3.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V. 맺음말

I. 머리말

호서지역은 서쪽으로 아산만 일대와 서해안지역, 북쪽으로 안성천, 강원 영서 이남, 동쪽으로 소백산맥 이서, 남쪽으로 금강과 진안 분지 등을 경계로 한다. 이 지역은 남한지역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유형인 미사리, 가락동, 혼암리, 역삼동, 송국리 유형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개별유형의 핵심적인 위치를 가진다.

유형의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정의와 준거에 따라 정립되고 논의되어 왔으며, 상사성과 상이성을 내포한 채 이해되었다. 대표적인 전기 유형으로 정의되어온 가락동, 역삼동, 혼암리의 개념은 발굴 사례의 축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였고,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한 논의를 거듭한 유형론과 지역양식의 설정과 같은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의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양한 변이를 보여주는 자료에 대한 해석 틀의 부재, 기존 유형과의 모호한 대응관계, 탄소연대 자료의 활용으로 새로운 해석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유형의 검토와 지역별 시기별 자료를 통해 호서지역 유형의 분포양상과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¹⁾.

1) 시기구분은 전-중-후기의 3시기 체제로 대입하였으며, 본 발표의 대상에서 송국리유형은 일부 서술

II. 청동기시대 유형론

청동기시대 유형론은 다양한 정의와 개념 설정들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 한국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유형을 바라보는 시각은 본질론과 유물론적 사고가 가장 근접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개별 유형에 대한 정의에서 변이에 대한 분석의 단위나 위계의 구분 없이 개별적인 판단에 의한 분류와 정의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물론 청동기시대 고고자료가 실질적인 분류와 편년에 활용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연구자간에도 이미 인지되고 상호 비판적인 견해도 견지되었으나, 쉽게 극복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2000년대 초반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각종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장석 2014; 성춘택 외 2018; 임상택 2017; 황재훈 2014).

고고자료를 통해 설정된 유형은 변이에 관한 설명이다(본질론, 유물론). 그러나 유물론에서 ‘종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관찰 결과에 불과한 비경험적 구성일 뿐이다(Dunnell 1988a). 이처럼 지속적인 변화의 성격에 대한 추론은 변이가 확인되고 정확하게 측정된 다음의 일로서, 유물론적 사고의 과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는 ‘변이’를 확인하고 측정하는 단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이며, 두 번째로는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들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마이클 오브라이언·리 라이맨 2009: 308). 유물론의 시각에서 변이는 변화의 결과로서 두 개념의 객관화가 실제로 매우 난해한 작업이다.

요약하자면, 전술한 두 개념이 고고자료를 설명할 때 혼재되어 사용됨으로써, 분석의 단위가 흐트러진다는 것이다.

1.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유형의 종류

유형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범위에 존재했던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고고자료와 집단간의 관계를 동일하게 보는 시각으로 논의되었다(박순발 1999; 이형원 2002). 이에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집단을 염두에 둔 개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단순한 고고학적 형태단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이성주 2006; 안재호 2006)된 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유형의 논의가 유지되어 왔다.

미사리유형은 호서지역에서 간헐적으로 확인되는 취락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연기 대평리, 금산 수당리, 대전 원신흥동 등지에서 확인되는데, 취락의 규모가 작고 가락동유형의 분포권 내에서 점상으로 입지하는 양상이다. 시기적으로는 초기로 알려진 미사리유형이 빠르다고 알려졌으나, 대체적으로 가락동유형 취락과 공존한 시기가 대부분이다.

가락동유형은 호서지역의 주 분포 유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릉 능선의 입지와 위석식 노지·초석의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이 핵심 요소이다(이형원 2009, 공민규 2013). 다른 전기 유형과 함께 남한지역 각지에서 분포하지만, 금강중상류 지역에서 압도적인 분포 양상을 보인다.

역삼동·흔암리유형은 아산만 지역을 비롯한 충청서북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이 지역은 호서지역 내 대형 취락이 다수 확인되는 지역으로 가락동계이중구연, 복합문계, (구순각목)공

이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렬문양이 주요 문양요소이며 주거지는 구릉 능선과 사면부에 입지하며 토광(무시설)식 노지와 (세)장방형주거지를 특징으로 한다 .

2. 청동기시대 전기 유형의 층돌과 파생

청동기시대 전기 유형의 구성단위는 연구자의 관점과 인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공렬토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은 매우 차이가 크다. 공렬토기의 등장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가능한데, 신석기시대 후/말기 토기에서 구하는 자생설과 무문토기시대 개시 이래 북으로부터 기원했을 것으로 보는 외래설로 대별된다. 또한 공렬토기와 역삼동유형에 대한 개념도 매우 다양하며, 편년과 지역성에서도 상이한 입장이 지속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 유형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속성은 토기의 문양이다. 미사리유형의 표지유물인 돌대문토기의 경우는 하천의 중상류지역 충적지에서 자주 확인되며, 가락동유형의 표지유물인 이중구연단사선문은 금강유역에 집중적으로 보이거나 속성 자체로만 보면 남한 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역삼동·혼암리유형에 해당하는 공렬과 구순각목문, 혼암리식토기는 금강 중·상류지역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특정지역에 밀집하고 있는 문양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남한지역은 돌대문,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문이 조합된 문양이 전지역적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토기문양을 집단이라는 전제로 접근한다면 현재 정의된 유형은 집단과는 거리가 먼 작명일 것이다. 이렇듯 핵심 문양을 유형화한 분류체계로 변이를 설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고민은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명확한 대안은 없었다.

특히 공렬토기를 위시한 역삼동유형의 경우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발생과 계통에 대해서도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호한 위치에 있어왔으며, 기층 유형²⁾(성춘택 외 2018)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파생 유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혼암리, 백석동 또는 조동리유형과 같은 개념으로 진화하는 핵심적인 매개 요소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만영은 기존 유형의 재검토를 통해 청동기시대 전기 남한의 서부지역은 가락동-백석동유형의 계승관계, 동부는 미사리-조동리유형의 계승관계로 양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가락동유형을 남한서부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구분하고 금강중·상류를 중심권역으로 판단하였다(송만영 2013:9).

그러나 이러한 군집화는 실질적인 조합관계와 특징에서 가락동유형이 광범위하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강 중·상류 외 여타 권역은 소수의 가락동 요소와 다른 문화요소의 결합이 대부분이다. 특히 경기남부와 아산만유역을 가락동유형의 범주로 파악하여 ‘무시설식 또는 토광형 노지’를 가진 주거지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특징(송만영 2013:20-21)이라는 해석과, 한강하류지역의 이중구연토기를 팽이형토기의 영향으로 파악한 연구에 대해 일축한 부분

2) 가락동, 역삼동, 미사리 유형과 같은 본질론적(관념적) 의미가 강한 유형을 기층유형으로 언급하였다(성춘택 외 2018). 기층 유형은 본질론적 단위로, 기층 유형의 변화와 혼합에 따라 발생한 변이의 단위는 유물론적(현상적) 단위인 파생유형(조동리, 백석동 등)으로 다루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층 유형과 파생 유형을 동일한 단위로 논의하는 것은 고고자료의 해석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은 가락동유형의 개념을 극단적으로 확장한 사례로 볼 수 있다(송만영 2013:9).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율은 다르지만 가락동 요소와 돌대문, 공렬의 공존 양상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편년적 위치에 대한 설명에서 이러한 문양의 결합관계가 설명되겠지만, 결국 특정 요소에 가중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면 고고학적 실체와 해석은 괴리되기 마련이다.

현재까지 토기의 문양은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과 유형의 설정에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선택의 일관성이나 실용성 등에서 보편적인 단위를 나타내기에는 '최소한' 청동기시대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한 명목속성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탄소연대 측정자료 등과 비교한 그간의 연구에서도 세부 편년의 대응지표로 삼기엔 무리가 따른다.

결국 청동기시대 토기 문양은 편년의 지표나 유형의 설정이 아닌 개별 요소의 결합과 분리에 따른 조합비율이라는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문양의 조합관계가 시·공간적으로 어떠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문수균 2015; 천선행 2024)

Ⅲ.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유형의 시공간성

1. 전기 유형의 공간적 분포

호서지역은 크게 차령산맥과 금강이라는 큰 지리적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차령산맥권을 기준으로 문화영역의 구분을 하거나 금강 유역의 하천 수계망을 바탕으로 취락과 분묘 등의 고고자료등이 검토되어 왔다. 본 발표에서는 호서지역을 5개의 지역군으로 분류하여 개별 지역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1) 충청서북부지역

이 지역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 청양일부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유적 밀집지역인 아산만 지역은 곡교천 유역과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삽교천 유역 일대로 양분된다. 서산 지역의 서해안 지역은 유적의 빈도가 낮으며, 곡교천 유역과 천안 아산 지역에 높은 밀도로 유적이 분포한다. 곡교천은 삽교천 수계의 제1지류로서 상류지역은 산지 사이의 곡류 인근에 총적 평야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차령산맥과 영인산 주변의 산지를 따라 삽교천과 합류하는데 이들 지역에 해당하는 낮은 구릉 지역에서 많은 유적이 확인되었다.

곡교천 유역은 하천의 중, 하류에 많은 취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상류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거지 10기 내외의 중·소형 취락군이 확인된다. 곡교천 중류는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천안 백석동과 같은 대형 취락 대부분이 이 지역에 분포한다. 곡교천의 지류에 해당하는 매곡천·온양천 등지의 구릉 지역에서는 천안 백석동유적을 비롯하여 천안 불당동유적, 아산 명암리유적, 아산 용화동 가재골 유적 등의 대규모 유적이 확인되었다.

곡교천 유역의 취락 밀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주거지의 유형은 대부분 역삼동·흔암리유형에 해당한다. 천안지역은 전술한 백석동, 신방동 등 몇몇 유적에 주거지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아산 지역은 용두리 진터 외에도 가내리, 남성리, 용화동 가재골, 신희리, 석곡리 유적 등 중



그림 1 호서지역 전기 유적 분포 및 지역권(박주영 2024 수정 전제)

형 취락이 함께 확인된다. 또한 중심 유형인 역삼동·혼암리유형과 관련된 취락 외에 송국리유형 단계 주거지만 단독으로 확인된 유적은 많지 않다. 아산 덕지리, 시전리, 천안 남관리, 대흥리 등의 취락은 대부분 역삼동유형 주거지 중심 취락으로서 일부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삽교천은 중·하류 지역에 하천 충적지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중·소형의 취락이 분포한다. 아산만 연안에는 와우리, 신범리, 곡교천 하류의 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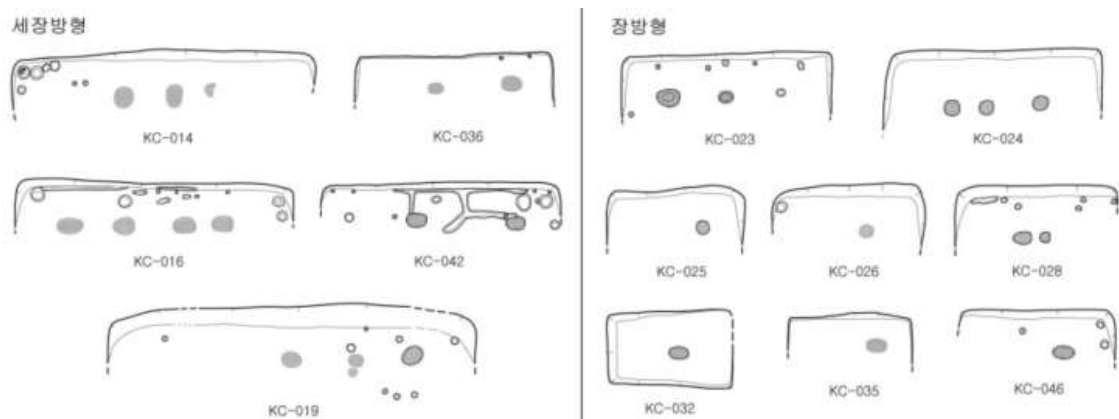


그림 2 아산 가내리유적 전기 주거지(손준호 2017 전제)

대흥리유적, 지류인 남산천변에는 자개리유적(I·II), 병천천 일대에는 운전리, 용원리유적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 중복 사례가 확인되고는 있으나, 편년 가능한 유물이 적고 선·후

축 중 한곳에만 있어 편년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다. 이 가운데 당진 자개리(1) 유적은 거의 유일한 대형 취락으로 볼 수 있다.

삽교천 유역 상류의 유적은 삽교천 중·하류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유적이 분포한다. 홍성 신경리·자경동, 홍성 신경리·예산 목리는 주거지 40기 내외의 준대형급 유적이다. 삽교천 중하류의 유적에서는 주로 중·소형 규모의 전·중기 취락이 확인된다. 예산 효림리, 오추리 가래울, 신가리 유적이 비교적 큰 중형 취락으로 주거지 20기 내외의 규모이다. 이 외에는 모두 소형 취락에 해당하며 곡교천 일대의 유적과 정반대의 양상이다. 즉, 곡교천은 상류에서 중·소형, 중·하류에서 대형취락이 확인되며, 삽교천 유역은 곡교천 유역에 비해서 대형 취락 및 주거지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삽교천 유역은 역삼동식 주거지와 비교하여 송국리식 주거지의 비율이 곡교천 유역보다 높다. 곡교천 유역에서는 역삼동·흔암리유형 주거지가 압도적인 점유를 차지한 반면, 삽교천 유역은 두 유형이 절반 정도씩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의 문화 접변 결과가 더 빈번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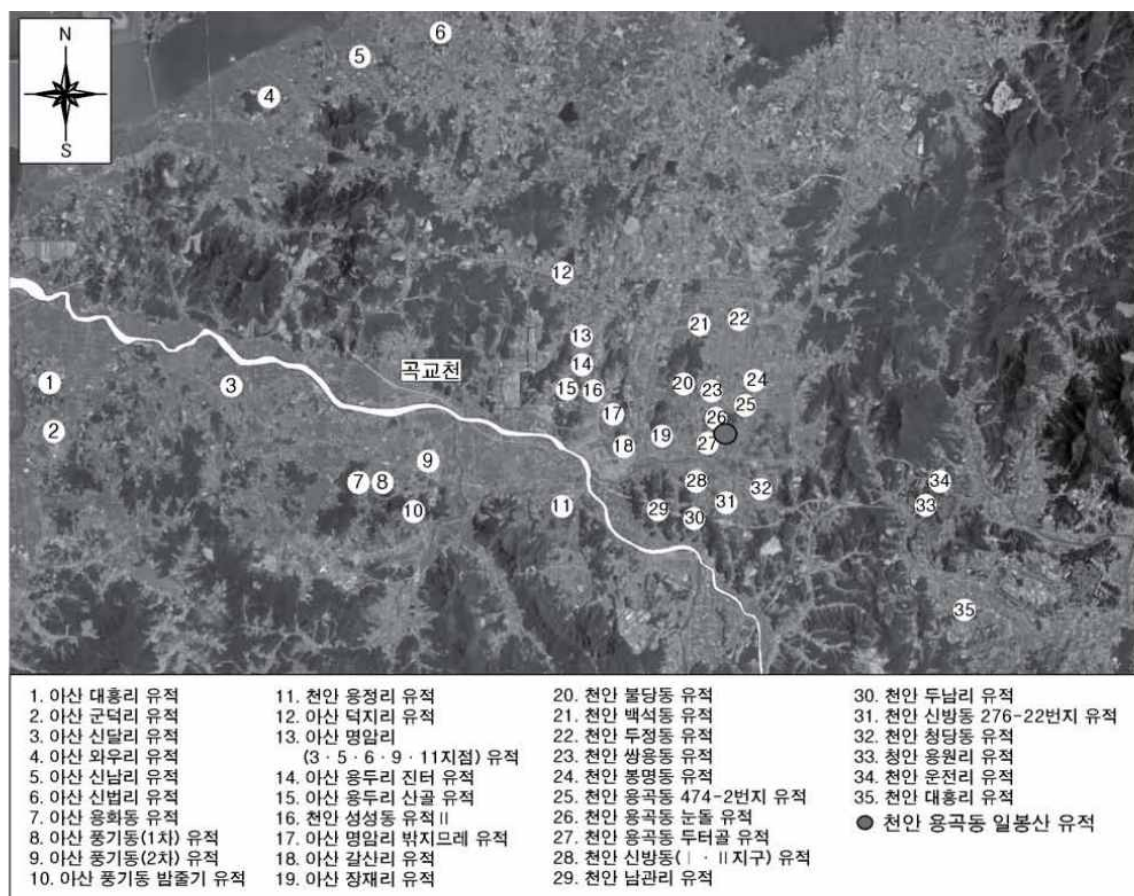


그림 3 곡교천 주변 청동기시대 유적(중원문화유산연구원 2024)

충청서북부지역은 역삼동·흔암리계 토기의 주분포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이중구연 토기의 존재는 이중구연요소를 강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가락동 또는 백석동으로 보는 입장으로 연결되거나(송만영 2013), 역삼동·흔암리의 병존요소로 보는 경향으로 나뉜다(김장석 2001; 이형원 2002). 이 지역의 이중구연토기는 공렬문, 구순각목과 결합된 흔암리식토기가 대부분으로 결국 흔암리식토기와 주거지 형태를 어떻게 보는지가 유형 판별의 결정적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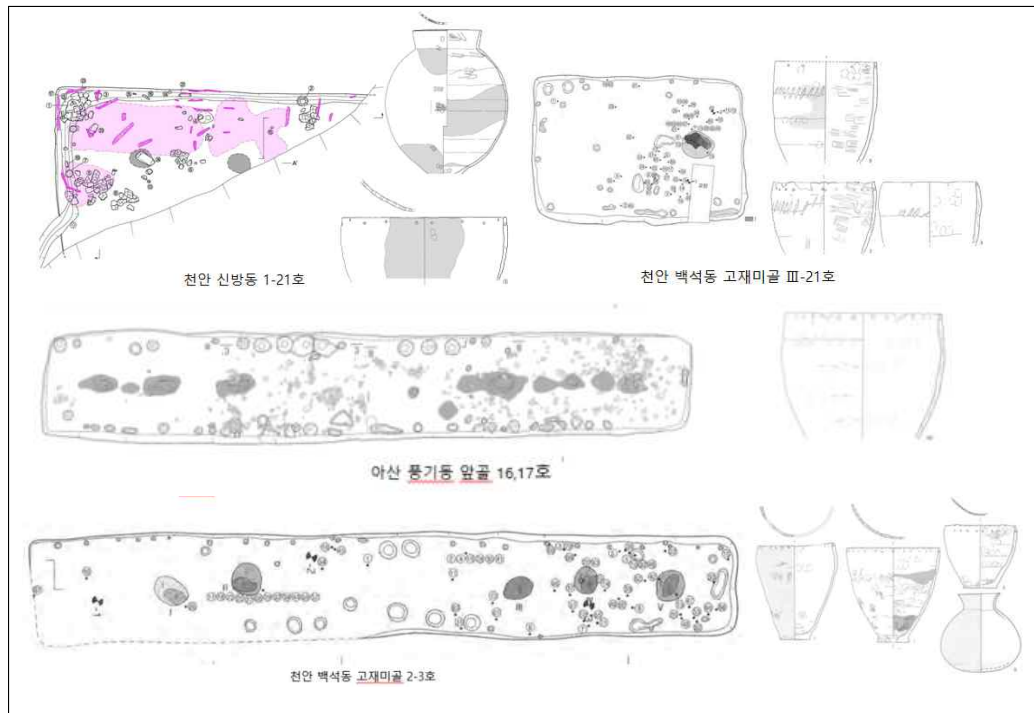


그림 4 아산만 지역 주거지 및 토기

2) 충청서해안지역

충청서해안지역은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지역의 해안가에 해당한다. 북부와 남부지역으로 세분 가능하며, 보령 이북에 해당하는 북부지역의 유적은 주로 지방하천과 서해안지역에 인접하여 관찰된다.

북부지역의 대형 취락은 서산 기지리에서 확인되었으며, 해안에 위치한 당진 성산리 유적도 대형 취락에 해당한다. 해미 기지리 유적은 69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인근 서산 기지리에서는 41기의 주거지 조사되어 두 유적의 거리가 1km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동일 취락으로 볼 수 있다. 당진 성산리유적은 1지점-주거지 49기, 3-1지점 38기 확인되었는데 두 지점도 1km 내에 인접하고 있어 동일 취락의 상정이 가능하다.

북부지역 취락 분포는 서산 기지리유적과 서산 부장리유적(주거지 34기의 중형 취락)이 대표적으로 당진 성산리 유적과 같은 해안 입지 유적은 태안 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태안 지역은 태안 시목리 437-24번지 유적을 제외하면 소형 취락이 대부분이다. 시목리 437-24번지 유적은 주거지 32기가 확인된 중형 취락으로 인근 하천에서는 모두 20기 이하의 주거지만 확인되어 중·소형 규모의 유적 비중이 높다.

북부지역 취락은 삼교천유역 제 유적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확인된 취락의 규모가 비슷하다. 이 지역도 역삼동유형 주거지 점유율이 우세하지만, 아산만 지역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점유율을 보인다.

남부지역은 보령과 서천 지역에 해당한다. 보령 지역의 유적은 서해안으로 합류되는 하천 지류에 주로 입지하며, 서천 지역의 유적은 송내천, 판교천에 주로 입지한다. 한편 하천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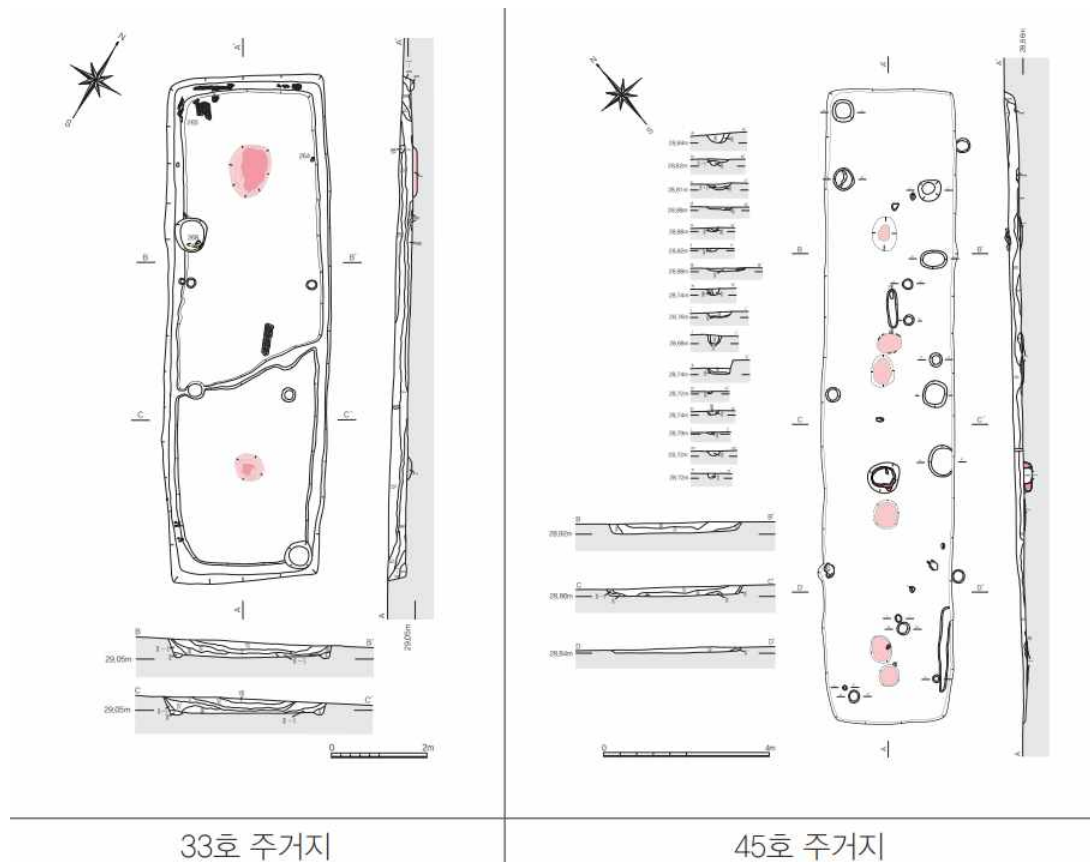


그림 5 보령 명천리유적 주거지(대한문화유산연구원 2018)

입지하고 있지 않은 유적은 서해안 가까이에서 확인된다.

대형 취락은 보령 관창리유적, 명천동유적, 웅천 구룡리 유적이 대표적이며 각 유적은 이 지역의 주요 하천에 위치하고 있다. 보령 관창리 유적은 충청서해안 남부지역 최대 취락으로 100기 이상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외의 유적들은 대부분 주거지 20기 미만의 중·소형 취락들만 확인된다. 전기유적은 대부분 역삼동·혼암리유형 계통의 취락이지만 호서지역 내 개체 수에서는 점유율이 매우 낮다.

충청서해안 남부지역은 전기유적에 비해 송국리형 주거지가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 지역으로서 취락 내 90% 이상의 비율로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된다.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절반 이하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어, 이 지역은 시기적으로 취락점유 주체가 비교적 단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충청남부지역

충청남부지역은 금강하류지역과 소백산맥 북서지역의 영호남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청양일부, 금산, 옥천 지역을 포함한다. 금강하류에 해당하는 부여, 논산지역은 규암평야, 논산천 유역의 논산평야 등의 평야지역이 분포한다. 서천 지역은 해안지역을 제외한 금강하류지역에 포함된 유적들이 해당되며, 논산과 부여 지역의 석성천 일대는 부여 송국리유적이 대표적으로 입지한다.

공주 지역의 유적은 금강중류지역에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부여 지역의 유적들은 석성천, 금강 본류 등 여러 하천에서 확인된다.

이 지역은 전기 이후의 취락이 주로 분포하며, 대형 취락은 부여 송국리 유적이 유일하다. 금강 중상류역의 최대 취락인 연기 송원리 송담리 유적에서는 주로 전기의 주거지들이 확인되나 금강 중하류역의 최대 취락인 송국리 유적은 중기의 주거지들만 조사되어 시간적인 위치에 따른 입지의 차이가 보인다.

송국리유적은 원형 주거지가 대표적이거나, 많은 수의 방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형주거지는 휴암리식 주거지와는 다른 형태로써 송국리식(방형, 원형) 주거지의 구조에서 보이는 타원형 수혈이 아닌 노지가 설치된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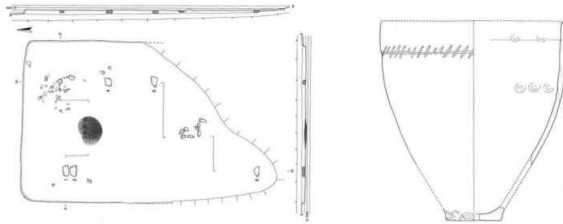


그림 6 금산 수당리 1호 주거지와 토기

4) 충청중동부지역

충청중동부지역은 금강중·상류에 해당하는 미호천 및 갑천 유역이 포함되며, 금산, 계룡, 대전, 세종, 연기, 청주(청원), 진천, 증평 지역에 해당한다.

대전 지역 유적은 갑천 유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갑천의 지류인 대전천에서도 확인된다. 연기 지역은 금강 본류 인근에서 주로 확인되며, 일부 유적은 미호천 하류와 금강의 지류인 용수천에 위치한다. 청주, 청원 일대의 유적들은 주로 미호천 하류에 밀집되어 있다.

이 지역의 (중)대형 취락은 연기 송원리, 송담리 청주 용암동, 궁평리, 송절동 유적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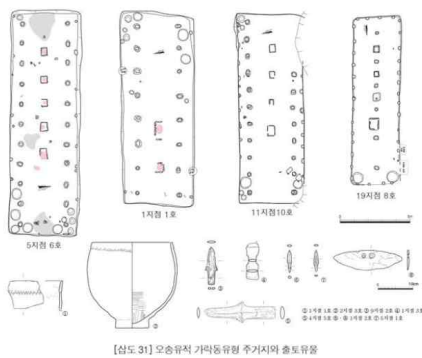


그림 7 청주 오송유적 가락동유형 주거지와 출토유물(중앙문화유산연구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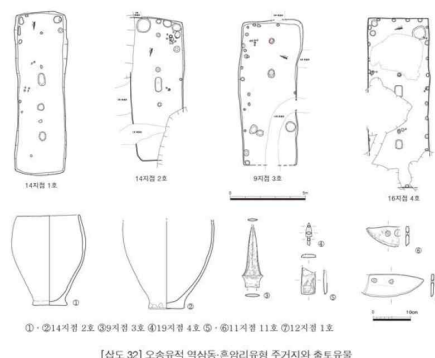


그림 8 청주 오송유적 역삼동·훈암리유형 주거지와 출토유물(중앙문화유산연구원 2018)

적이다. 대형 취락은 금강 본류와 미호천 하류에서만 확인되는데, 연기 송원리·송담리유적은 주거지 100기 이상의 대형 취락이다. 또 다른 연가지역의 취락으로 대평리유적을 들 수 있는데 이 유적에서는 미사리유형 취락이 분포한다. 입지 역시 하천변의 충적지상에 분포하여 기존 가락동유형의 취락과는 상이한 입지를 띤다. 연가지역과 인접한 청주 오송유적에서는 가락동유형 취락이 전기 후반까지 유지되며, 전기 중반 이후부터 일부 역삼동·훈암리 유형 취락이 소량 혼재한다. 최근 조사가 완료된 청주 송절동(청주테크노폴리스1~3차) 유적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이 지역의 미사리유형 취락은 당초 알려진 하천변 충적대지상 입지와는 다르게 구릉상에 입지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대형 취락과 30기 이상의 주거지가 확인된 중형 취락들은 모두 미호천 및 용수천과 금강의 합수 지점에 밀집되어 있다. 이 외의 지역은 주거지 2~30기 미만의 중소형 유적이 대부분이다. 갑천 유역에서는 계룡 입암리, 대전 관저동, 용계동, 상대동 중동골 양촌, 상서동 유적과 같은 20기 내외의 중형 유적이 다수 분포한다.



그림 9 청주 송절동유적 미사리유형 주거지(청주테크노폴리스 발굴조사단 2018)

충청중동부지역에 해당하는 금강유역은 가락동유형의 취락이 가장 뚜렷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다른 요소와의 혼합도 여타 지역보다는 낮다. 일부 미사리유형의 취락이 산재하지만 시기적으로 전기 후반이 되면 자취를 감춘다. 취락의 전체적인 규모는 충청서북부지역의 역삼동·혼암리 유형보다 크지 않다.

5) 충청동부지역

충청동부지역은 충청북도 동부지역의 충주, 제천, 단양의 3개 시군이 주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서쪽과 서남쪽에 해당하는 음성, 괴산, 보은 지역도 일부 해당된다. 이 지역은 남한강 유역과 지류에 속하는데, 남한강 유역은 호서지역 내에서 유적의 빈도와 밀도가 낮은 편이다.



그림 10 조동리(1364-5번지)유적 1호주거지(국원문화재연구원 2023)

우선 음성지역은 하당리 유적이 대표적으로 (세)장방형, 위석식만 2~3기 또는 위석식과 토광식을 혼합하여 설치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가락동식 주거양식에 토광식 화덕이 부가된 것을 ‘하당리식 주거’로 명명하여 후행 형식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공민규 2011). 이러한 혼합형 노지의 형태는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빈도가 증가한다.

제천, 충주지역은 호서지역 내 다른 취락의 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조동리유적과 장태산유적에서는 장방형, 원형 또는 방형의 위석식 노지와 토광식 노지의 혼재, 공렬계토기의 공반 비율이 높은 토기상 등을 들 수 있다. 석기상에서는 동북형석도 등의 요소가 가미되어 취락을 구성하는 집

단의 계통이 여타 호서지역 취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장태산유적에서 확인되는 공렬+단사선+이중구연토기는 토광식노지 주거지에서만 확인되는데,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유형의 범주에서 어떤 분류를 거쳐야 할지 모호한 요소들이 많이 확인된다. 이 지역의 유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호서지역에서는 예외적인 분류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인접한 강원 영서 남부의 남한강 수계의 유적들과 묶으면 조동리유형(송만영 2013)의 분포권에 포함된다. 충주 조동리 유적은 탄소연대결과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취락을 가진 강원지역 남한강유역 취락보다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다.

2. 전기 유형의 시간적 분포

호서지역 편년연구는 크게 아산만지역을 포함한 충청서북부지역과 금강중·상류지역을 포함한 충청중동부지역으로 대별된다. 양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나 토기 문화와 취락 유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전개과정을 거쳤다. (나건주 2010·2013b; 이형원 2002·2009 이흥종·허의행 2010; 김현경 2012, 송만영 2013; 공민규 2013·2014).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편년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충청서북부지역의 편년은 대체적으로 발형토기 구연부 형태의 빈도변화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나건주 2013). 우선 흙구연만 출토된 취락은 가장 늦은 시기로, 퇴화이중구연을 포함한 이중구연계, 단사선문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이른 시기로 보았다. 중간 단계에는 이중구연의 비율이 감소하고, 퇴화이중구연의 빈도가 증가하며 음각선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았으며, 전기 전반에는 주거지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5기 미만) 직선상으로 배치되는 소규모 취락을 특징으로 하였다(천안 두정동, 백석동 고재미골 1지점).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 중반에 취락을 구성하는 주거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배치양상도 능선정상 뿐만 아니라 인접 사면부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들 수 있다(천안 백석동 I II III지점). 또한 전기 후반은 취락의 단위가 복수로 확장되며 ‘공지’ 또는 ‘광장’으로 언급되는 공간을 둘러싼 취락형태가 나타났다(아산 명암리 11지점 등).

충청중동부지역 역시 토기 문양에 따른 편년과 취락 배치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이른 시기에는 미호천, 갑천 주변에서 소규모의 국지적 분포를 보이며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금강 본류에 입지한 송담리 유적과 같은 대규모 취락의 형성과 성장이 시작되며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요소들과의 접변이 이루어지며 개별적으로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다. 전기 후반에는 취락의 영역이 줄어들어 주거지의 밀도가 높아지는데 취락 내 운영이 집약화 된 결과로 보았다(공민규 2013).

토기문양을 통한 상대편년에서는 6단계~10단계 가량의 세분화된 단계설정이 진행되었고(김현경 2012; 공민규 2013). 가락동-흔암리-역삼동 순의 편년관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김현식 2008). 상대편년에서는 기본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시간성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병행관계 수립에서도 교차편년의 기준이 적용되어, 확산이나 접변과 관련한 시간성을 간취하기가 어렵다. 즉, 발생순서나 공반양상이 특정 연대나 시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동일한 요소의 확산 또는 접변, 재유행과 같은 현상에 해당될 경우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합이라 확인된 공반 양상도 일회성의 전파나 확산이 아닌 다회성의 근거리, 원거리, 회귀 이동이 수반된 경우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축적된 공반 자료를 통한 검증을 통해 문양요소의 조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최근 10여년 간 탄소연대를 통한 청동기시대 편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기존 상대편년에서 제시되어 온 유형별 선후관계 또는 문양 간 선후관계의 틀이 상당부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황재훈 2014). 탄소연대측정법과 형식학적 상대편년은 현재 청동기시대 편년을 다루는 근간으로서 상호간에 장단점이 존재하며, 상호 비판적인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여기서는 두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지면상 생략하고, 그간 진행되어 왔던 편년 논리를 참고하여,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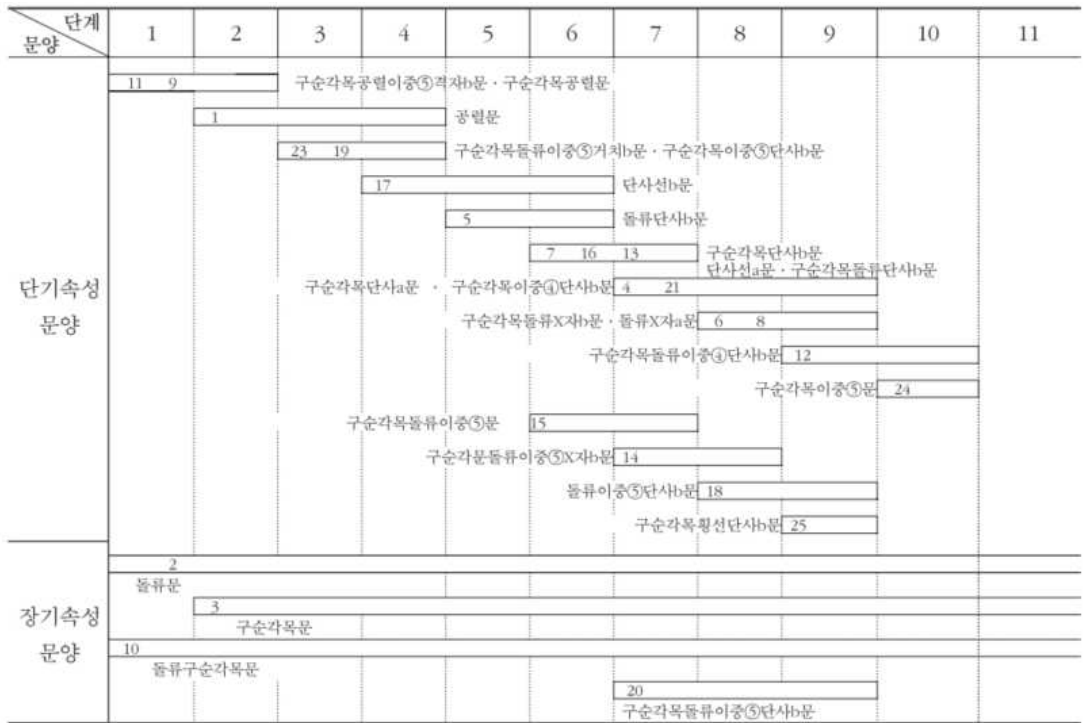


그림 11 차령산맥 이북지역 토기문양 편년(김현경 2012)

1) 전기 전반

전기 전반은 3200~2950BP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호서지역 내 지역별 문양분포는 돌대문과 이중구연, 외반구연계는 연기지역, 미사리계이중구연은 충청중동부지역, 가락동계이중구연과 복합문계는 차령산맥 이서지역에 분포한다. 이 시기의 문양별 분포는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되는 양상이다.

문양별 조합은 미사리계이중구연-외반구연-돌대문계와 가락동계이중구연-구순각목-공렬-복합문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군집이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전자는 차령산맥 동쪽 금강유역 중상류에 해당하며, 후자는 차령산맥 이서지역에 해당하고 음각선문계열은 독립적으로 분포하는데 집단 간의 공존관계에서 이탈한 속성으로 판단된다.(아산 장재리 12호, 청원 대울리 7호, 대전 탑립동 4-1호)

3) 기본적인 편년 틀은 황재훈(2014)의 편년 안을 수용하였으며, 상대 편년 및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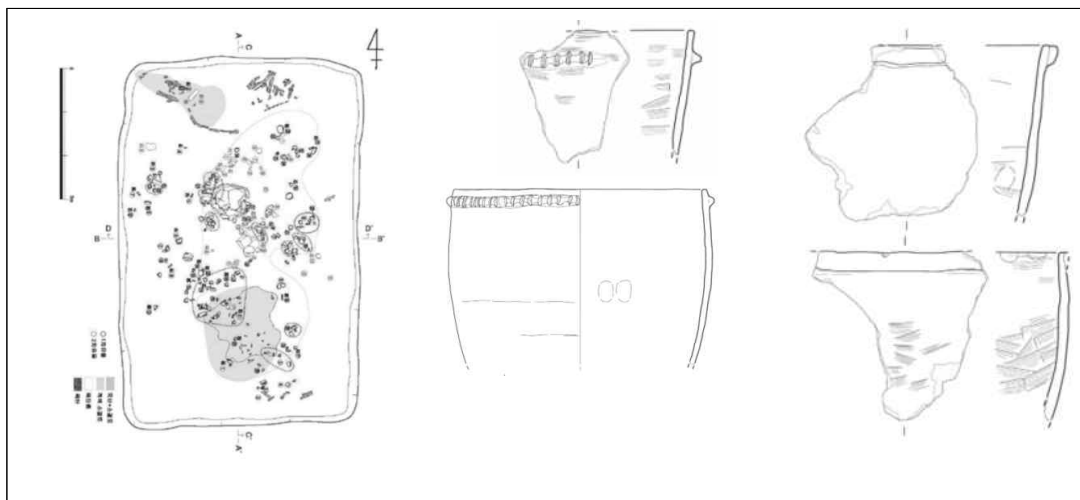


그림 12 연기 대평리유적 C지점 6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돌대문과 외반이중구연(구순각목)은 연기지역에서 공반 정도가 매우 높다. 미사리계이중구연 토기는 돌대문토기와 공반관계가 낮아지는데, 이 형식은 미사리, 가락동, 팽이형토기유형에서 모두 확인 가능한 문양이다. 따라서 같은 이중구연일지라도 미세한 형태적 차이나 공반 출토 유물에 따라 어느 유형에 편입될지 결정된다.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복합문은 결합도가 높으며, 특히 충청서북지역에서 공반 정도가 높다. 가락동계이중구연은 미사리계이중구연보다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복합문과 공반 사례가 더 높으며 마찬가지로 충청서북지역에서 빈번하게 확인된다. 이는 이중구연이라는 속성 자체보다는 다른 맥락이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합관계는 유형론적 접근으로 해석하기에 매우 난해하다. 이처럼 충청서북지역은 매우 다양한 문양이 결합된 지역으로 문양의 다양성을 문화접변으로 결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문화접변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전기 중반

전기 중반은 2950~2830BP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천안-아산지역에 본격적으로 취락이 들어서면서 취락 내 주거지 개체수가 급증한다. 전기 전반 단계부터 내려온 차령산맥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금강유역 가락동·미사리유형과 경계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기 전반 단계에서 확인되었던 돌대문계, 외반구연(이중구연/구순각목)은 개체 수가 소멸상태에 이르렀으며, 미사리계이중구연은 금강중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가락동계이중구연은 충청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중구연단사선공렬 등의 복합문은 금강중·상류역을 제외한 호서 지역 전역, (구순각목)공렬, 공렬, 구순각목은 남한강유역 제외한 호서지역 전역에 분포한다. 특히 가락동계이중구연, 복합문계, 음각선문계,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의 범위가 남한 전지역으로 확장되는 시기이다.

전기 전반과는 다르게 전기 중반에는 구순각목공렬계-복합문계-가락동계이중구연-구순각목-음각선문계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미사리계이중구연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등 전기 전반과 문양 조합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3) 전기 후반

전기 후반은 2830~2700BC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각목돌대문 외반구연(이중구연/구순각목), 미사리계이중구연은 충청중동부, 가락동계이중구연은 충청동남부 및 충청서북, 서해안 전역, 복합문과 음각선문은 호서지역 전체, 구순각목공렬과 공렬, 구순각목은 남한강유역을 제외한 호서지역 전역에서 확인된다. 호서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이중구연의 존재가 약해지며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충청중동부지역은 복합문과 음각선문계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대전 노은동 유적의 경우는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가 공반되는 교차양상이 두드러지며, 연기 보통리 유적에서는 복합문계 혼암리식토기의 확산과 가락동계이중구연과 돌대문의 결합사례도 확인된다. 청주 궁평리 향교평들 유적에서는 주거지 형식에서 무시설(토광)노지의 개체 수가 빈번해지며 토기 구성에서 적색마연토기의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도 보인다.

전기 후반은 토기문양의 조합에서 강원영서지역과 충청중동부지역, 아산만지역과 충청서해안지역의 유사도가 높다. 또한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요소가 이 시기부터 중기이후까지 경기지역과 철원, 강원영서지역까지 확대된다.

참고로 호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유형의 공간적 변화양상이 잘 관찰되는 탄소연대가 전기 후반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 역삼동유형은 중부지역(경기, 강원영서) 전체로 분포권이 확장되는데, 특히 경기서북지역은 재지문화중 하나인 팽이형토기문화와 접변된 취락이 등장한다. 이러한 양상은 송국리유형의 발생 이후 전 지역적으로 유행하는 주거지의 소형화와 재지 유형과 송국리 요소가 혼재된 접변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후 토기문화는 점차 공렬, 무문양계로 수렴된다.

충청중동부지역(금강중상류)에서는 가락동유형과 공존한 미사리유형이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간다. 강원 영서지역(북한강유역)은 역삼동유형과 미사리유형이 공존하다가 늦은 시기로 갈수록 역삼동유형을 위주로 한 지역유형으로 변화된다(천전리유형). 또한 충청동부지역과 인접한 남한강유역은 미사리유형과 공렬문화(주거지는 역삼동계 미미)가 혼합된 물질문화양상이 전기 늦은 시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렬문화의 확산경로가 양 지역에 다르게 전개된 것으로 보이며, 동북한 공렬문화를 가진 집단이 동해안지역을 따라 내륙으로 전파되며 북한강보다는 남한강 일대에서 유형간의 공존이 오래 지속된 결과로 볼 수 있다.

The plan shows several burial pits with their contents labeled in Korean. The pits are arranged in a grid-like fashion. The labels include:

- 청주 학소리 II-1호 (Cheongju Haksori II-1)
- 청주 감서동 1호 (Cheongju Gamseodong 1)
- 청주 감서동 2호 (Cheongju Gamseodong 2)
- 대전 원산동 1호 (Daejeon Wonsandong 1)
- 대전 인접동 4-1호 (Daejeon Injeongdong 4-1)
- 마산 봉가동 앞골 16,17호 (Masan Bonggadong Apgol 16, 17)
- 마산 대평리 1호(B-1-C) (Masan Daepyeongri 1 (B-1-C))
- 마산 대평리 3호(B-1-C) (Masan Daepyeongri 3 (B-1-C))
- 마산 대평리 KC-001(B-1-C) (Masan Daepyeongri KC-001 (B-1-C))
- 마산 신가리 2-5호 (Masan Shingari 2-5)

연기 장제리 8호

연기 장제리 9호

천안 백석동 고재마굴 1호~21호

연기 대평리 KC-005(3-1-B)

천안 백석동 고재마굴 2호~26호

보원 구들리 8-2호

아산 용학동 가재굴 2-3호

연기 송리 29-1지형2호(KC-002)

보원 구들리 8-2호

아산 신가리 1-2호

연기 장제리 8호

[illegible]

그림 13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요 유구·유물

IV. 취락 유형의 경계와 상호작용

1. 취락유형의 경계 형태

다섯 개의 권역으로 분류된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형들은 시공간적으로 끊임없이 변동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5개의 권역과 3단계의 전기 편년을 검토한 결과 청동기시대 전기의 고고자료를 구성하는 속성들은 매우 역동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다양한 취락 유형의 경계는 청동기시대 전기 집단의 활발한 이동과 확산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전기 내에서도 집단의 이동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동과 정주의 혼합으로, 취락을 구성하는 주거지와 유물군에서 복합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호서지역은 앞 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사리, 가락동, 역삼동·흔암리, 송국리 등의 다양한 유형들이 일련의 경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을 바탕으로 허의행은 전고에서 9가지 경계 형태⁴⁾를 제안하였는데(허의행 2014:64), 본고에서는 이를 수용 보완하여 취락유형의 경계형태를 3가지로 축약하여 구분하였다.



그림 14 취락 유형의 경계 형태 모식도

1) 대치형(exclusive type)

대치형은 차령산맥 이서와 이동지역의 차이와 같이 핵심 유형 분포권의 경계로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차령산맥 이서지역은 역삼동·흔암리유형의 취락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차령산맥 이서지역은 가락동 및 미사리유형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이다. 또한 충청동부지역의 경우는 금강유역의 가락동유형 취락과 거리상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수계상 남한강유역의 영서지역과의 친연성이 더 가깝기 때문에 또 하나의 대립형 경계로 볼 수 있다. 충청동부지역의 이러한 특징은 가락동요소와 공렬요소의 결합 또는 미사리요소와 공렬요소의 결합으로 보는 상이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으나, 시간적으로 병렬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방향의 영향에 따른 결과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양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전개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중심분포지대, 차단지대, 차단과 접촉지대, 접촉지대 3형, 이행지대, 교차 및 이행지대, 차단 및 통로지대로 구분하였다

2) 관입형(intrusive type)

관입형은 가락동유형 핵심분포권 내 미사리유형 또는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산재, 역삼동·혼암리유형 핵심분포권 내 가락동유형의 산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특정 문화요소를 공유하는 공간 범위 안에 다른 문화집단(주거지 또는 토기 문양)이 점상으로 분포하는 양상이다. 관입형 취락유형 가운데 미사리유형은 호서지역 내에서 가락동 및 타 유형과 공존하며 지속되었지만, 가락동유형에 (동화?)된 이후 송국리유형으로 대체된다.

우선 천안 불당동유적 내 가락동유형 주거지와 연기 송원리 유적의 역삼동유형 유물 공반 등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산 부장리 유적의 혈구 있는 석창과 미늘 있는 석촉, 서천 저산리유적 6-1지점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어형 석도는 서북한지역 및 한강유역에서 분포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북한 또는 한강유역의 외부 물질문화 요소가 연안을 따라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허의행 2014:50). 연기 송원리와 보통리유적, 대전 용산동 등지에서는 유물 요소가(가락동유형 내 공렬토기, 절상돌대), 청주오송(가락동내 역삼·혼암리), 증평 송산리, 연기 대평리, 대전 원신흥동(가락동 분포권 내 미사리유형) 등지에서 주거지 요소가 관입된 형태로 확인된다.

3) 혼재형(mixed type)

혼재형은 대전, 계룡지역과 논산 지역, 제천, 충주 등 광범위한 지역에 해당된다. 혼재형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가능한데, 첫 번째는 동시기 취락유형의 공존과, 두 번째는 시기를 달리한 취락 주체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 제천, 충주지역은 미사리 또는 가락동유형의 주거지와 역삼동유형의 토기상이 혼재되어 확인되는데, 이 지역은 특정 유형의 주 분포권으로 설정되기는 어려운 지역으로서 전기 후반에 해당하는 혼합 취락유형의 분포지역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강 수계와 인접한 지역에 해당되며, 강원영서남부지역(섬강, 주천강, 평창강 등의 취락유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연기 대평리와 대전 원신흥동, 증평 송산리, 금산 수당리유적은 미사리유형 취락이 가락동유형의 핵심 분포지역에서 확인된다. 이들 유적은 혼재형의 형태 중 동시기 취락유형의 공존 상태로 볼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가락동 유형의 분포권으로, 가락동유형 취락의 입지와는 다른 공간인 충적지에서 주로 확인된다. 또 다른 형태로 대전 방동뜰 유적은 가락동, 역삼동, 송국리유형의 취락이 모두 확인된다.

2. 청동기시대 전기 집단의 이주와 정주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유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취락유형이 공존과 이동, 교체를 통하여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였다. 또한 취락유형의 경계는 이와 같은 취락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남겼다.

그렇다면 경계형태의 형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본고에서 모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사례 연구를 통해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남겨두고자 한다. 현재 남한지역의 여러 유형들은 자생 또는 외부 유입의 요소들이 뒤섞인 채

고고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1차 자료의 해석과 직결되며, 폭발적인 자료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변이가 현재의 필터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유형을 판단하는 고고자료의 천착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 생활하는 집단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동하였는지 검토하는 작업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계통론적 접근 또는 기원론과는 다른 이야기로서, 물질문화에 대한 접근에서 봉착된 해석의 한계를 보다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없지 않았으나, 자연과학적인 분석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고학계에서도 핵심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는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유전자 분석 기술의 향상과 최신 분석 자료의 결과를 통해 소단위 기후 변화와 결부된 집단의 이동과 유전적 동질성이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한반도 주변 지역 인구 이동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⁵⁾. 청동기시대 전기의 시·공간적 양상을 통해 밝혔 듯 다양한 토기문양의 결합과, 주거형태의 차이, 그에 수반되는 토기와 의 조합관계가 탄소연대분포에서 나타난 바, 한반도 내 기층민과 이주민의 관계는 유형의 설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동리, 백석동유형 등 최근 십여 년간 제시된 파생 유형은 기층 유형과 동일한 개념보다는 접변의 결과에 따른 기층민과 이주민 문화 접변의 결과인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렬, 무문양 일색의 경향으로 진행되는 현상도 그 원인을 살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동기시대 전기의 다양한 취락 문화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렬 무문양계 문화로 일원화 되는 양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다른 집단의 유입이 차단되거나 또는 타 유형이 공렬·무문양계 유형으로 흡수·동화 될 가능성, 그리고 다른 유형의 문화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광양과 밀양의 범람원에서 보고된 고해상도의 화분분석 결과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고기후 자료인용 없이 한반도의 홀로세 기후변화를 자세히 보여주었다(Park *et al.* 2019). 일반적으로 홀로세 전 시기에 걸쳐 광양의 수목화분 비율의 변화 양상은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와 연동된다고 한다.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내려갈 때 한반도의 홀로세 기후는 대체로 건조한데, 이는 하계 몬순을 통해 한반도로 전달되는 수증기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Park 2017). 이후 광양의 시료가 해수면 변동과 관련되어 편차가 심한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밀양의 시료에서도 동일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프록시(proxy) 자료에 따르면 남한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4800BP부터 탄소연대 자료가 급감하며 3600BP까지 매우 적은 양의 자료만 남아 있었다. 이 시기는 신석기 후기~말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청동기시대 개시기에 직면한 시기와의 맞닿아 있다. 당초 정주와 이동을 병행했던 신석기인들이 이 시기에는 이동을 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3600~2400BP에는 전후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구간 내에서도 3200, 2800, 2400BP에 단기 한랭기가 발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청동기

5) 어느 특정 유형 또는 집단이 청동기시대 사회의 시작부터 기층문화를 이루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빨리 정착한 집단과 이보다 늦은 시기에 정착한 집단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단기 환경변화에 따른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도 이러한 단기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다양하고 세밀하게 도출된다면, 흥미로운 해석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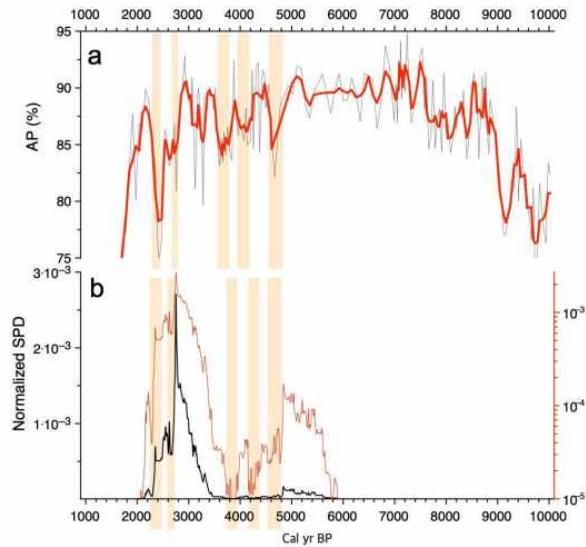


그림 6. 광양의 수목 화분(Arboreal Pollen; AP) 비율과 남한의 고고학 발굴지에서 보고된 연대측정 자료(Summed Probability Distribution; SPD) 간 비교. 고고학자들이 발굴 과정에서 움집이 있었던 구덩이를 발견하면 거주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 보통 그곳에서 출토된 탄화목이나 탄화종자의 탄소연대를 측정함. 이러한 연대측정치들을 모두 모아 통합하면 과거의 주거지 수 변화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주거지 수는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자료는 과거 인구 변화의 프록시 자료로 자주 활용됨. 그래프에서 노란 막대는 홀로세 후기 한반도의 단기 한랭화로 거주지수와 인구가 감소한 시기를 지시함(Park *et al.*, 2019)

그림 15 광양의 수목화분 비율과 남한지역 탄소연대 누적확률분포 그래프(박정재 2021)

시대가 개시된 이후 중기까지의 시기가 모두 포함된다.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인구 변화는 3400BP 이후 뚜렷한 증가를 보이며 2800BP까지 급증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한다(고고연대측정 누적확률분포와도 일치). 특히 2800BP부터 화분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2.8ka 이벤트라고 불리는 단기 가뭄현상으로, 한랭화가 발생된 시기이다. 추정컨대, 이 시기는 상대온도 하강에 따른 먹잇감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렵채집 위주의 집단은 먹이의 이동과 함께 식량 공급의 유지를 위해서 이동 여부를 고민했을 것이다. 또한 농경이 병행되었던 집단에서는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먹이의 이동을 따라가기 보다는, 불확실 하지만 정주를 결정했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다음과 같은 청동기시대의 주요 변화들이 감지된 시점이다. 첫 번째로 전기 유형의 쇠퇴기와 맞물린다. 인구 그래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수렵채집 위주의 집단은 이동을 택하였을 것이고, 남아있는 집단은 농경에 주안점을 두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송국리유형의 개시와 역삼동유형의 광역화 경향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송국리유형의 기원은 2.8ka 이벤트라는 환경 변화의 결과로 해석한다면 새로운 경작문화와 주거문화를 가진 집단에 의해 송국리문화가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공산이 매우 크다. 다만 기원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여전한 과제이다.

한편으로는 금강중상류역과 중하류역의 인구 분포 역시 특정 지역의 인구 유입 또는 유출의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황재훈 2021:111). 이는 유출된 집단과 유입된 집단이 동일한 환경변화에 대해 다른 대처를 한 사례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역삼동유형은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했던 생계조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컸을 것이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 전기보다는 중기에 수도작을 통한 생산력의 강화로 강한 정주문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구 그래프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물론 수전 농경의 흔적이 송국리 단계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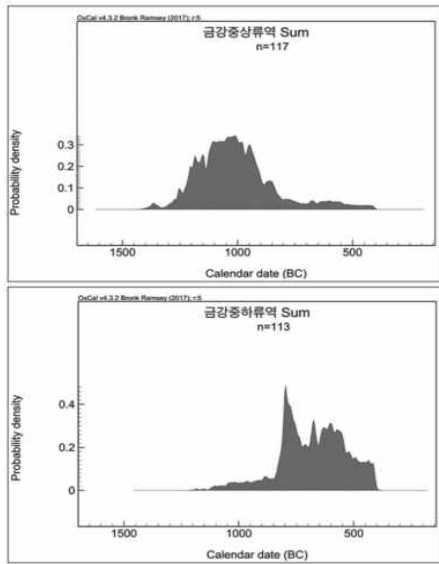


그림 16 금강중상류역과 금강 중하류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보정연대의 누적확률분포(황재훈 2021)

타당하나, 전기 농경에 대한 흔적은 석기나 탄화미 등의 자료로만 확인 될 수 있었다.

청동기시대 전기 남한지역이 매우 짧은 시간에 전지역적인 점유가 이루어졌다(김장석 2002)는 연구를 참고한다면, 초기 청동기인들은 이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수렵채집을 중심으로 한 농경(조, 기장)을 시작으로 벼의 재배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청동기시대 전기는 생계 방식에 따른 확산 또는 정주가 일반적인 사회 집단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내의 자연환경은 계절과 지역에 따른 특징과 편차가 매우 극심한 지역으로서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일례로 호서지역 석기조성비에 대한 연구결과를 참고하면(손준호 2008), 수렵구의 비중은 전기와 중기(후기)에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확구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호서지역 내 세부지역에 따라 수렵의 비중과

농경의 비중이 시기를 불문하고 달랐다는 점이다. 또한 송국리문화의 파급 이후 그렇게 지배

적인 농경사회로 변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금강 하류,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유적들에서는 수렵구와 식량처리구의 비율이 전기에 비해 더 늘어난 곳도 있다. 급격한 인구의 감소 이후 송국리문화는 2700BP 무렵 안정적인 분포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인 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송국리 집단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 생계방법으로 살아남았으며, 농경의 비율은 전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높은 부양력을 가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 유적에서 확인된 농경의 비율도 중기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는 않는다. 다만 중기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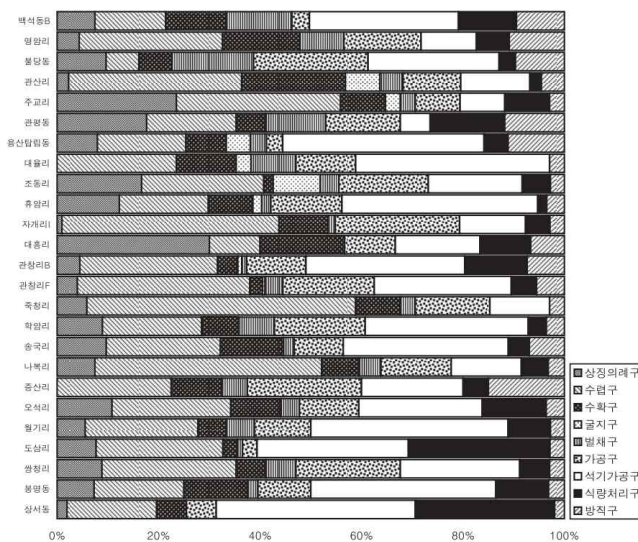


그림 17 호서지역 유적별 석기조성비(손준호 2008)

훨씬 많았던 부양인구에 비해 농경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렵채집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유적에서는 조, 벼, 밀, 보리류 등의 탄화곡물이 확인되었으며, 벼의 경우 陸稻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진 자개리, 아산 대흥리 큰선장 유적 등에서도 탄화미가 확인되었고, 백석동 고재미골 탄화곡물 안정동위원소분석에 따르면 육도와 수도의 동위원소분석결과가 서로 다른데 수도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나건주 2014:65).

이와 같이 호서지역 전기와 중기는 농경의 존재와 함께 정주와 이동이 다양하게 조합된 생계 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와 함께 수렵채집활동을 위주로 농경이 이루어지고 중기에는 변화된 환경과 함께 새로운 도작 기술과 수렵채집활동이 병행된 사회로 진화하였다.

3.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취락유형을 판단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전술한 기층 유형처럼 표지적인 요소가 뚜렷한 관념적인 개념이 있는 반면, 파생 유형처럼 실제 유구에서 나오는 복합적인 변이로 구성된 개념도 존재한다. 각각의 요소는 고고자료에서 확인된 실체로서, 모든 판단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앞에 놓여진 주거지와 토기, 석기들은 말이 없다. 다만 남겨진 것들에 대해 해석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북아메리카 이주 과정에 대한 Stefan Burmeister의 연구를 살펴보며 취락 유형의 접근에 작게나마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반도 청동기시대와는 전혀 다른 17세기 이후의 유럽인의 아메리카 이주에 관한 내용이며, 이주자들과 기층민의 정착과정에 대한 하나의 메커니즘을 제시해 준다(Burmeister 2000).

유럽 정착자들의 북아메리카 식민지화는 이주를 통한 문화적 이동의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적절한 사례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한국 고고학에서는 문화의 전파 또는 이주와 관련하여 토기나 도구문화의 확산과 연동한 연구들을 흔히 접한다. 이러한 연구의 핵심적인 전제는 도구문화가 도구를 사용하게 만드는 일정지역 집단의 기원에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이주민의 주거양식⁶⁾은 네덜란드인이 이 지역의 소유권을 가진 후, 네덜란드인과 영국인 정착자 속으로 흡수되었다. 결국 Fenno-Scandinavian의 핵심적인 문화요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가운데 이주자의 이질성, 집단의 교체와 같은 이주 지역의 상황은 상호 동화를 유도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능성과 가치가 높은 것은 선택되고 동화 과정에서 다른 특색들은 소멸하게 된다. 다만 소멸되지 않은 요소 중 보이는 요소는 지배적인 집단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이 지역의 건축양식은 17세기 영국 스타일의 벽돌집을 건축하기 시작한 이후 빠르게 대체되기 시작한다.

Burmeister는 이주자의 세계가 두 개의 면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주의 고고학적 증거가 내부영역의 물질문화에서 발견됨을 제안하였다. 외부영역은 이주자 사회가 직면하는 부분이며 반대로 내부적 영역도 존재한다. 만약 문화패턴에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경제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주자 집단의 경험과 관습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기반한 전통적인 관습은 외부영역보다 내부영역에서 전통을 향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의 글에서는 스웨덴 이주자 영역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회와 외양은 차이가 없는 반면, 인테리어는 그들 고향의 것을 많이 따랐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 이민자 사회가 다양하게 정착된 특정 이민자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기도 하다. 내부와 외부 영역 사이의 구분은 전파와는 다른 형식으로서 이주를 통한 문화적 특징을 밝히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아메리카 이주자들은 그들의 전통방식이 실패한 경우 재빨리 그들의 전통적 생존방식을 포

6) 정착문화의 상징인 통나무집으로서 250년 넘게 서구의 건축양식을 대표(Fenno-Scandinavian 양식)하였다. 이후 Fenno-Scandinavian의 문화적 특성이 미국 동부의 델라웨어(Delaware) 지역에 이식되었다.

기하였다. 첫 번째 정착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제적인 압박을 감내하기만 했으나 그 후의 정착자들은 그들의 농경기술 등을 채용하였다. 이에 Burmeister는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표현을 반영하는 도구문화요소의 다양한 사용은 이주에 관한 증거를 정립하거나 추적하는데 적합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구문화의 다양한 사용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내부영역과 외부영역의 개념으로서, 외부 영역은 지배적인 또는 기층집단의 대용지표로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내부 영역은 집단의 전통이 내재된 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취락유형으로 돌아가면, 주거 양식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노지의 종류를 상정할 수 있다. 이는 기층 유형인 가락동, 역삼·흔암리 유형을 구분 짓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었으며 지역성이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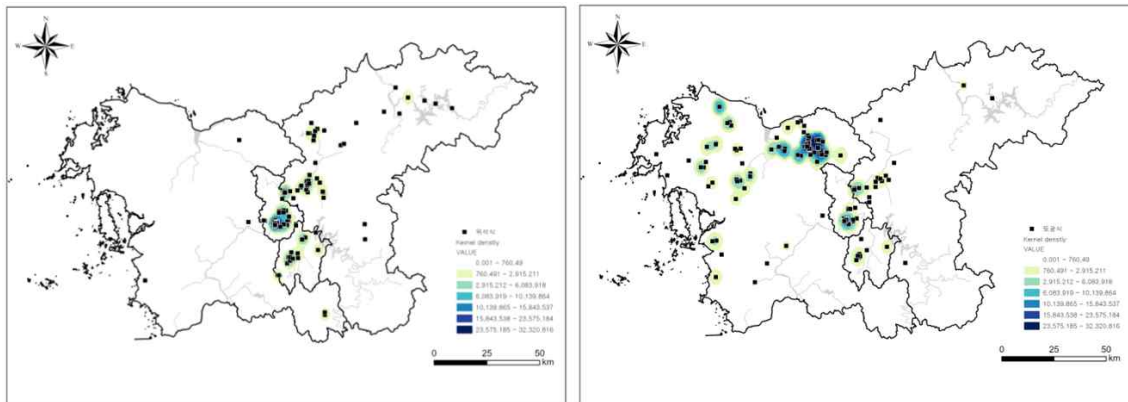


그림 18 위석식 노지(左)와 토광식 노지(右) 분포(박주영 2024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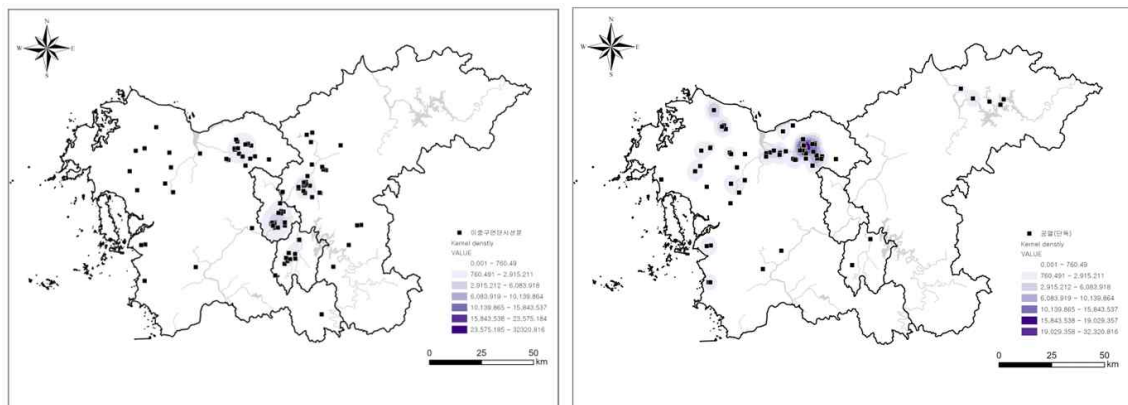


그림 19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좌)와 공렬토기(우)의 분포(박주영 2024 전제)

대전·세종·청주 지역은 가락동유형 주 분포지 내 역삼·흔암리유형 주거지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대로 가락동유형 주거지는 천안지역이나 보령지역에 극히 일부만 확인된다. 이는 주거지만 놓고 보았을 때 가락동유형의 주 분포권에서 역삼·흔암리유형 주거지의 수용이 높거나, 역삼·흔암리유형의 확장성이 가락동유형보다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주

거지는 분포권의 영역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뚜렷한 편이다. 그러나 토기요소는 이와 다르다. 양 유형의 표지적 토기(이중구연, 공렬)로만 구성된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해당 토기와 연결되는 표지적 주거지 형태와는 다른 혼합적인 분포 양상이다.

이처럼 주거지와 토기는 외부영역과 내부영역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분포양상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속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공간을 점유한 집단의 구성이 모두 같은 집과 같은 살림살이를 지니지는 않지만, 주거지의 형태는 해당 지역의 비교 우위를 가진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적인 속성으로, 그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복합체는 집단 내 성원의 전통적인 속성을 가진 요소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형 연구의 비판을 통해 제기되었던 유형 단위의 불일치와 포함관계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같은 외부영역과 토기 유물과 같은 내부영역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본 발표문에서는 호서지역의 취락유형의 종류와 시공간적 양상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서지역 취락유형은 기존 취락유형론에 따르면 미사리, 가락동, 역삼동·혼암리, 백석동, 조동리, 송국리 유형에 해당한다. 전기 유적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 가능하며, 시기별로 문양 조합의 그룹과 주 분포권이 변화하는 점을 파악하였다. 취락유형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취락 유형 간 뚜렷한 분포지역의 차이, 지역 내 이질적인 요소의 관입, 혼재된 취락유형의 동시 사용, 시기를 달리한 취락 주체의 변화 등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취락유형의 다양한 양상을 정리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사리, 가락동, 역삼동, 송국리 유형은 기층 유형에 해당하며 관념단위로 사용가능하다. 기층 유형은 실제 고고자료에서 확인되는 변이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러한 변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구성을 인지하는데 적합한 개념이다. 그리고 혼암리유형을 위시한 백석동, 조동리 등의 파생유형은 이러한 변이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 발생한 현상단위로 사용가능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락유형의 연구에서는 기층 유형과 파생 유형이 혼용되는 것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호서지역 내에서도 취락유형은 대별과 세별이 가능한 복합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과 경계의 개념도 매우 상대적이다.

다만, 아무리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있는 변이의 양상도 어떤 조합, 어떤 시점 어떤 공간에서는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층 유형(가락동, 역삼동, 미사리)으로만 고고자료를 설명하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지역 단위와 유형의 위계를 구분하여 연구자들이 인지 가능한 설명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민규, 2011, 「금강중류역 청동기시대 전기취락의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8, 한국청동기학회.
- 공민규, 2013, 「충청 남동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 공민규, 2014, 「청동기시대 전기 가락동유형 취락의 변천」, 『한국청동기학보』 14, 한국청동기학회.
- 김범철, 2023, 「충청북도 동부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맥락적 이해」, 『선사와 고대』 73, 한국고고학회.
- 김장석, 2001, 「흔암리유형 재고: 기원과 연대」, 『영남고고학』 28, 영남고고학회.
- 김장석, 2002, 「남한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파: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가설의 제시」, 『한국고고학보』 48, 한국고고학회.
-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 69, 한국고고학회.
- 김장석, 2014, 「한국고고학의 편년과 형태변이에 대한 인식」, 『한국상고사학보』 83, 한국상고사학회.
- 김종일, 2010, 「고고학에서 이주의 개념과 물질문화의 변이-개념 및 서구사례를 중심으로」, 『이주의 고고학』,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문, 한국고고학회.
-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 5-1, 서울경기고고학회.
- 김현식, 2008,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의 문화사적 의미」, 『고고광장』 2, 부산고고학회.
- 김현경, 2012, 「호서지역 전기 무문토기 문양의 편년」, 『한국청동기학보』 10, 한국청동기학회.
- 나건주, 2010, 「충청 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초기~전기문화 편년』,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 나건주, 2013,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성장과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건주, 2014,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성장」, 『한국청동기학보』 15, 한국청동기학회.
- 나건주, 2016, 「호서지역 공렬토기의 출현과 전개과정」, 『驛三洞유형의 시공간적 위치 및 문화적 의의』, 제13회 매산기념강좌·제10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 마이클 오브라이언·리 라이맨·성춘택 역, 2009, 『다원진화고고학』 나남.
- 문수균, 2015,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문화의 변화과정」, 『북한고고학의 패러다임과 논리: 서북한 선사시대 연구』, 중부고고학회 2015 정기 학술대회 발표문
- 문수균, 2024, 「남한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전개양상과 조동리유형」, 『조동리유적 재조명』, 제3회 CBNU 박물관 학술포럼, 충북대학교박물관.
- 박성희, 2015, 「세종시 일원 청동기시대 초기 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과거와 현재』,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박순발, 1999, 「흔암리유형 형성과정 재검토」, 『호서고고학』 창간호, 호서고고학회.
- 박순발, 2003, 「미사리유형 형성고」, 『호서고고학』 9, 호서고고학회.
- 박정재, 2021, 「한반도의 홀로세 기후변화와 선사시대 사회 변동」, 『대한지리학회지』 56-2, 대한지리학회.
- 박주영, 202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의 변이」, 『조동리유적 재조명』, 제3회 CBNU 박물관 학술포럼, 충북대학교박물관.

배진성, 2012, 「가락동식 토기의 초현과 계통」, 『고고광장』 11, 부산고고학회.

손준호, 2008, 「석기조성비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경제」, 『한국청동기학보』 3, 한국청동기학회.

손준호, 2017, 「충북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 『한국학연구』 제16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송만영, 2013, 「흔암리식 토기 발생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79, 한국상고사학회.

송만영, 2019, 「북한강유역 역삼동유형 영향설에 대한 검토」, 『고고학』 18-2, 중부고고학회.

성춘택, 2017, 「고고학과 물질문화의 기원과 계통: 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102, 한국고고학회

성춘택·문수균·양혜민, 2018, 「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 -한국청동기시대 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9, 한국고고학회.

안재호, 2006,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성, 2012, 「문화사적 시기 구분으로의 무문토기시대 초기 설정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76, 한국상고사학회.

이동휘, 2024, 「충주 조동리 유적의 발굴, 고고문화, 시간적 위치」, 『조동리유적 재조명』, 제3회 CBNU 박물관 학술포럼, 충북대학교박물관.

이성주, 2006 「한국청동기시대 ‘사회’고고학의 문제」, 『고문화』 68.

이형원, 2002,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 중부지역 무문토기 편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형원, 2009, 『한국 청동기시대의 취락조직과 사회조직』,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상택, 2017,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102, 한국고고학회.

천선행, 2024, 「청동기시대 유형에 대한 재인식」, 『호남고고학보』 77, 호남고고학회.

황재훈, 2014,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상호작용과 문화변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재훈, 2021, 「세종시 일원 청동기시대 중~후기의 유적유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과거와 현재』,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허의행, 201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중심과 경계」, 『호서고고학』 31, 호서고고학회.

Burmeister, 2000 「Archaeology and Migration」, 『Current Anthropology』 41

Dunnell, 1988a 「Archaeology and Evolutionary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Park, 2017, 「Solar and tropical ocean forcing of late Holocene climate change in coastal East Asia」, 『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 469.

Park,J.,Park,J.,Yi,S.,Kim,J.,C.,Lee,E.and Choi,J., 2019, 「Abrupt Holocene climate shifts in coastal East Asia, including the 8.2ka, 4.2ka, and 2.8ka BP events, and societal responses on the Korean Peninsula」, 『Scientific Reports』 9.

「호서지역의 취락유형 분포와 경계」의 토론문

박주영(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청동기시대 연구 특히 조-전기 제 유형에 관련된 논의 형성에 있어 호서지역의 기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미사리·가락동·역삼동·흔암리 유형의 분포 및 변이가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청동기시대 유형 설정과 편년 정립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해 왔기 때문이다.

상기 발표는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유형 설정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론이나 대안을 제안한다기보다는 전기 제 유형의 구분, 분포, 경계, 형성 과정, 쇠퇴에 관한 학계의 주요 성과와 쟁점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그러한 구성에 따라, 각 사안의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한 찬반과 관련된 논의보다는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자의 입장을 명확히하고 지역을 벗어나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계통론적 한계와 남발된 유형 설정에 대한 여러 비판으로 부침 상태에 있던 해당 논의들을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1. 유형의 개념과 적용 단위의 문제

발표자는 전고(성춘택 외 2018)에서 청동기시대 제 유형을 기층유형과 파생유형으로 나누어 기층유형은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송국리유형으로, 그 외 흔암리유형, 조동리유형, 백석동유형 등은 파생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동일하게 ‘유형’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이미 불가피하더라도, 동일한 차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 연구하는데 있어 어떻게 적용했으면 하는지 설명 바란다. 발표 또한 그런 취지를 밝히며 유적을 구분하면서도, 현상을 설명하는데에는 ‘역삼동·흔암리유형’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무엇을 유형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토기, 주거지, 유적 등 적용하는 단위가 달라서 다르게 사용한 것인지 정리가 필요할 듯하다.

2. ‘취락’의 유형 설정은 가능한 것인가?

호서지역 전기 청동기문화의 변이를 확인하고, 유형 적용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하여 주거의 노지와 토기 형식의 조합을 기준으로 우세한 유형의 여부에 따라 취락의 유형을 구분한 시도(박주영 2024)가 있었다. 당시 속성의 온전한 파악을 위하여 일부 유실되어 노지 개수나 형식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나, 특정 문양의 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주거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56개 유적 중 32.8%(박주영 2024:43, 표5)만이 비교적 명확하게 가락동·역삼동·흔암리유형의 취락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낮은 판별력 탓에 이러한 시도가 무의미하여, ‘취락’별로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일부 연구자의 시도처럼 주거지마다 속성을 확인하여 비교란에 ‘000유형’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발표자의 생각은 이후 이어지는 물질문화(유형) 간 교류 문제와도 관련될 수도 있다.

3. 유형은 결국 집단의 문제인가?

물질문화의 이주와 전파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시간성’이다.

Burmeister (2000) 등의 이주에 관한 설명(고일홍 2019)은 결국 기층민(선주민)과 이주민이라는 관계의 구분이 성립되어야 하고, 이를 호서지역으로 문제를 옮겨 놓는다면 이러한 구분은 곧 시간성의 파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파생유형으로 설정한 백석동·조동리유형 등이 이미 자리하고 있던 기층문화인 가락동유형이나 역삼동유형과의 접촉의 산물이라면, 이들이 좀 더 이른 시기에 확산해 있었음이 전제되는 것이다. 호서지역은 비교적 충청중동부와 충청서북부지역의 양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나머지는 주변지역(접촉지대, 교차지대 등)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백석동·조동리유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알고 싶다. 또는 호서지역을 넘어서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확인해주기 바란다.

고일홍, 2019, 「한국 청동기시대 이주 연구: 문제점 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 『한국청동기학보』 25, pp. 4~29, 한국청동기학회.

박주영, 202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의 변이」, 『조동리유적 재조명』, 제3회 CBNU 박물관 학술포럼, pp. 33~58, 충북대학교 박물관.

성춘택·문수균·양혜민, 2018, 「비평논문-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 한국 청동기시대 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9, pp. 326~357, 한국고고학회.

호남지역 취락유형 분포와 경계

김규정(전북문화유산연구원)

I. 머리말

II. 취락유형의 종류와 분포

III. 취락유형의 시간적 범위

IV. 취락유형의 교류 양상과 변화

V. 맺음말

I. 머리말

호남지역은 만경강유역권에서 가장 먼저 청동기문화가 유입되고 이어 순차적으로 동진강유역, 섬진강유역, 영산강유역, 남해안지역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지는 평면형태 (장)방형과 (세)장방형을 기본으로 하며 노지와 초석, 주혈 등 내부시설이 확인되고 유물은 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열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등 다양하게 출토된다. 주거지와 유물의 조합에 따라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휴암리유형이라는 크게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분포양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지역권을 형성하지는 않고 서로 접촉이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중기는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방형과 (타)원형으로 변화되고 내부시설은 방형주거지 일부에서만 노지가 확인될 뿐 대부분 노지가 설치되지 않고 특히 중앙에 타원형구덩이와 중심주공(내주공,외주공)이 배치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주거구조가 등장한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주거지에 송국리식주거지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유물에 있어서도 외반구연옹형토기를 특징으로 하면서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등 기존에 볼 수 없던 물질문화들이 확인되는 특징을 가진 문화를 송국리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송국리유형은 주거의 형태에 따라 방형을 휴암리식, (타)원형을 송국리식으로 분류하여 각각 휴암리유형과 송국리유형으로 세분하기도 한다(노양지 2021).

후기는 중기 이래 송국리식주거지가 지속되지만, 중국 동북지역으로부터 새로운 물질문화가 유입되면서 기존 송국리문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주거는 방형에 장축노와 벽부노가 설치되고(이형원 2015)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와 환상파수부호라는 새로운 기종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로써 이를 수석리유형으로 구분한다. 호남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수석리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주거가 거의 없지만, 원형점토대토기 및 흑색마연장경호와 다양한 청동기가 부장된 무덤들이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본 발표문은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분포와 경계라는 주제로 위에서 언급한 각 시기별 여러 유형들의 시공간적 분포범위와 주변지역과의 관계 및 교류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호남지역 청동기시대를 조.전기-중기-후기로 시기구분하고 각 시기별 취락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표문의 시기구분은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년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II. 취락유형의 종류와 분포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은 조.전기는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흔암리유형, 중기는 송국리유형으로 대표되지만, 지역에 따라 순수 방형계주거지도 확인되고 있으며, 후기 송국리유형, 수석리유형으로 대표된다.

1. 조.전기취락의 유형

1) 미사리유형

미사리유형은 각목돌대문토기와 판석부위석식노지(이하 석상위석식노지)를 갖춘 방형 또는 장방형 주거지를 표지(이형원 2009)로 하며, 미사리유적과 남강댐 수몰지역에서 출토된 각목돌대문토기를 분석, 검토한 안재호(2000)에 의해 조기설정론이 제기된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미사리유형은 한반도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초기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유형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 밀집도, 유물의 공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미사리유형의 상이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다(최대균 2014: 6쪽).

호남지역 미사리유형은 만경강유역 전주 동산동·여의동2가, 영산강유역 담양 태목리, 섬진강유역 순창 원촌리에서 확인되었으며, 동진강유역, 중서부지역, 남해안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동산동은 조.전기 주거지 13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 (장)방형에 노지는 석상위석식, 위석식, 무시설식노지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유물은 절상돌대문토기, 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는데 1-2호는 특이하게 공열문+구순각목문토기 1점이 공반되었다.

동산동과 동일한 층적지에 입지하는 여의동2가유적에서는 조.전기 주거지 43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은 (장)방형, 말각방형에 노지는 위석식(10기)과 무시설식(20기)이 설치되었다. 유물은 각목돌대문토기가 8기(2호.35호.73호.84호.93호.104호.112호.122호)에서 출토되었고,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10기(4호.28호.33호.34호.61호.73호.83호.84호.93호.122호)에서 출토되었다.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공반된 주거지는 73호, 84호, 93호, 122호 등이다.

영산강유역 담양 태목리는 조.전기 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는데 1호는 평면 장방형에 석상위석식노지와 초석이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각목돌대문토기, 직립구연호, 유두돌기토기가 출토되었다. 섬진강유역 순창 원촌리에서는 조.전기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 방형에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밖에도 미사리유형의 특징적인 돌대문토기가 익산 영등동 1-3호, 섬다리 2호, 장성 장산리2유적 1호에서 출토되었는데 영등동 1-3호, 섬다리 2호는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고, 장산리 2호는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었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공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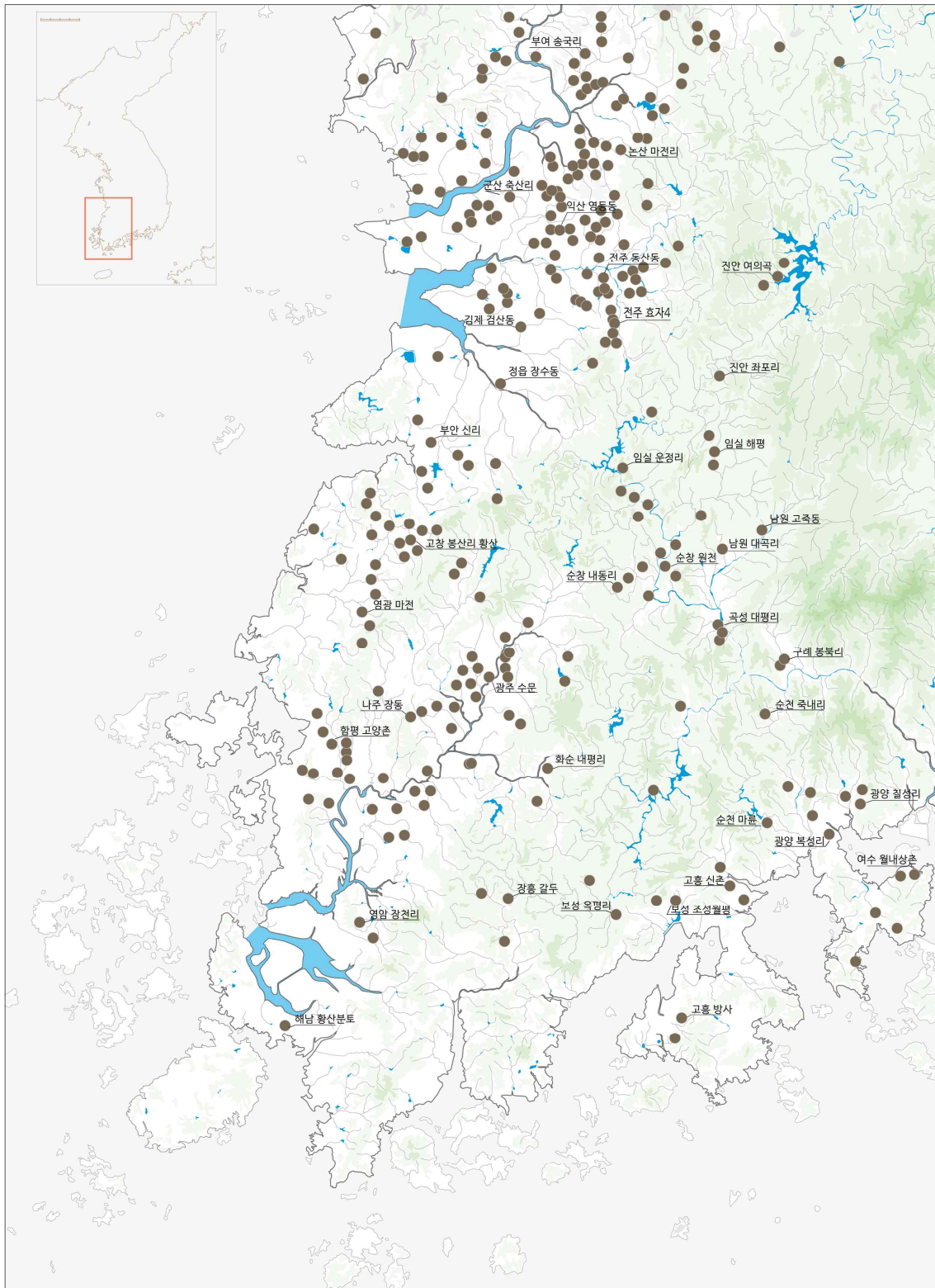


그림 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분포

호남지역 미사리유형은 동산동·여의동2가유적, 태목리, 원촌 등 세 유적 모두 총적지에 입지한다. 태목리와 원촌은 주거지 1기가 단독으로 입지하는데 반해 동산동·여의동2가유적은 수기가

군집을 이루고, (중)대형주거지와 함께 소형주거지가 공존하는데 소형주거지는 모두 무시설 식노지가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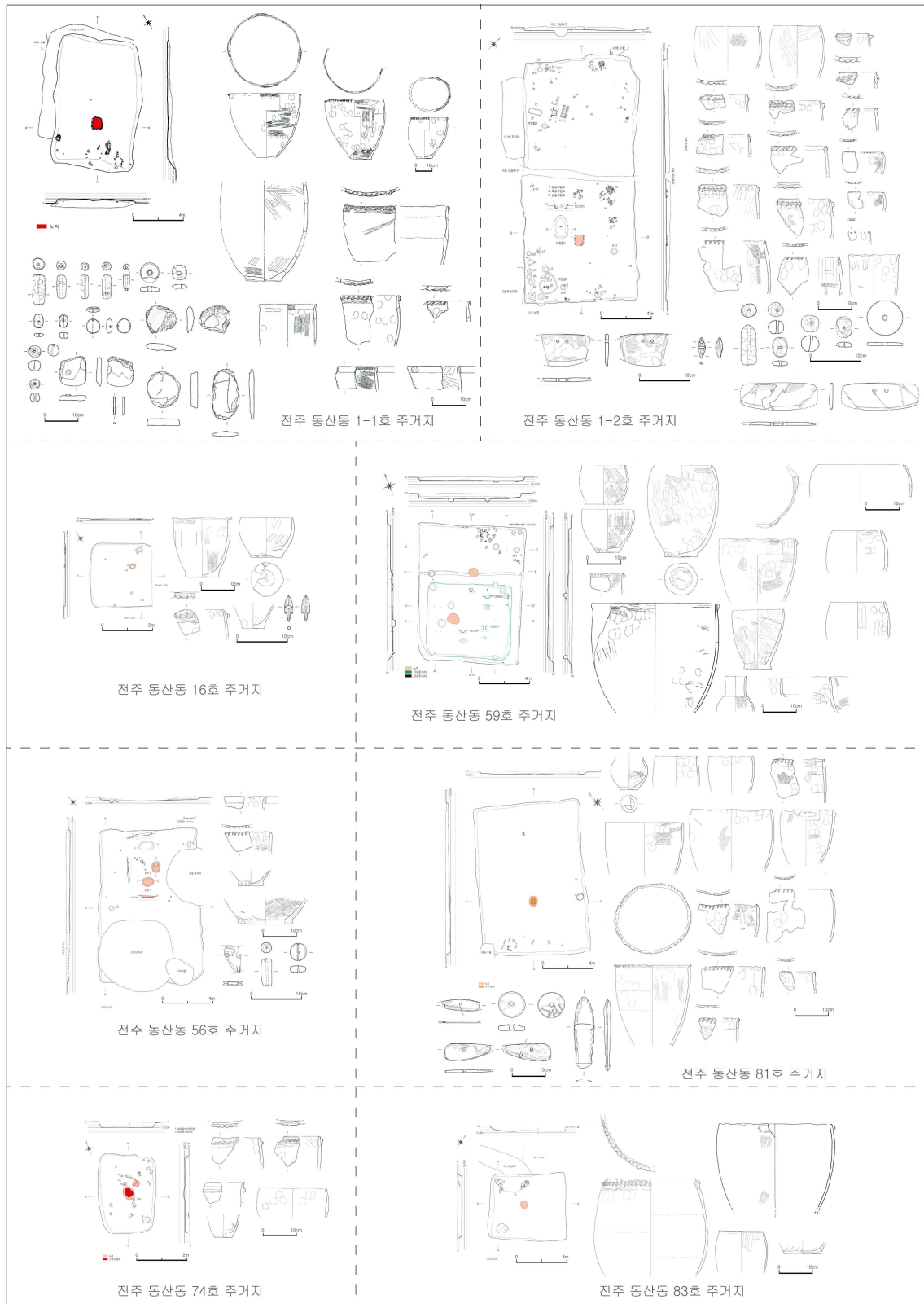


그림 2. 만경가유역 미사리유형(전주 동санд동)

2) 가락동유형

가락동유형은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를 특징으로 하며 한강유역에서 형성되어 그 이남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청규 1988). 이후 대전 둔산동을 필두로 금강유역에서 집중분포가 확인되고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노지와 초석이 결합된 주거지들은 금강유역 대표유적인 둔산식주거지로 명명되고 여기에 가락동식토기와 공반된 석기를 포괄하여 가락동유형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이형원 2001.2002), 가락동식토기 개념을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를 표지로 하여 가락동유형의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대부분의 토기를 포함하였다(공민규 2005.2011).

호남지역 가락동유형은 만경강유역에서 처음 확인되며 이후 주변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락동유형을 결정짓는 특징인 위석식노지, 초석시설은 매우 적고, 중앙 2열 내지 1열의 주혈, 위석식노지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으며(천선행 2019: 61쪽), 대부분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는 등 주거지에 있어서는 가락동유형으로 볼 수 없는 요소들도 상당히 확인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가락동유형의 제요소 가운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를 모두 가락동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락동유형은 만경강유역 전역에서 확인되었는데 10기 이상의 주거로 구성된 취락은 구암리(10기)가 유일하고 대부분 5기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으로 볼 수 있는데, 구암리도 주거지 10기가 조사되었지만, 4호.4-1호.4-2호, 환구와 주거지의 중복관계 등으로 볼 때 모두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만경강유역 가락동유형은 주거지 1기 내지는 2~3기가 군집을 이루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내부시설은 위석식노지, 무시설식노지, 초석, 열을 이루는 정연한 주혈 등이 확인된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기본이며, 이중구연과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호 등이 공반된다. 특이하게 익산 용기리 2호는 공열+구순각목+단사선문토기, 완주 구암리 4-1호는 공열+구순각목문토기, 전주 장동 9호는 공열+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가 공반되었다.

동진강유역은 아직까지 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은데 정읍 우산리 망담, 은선리 갈선, 부안 역리 옥여, 내기리 고마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은선리 갈선 1호는 2×6열의 정연한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격하패총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이 출토되어 가락동유형 집단이 해양자원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은 장성 장산리, 광주 산정동.수문.용두동.하산동.북룡동291-3.울림, 나주 이암.매성리 재성.덕산리 동산촌, 함평 고양촌.신흥동.외치리 백야 등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세)장방형에 위석식노지,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고, 하산동 2호는 정연한 주혈(2×6열)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다. 다만 하산동 2호, 울림A-1호, 신흥동 I-5호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이중구연+단사선+공열(돌유문)토기가 공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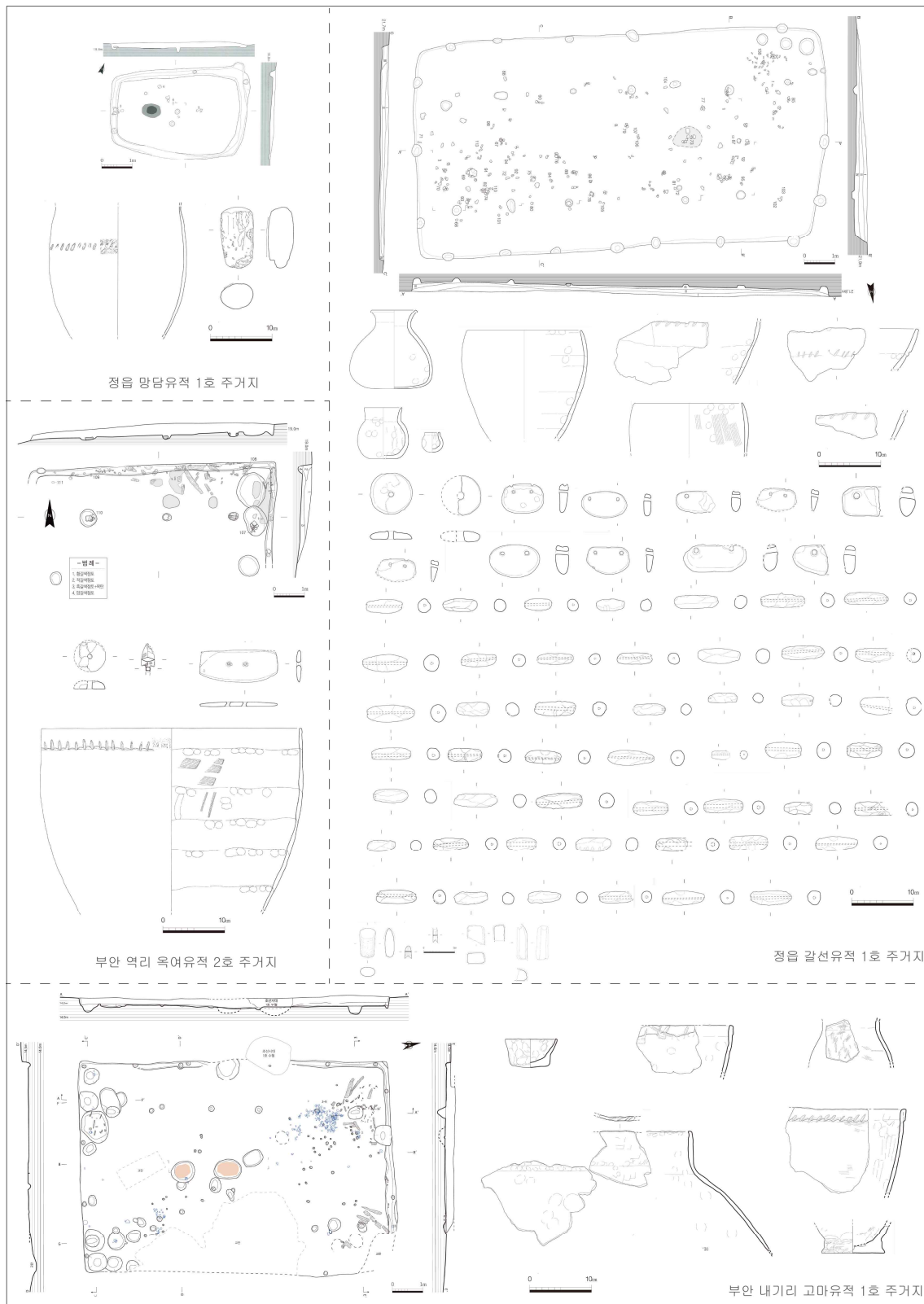


그림 3. 동진강유역 조전기취락

중서부지역은 아직까지 전기취락이 조사된 유적은 군동 A지구가 유일한데 주거지는 평면 장

방형에 내부시설은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구순각목토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섬진강유역도 순창 백산리에서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단사선문토기와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었다.

남해안지역은 대체로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중심분포권으로 볼 수 있는데 동남해안의 고흥 신촌과 서남해안 강진 양유동, 장흥 삼산리 화산 등에서 조사된 주거지 가운데 가락동유형으로 분류 가능한 주거지들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평면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리고 강진 호산에서는 저습지에서 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어 이중구연은 흔적이 없지만 단사선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가락동유형 토기로 볼 수 있다.

3) 역삼동·혼암리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은 공열이나 구순각목이 단독으로 시문된 역삼동식토기와 공열과 구순각목에 이중구연+단사선 등 여러 가지 문양이 복합된 혼암리식토기(이청규 1988)를 특징으로 하며, 주거지는 (세)장방형과 무시설식노지가 한 기 또는 다수 설치되며 저장구덩이가 있는 주거지를 특징으로 한다. 역삼동·혼암리유형은 처음에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토기에 서만 차이를 보일 뿐 석기와 주거구조는 거의 동일하며, 전국적 분포권을 공유하는 점에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약간씩 존재하나 이들을 문화적 전통을 달리하는 별개의 집단으로 유형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어(김장석 2001),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은 동일한 문화로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구분한다(이형원 2002).

호남지역 역삼동·혼암리유형은 만경강유역과 동진강유역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섬진강유역을 주 분포권으로 하여 영산강유역과 남해안지역에서 확인된다. 주거지는 평면 (세)장방형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다. 유물은 공열문토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공열+구순각목문, 공열+이중구연+단사선, 공열+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를 특징으로 한다.

영산강유역은 광주 수문·울림, 나주 동곡리 횡산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세)장방형에 다수의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공열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호편이 출토되었다. 울림A-2호는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3기)가 설치되었으며, 공열문+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섬진강유역은 남원 고죽동, 임실 금암리 4지점, 구례 봉북리, 광양 지원리 장촌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공열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열문+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문, 공열문+단사선문+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다.

동남해안지역은 순천 마륜·선평리 강청·서평리 쌍암·용당동, 광양 복성리, 여수 적량동 상적·월내동 상촌·죽림리 차동, 보성 옥평리·용정리 활천, 고흥 장덕리 장동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공열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열문+구순각목문+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서남해안은 장흥 삼산리 화산 1구역과 송학리에서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공열문, 구순각목문, 공열+이중구연+단사선, 공열+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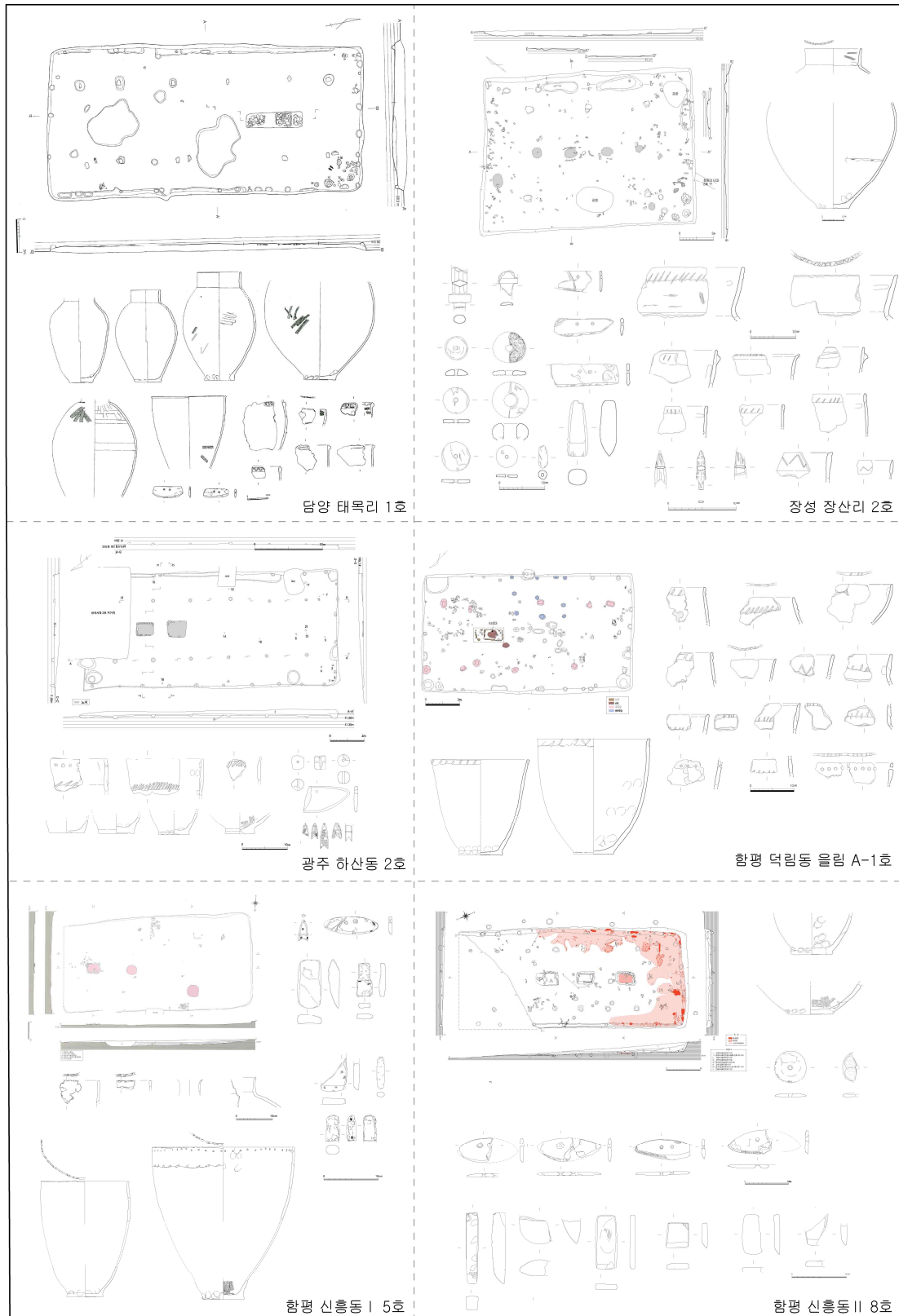


그림 4. 영산강유역 조전기취락(이재언 2021 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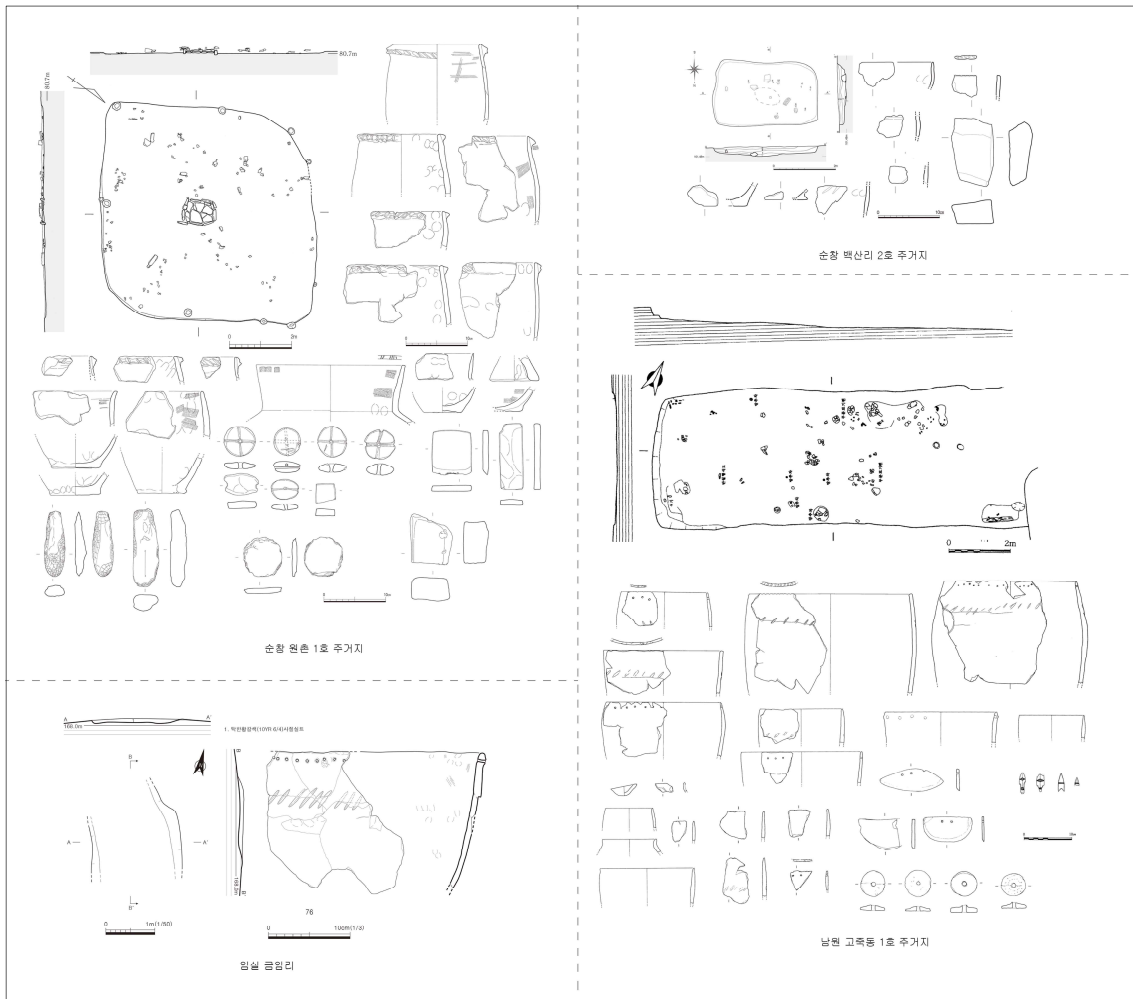


그림 5. 섬진강 중상류지역 조전기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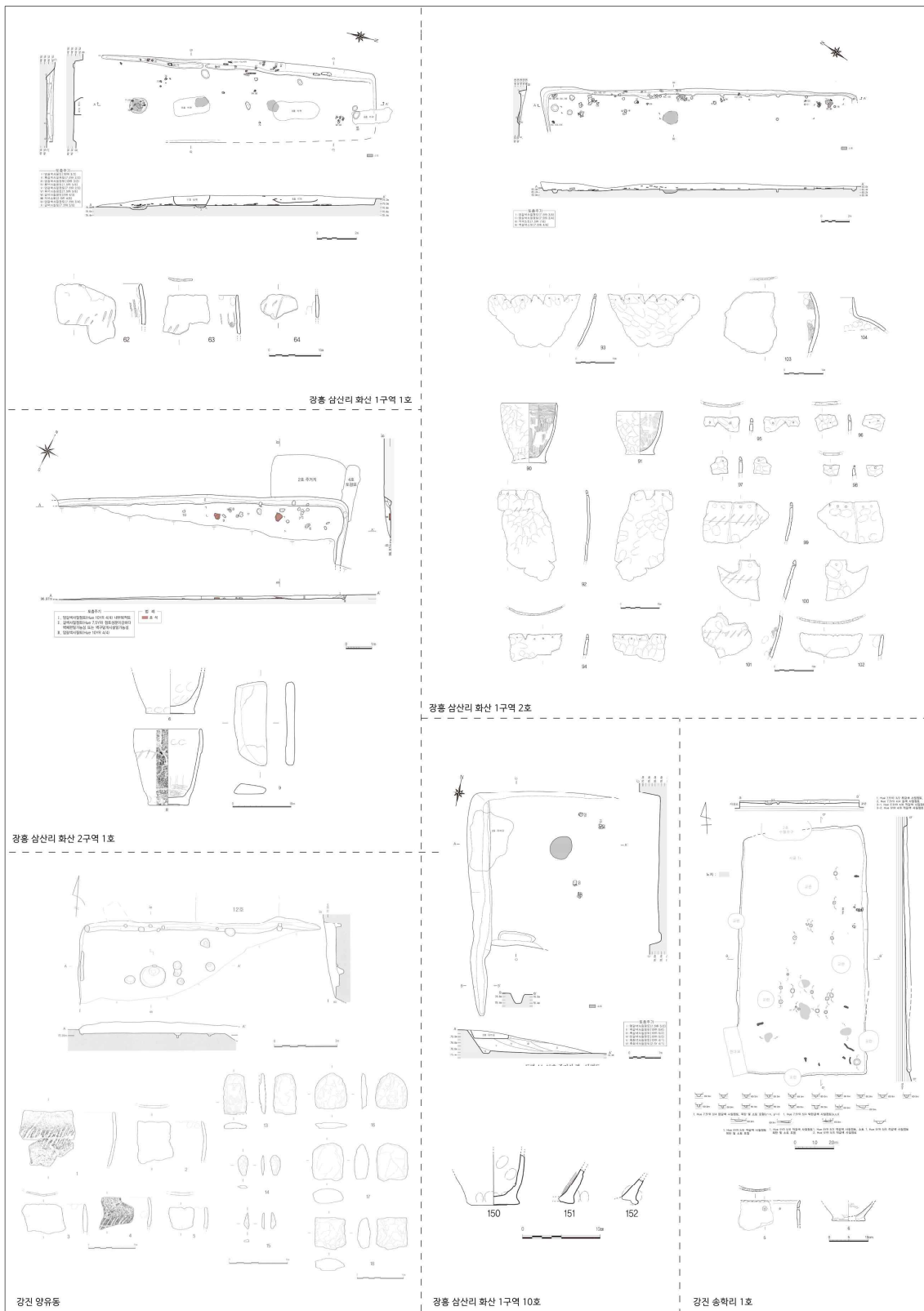


그림 6. 남해안지역 조·전기취락(김진환 2021 원도)

2. 중기취락의 유형

호남지역 중기취락은 일부 지역에서 순수 방형계주거지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자료가 많지 않아 유형분류에서 제외하면 송국리유형으로 대표된다. 송국리유형은 주거지의 평면형태에 따라 방형을 휴암리식, 원형을 송국리식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전기문화에서 점진적 변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금강하류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각각 휴암리유형과 송국리유형으로 구분(노양지 2021)한다. 여기에서는 각 권역별 취락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만경강유역은 송국리유형의 중심분포권으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77개소 510동이 조사되었으며, 송국리식 330기, 휴암리식 92기로 송국리식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다운 2021: 154-155쪽). 금강유역 일대가 송국리문화의 중심지로써 다양한 변이들이 집중되는 양상을 고려하여 볼 때, 송국리식과 휴암리식이 다양하게 분포하다가 점차 주변으로 파급되면서 송국리식(내주공식)이라는 하나의 주거구조로 집중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주거구조는 대형취락이 위치하는 곳에서 더욱 뚜렷하다(천선행 2019: 70쪽). 그리고 세부 형식에서는 내주공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되어 만경강유역 문화를 금강유역권에 포함시키기도(이종철 2015) 한다.

동진강유역은 최근 발굴조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조사된 유적은 많지 않다. 중기 취락은 21개소 63기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송국리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휴암리식 13기, 송국리식 48기로 송국리식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10기 이상 조사된 유적은 아직까지 없으며 대부분 5기 미만이다. 물론 구제발굴이라는 한정된 범위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대규모 취락이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식분류 가능한 61기의 주거지 가운데 내주공식이 58기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동진강유역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산강유역 송국리유형 주거지는 2021년 통계에 따르면 88개소 679기가 조사되었는데 특히 광주·나주지역에서의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30기 이상의 초대형취락도 확인되지만, 대체로 5기 미만의 소형취락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기 이상의 대형취락은 영산강 본류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고 전기부터 중기까지 취락이 지속되는 유적은 담양 태목리(20기), 광주 용두동(23기), 수문(36기), 덕림동 올림(28기), 나주 장동리(46기), 함평 신흥동(33기)에서 확인되고 있어 기존에 전기취락이 입지한 곳에 중기취락도 입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재언 2021: 21쪽).

세부형식에 있어서는 내주공식이 전체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이 유입된 이후에 커다란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만큼 전통성이 강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부 유적에서 송국리유형의 묘제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지석묘문화가 늦은 시기까지 지속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서부지역은 영산강유역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따로 분류하였다. 중서부지역 중기취락은 송국리유형만 확인되는데 조사된 유적은 19개소 171기가 조사되었다(양영주 2021). 고창 봉산리 황산에서 70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어 초대형취락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 5기 미만의 소형취락들이 중심을 이룬다. 유형은 휴암리식 77기, 송국리식 83기로 송국리식이 약간 많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주거 규모 30m² 이상의 대형이나 초대형 주거지는 보이지 않는다. 세부 형식분류 가능한 160기의 주거지 가운데 내주공식이 153기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인접한 동진강유역, 영산강유역과 동일하며 역시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서부해안지역 또

한 호남지역에서 지석묘 최대 밀집지역 가운데 하나로 전통성이 강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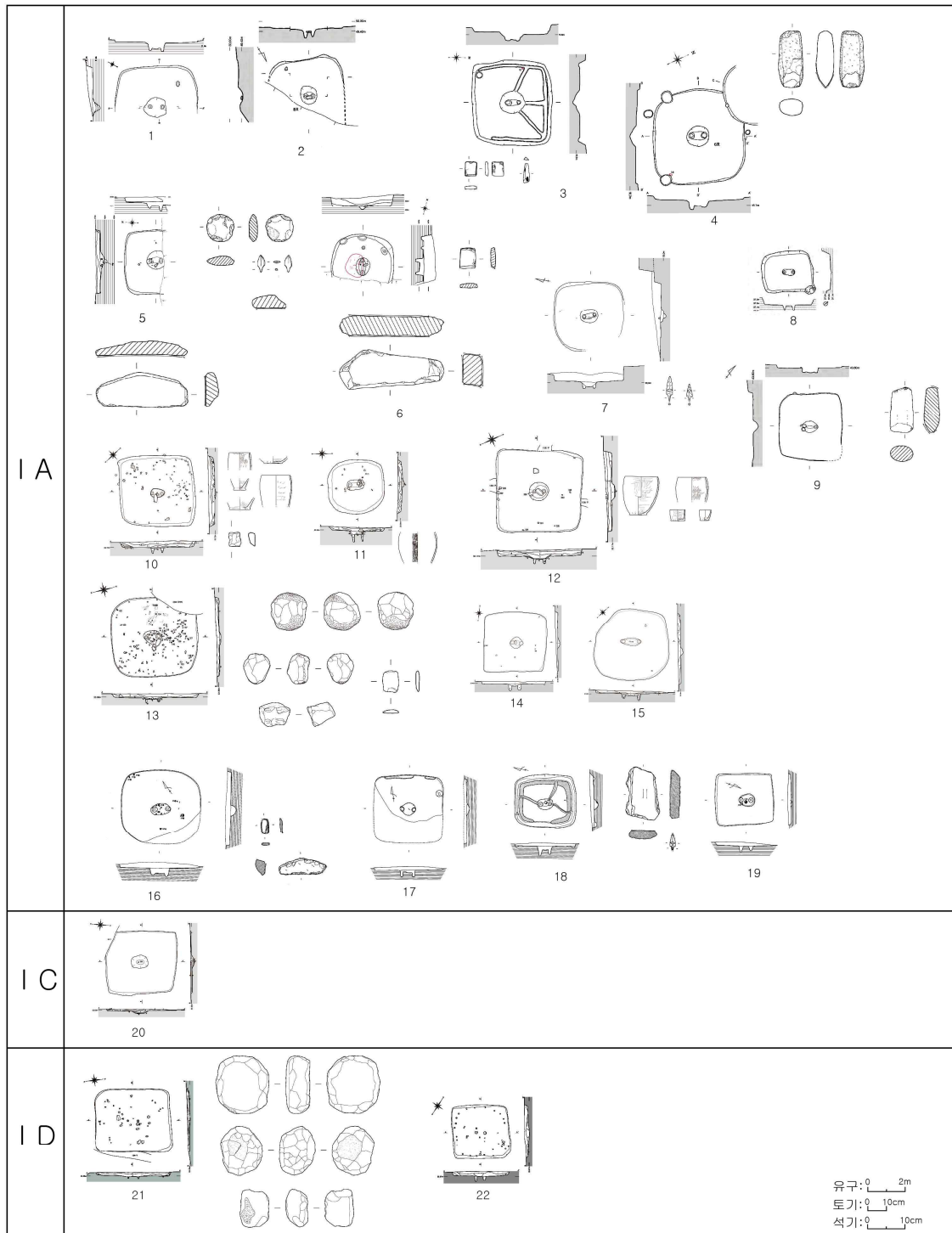


그림 7. 중서부지역 중기(휴암리식)취락(양영주 2021 원도)

섬진강유역 중기취락은 2021년 통계에 따르면 13개소 115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김진환 2021). 이후 순창 순화리 신기에서 주거지 4기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다. 섬진강유역은 상류역과 중류역에서 취락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주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중기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류역은 임실 외량2 20기와 갈마리 해평 16기를 대형취락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5기 미만의 소형취락이다. 특이한 것은 외량2는 20기 모두 방형계로 2호, 10호, 13호, 17호에서 타원형구덩이가 확인되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암리식주거지에서 보이는 타원형구덩이와는 차이가 있다. 유물은 내만구연토기가 많이 출토되었으며 적색마연토기들이 공반된다. 보고자는 주거지는 비록 방형계지만 송국리문화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갈머리 해평은 방형계 8기, 송국리유형 6기가 조사되었는데 순수 방형계와 송국리유형이 공반되지만 서로 입지를 달리하여 분포하는데 방형계는 유적의 서편 구릉사면, 송국리유형은 동편 구릉 능선상에 조성되어 있다. 출토 토기도 양자 간 차이를 보이는데 방형계인 10호에서는 공열문토기(관통), 8호에서 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된 반면 송국리유형에서는 짧게 직립하거나 외반된 구연의 옹형토기가 주로 출토되었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658쪽). 송국리유형은 휴암리식보다는 송국리식주거지의 비율이 높고 내주공식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지리적으로 섬진강유역에 포함되지만 섬진강유역과 구별되고, 섬진강유역권보다는 금강유역권의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660쪽).

중류역은 곡성 오지리 20기, 대평리 29기로 섬진강유역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취락으로 볼 수 있다. 오지리는 휴암리식 주거로만 구성된 취락으로 유물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는데 공열토기, 직립구연토기, 내만구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대평리는 29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9기는 순수 (장)방형이며, 20기는 송국리유형인데 모두 휴암리식이다. 내주공식 4기, 외주공식 10기, 무주공식은 4기이다. 그리고 8기에서는 노지가 확인되었는데 4기는 타원형구덩이와 노지가 모두 확인되었다.

보성강유역은 섬진강의 지류로 볼 수 있어 여기에서는 섬진강유역에 포함하였다. 순천 대곡리 도룡에서 휴암리식/송국리식 주거지 20기와 장방형주거지 50기가 조사되어 초대형취락으로 볼 수 있다. 세부형식에서 내주공식 6기, 외주공식 3기, 무주공식 15기이다. 그 외 유적은 유정리 유평 방형계주거지 2기, 송국리유형의 송국리식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다. 화순 북교리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다. 보성 옥평에는 휴암리식주거지 1기, 거석리 구주에서 휴암리식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보성강유역은 주암댐 수몰지구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대곡리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은데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이 모두 확인되고 섬진강 상류역과 같이 (장)방형계주거지들이 조사되었다.

남해안지역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도·해남권역, 탐진강유역권(강진만유역권), 고흥반도권역, 여수반도권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이종철 2017). 여기에서는 크게 동남해안지역과 서남해안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동남해안지역은 순천 가곡동 24기, 여수 죽림리 신송·하금유적 21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5기 미만의 소형취락이다. 송국리유형은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이 모두 확인되며, 세부 형식에서도 내주공식, 외주공식, 무주공식이 모두 확인되지만 대체로 외주공식이 많다. 그리고 죽림리 신송 I-2호는 보고자는 송국리식으로 분류하였지만 타원형구덩이 위치와 형태가 정연하지 않고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경질무문토기로 오히려 철기시대 주거지로 보아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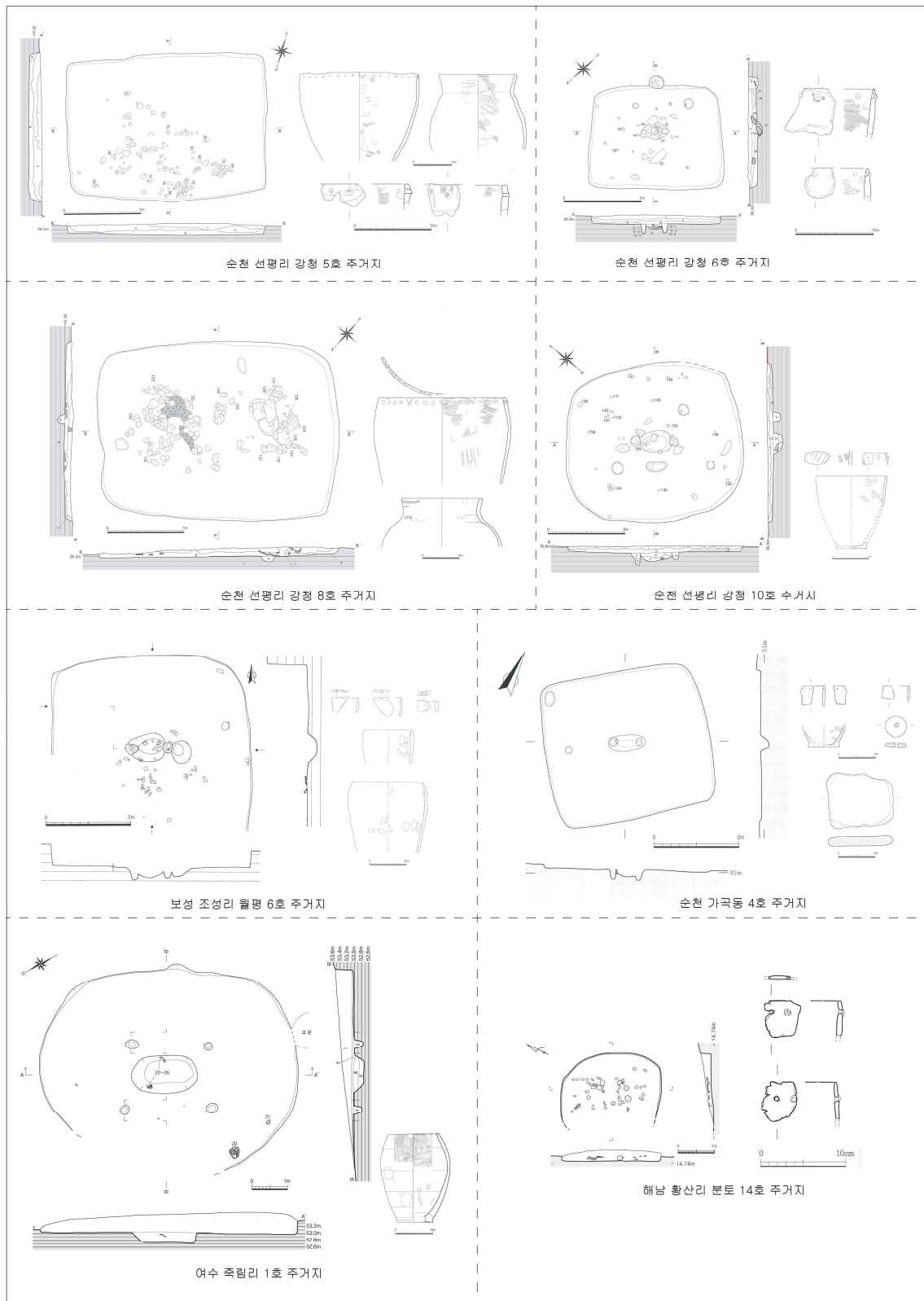


그림 8, 남해안지역 중기취락

서남해안지역은 장흥 신평 51기, 갈두 I 35기, 갈두 II 10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5기 미만의

소형취락이다. 신평은 송국리식 37기, 휴암리식은 14기로 송국리식이 월등히 많고, 갈두는 송국리식 7기, 휴암리식 35기로 휴암리식이 월등히 많다. 이러한 유형의 차이가 집단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호하는 평면이 달라서 나타난 현상인지 명확하지 않다(김진환 2021). 그리고 해남 분토에서도 송국리유형 주거지 9기가 조사되었는데 타원형구덩이가 없는 원형 1기를 제외하면 8기 가운데 휴암리식 4기, 송국리식 4기이며, 세부 형식은 8기 모두 내주공식이다.

호남지역 송국리유형에서 역삼동.휴암리유형인 공열문토기와 구순각목토기 출토된 유적은 영산강유역의 나주 장동, 섬진강유역의 곡성 오지리.죽내리, 보성강유역의 순천 대곡리, 동남해안의 순천 가곡동.외록골, 광양 칠성리, 보성 금평.월평, 서남해안의 해남 분토에서 확인되었다. 해남 분토 14호, 보성 금평은 송국리식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휴암리식이거나 방형주거지이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나주 장동과 서남해안의 해남 황산리 분토를 제외하면 모두 섬진강유역과 동남해안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호남지역 청동기문화가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송국리유형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주거지의 비율에서도 확인된다. 만경강유역은 송국리식이 71%로 높게 나타나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영산강유역은 휴암리식이 47.3%로 송국리식과 비슷하고 남해안과 섬진강유역은 휴암리식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영산강유역은 동일한 권역에서도 상류지역은 송국리형, 이외의 나주, 영광, 장성지역에서는 휴암리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노양지 2021). 그리고 휴암리식주거지에서 역삼동식토기의 출토가 많은 것은 전기(장)방형주거지를 사용하는 재지집단이 일상용기인 토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부 요소만 송국리문화를 채용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해된다(김규정 2011: 55-56쪽).

호남지역 송국리유형 취락은 5기 미만의 소형취락부터 20기 이상의 대형취락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취락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사된 주거 수를 감안하여 1~5기를 소형취락, 6~15기를 중형취락, 16기 이상을 대형취락, 30기 이상을 초대형취락으로 구분(천선행 2019: 73쪽)하기도 한다.

그리고 송국리유형 주거지 가운데 특이한 주거지로는 전주 척동Ⅱ-1호 주거지와 여수 죽림리 하금 1호 주거지를 들 수 있는데 척동Ⅱ-1호는 벽가에 부뚜막시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원삼국시대 이전에 부뚜막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며(정다운 2021), 죽림리 하금 1호는 벽면 일부에 지각석이 포함된 노지로 판단되는 흔적이 확인되어(호남문화재연구원 2024) 이례적이다. 만약 이들 주거지에 부뚜막이 설치되었다면 호남지역 부뚜막구조의 등장을 청동기시대 중기까지 올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후기취락의 유형

호남지역에서 후기취락은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과 함께 시작되지만 분묘에 비해 취락은 많지 않다. 후기를 대표하는 유형은 수석리유형으로 주거지는 평면인 (장)방형에 벽부식노와 장축노가 설치된 수석리식주거지(이형원 2015)를 특징으로 하며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가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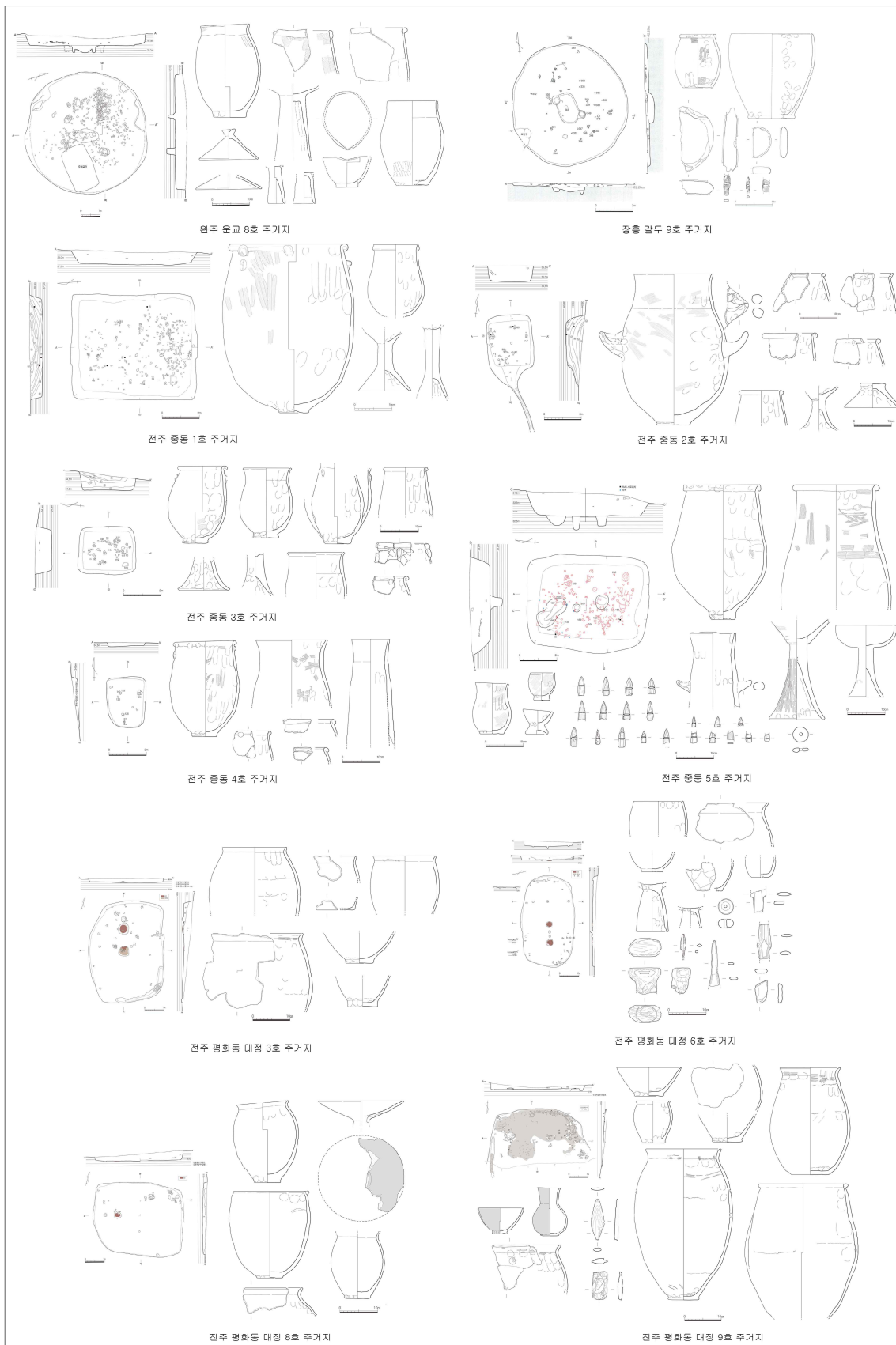


그림 9. 호남지역 후기취락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통해 볼 때 후기에도 송국리유형이 여전히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다운(2021)은 만경강유역의 경우 후기 주거지를 크게 3가지로 대별하여 ①송국리형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형(I 유형), ②방형계 또는 원형계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형(II 유형), ③(말각)장방형계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형(III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I 유형은 원형점토대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두형토기, 조합우각형파수부, 삼각형석축이 출토되는 유적으로 완주 운교 8호 주거지가 해당되며, II 유형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우각형파수부, 삼각형석축이 출토되는 유적으로 완주 상운리, 전주 중동·중동A유적, III 유형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무문토기, 석검, 석창, 유경식석축이 출토되는 유적으로 전주 대정IV유적이 해당된다.

전주 평화동 대정IV유적은 기존에 확인된 수석리유형과는 전혀 다른 주거 구조를 가지며 전북 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취락구조로 청동기시대 후기취락에서 의미가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9: 192쪽). 대정IV유적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 1기와 방형계주거지 9기가 조사되었는데 대형인 6호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한다. 노지는 무시설식으로 1~2기가 중앙에 가깝게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대정IV유적은 점토대토기문화와 송국리유형문화의 물질문화가 복합된 취락으로 송국리형주거지와 방형계주거지가 동시기에 공존한 것으로 보이지만,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 관련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은 맹점이라 할 수 있다(이종철 2021: 45-48쪽). 대정IV유적은 송국리유형 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복합양상은 물질문화는 송국리형문화에 무게를, 주거는 수석리식주거의 확장·변화형으로 보고 있다(이종철 2021: 50-53쪽).

III. 취락유형의 시간적 범위

1. 조.전기취락의 시간성

호남지역 조.전기취락은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이 모두 확인된다. 하지만 미사리유형은 최근 전주 동산동과 여의동2가유적에서 조사된 자료를 제외하면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적으로도 영산강유역 1개소, 섬진강유역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이에 반해 가락동유형은 호남 전역에서 확인되지만 지역적으로 주로 만경강유역에 가장 밀집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역삼동·혼암리유형의 경우 호남지역 전역에서 확인되는데 가락동유형과는 달리 주로 영산강유역과 섬진강유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가락동유형이 중심인 서쪽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권역별 AMS연대를 통한 대체적인 시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경강유역 조.전기 취락의 절대연대는 표 1)과 같다.

표 1. 만경강유역 조.전기 취락 절대연대

유 적 명	호 수	탄소연대(BP)	보정연대(95.4%)	유형	비고
전주 장동	I-9주	3080±80	1520~1110	장방형	
김제 부거리	I-1, 1주	3040±50	1420~1120	장방형	
완주 구암리	6주	2970±30	1320~1050	장방형	

전주 동산동	39주	2965±23	1294~1116	장방형	
김제 부거리	I-1, 5주	2960±60	1130~910(93.2%)	장방형	
전주 동산동	1-1주	2960±30	1294~1127	장방형	
익산 용연리	1주	2960±30	1270~1050	장방형	
전주 동산동	16주	2935±20	1216~1052(89.4%)	장방형	
전주 동산동	1-2주	2933±20	1215~1052(90.3%)	장방형	
익산 쌍제리	1주	2930±40	1270~1000	장방형	
익산 용기리	3주	2915±20	1135~1018(74.2%)	장방형	
익산 용기리	1주	2910±20	1116~973(89.2%)	장방형	
완주 구암리	2주	2900±30	1220~1000	장방형	
김제 상동동	1주	2900±40	1220~970(92.2%)	장방형	

만경강유역 조.전기 취락의 상한은 절대연대 3,000BP 이상은 전주 장동 I-9호 김제 부거리 I-1 1호, 2,900BP 이상은 구암리 6호, 동산동 39호, 부거리 I-1구역 5호, 동산동 1-1호, 용연리 1호, 동산동 16호, 동산동 1-2호, 쌍제리 1호, 용기리 3호, 구암리 2호, 상동동 1호 등 만경강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만경강유역 조.전기 취락(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은 적어도 3,000BP에 유입되어 2,900BP가 중심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물은 미사리유형의 돌대문토기와 가락동유형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된다. 최근 조사된 여의동 2가유적 또한 대체로 2,900BP가 중심연대이다.

만경강유역 조.전기 취락의 하한은 익산 용기리 2호(탄화미)는 2770±20BP, 김제 상동동 3호는 2760±40BP, 삼당리 호천 2호는 2750±40BP, 상동동 2호 2710±40BP, 전주 여의동유적 1-1호 2612±31BP, 부거리 I-1 2호, 2580±80BP, 여의동2가 28호 2510±30BP로 2,600BP 이하로 측정된 유적을 제외하면 대체로 2,700BP로 볼 수 있다. 특히 부거리 I-1 2호는 2580±80BP로 측정되었지만 유물은 전형적인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상동동 3호는 2760±40BP로 주거지는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 3기와 주혈(2×6열)이 설치되어 전기주거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유물은 외반구연호, 적색마연토기호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만경강유역 조.전기 취락의 하한은 2,700BP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시기가 중기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호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조.전기 취락은 전기 전엽(3,300~3,100BP)에는 취락이 형성되지 않고 전기 중엽(3,100~2,900BP)에 취락이 출현한 것으로 보고(박성희 2015: 18쪽) 있는데 아직까지 절대연대가 3,100BP 이전으로 올라가는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금강유역 가락동유형의 확산에 따라 만경강유역에 가락동유형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사리유형도 현재로서는 가락동유형과 거의 동시기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경강유역 절대연대는 대체로 3,000~2,700BP에 집중되며 유물은 돌대문토기가 출토된 전주 동산동과 여의동2가유적을 제외하면 이중구연+단사선을 특징으로 하는 가락동유형이 중심을 이루고 이를 역연대로 환산하면 기원전 13~10세기로(김규정 2013)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동진강유역 조.전기 취락의 절대연대는 표 2)와 같다.

표 2. 동진강유역 조.전기 취락 절대연대

유 적 명	호 수	탄소연대(BP)	보정연대(95.4%)	유형	비고
부안 역리 옥여	1주	2920±40	1240~1000(94.9%)	장방형	
부안 내기리 고마	1주	2910±40	1230~980(95.1%)	장방형	
정읍 갈선	주	2860±30	1120~920	장방형	

동진강유역은 아직 조.전기취락이 조사된 예가 많지 않은데 부안 역리 옥여 1호는 시료1 2920±40BP, 시료 2는 2860±30BP로 유물은 무문토기만 출토되었다. 내기리 고마 1호는 2910±40BP로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갈선 1호 노지 2860±30BP로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동진강유역 조.전기취락은 아직 조사된 자료가 많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지만 출토유물로 보아 가락동유형이 중심을 이루며, 절대연대는 2,900BP로 볼 수 있다. 동진강유역 가락동유형은 만경강유역으로부터 유입되지만 유입 시기는 만경강유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진강유역 조.전기취락의 하한은 아직 자료가 없어 단언할 수 없지만 만경강유역처럼 2,700BP로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중기 송국리유형의 절대연대를 참고할 때 가장 안정적인 연대라고 볼 수 있어 2,700BP를 기점으로 중기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산강유역 조.전기 취락 절대연대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산강유역 조.전기 취락 절대연대

유 적 명	호 수	탄소연대(BP)	보정연대(95.4%)	유형	비고
광주 용두동	7주	3150±80	1620~1210	가락동	
광주 하산동	2주	3057±56	1407~1258(92.5%)	가락동	
나주 이암	1주	3070±50	1410~1110	가락동	
광주 하산동	1주	2994±28	1298~1125(92.8%)	가락동	
나주 대안리	1주	2990±60		역혼암리	
담양 태목리	Ⅱ-1주	2980±50	1390~1060	미사리	
광주 용두동	1주	2980±50	1390~1050	가락동	
나주 덕산리 동산촌	1주	2970±30		역혼암리	
나주 횡산	1주	2930±50	1010~800	역혼암리	
함평 외치리 백야	A-2주	2930±50	1310~980	가락동	
함평 외치리 백야	A-10주	2920±40	1240~1000	가락동	
광주 노대동 신기	1주	2930±60	1320~1210(94.0)	가락동?	

영산강유역에서 조.전기 취락의 상한은 절대연대 3,100BP 이상으로 편년된 유적은 광주 용두동 7호로 3,150±80BP가 유일하며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3,000BP

이상은 나주 이암, 광주 하산동 2호가 있다. 2,900BP 이상으로 편년된 주거지는 하산동 1호, 대안리 1호, 태목리 II-1호, 용두동 1호, 덕산리 동산촌 1호, 횡산 1호, 외치리 백야A2호, 외치리 백야 A10호, 노대동 신기 1호 등 주로 영산강 중상류에서 조사된 주거지들이다. 노대동 신기는 동일한 주거지 내 시료 2가 2,770±60BP로 편년되어 검토가 필요하다.

영산강유역 조.전기 취락의 하한은 나주 매성리 제성은 2750±50BP로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이 출토되었고 함평 고양촌 2호 2700±40BP로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광주 수문 2호 2690±60BP로 유물은 공열문토기편(외부에서 반관통), 구순각목문, 직립구연호편이 출토되었다. 화순 내평리 2호 2630±40BP로 측정되었지만 시기를 특정할만한 유물이 없다. 이상의 절대연대로 보아 영산강유역 조.전기 취락의 하한은 2,700BP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산강유역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중기의 연대가 2,900BP를 상회하는 자료들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섬진강유역과 동남해안지역 조.전기 취락 절대연대는 표 4)와 같다.

표 4. 섬진강·동남해안 조.전기 취락 절대연대

유 적 명	호 수	탄소연대(BP)	보정연대(95.4%)	유형	비고
구례 봉북리	5야노	2980±50	1390~1050	역혼암리	
구례 봉북리	4야노	2970±80	1410~970	역혼암리	
구례 봉북리	2주	2960±80	1400~970	역혼암리	
구례 봉북리	3야노	2940±60	1320~970(92.9%)	역혼암리	
순천 마륵	II-2주	2940±40	1290~1010	역혼암리	
순천 마륵	II-1주	2920±50	1300~970	역혼암리	
순천 마륵	I-1주	2910±40	1260~980	역혼암리	
순천 선평리 강청	8주	2890±40	1220~970	역혼암리	
광양 복성리	1주	2840±50	1200~890(93.4%)	역혼암리	
순천 마륵	I-3주	2820±50	1130~840	역혼암리	
여수 죽림리 차동	1주	2820±60	1130~820	?	
고흥 신촌	1주	2820±40	1120~890(93.7%)	가락동	

섬진강·동남해안지역 조.전기취락의 상황은 절대연대 2,900BP 이상은 봉북리 5호 야외노지, 4호 야외노지, 2호 주거지, 3호 야외노지, 마륵 II-2호 주거지, 마륵 II-1호 주거지, 마륵 I-1호 주거지 등이다. 마륵 II-2호 다른 시료가 각각 2,920±20BP와 2,800±60BP로 측정되었고, 마륵 I-1호 다른 시료는 2,880±50BP로 측정되었다. 절대연대 2,800BP 이상은 선평리 강청 8호, 복성리 1호, 마륵 I-3호, 여수 죽림리 차동, 고흥 신촌 1호가 있다.

조.전기취락의 하한은 순창 백산리는 2,765±25BP와 순천 조례동 1091번지 2,711±47BP로 2,700BP, 보성 옥평 1호 2,770±50BP로 측정되어 2,700BP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조사된 광양 목성리유적은 비록 절대연대 자료는 없지만, 보고자는 주거지의 연대를 공열문, 구순각목문, 공열문+구순각목문, 공열문+단사선문, 구순각목+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된 것과 유사한 유적인 복성리 주거지의 절대연대를 근거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12~10세기)으로 편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주거지는 전기에 볼 수 없는 평면 원형과 1호 폐기장과

중첩된 5호, 3호 폐기장과 중첩된 22~25호 등 세부적인 편년은 검토가 필요하다.

서남해안은 아직 조.전기취락이 조사된 예가 거의 없으며, 장흥 삼산리 화산 1구역 2호 $2,940 \pm 50\text{BP}$ ~ $2,730 \pm 40\text{BP}$ 와 1호는 $2,750 \pm 50\text{BP}$ ~ $2690 \pm 40\text{BP}$ 연대가 참고 되는데, 유물은 1구역 2호 공열문, 구순각목문, 공열+이중구연+단사선, 공열+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가 출토되었고 1호는 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상에서 호남지역 조.전기취락의 시간성을 살펴보았다. 절대연대측정치를 근거로 청동기시대 전기는 분포상에서 지역 간 증감의 상관관계나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출 및 점진적 확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변동 양상이 관찰되지 않아, 남한 전역은 3,200~3,100BP 이래 동시다발적인 점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황재훈 2015). 하지만 호남지역 조.전기취락은 현재까지 축적된 절대연대가 3,000BP ~ 2,700BP에 집중된다. 세부 편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김규정 2007.2011.2013.2019; 양영주 2009.2013; 홍밖음 2010.2013; 김문국 2010; 정다운 2015; 천선행 2016)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각한다. 다만 최근 천선행(2016: 89 쪽)은 호남지역 전기무문토기문화를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금강유역 가락동유형이 만경강유역권으로 유입되고, 2단계부터 남강유역 역삼동.혼암리유형이 서남해안권으로 유입되며, 두지역을 주축으로 2.3단계부터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보며 발표자도 이에 동의한다.

2. 중기와 후기취락의 시간성

호남지역 중기취락은 송국리유형으로 대표되는데 세부 유형으로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으로 구분한다. 송국리유형은 상당히 긴 시기동안 주거는 물론 유물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전기와 달리 중기의 물질문화는 형태 변이가 다양하지 못한 탓에 상대편년 수립이 까다로우며, 탄소연대 보정곡선상의 문제로 인해 절대연대 설정 또한 어려움이 있다(황재훈 2017: 63쪽).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권역별로 AMS연대를 통해 중기의 시간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만경강유역 절대연대 가운데 이른 시기로 편년된 주거지는 표 5)와 같다.

표 5. 만경강유역 중기취락 절대연대 측정치(가장 이른 시기)

유 적 명	호 수	탄소연대(BP)	보정연대(95.4%)	유형	비고
전주 용정 1유적	1호 주	2853 ± 37	1130~910	송국리식	노지
전주 효자4유적	Ⅲ-1 주	2740 ± 60	1020~790	송국리식	
전주 원만성 1유적	1-3호	2731 ± 43	980~800	송국리식	
김제 부거리Ⅱ유적	2호 주	2720 ± 50	980~790	송국리식	
전주 여의동 1유적	3호 주	2630 ± 27	835~775	송국리식	

용정리 1호는 평면 원형으로 보고서에는 송국리식주거지로 분류하였지만, 전형적인 타원형구덩이와는 달리 깊이가 얇고, 강하게 소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타원형구덩이는 축조 당시부터 노지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경강유역 송국리유형 가운데 아직 2,800BP로 편년되는 유적이 없다는 점과 이 시기는 전기로 편년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형

주거지 가운데는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될 수 있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8)는 것은 분명하다. 전주 효자 4지구 III-1호(송국리식), 원만성1-1구역 3호(송국리식), 여의동 1-3호(송국리식), 김제 부거리 II 2호(송국리식)로 이들 주거지는 모두 송국리유형의 송국리식이다. 결국 만경강유역 송국리유형의 성립은 2,700BP로 정도로 볼 수 있다. 그 외 만경강유역 중기 송국리유형은 대체로 2,600~2,400BP에 집중되고 있어(김규정 2013) 이 시기가 만경강유역에서 송국리유형 문화의 최전성기임을 알 수 있다. 만경강유역에서 송국리유형은 휴암리식을 송국리식이 파괴하고 축조된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유적에서는 오히려 송국리식을 휴암리식이 파괴하고 축조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축조 선후관계에서 차이가 있지만 시간적 격차를 감지할 만큼 뚜렷하지는 않다(천선행 2019: 70~71쪽).

만경강유역에서 송국리유형의 하한은 절대연대가 2,400~2,300BP에 집중되는데 2,300BP를 전후한 것은 익산 광암리 1호 2,367±39BP, 전주 송천동 B 1호 2,320±80BP이다(노양지 2021: 90쪽). 2,300BP는 갈동, 신평을 비롯한 만경강유역에서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된 시기로 볼 수 있어 이 시기에 만경강유역에서 송국리유형과 점토대토기문화와의 조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진강유역 절대연대 가운데 이른 시기로 편년된 주거지는 표 6)과 같다.

표 6. 동진강유역 중기취락 절대연대 측정치(가장 이른 시기)

유 적 명	호 수	탄소연대(BP)	보정연대(95.4%)	유형	비고
정읍 외장유적	1주	2860±40	1160~910(94.0%)	휴암리식	
정읍 상평동유적	1주	2760±40	1000~820	송국리식	
정읍 장수동유적	1주	2700±50	940~790(93.4%)	송국리식	
정읍 장수동유적	5주	2690±50	940~790	송국리식	
정읍 장수동유적	2주	2630±50	910~740	휴암리식	
정읍 상평동유적	2주	2650±50	920~760	휴암리식	
정읍 외장유적	2주	2640±40	930~740(86.0%)	휴암리식	
정읍 상평동유적	4주	2600±90	910~480(92.0%)	휴암리식	

동진강유역은 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아 아직 절대연대 자료가 부족하다. 2,700BP 이상을 보이는 주거지는 정읍 외장 1호 2,860±40BP로 가장 높은 연대가 측정되었지만 시료2는 2,470±40BP로 측정되었고 정읍 상평동 1호는 2,760±40BP로 측정되었지만 역시 다른 시료는 2,560±80BP~2,280±40BP까지 보인다. 두 유적은 연대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장수동 1호는 시료 3개 가운데 2,700±50BP 2개와 2,690±50BP로 측정되어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2,600BP 이상을 보이는 주거지 또한 장수동 2호, 5호, 상평동 2호, 외장 2호이며, 그 외 지역은 대체로 2,500~2,400BP를 보인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조사된 주거지가 많지 않다는 점은 앞으로 자료의 증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휴암리식과 송국리식 주거지 간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고 절대연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기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진강유역 송국리유형의 하한은 아직 자료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 상평동 1호 주거지 시료 가운데 2,280±40BP와 주거지는 아니지만 상평동 구에서 2,110±60BP 정도가 참고할만 하다.

하지만 동진강유역은 만경강유역의 물질문화가 큰 시기차 없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 만경강유역의 연대를 참고한다면 잠정적으로 2,300BP로 보고자 한다.

영산강유역권 절대연대 가운데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주거지는 표 7)과 같다.

표 7. 영산강유역 중기취락 절대연대 측정치(가장 이른 시기)

유적명	호수	탄소연대(BP)	보정연대(95.4%)	유형	비고
광주 용두동	4주	2970±60	1390~1010	송국리식	노지
함평 사거리 명암	5주	2970±70	1410~1000	송국리식	
광주 금곡A	1주	2930±60	1320~1020(94.1%)	송국리식	
장성 삼태리 서태	2주	2917±48	1261~976	휴암리식	
담양 성산리	1주	2890±60	1270~900	송국리식	
광주 북룡동	I-10주	2898±30	1135~998(81.9%)	휴암리식	
광주 용두동	13주	2890±60	1270~910	송국리식	
광주 수문	28주	2820±60	1130~820(92.0%)	방형	노지
광주 북룡동	II-2주	2817±31	1056~895	휴암리식	
광주 용두동	9주	2790±60	1120~810	휴암리식	
광주 용두동	14주	2780±120	1400~750(81.9%)	휴암리식	
장성 삼태리 서태	3주	2773±60	1057~807(94.7%)	휴암리식	
담양 중옥리	1주	2740±60	980~800	송국리식	
화순 내평리	3주	2740±40	900~760	송국리식	
광주 북룡동	II-1주	2738±29	934~816	휴암리식	
광주 북룡동	I-5주	2729±24	918~821	휴암리식	
장성 삼태리 서태	1주	2726±52	995~803	휴암리식	
화순 내평리	5주	2720±40	980~790	휴암리식	
나주 용전리 지동	I-4주	2690±35	920~797	휴암리식	
화순 내평리	6주	2650±40	900~780	휴암리식	
나주 운곡	II-33주	2650±50	920~760	송국리식	
광주 노대동 신기	3주	2620±60	1270~900	송국리식	
무안 평산리 평립	2주	2620±50	910~740(84.0%)	휴암리식	
광주 노대동 신기	1주	2610±50	1270~900	송국리식	
광주 수문	5주	2610±50	900~740(76.3%)	휴암리식	

영산강유역 절대연대 가운데 2,800BP이상 측정된 연대는 장성 삼태리 서태 2호, 담양 성산리 1호, 광주 용두동 4호, 9호, 13호, 금곡A2호, 노대동 6호, 북룡동 I-10호, II-2호, 수문 28호, 함평 사거리 명암 5호 등 11기이다. 함평 사거리 명암을 제외하면 모두 영산강 중상류에 위치한다. 그런데 2,800BP 이상은 전기후반으로 편년될 수 있는 연대이며, 금강유역 송국리유

형의 성립시기와 주변으로의 확산과정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높다. 특히 2,900BP 이상의 연대는 영산강유역 전기 연대와 동시기로 볼 수 있어 신뢰의 문제가 있어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 송국리유형은 금강유역 송국리유형 문화의 성립과 주변으로의 확산을 감안할 때 중기 전반 2,700~2,600BP, 후반 2,500~2,400BP로 편년(김규정 2016)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축적된 절대연대 자료를 다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자료가 더 증가하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 절대연대는 대체로 2,600~2,300BP에 집중되고 있는데 2,600BP를 전후한 시점에 휴암리식주거지가 확연히 줄어들고 송국리식주거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 송국리식주거지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노양지 2021: 63쪽). 대체적으로 휴암리식 방형에서 송국리식 원형주거지로의 전이가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황재훈 2017: 72쪽).

송국리유형의 하한은 광주 수문 8호 $2,310 \pm 60$ BP, 노대동 $2,370 \pm 50$ BP, 나주 운곡동 II-4호 $2,380 \pm 40$ BP, 운곡동 IV-11호 $2,300 \pm 60$ BP 등 대체로 2,300BP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이 시기의 측정 자료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영산강유역 송국리유형은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나주 운곡동 IV-18호 $2,130 \pm 60$ BP으로 측정되었고 운곡동 II-33호 송국리식주거지와 I-11호 주거지 출토 점토대토기, 다-1호 지석묘 출토 세형동검편과 주조철착 등으로 보아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와 지석묘가 초기철기시대까지 축조되고 있으며(이동희 2017: 103쪽), 광주 수문에서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삼각형점토대토기 문화가 유입된 이후까지도 송국리식주거지가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자료가 아직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추후 자료가 축적되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양지(2021: 42-43쪽)는 영산강유역 송국리유형 주거지를 분석한 결과 휴암리식 255기, 송국리식 284기로 송국리식이 약간 많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나주·영광·장성·화순지역은 휴암리식이, 광주와 담양지역은 송국리식이 높은 비율을 보여 광주 일대는 송국리식주거지, 나주 일대는 휴암리식주거지의 점유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호서지역으로부터 1차로 휴암리문화가 유입되고 2차로 송국리문화가 유입·확산되면서 호남 일부지역은 송국리문화에 흡수되지만 일부는 송국리문화와의 교류 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성된 것(노양지 2021: 82쪽)으로 보았다. 유향미(2006: 17-21쪽)는 영산강유역 송국리문화는 송국리식과 휴암리식이 공존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송국리식이 줄어들고 휴암리식이 증가하면서 철기시대 장방형주거지로 이행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근거로 광주 수문유적 휴암리식이 송국리식을 파괴하고 축조된 것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휴암리식과 송국리식 간 중복 사례는 수문 등 극히 일부 유적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영산강유역 전체 양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김규정 2013: 96쪽). 또한 지역에 따라 휴암리식이 빠른 곳이 있고 송국리식이 빠른 곳이 있는데 이는 선호하는 평면형태의 차이가 반영되었거나 아니면 전기의 재지적 전통이 오래 지속된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서부지역 중기취락의 절대연대 가운데 이른 시기로 편년된 주거지는 표 8)과 같다.

표 8. 중서부지역 중기취락 절대연대 측정치(가장 이른 시기)

유적명	호수	탄소연대(BP)	보정연대(95.4%)	유형	비고
고창 봉산리 황산	2-34주	2752 ± 20	934~833(93.9)	휴암리식	

영광 마전	5주	2742±40	919~830	휴암리식	
고창 봉산리 황산	2-66주	2732±20	897~846	휴암리식	
영광 마전	2주	2730±40	911~828	휴암리식	
영광 마전	6주	2620±40	831~764	송국리식	
영광 운당리	6주	2610±60	910~720(68.3%)	송국리식	
영광 운당리	7주	2610±50	900~740(76.3%)	송국리식	

중서부지역에서 2,700BP 이상은 고창 봉산리 황산, 영광 마전에서 확인되었으며 모두 휴암리식이다. 2,600BP 이상은 영광 마전, 운당리에서 확인되는데 휴암리식이 높게 나오고 송국리식이 낮게 나온다. 따라서 중서부해안지역은 휴암리식이 먼저 유입된 이후에 송국리식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이 층위상 중복된 경우는 석교리, 삼인리, 봉산리 황산, 마전에서 확인되는데 석교리, 삼인리, 봉산리 황산에서는 휴암리식이 송국리식에 선행한 반면 마전은 송국리식이 휴암리식에 선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마전은 층위상 송국리식이 휴암리식에 선행하지만 절대연대는 오히려 휴암리식이 선행하고 송국리식이 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층위상의 중복과 절대연대의 불일치가 확인된다. 봉산리 황산에서는 층위상 휴암리식(방형)→휴암리식(말각방형)→송국리식으로 확인되지만, AMS연대는 휴암리식(방형)과 휴암리식(말각방형)이 거의 동시기로 편년되고 있어 두 유형이 일정기간 공존하다 휴암리식(방형)과 휴암리식(말각방형)으로 변화되면서 벽선이 곡선화되는 것으로 보아 영상강구역 송국리식 주거지의 변화양상과 유사하다(양영주 2021: 118쪽). 송국리유형 주거지의 변화양상이 방형에서 말각방형으로 변화되면서 벽선이 곡선화 되고 말각방형과 원형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바뀌는 주거지들이 확인되고 있다(김규정 2010).

중서부지역 송국리유형은 위의 연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2,500BP~2,400BP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송국리유형의 하한은 절대연대 자료가 없어 정확하지 않지만 송국리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가 결합된 율계리유적을 들 수 있는데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볼 수 있으며, 율계리유적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예가 없어 송국리문화는 점토대토기문화 유입과 함께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양영주 2021: 124쪽). 하지만 지식묘는 송국리식주거지가 소멸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창 죽림리 석관 출토 원형점토대토기, 암치리 지식묘 출토 삼각형점토대토기, 왕촌리 석관묘 출토 흑색마연장경호 등을 통해 볼 때 기원전 3~2세기까지도 분묘가 축조되고 있어(양영주 2021: 124-25쪽) 율계리유적의 예를 통해 볼 때 송국리유형도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섬진강구역의 절대연대 가운데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유적은 표 9)와 같다.

표 9. 섬진강구역 중기취락 절대연대 측정치(가장 이른 시기)

유 적 명	호 수	탄소연대(BP)	보정연대(95.4%)	유형	비고
순천 죽내리	1주	2790±130	1365~764	송국리식	
곡성 오지리	14주	2710±50	980~790	휴암리식	
곡성 오지리	4주	2670±60	980~760	휴암리식	

곡성 오지리	6주	2650±50	920~760	휴암리식	
곡성 오지리	12주	2640±60	800~480(91.2%)	휴암리식	
임실 도인리	2주	2600±50	910~720(66.5%)	송국리식	

섬진강유역 절대연대 가운데 2,700BP 이상의 연대는 순천 죽내리 1호와 곡성 오지리 14호가 유일하고 2,600BP 이상도 오지리와 도인리를 제외하면 아직 없다.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임실 도인리, 대곡리, 갈마리, 해평, 망월촌은 2,600~2,400BP가 중심연대인 반면 곡성 대평리는 2,500~2,200BP가 중심연대이다. 그리고 재지계가 중심인 임실 외량2는 2,550~2,410BP가 중심연대로 이 시기는 송국리문화가 호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시기이다. 즉 송국리문화가 호남 전역으로 확산된 시기에도 섬진강유역은 재지문화 전통이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김규정 2021: 15쪽). 섬진강유역 휴암리식은 곡성 오지리와 대평리에서 확인되었는데 오지리는 휴암리식 2700~2600BP에 집중되고 송국리식은 2600~2200BP의 연대폭을 보이며 2500~2400BP에 집중된다(노양지 2021: 92쪽).

섬진강유역의 하한은 임실 망월촌 2호(송국리식) 2200±50로 측정되었고 곡성 대평리는 23호 시료 1 2180±40, 27호 2050±40로 측정되어 2,200BP 이후로 내려오는 주거지들이 확인되고 있어 다른 지역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평리는 장방형과 휴암리식 주거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거리상으로도 인접하고 주거 구조에서도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오지리와 절대연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로 보아 대평리는 섬진강유역 취락들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빈약하지만 공반된 분묘들에서 대부분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동시기의 주거지로 판단된다.

보성강유역은 순천 대곡리 도롱 주거지의 중복관계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되는데 하층에는 휴암리식과 송국리식, 장방형주거지가 공존하고 상층은 장방형주거지만 확인되고 있다(이근욱 1993). 전기 역삼동, 혼암리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은 뚜렷하지 않지만 일부 주거지에서 순창 백산리, 순천 죽내리와 같이 전기-중기 전환기의 과도기적 형태가 확인되고 서5호, 서9호, 서53호, 광22호, 광27호에서는 경부가 긴 직립구연의 호형토기와 공열토기가 확인되고 있어 도롱 취락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보고 있다(황재훈 2021: 204쪽). 보성강유역 대곡리 48호 2270±90BP로 측정되어 하한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

동남해안지역은 절대연대 가운데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유적은 표 10)과 같다.

표 10. 동남해안지역 중기취락 절대연대 측정치(가장 이른 시기)

유 적 명	호 수	탄소연대(BP)	보정연대(95.4%)	유형	비고
여수 화동리 안골	1주	2600±40	840~750	송국리식	
여수 죽림리 하금	4주	2600±40	940~740(82.2%)	휴암리식	

동남해안지역은 아직까지 절대연대 자료가 많지 않고 2,700BP로 올라가는 유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2,600BP 이상은 여수 화동리 안골 1호(송국리식)와 죽림리 하금 4호(휴암리식) 정도이다. 절대연대 자료가 없어 단언하기 힘들지만 동남해안지역 송국리유형은 2,600BP에 유입되어 2,500~2,400BP가 절정을 이루다 서서히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하한은 2,300BP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자료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다.

서남해안지역은 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고 절대연대자료 또한 거의 없다. 다만 해남 황산리 분토 9호는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평면 원형으로 절대연대는 $2,680 \pm 50\text{BP}$ 로 측정되었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구릉상에서 조사된 주거지들 가운데 방형이 14호에서 공열문, 공열+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전기의 재지적 전통이 중기에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휴암리식 주거지와 함께 원형 평면에 타원형구덩이가 없는 주거지가 공반되고 있어 동시기의 유구로 판단한다면 서남해안지역도 중기취락은 2,700BP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많은 주거지가 조사된 탐진강유역의 장흥 신평 3호 $2,680 \pm 80\text{BP}$, 1호 $2,520 \pm 60\text{BP}$, 40호 $2,560 \pm 80\text{BP}$, 27호 $2,530 \pm 40\text{BP}$ 를 보이며, 갈두 8호 $2,520 \pm 40\text{BP}$ 로 대체로 2,500 ~ 2,400BP를 보인다. 신평 3호 2,680BP이지만 다른 시료는 2,560BP와 2,570BP를 보이고 있어 2,570BP가 적정하다고 본다. 하한은 갈두 5호 $2,280 \pm 40\text{BP}$ 로 연대측정이 이루어져 단언하기 힘들지만 갈두에서 원형점토대토기들이 출토된 주거지가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절대연대 자료와 주변지역과의 관계로 볼 때 잠정적으로 2,300BP로 편년하고자 한다.

호남지역 송국리유형은 중복관계상 휴암리식보다 송국리식주거지가 후속된 사례가 절대 다수이고 휴암리식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삼각만입촉, 이당경식식촉, 어형석도 등 전기적 요소가 공반된 반면 송국리식 주거지에서는 점토대토기 관련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휴암리식 주거지가 선행함을 알 수 있다(황재훈 2017: 72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국리유형은 기원전 9세기 대에 금강하류에서 형성되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면서 문화의 소멸은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하여 진행되지만, 문화적 전통성은 기원을 전후하는 시기까지 잔존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삼국시대 어느 시점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종철 2015). 호남지역도 송국리유형은 여타지역과 달리 굉장히 오랜 기간까지 유지되며 기원전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천선행 2019: 64쪽).

호남지역 후기취락은 송국리유형이 지속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변화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절대연대는 전주 평화동 대정IV유적 $2,570 \pm 40\text{BP}$ ~ $2,430 \pm 30\text{BP}$ 로 역연대는 기원전 7~6세기로 측정되었지만, 잠정적으로 기원전 5세기 후반 ~ 기원전 4세기 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재지의 송국리문화와 새로 유입된 점토대토기문화의 복합화 과정은 적어도 기원전 5세기 늦은 시점부터 기원전 3세기 대 어느 시점까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종철 2021: 56-61쪽).

호남지역 후기의 절대연대는 2,300 ~ 2,100BP로 볼 수 있는데 2,300BP를 정점으로 송국리유형과 점토대토기문화가 서로 교체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김규정 2020).

IV. 취락유형의 교류 양상과 변화

호남지역에서 조사된 취락유형은 조.전기의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휴암리유형과 중기의 송국리유형, 후기의 수석리유형이 있다. 하지만 이들 유형이 호남 전역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점유하였다기 보다는 서로 공존하면서 교류와 접촉을 통해 특정 문화요소들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유형 간 교류의 흔적을 살펴보하고자 한다.

1. 조.전기 취락유형의 교류양상

미사리유형은 만경강유역 전주 동산동과 여의동2가에서 확인되는데 미사리유형의 특징적인

주거지인 방형에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에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지만, 일부 주거지에서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문의 가락동식토기와 공반되고 있어 만경강유역에서는 미사리유형 돌대문토기가 조기부터 전기 전반까지 가락동식토기와 공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승옥 2017).

그리고 미사리유형의 특징적인 토기인 돌대문토기가 가락동식토기와 공반되는 사례도 확인되는데 만경강유역의 익산 영등동 I-3호, 섬다리 1호, 영산강유역의 장성 장산리 2유적 2호 등에서 출토되었다. 영등동 I-3호와 섬다리 1호는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장산리 2유적 2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노지와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고 중앙에 2×3열의 초석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구순각목문이 시문된 직립구연호, 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시문된 호,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함께 절상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장산리는 주거지는 물론 유물도 전형적인 가락동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락동유형의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흔암리유형 토기가 공반되는 사례는 만경강유역 익산 용기리 2호, 전주 장동Ⅱ(I-9호), 완주 구암리 4-1에서 출토되었는데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이 중심인 가락동식토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역삼동·흔암리유형 토기도 수적으로 많지 않아 존재 양상이 불확실한 역삼동·흔암리식토기 출토 유적을 제외하고 만경강유역 전기문화는 돌대문토기문화, 금강유역 가락동유형과 주로 관련된다고(천선행 2019: 60-61쪽). 하지만 주거는 전형적인 가락동식이 아닌 역삼동식주거로 볼 수 있어 역삼동식주거에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므로,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동시 공존하였다고 보거나(홍밖음 2010, 2012), 지역적으로 가락동유형은 만경강유역 및 영산강유역, 역삼동·흔암리유형은 섬진강유역과 보성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므로 지역을 달리하며 공존한 것으로 보았다(김문국 2010, 90쪽; 이진민 외 2011, 94쪽; 김규정 2011, 37쪽).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문화요소의 어떤 부분을 집단과 대응시킬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적어도 토기문화에서 만경강유역이 금강유역과 관련됨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중앙 2열 내지 1열의 주혈, 초석이 만경강유역에서 확인되지만, 만경강유역 전기문화를 금강유역 가락동유형에 온전히 포함시키기에는 석연치 않은 요소가 많다. 토기상은 틀림없는 가락동식토기인데 왜 초석과 위석식노지와 중앙 2열의 주혈배치 빈도가 그리 낮은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경강유역 전기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천선행 2019: 61쪽). 만경강유역에서 가락동유형으로 분류된 것들 가운데 주거구조에서 모두 가락동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천선행 2016: 85쪽). 이는 금강유역 주민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토착민과의 관계를 통해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천선행 2016: 85-86쪽). 이러한 문화의 파급 경로는 육로일 가능성이 높고 금강유역으로부터의 소규모 이주와 정보가 여과되지 않고 호남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토착 신석기시대인에 의해 요소가 걸러졌을 것으로 보고(천선행 2019: 86쪽) 있다. 다만 만경강유역 토착민의 존재양상 즉 신석기시대 취락이 조사된 예가 거의 없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호남지역 역삼동·흔암리식 토기와 관련하여 일상에서 사용하는 토기는 생계방식의 변화나 주민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전통적인 토기가 그대로 제작·사용되는 점에서 가락동유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경강유역에서 역삼동·흔암리유형 토기가 출토된 것은 가락동유형 집단에 의해 역삼동·흔암리유형 일부 요소가 수용된 것으로 보았다(김규정 2013: 87쪽). 이처럼 두 유형의 요소들이 결합될 경우 그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각 유형의 속성에서 주거지에 비중을 둘 경우 미사리유형은 평면 (장)방형에 석상위 석식노지, 토기에 비중을 둘 경우 돌대문토기, 가락동유형은 주거지는 평면 (세)장방형에 위석식노지와 초석(혹은 주혈),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역삼동·흔암리유형은 주거지는 평면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 유물은 공열, 공열문+단사선문, 공열+구순각목문 등 복합문양이 시문된 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 유구와 유물이 각 유형의 속성에 부합될 경우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주저함이 없지만, 이들 속성 가운데 한 가지 요소만 충족될 경우 어느 유형으로 분류할지 난해하다.

호남지역 조.전기취락에서는 다양한 유형들이 확인되지만, 유형만으로 청동기시대 집단,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천선행 2024: 7쪽), 유형들 간에 선명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 유형이 특정유형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전기취락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형분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만경강유역은 그동안 가락동유형의 특징적인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어 가락동유형이 중심을 이룬 지역으로 보았다. 하지만, 동산동과 여의동2가유적에서 미사리유형이 확인됨으로써 만경강유역에 가락동유형 이외에도 미사리유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용기리 2호, 구암리 5-1호, 장동 1-9호, 동산동 1-2호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에 공열문이 결합된 역삼동·흔암리식토기가 공반된 토기들도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가락동유형이 중심이면서 일부 역삼동·흔암리유형의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떤 문화는 그 자체로 의미와 특징을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가 주변지역과의 부단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만큼, 지역문화의 특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공간적 틀에서 발굴해 내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천선행 2019: 55쪽). 호남지역 역삼동·흔암리유형은 문양의 장식속성으로 역삼동식과 흔암리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김규정 2011: 52쪽). 처음 흔암리유형을 구분한 이청규(1988)는 당시 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아 공열문+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문이 결합된 토기도 모두 흔암리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되면서 흔암리유형은 역삼동유형과 문화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삼동·흔암리유형이 설정되었다(김장석 2001; 이형원 2002). 특히 역삼동·흔암리유형으로 분류된 토기 가운데 구순각목문토기는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중기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속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역삼동·흔암리유형은 공열문을 중요한 속성으로 보고 공열문의 유무에 따라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흔암리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중구연+단사선에 구순각목이 결합된 토기는 가락동식토기로 분류(김규정 2000) 하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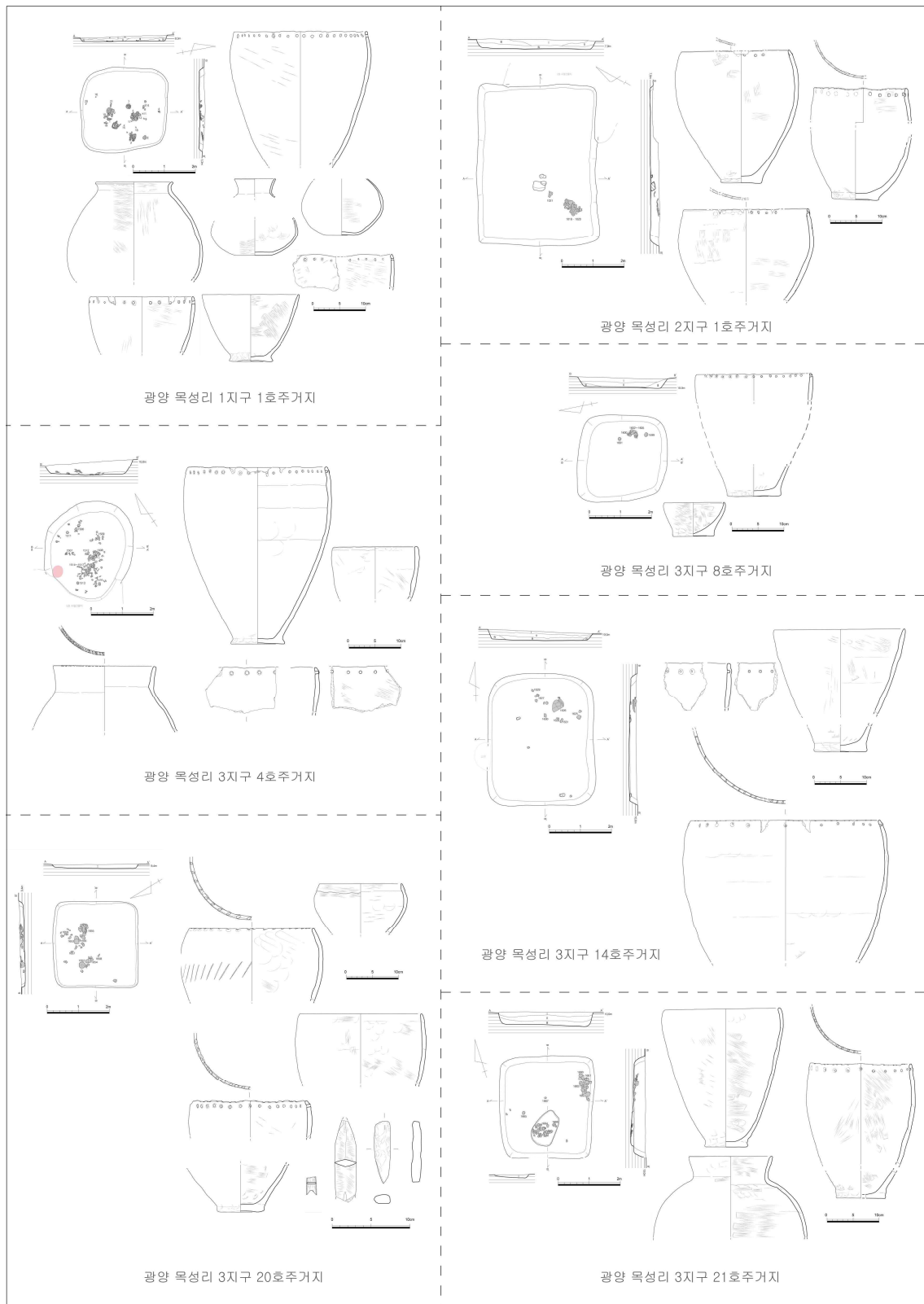


그림 10. 광양 목성리 취락

만경강유역과 동진강유역에서는 아직까지 전형적인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이

조사된 사례가 없다. 다만 금강하구에 위치한 비응도 패총에서 공열문이 중심을 이루면서 공열문+구순각목문, 공열+구순각목+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반된 유물 가운데 적색마연토기 대부분은 천안 백석동 출토품과 비교된다(김규정 2011.2013). 호남 서부지역인 함평 신흥동, 서남해안인 해남에서 역삼동.혼암리유형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역삼동.혼암리유형은 남부 전역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결국 제주 상모리 등에서 확인된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유입지는 호남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 조사된 광양 목성리유은 I 지구 주거지 5기는 순수 방형계로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은 1호에서 공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II-3지구에서는 주거지 2기가 조사되는데 2기 모두 순수 방형계로 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열+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다. III지구에서는 주거지 27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은 방형 11기, (세)장방형 6기, (타)원형 10기이며, 노지는 4기(4호.6호.7호.11호)에서 확인되었고 모두 무시설식이다. 유물은 공열문,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 구순각목+단사선문(20호)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보고자는 노지, 수혈, 주혈 등이 확인되는 유구를 모두 주거지로 분류하였는데 노지는 4기에서만 확인되었고 주거지로 분류한 유구들도 대부분 소형으로 주거의 기능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평면 원형주거지는 아직까지 호남지역 전기유적에서는 보이지 않는 주거형으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2. 송국리유형과 기타 유형 교류양상

호남지역 송국리유형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으로 구분되는데 휴암리식 연대측정치가 영산강-남해안/만경강-섬진강 순으로 이른 연대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는데(노양지 2021: 66쪽) 발표자는 익산 영등동 유적 휴암리식 주거지를 근거로 전기 후반, 주거지의 규모가 소형화.규격화되고 노지가 없는 새로운 주거형인 휴암리식 주거지가 등장하고 이후 평면형태가 완전 방형화되면서 타원형 수혈이 설치되는데 이때 설치되는 타원형 수혈의 깊이와 형태가 정형적인 타원형 수혈과의 차이를 보이는 점을 들어 여전히 전기적 요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방형의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으로 변화되며 타원형구덩이 깊이가 깊어지고 형태도 타원형으로 정형성을 띠는 형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김규정 2006; 양영주 2009).

유향미(2006)는 영산강유역은 주거지 중복관계를 통해 방형이 원형에 후행하는 것을 근거로 원형과 방형이 공존하다가 점차 원형계가 줄어들고 방형계가 증가하면서 철기시대 장방형 주거지로 이행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영산강유역 내에서도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의 중복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마다 선호하는 평면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기문화의 지속성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즉 영산강-남해안은 전기가 늦게 유입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고 만경강-섬진강은 전기의 지속성이 짧고 상대적으로 금강유역으로부터 완성된 송국리식주거지가 유입되면서 송국리식주거지의 지속성이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의 중·후기의 방형주거에서도 일부 전기요소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계기적인 변화와 함께, 문화유입에 따라 공백지역을 점유하면서 발전해가는 가능성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제를 둔다면 전기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문화의 유입으로 다양한 형태로 접변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이재언 2021: 27쪽).

휴암리식에 대한 일방향적 해석은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휴암리식의 해석에 한계를 가져오며, 호남지역은 권역별로 휴암리식 주거지의 등장 시점과 지속 여부에 차이가 있고 호서지역은 2,900B.P.~2,800B.P.를 전후한 시점에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호남지역은

2,700B.P.에 집중되어 휴암리식의 등장 시점은 호서지역이 호남지역보다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노양지 2021: 100-101쪽).

송국리식 주거지가 밀집 분포하는 금강, 영산강, 만경강유역 일대에서 휴암리식 주거지 연대 측정치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송국리식 주거지로의 대체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청동기시대 중기, 호서지역의 휴암리 집단은 송국리 집단으로 전환되지만, 호남지역의 휴암리 집단은 계통이 유지되어 지속하거나 이후 유입된 송국리 집단으로 흡수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노양지 2021: 100-101쪽).

결국 송국리유형과 휴암리유형이라는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호남지역에서 두 주거유형의 혼재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두 집단의 접촉, 교류로 인해 서로의 문화가 공유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송국리 단계에 사회적 변화의 결과로 휴암리식 주거지의 입지 및 배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송국리 집단의 영향에 따라 입지나 배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노양지 2021: 101쪽). 호남지역 송국리유형은 두 차례에 걸쳐 문화유입이 이루어지는데 일부 지역은 송국리문화에 흡수되지만 일부는 휴암리유형이 송국리문화와의 교류 속에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 휴암리유형과 송국리유형은 호서지역에서는 시기 차를 보이는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집단 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노양지 2021: 101쪽)

발표자는 이미 송국리유형 주거지의 특징을 평면형태, 타원형구덩이, 중심주혈과 4주의 배치 등 다양한 분류를 통해 지역적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휴암리형, 송국리형, 효자동형, 오곡리형, 검단리형 등 세부유형으로 분류(김규정 2013: 88쪽)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그러한 분류가 송국리유형의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호남지역 송국리문화는 적어도 500년 이상 지속되면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변이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송국리유형 취락은 주거지의 평면형태에 따라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주거지 평면형태가 방형과 원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주거지도 있지만 말각방형과 원형의 경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확인된다. 전주 동산동의 경우 9호는 2면은 곡선에 가깝고, 2면은 직선에 가깝다. 말각방형과 원형 간 중복은 말각방형인 5호와 원형인 6호, 7호, 23호, 말각방형인 10호와 11호에서 확인되는데 모두 말각방형이 선행하고 원형이 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주거지가 층위상 선후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기적인 차를 긴 시간폭을 가진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경강유역에서 송국리형주거지는 방형계를 파괴하고 원형계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산동유적을 살펴보면, 방형주거를 파괴하고 원형주거가 설치되지만 연대측정결과에서는 시간차가 뚜렷하지 않다. 즉 축조의 선후관계에서 차이가 있지만 시간적 격차를 감지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천선행 2019: 70-71쪽). 익산 원수리유적, 와리 정동유적에서는 원형을 파괴하고 방형주거지가 설치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거의 평면형태를 그대로 고고학적 편년의 시간차로 두기는 어렵고, 두 주거형태가 함께 사용되다가 점차 원형계라는 통일된 주거구조로 수렴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천선행 2019: 71쪽).

따라서 평면형태가 방형과 원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주거지들은 대체로 방형에서 원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주거지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모든 유적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호남지역 송국리유형은 지역에 따라 휴암리식이 선행하거나 송국리식이 선행하고 이후 먼저 점유한 집단과 후행집단 간에 문화접변이 일어나면서 선후관계가 달라지거나 한 주거지 내에서 다양한 평면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경강유역에서도 몇몇 대취락을 중심으로 중형 및 소형취락이 연결된 집합체를 이루고, 취락

군 형성은 인근 취락군 간의 공간성에 구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천선행 2019: 73쪽). 호남지역 후기는 송국리유형이 지속과 함께 새로운 물질문화인 점토대토기가 유입되면서 양자 간 교류와 문화접촉이 확인된다. 송국리유형과 점토대토기문화의 교류는 주거지는 송국리유형 이면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유적과 방형계 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유적을 들 수 있다. 만경강유역 군산 도암리와 완주 운교, 중서부지역 고창 울계리, 신평 갈두는 모두 송국리식주거지 내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재지의 송국리유형 문화집단이 점토대토기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전주 대정Ⅳ는 주거지 평면이 장방형계로 일부 모서리가 둥근 형태이며, 대부분 노지가 확인되고 있어 주거는 새로운 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유물은 송국리식 외반구연옹이 출토되고 있어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이 송국리유형의 일부 요소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종철 2021).

3. 해안지역 패총의 이용과 교류

해안지역에서 조사된 패총은 조.전기의 비응도패총과 격하패총이 주목된다. 비응도패총은 역삼동.흔암리식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부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적색마연토기 대부발은 천안 백석동 출토품과 비교되는 유물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편년 가능하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전기후반부터 청동기인들이 도서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단순히 바다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해로를 통한 교역을 위해 도서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김규정 2013: 1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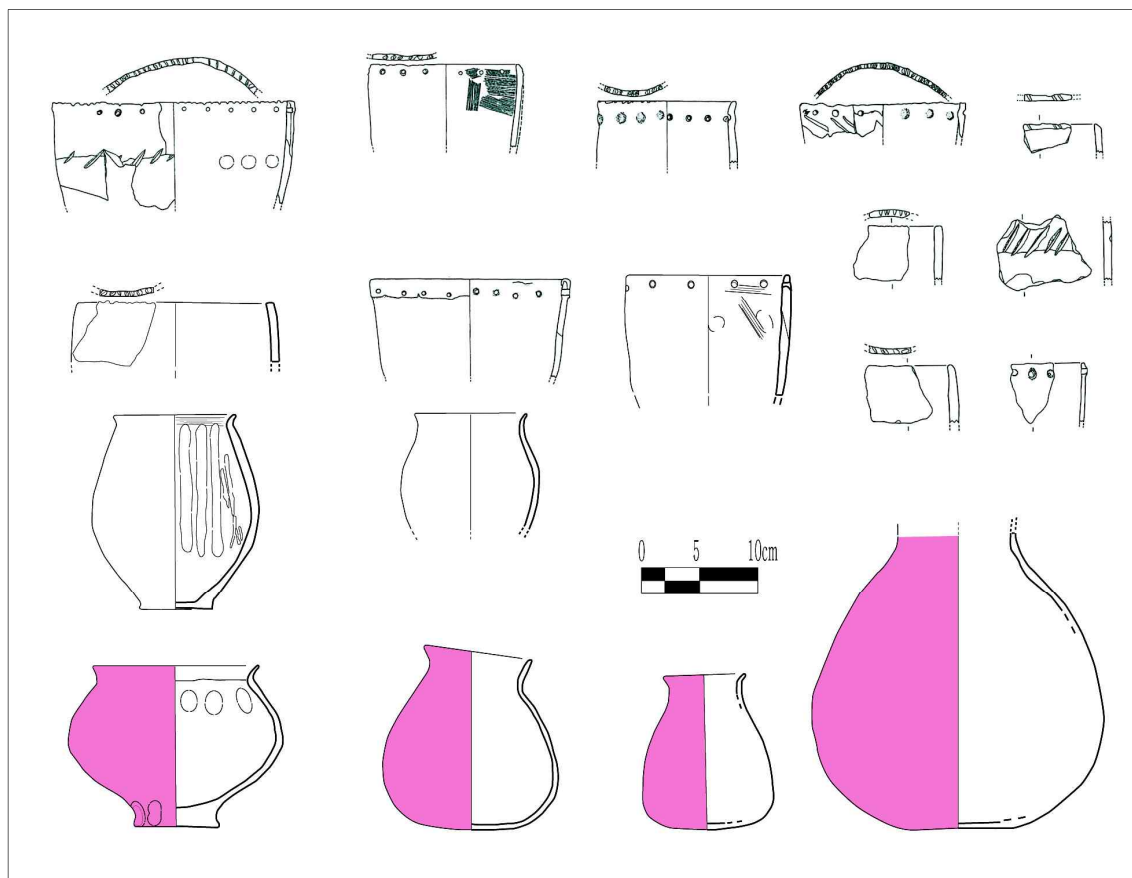


그림 11. 군산 비응도 패총 출토 무문토기(김규정 2013 원도)

부안 격하패총에서도 편이기는 하지만 이중구연+단사선이 시문된 가락동식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격하패총에서 출토된 가락동식 토기는 동진강유역 부안 역리 옥여와 내기리 고마유적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들 유적은 지금은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청동기시대 당시의 자연환경을 생각하면 아마도 해안지역에 입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락동유형의 집단도 해로를 통한 주변과의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비응도, 가도, 띠섬, 노래섬, 선유도 등 금강하구의 도서지역과 부안 대항리, 서남해안의 무안 성내리 당산, 해남 현산면 일평리와 백포면 백포리 두모, 군곡리, 신안 압해면 대천리와 장감리, 동남해안의 광양 진정리에서 패총 등에서 무문토기들이 수습되고 있다(김규정 2023). 이처럼 청동기시대에 해안지역에 위치한 패총으로 보아 신석기시대보다 해양자원의 이용이 빈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패총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비응도의 역삼동.혼암리유형 토기와 격하 패총의 가락동유형은 서해안과 도서지역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해남 황산리 분토 14호에서 출토된 공열문과 공열+구순각목문이 시문된 역삼동.혼암리유형은 해양교류를 통한 서해안지역과의 관련성을 볼 수 있다. 비록 청동기시대가 농경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해양활동을 벌이는 집단도 분명하게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해양활동을 벌이는 집단 간의 교류에는 잔존하는 물질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특산물과 정보전달, 인적교류 등이 내재되었을 것이다(천선행 2021: 92쪽). 따라서 호남지역은 강과 내륙뿐 아니라 해안과 도서지역에서 다양한 청동기문화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지역과 다양한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발표자는 호남지역은 호남정맥이라는 자연.지리적 환경에 의해 서부지역은 가락동식토기 문화권, 동부지역은 역삼동.혼암리식토기 문화권으로 분류하였으며, 섬진강유역은 역삼동.혼암리유형은 영남지역으로부터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김규정 2013).

만경강유역은 조.전기에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이 유입되어 한동안 공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역삼동.혼암리유형과도 교묘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심은 가락동유형이다. 동진강유역도 만경강유역과 마찬가지로 가락동유형 중심이지만, 비응도 패총에서 확인된 역삼동.혼암리유형을 통해 볼 때 해로를 이용해 역삼동.혼암리유형이 도서지역으로 진출을 한 것으로 보았다. 서쪽지역의 동진강유역과 중서부해안지역도 가락동유형의 파급으로 주로 가락동유형이 확인된다. 영산강유역은 조.전기에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이 유입되고 이어 역삼동.혼암리유형이 유입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 취락 내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이 각각 주거를 달리하여 분포하거나 아니면 한 주거 내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만경강유역으로부터 들어온 가락동유형과 섬진강유역으로부터 들어온 역삼동.혼암리유형이 혼재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섬진강유역 조.전기는 순창 원촌유적을 통해 볼 때 미사리유형이 간헐적으로 유입되고 이후 역삼동.혼암리유형이 남강유역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 전형적인 가락동유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섬진강유역과 마찬가지로 동남해안지역도 역삼동.혼암리유형 중심이지만 일부 유적에서는 가락동유형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미미하다. 천선행

(2016)은 호남지역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이 복합적 양상을 띠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 편년을 검토하여 전기무문토기문화는 4단계로 구분하고, 섬진강유역 전기문화는 남강유역에서 파급된 역삼동.혼암리식토기 문화가 서남해안권에서 3단계에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천선행 2016). 서남해안(탐진강유역 포함)은 조.전기는 주거의 형태와 유물로 보아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남해안의 역삼동.혼암리유형과 영산강유역의 가락동유형이 접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김진환 2021).

호남지역 중기는 송국리유형이 호남 전역에서 제일성을 띠고 있는데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유역은 송국리유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제 유형에 있어 휴암리유형과 송국리유형으로 구분한다면 대체로 휴암리유형이 빠르고 송국리유형이 후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후관계가 모든 유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섬진강유역(특히 상류)과 동남해안지역은 송국리유형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재지의 평면 (장)방형주거가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다. 이는 제 속성 가운데 주거는 재지적이면서, 유물만 송국리유형 요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

호남지역 후기는 송국리유형이 지속되는 한편 새롭게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변화양상이 확인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후기 취락이 양호하게 확인되지 않아 후기유형 취락의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다. 다만 전주 평화동 대정IV유적에서 확인되는 장방형 평면에 중앙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들은 송국리유형과는 상당히 이질적이지만 그림에서 주거지 출토유물 가운데 송국리유형의 특징적인 외반구연 옹형토기가 출토된 것은 송국리유형과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평화적인 공존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송국리유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이질적인 점토대토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이라는 주제로 발표문을 준비하다 보니 지나치게 유형에 집착하여 논리전개상 어쩔 수 없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다. 또한 호남지역은 자연.지리적 환경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지역권별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 각 지역별로 세분하여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전반을 검토할 것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공민규, 2005, 「중서내륙지역 가락동유형의 전개」,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경문화사.
- 공민규, 2011, 「금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검토」, 『한국청동기학보』8호, 한국청동기학회.
- 김규정, 2000, 「호남지방 청동기시대 주거지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정, 2006, 「호서·호남지역 송국리형주거지」, 『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호남, 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 김규정, 201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특징」, 『한국청동기학보』9, 한국청동기학회.
- 김규정, 201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규정, 2019,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일고찰」, 『호남고고학보』62, 호남고고학회.
- 김규정, 2020,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과 그 변화」, 『호남고고학보』65, 호남고고학회.
- 김규정, 2021, 「호남지역 마한 성립기 주거지 일고찰」, 『호남고고학보』67, 호남고고학회.
- 김규정, 2021,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국제학술대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 김규정, 2023, 「발제」, 『선사시대 호남의 해양문화』제31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목포대학교박물관.
- 김승옥, 2006a,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60, 한국고고학회.
- 김승옥, 2006b, 「송국리문화의 지역권설정과 확산과정」, 『호남고고학보』24, 호남고고학회.
- 김승옥, 2017, 「만경강 일대 선사문화의 전개와 성격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55, 호남고고학회.
- 김승옥, 202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국제학술대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 김승옥, 2023, 「만경강권역 청동기시대~마한문화의 궤적과 특징, 그리고 여의동2가.동산동유적」, 『2023 학술대회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문화유산 가치와 활용 모색』,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문화재연구원.
- 김장석, 2001, 「훈암리유형 재고: 기원과 년대」, 『영남고고학』28, 영남고고학회.
-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69, 한국고고학회.
- 김진환, 2021,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국제학술대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 노양지, 2021a, 「호서·호남지역 휴암리유형의 전개양상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양지, 2021b, 「호서·호남지역 휴암리 유형의 전개양상 검토」, 『한국청동기학보』29, 한국청동기학회.
- 명승렬, 201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중기 물질문화의 다양성 검토」, 『호서고고학』31, 호서고고학회.

- 박성희, 2015, 「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권역」, 『고고학』14-1호, 중부고고학회.
- 손아라, 2020, 「금강하류·만경강유역 송국리형취락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호, 2000, 「한국 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4, 한국고고학회.
- 양영주, 2009, 「호남중북부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변화양상」,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영주, 2013,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편년』,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발표자료집, 한국청동기학회.
- 양영주, 2021, 「고창지역 청동기문화에 대한 검토」, 『한국청동기학보』28, 한국청동기학회.
- 유향미, 2006, 「영산강유역 송국리형주거지의 양상」, 『연구논문집』6, 호남문화재연구원.
- 이재언, 2021a,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 이재언, 2021b,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의 분포양상」, 『호남고고학보』69, 호남고고학회.
- 이종철, 2002, 「송국리형 주거지의 구조변화에 대한 시론」, 『호남고고학보』16, 호남고고학회.
- 이종철, 2015,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체제와 발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철, 2017, 「송국리형 취락의 생산과 소비 양상-개별 주거와 취락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 이종철, 2021a, 「청동기시대 후기 입대목 제의 존재와 의의에 대한 시론 -전주 대정Ⅳ 유적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69, 호남고고학회.
- 이종철, 2021b,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 양상」, 『한국청동기학보』28, 한국청동기학회.
- 이청규, 1988,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와 공렬토기문화의 위치」, 『한국상고사학보』1, 한국상고사학회.
- 이형원, 2002,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 중부지역 무문토기 편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원, 2005,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접촉양상 -중서부지역 주거유적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12, 호서고고학회.
- 이형원, 2007,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상한과 하한」, 『한국청동기학보』1, 한국청동기학회.
- 이형원, 2009, 「한국 청동기시대의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원, 2016, 「충청서해안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 유입과 문화접변」, 『호서고고학』34, 호서고고학회.
- 정다운, 2021,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 천선행,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고학보』59, 한국고고학회.
- 천선행, 2015,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 재고」, 『호남고고학보』51, 호남고고학회.
- 천선행, 2016, 「호남지역 전기무문토기문화의 실체와 전개」, 『호서고고학』35, 호서고고학회.

- 천선행, 2019,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취락 특징과 분포양상」, 『호서고고학』44, 호서고고학회.
- 천선행, 2024, 「청동기시대 유형에 대한 재인식」, 『호남고고학보』77, 호남고고학회.
- 최대균, 2014a, 「호서지역 미사리유형의 전개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대균, 2014b, 「호서지역 미사리유형의 전개양상」, 『한국청동기학보』 15, 한국청동기학회.
- 한수영, 2020, 「만경강유역 송국리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공존과 변화 -중상류역 점토대토기유적을 중심으로-」, 『철기문화의 시기와 분묘와 매장』, 한국학중앙연구원.
- 홍باط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호남고고학보』36, 호남고고학회.
- 홍باط음, 2012,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전기문화의 변천과정」,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초기~전기문화 편년』,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발표자료집, 한국청동기학회.
- 홍성우, 2023,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주거지 연구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을 중심으로-」, 『2023 학술대회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문화유산 가치와 활용 모색』,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문화재연구원.
- 황재훈, 2009, 「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호서고고학』20, 호서고고학회.
- 황재훈, 2015,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연구 검토-형식 편년과 유형론,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 『고고학』14-1, 중부고고학회.
- 황재훈, 2021,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호남지역 취락유형 분포와 경계」에 대한 토론문

천선행(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본 발표문은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의 전라남북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은 발표자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에 단일 문화가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문화가 파급되어 제가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호남지역을 하나의 틀로 정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께서 호남이라는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된 양상,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수성을 다루며 논의를 이끌고 있고, 다양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어 토론자로서 매우 감사하고 저도 전체적인 흐름에 동의합니다. 본문에서 방대한 자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지엽적 문제보다는 호남지역 청동기시대의 양상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논점을 들어 토론에 부치고자 합니다.

1. 호남지역 전기 청동기시대 문화의 판도

발표자는 호남지역을 ①만경강유역, ②동진강유역, ③중서부지역(고창/영광), ④영산강유역, ⑤섬진강유역, ⑥남해안지역(강진/해남), ⑦동남해안지역(여수/고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에 ①~③지역에서는 가락동유형이, 나머지 지역에서는 역삼동·흔암리유형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도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양 문화요소가 복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만경강유역 그리고 호남 해안지역 패총 등에서 공렬요소가 확인되는 것을 근거로, 토론자가 이해하기로는 한반도 중서해안지역 역삼동·흔암리유형(천안 백석동유적)과 연계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만경강유역에서 공렬요소가 많지 않다면, 금강유역 집단이 보유하던 문화요소가 함께 유입되었을 수도 있고, 발표자가 이야기하는 영남지역 일대와의 관련 속에서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문화의 양상을 감안할 때, 호남지역 각 지역별 청동기시대 주민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자료의 시간적 처리 문제

중기의 전주 척동Ⅱ-1호 주거에서 부뚜막시설이 확인되는 점, 여수 죽림리 하금 1호 주거에서 지각석이 포함된 노지가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부뚜막 등장을 중기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제는 주거의 구조가 시간적 상수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여수 죽림리 신송 I-2호(송국리형주거+경질무문토기)의 사례, 만경강유역에서 송국리형주거에서 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공반하는 사례(후기로 분류)를 통해 송국리유형이 늦게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구 요소가 복합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르게, 어떤 경우는 늦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이나 근거를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뚜막의 등장이 조리방식의 변화 나아가 취사기의 조성변화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기에 그러한 변화를 읽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영산강유역 송국리형주거의 파급과정

발표자는 송국리형과 휴암리형의 두 형태로 나누고, 양자의 혼재를 집단의 접촉, 교류로 보

던 기존 관점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별로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며 적어도 500여년 이상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자도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청동기시대 중기에 호남지역에서 취락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오롯이 토착문화의 선택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성을 논의하면서 영산강유역은 휴암리형과 송국리형이 비슷하지만, 나주·영광·장성·화순 지역은 휴암리형이, 광주와 담양은 송국리형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에서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호서지역으로부터 1차로 휴암리형이 유입되고, 이어서 2차 송국리형이 유입·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지역에 따라 송국리유형에 흡수되는 시차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발표자는 휴암리형과 송국리형을 각각 호서지역에 비추어 시간적 선후관계로 인식하고 순차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의 진주권역에서 대형리형(방형/외주공식)이 우세하고, 섬진강유역에서 방형에 내주공식이 우세한 점을 고려하면, 호남지역 중기 문화가 호서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이동과 인구집중으로만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호남지역 중기 취락의 증가 요인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중기와 후기 문화의 공존양상

만경강유역 및 영산강유역 일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송국리문화를 더 이상 중기로 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중기와 후기문화가 공존하고, 이는 토착집단과 외부집단의 공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송국리형주거, 방형계 주거, (말각)장방형계 주거에서 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공반하는 3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고고학적 현상인 것이고 이제는 어떤 방식(관계나 취락분포)으로 공존하였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남지방 취락유형의 분포와 경계

- 검단리유형을 중심으로 -

강동석·박수빈(동국대학교)

I. 머리말

영남지방에는 청동기시대 전 시기에 걸쳐 여러 ‘취락’유형의 고고학적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주목받아왔던 유형은 중기 또는 후기로 편년되는 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이었다. 충청·호남에서는 송국리유형이 지배적인 양상을 보이는 반면, 영남에서는 경북 북부와 동남해안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남서쪽은 송국리유형, 북동쪽은 검단리유형 분포권으로 설정되고 있다.

특정 권역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경계는 역사적·정치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거나 그것의 물리적 공간을 구분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반대로 경계는 그것이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 담론 중 하나이기도 하다(Brunner et al 2024: 7-8). 특히, 물질 자료와 사회 정체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힘든 선사고학에서는 경계의 파악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과 유적의 분포는 ‘유형’ 또는 ‘문화’ 권역과 경계를 설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분포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영남지방에서도 주거지, 분묘, 토기, 석기 등을 확인하여 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두 유형의 광역적 분포와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유구와 유물이 선별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당초 고고학에서 제시한 ‘유형’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방식은 정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현상의 다변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특히 검단리유형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 ‘유형’과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여 유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보이는 검단리유형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형의 분포를 확인하고, 유형 간의 상호작용과 유형 내부의 다변적 전개 양상에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 유형, 분포, 경계

본 발표의 주제인 취락유형은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 송국리유형 등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각 ‘유형’을 가리킨다. 처음으로 유형을 언급한 이청규(1988)는 ‘일정지역의 공통된 특성을 갖춘 유적 유물 갯춤새 전체를 가리키는 문화의 ‘유형’보다는 좁은 의미의 임의적인 개념’이라고 하여 유형을 문화의 범주로 인식하였다. 안재호(1992)와 최성락(1996)도 마

찬가지로 문화유형(cultural pattern)으로서 유형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반면, 박순발(1999)은 클라크(1968)가 제시한 ‘assemblage’를 유형으로 정의하고, ‘동질적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고학적 동시간대로 포괄될 수 있는 제작·사용집단에 의해 제작·사용된 일련의 유구 및 유물군’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클라크는 당초 assemblage를 ‘동시기에 존재하는 유물복합체’(Clarke 1968: 206)로 정의하여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흔히 assemblage를 유물복합체로 해석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클라크는 고고학에서 다루는 대상 자료를 attribute-artifact-type-assemblage-culture-culture group-technocomplex라는 계층 구조로 설명하였다. 즉, assemblage의 집합이 문화(culture)인 것이며, 이는 유형과 동등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형(문화)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의 유물복합체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물 형식들의 다중적(polythetic) 조합¹⁾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유형을 구성하는 유물복합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Clarke 1968: 206).

- ① 유물복합체는 상호 많은 유물 형식을 공유하지만, 모든 형식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 ② 유물복합체 내의 유물 형식은 대부분의 물질적 문화 활동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선택된 형식들로 구성된다.
- ③ 동일한 특정 유물 형식이 유물복합체들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지만, 조합은 다양하다.
- ④ 유물복합체는 한정적이면서 연속적인 지리 공간과 시기에 출현해야 한다.

		Entities											
		A	B	C	D	E	F	G	H	I	J	K	L
Attributes or artefacts	1	X	X	X	X	X	X						
	2	X	X	X	X	X	X						
	3	X	X	X	X	X	X						
	4	X	X	X	X	X	X						
	5	X	X	X	X	X	X						
	6							X	X	-	X	-	-
	7							-	X	X	-	-	X
	8							X	-	X	X	X	X
	9							-	X	-	X	X	-
	10							X	-	X	-	X	X

X Present
- Absent

그림 1. 고고학적 실체(entities) 모델(Clark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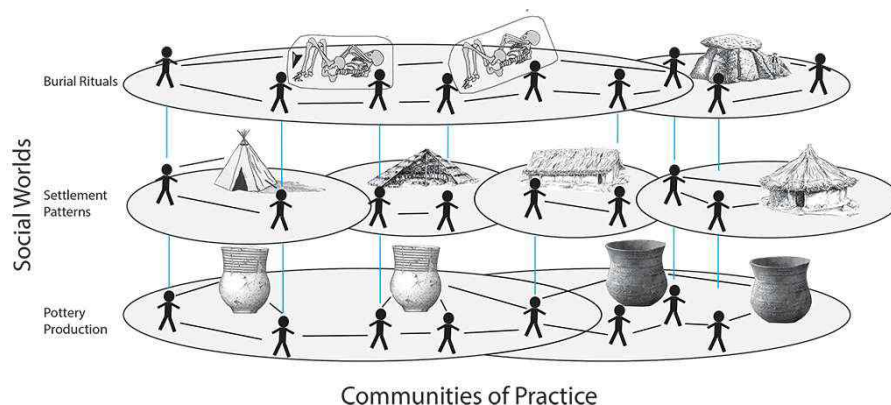


그림 2. 다중적(polythetic) 문화 모델(Futholt 2020)

1) 토기, 석기, 주거지, 무덤 등의 유구와 유물이 여러 서로 다른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얹힌 조합을 의미한다 (성춘택 외 2018). 이것은 다변적으로도 해석되는데, 이동휘(2014)는 충청지역 송국리문화의 다양성 연구에서 문화의 내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경계가 복잡하게 교차·분산되는 다변적 패턴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특정 유형의 유물복합체에 포함된 유구나 유물은 모두 동일할 필요가 없으나, 특정한 시공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다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고고학적 물질자료가 공통된 단일 조합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과 척도에서 만들어진다는 변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다중성은 <그림 2>의 모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회공동체의 매장 의례, 토기 제작, 주거지의 형태, 취락 패턴은 다른 사회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토기는 동시기에 존재하는 다른 공동체의 제작 전통과 동일할 수 있으며, 장신구, 외래품은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확보될 수도 있다. 즉, 한 사회공동체의 물질문화는 서로 다른 차원의 시공간적 확장을 통해 차별성과 유사성을 지닐 수 있다. 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사회와 연결된 공동체의 일부와 연계되어 있지만, 이들은 반드시 단위공동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청동기시대 유형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특정 유구나 유물을 선별적 지표로 삼아 그것의 유무로 유형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유물복합체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중첩되고 다층적으로 연결되는 유구·유물의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성춘택 외 2018: 336).

이처럼 유형은 유물복합체를 구성하는 주거지, 분묘, 석기, 토기 등 전체를 검토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유물복합체는 구체적으로 ‘한 유적이나 유적의 한 문화층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유물을 총칭하는 개념’(이선복 1988: 77)으로 정의할 수 있다. 취락 내에서 확인된 여러 형식의 토기와 석기, 주거지 등 모든 유구와 유물들이 유물복합체에 해당하고, 이것이 다른 여러 취락의 유물복합체와 일정한 권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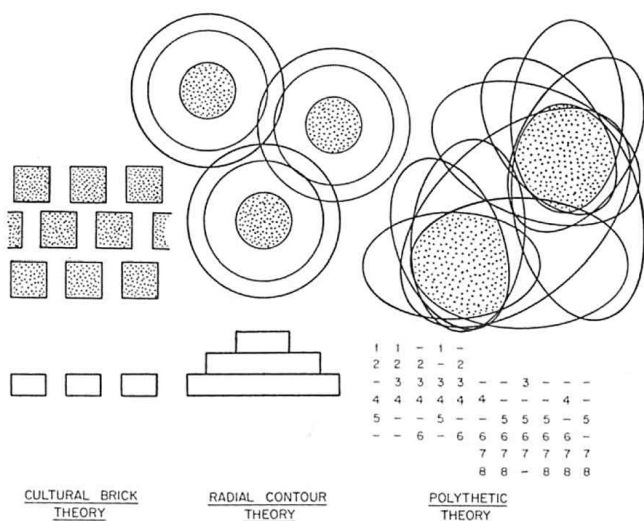


그림 3. 클라크의 분포 모델(Clark 1968)

이와 같은 동질적 유물복합체의 분포는 특정 유형의 경계로 볼 수 있다. 앞서 클라크의 다중적 모델에서 본 것처럼, 유물복합체 내의 유물·유구가 어떤 조합을 구성하며 얼마나 자주 발견되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분포도로 작성하면 유형의 분포권과 경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클라크는 이와 관련하여 다중 분포 모델(Polythetic Theory)을 제시하였는데(Clarke 1968: 264, 311), 이것은 이동휘(2014)와 문수균(2016)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그림 3).

이 모델에서는 한 문화의 특정 유물 형식 분포는 다양하고 불규칙한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많은 형식이 근접한 지역의 다른 유물복합체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 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불규칙 분포 영역은 전체 형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중첩되는 영역을 형성하는데, 이 영역의 경계는 다른 유물복합체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계에 근접할수록 유물·유구 형식의 발현 빈도와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 분포 모델은 단위 취락 내의 유물복합체가 모든 취락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다양한 변이를 보이고 있는 문화유형의 분포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 모델을 참고하여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문화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남해안지역이라는 단일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검단리유형의 분포와 경계에 주목하여 유형의 다변성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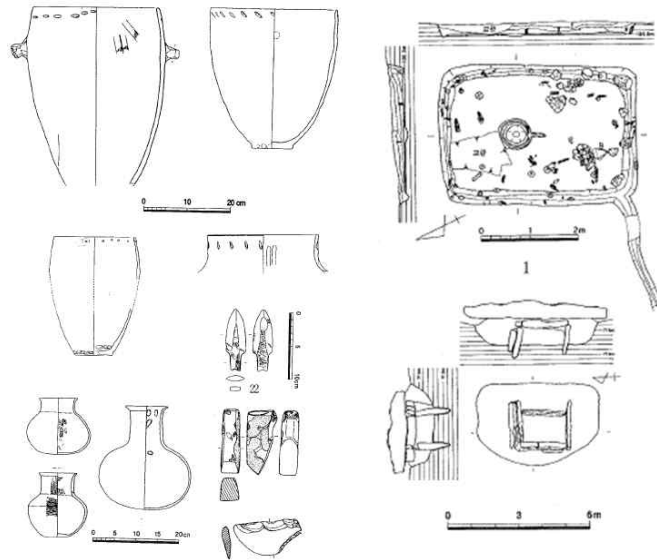


그림 4. 검단리유형의 유물과 유구(배진성 2005)

대 중기의 표지적 유물로서 검단리식토기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토기의 분포권은 주거지, 분묘, 농경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가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두 연구자 모두 검단리유형은 다양한 유구·유물로 구성된 유물복합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수홍은 검단리식 토기를 설정하면서 대구, 경주, 포항, 울산, 양산·부산지역의 각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주거지, 석축, 석검 형식의 유무를 검토하였고, 모든 유적에서 동일한 유물·유구와 형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검단리유형의 경우, 유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서 검단리식토기로 명명된 황선문토기, 즉 날알문토기와 울산식주거지 분포를 기준으로 유형의 권역을 설정하고 있다(배진성 2005; 오효성 2022; 유병록 2019; 이수홍 2005). 처음으로 검단리유형을 정의한 배진성(2005)은 당초 검단리유형을 검단리식토기, 석창, 동북형 석도, 단면 타원형 혹은 방형의 토제 어망추, 울산식주거지, 방형의 소형 석관묘가 결합된 청동기시대 중기 울산지역의 고고학적 문화로 설정하였다. 이수홍(2005)은 날알문이 시문된 심발형토기를 동남해안지역 청동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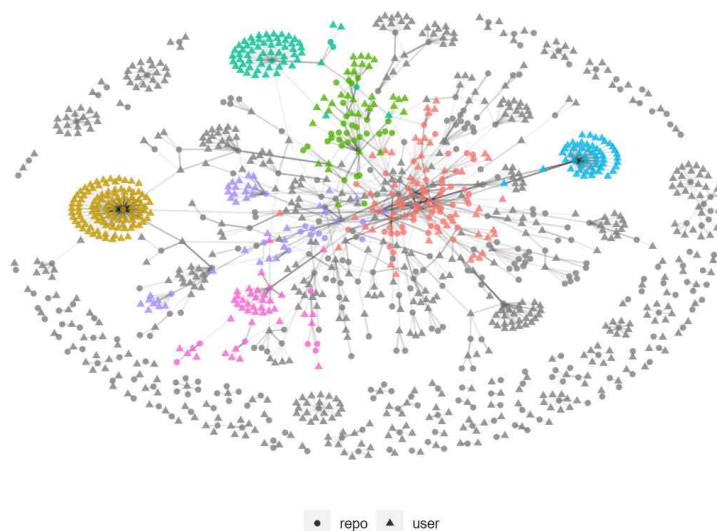


그림 5. 유물복합체 상호작용 모델 안(Zachary Batist and Joe Roe 2024)

이처럼 검단리유형은 지역성이 뚜렷한 고고학적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각 유적을

단위로 하는 유물복합체의 구성은 유구 또는 유물이 단속적으로 확인되는 불규칙 양상을 보인다. 즉, 유형을 구성하는 특정 유구·유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개별적으로 유구나 유물이 분포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검단리유형에서는 유물복합체의 구성과 분포에서 다양성이 간취되지만, 기존 분포권은 영남 북동부라는 단일 권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울산식주거지와 검단리식토기가 표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 주거지와 토기는 광역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유물복합체 구성요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구·유물의 광역적 공유 차원과 더불어, 각 유물복합체를 구성하는 다른 유구·유물들로서 다른 차원에서 복잡하게 교차·분산된 중층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Ⅲ. 검단리유형과 송국리유형의 광역적 분포패턴

앞서 검단리유형을 중심으로 단일 분포권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형에 나타난 고고학적 현상의 다양성 검토를 위해 다중 분포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기초한 영남지방 문화유형 분포패턴은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접근을 통해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위계가 확고한 스케일로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스케일의 공간들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지리적 단위로 이해하는 방식이다(박배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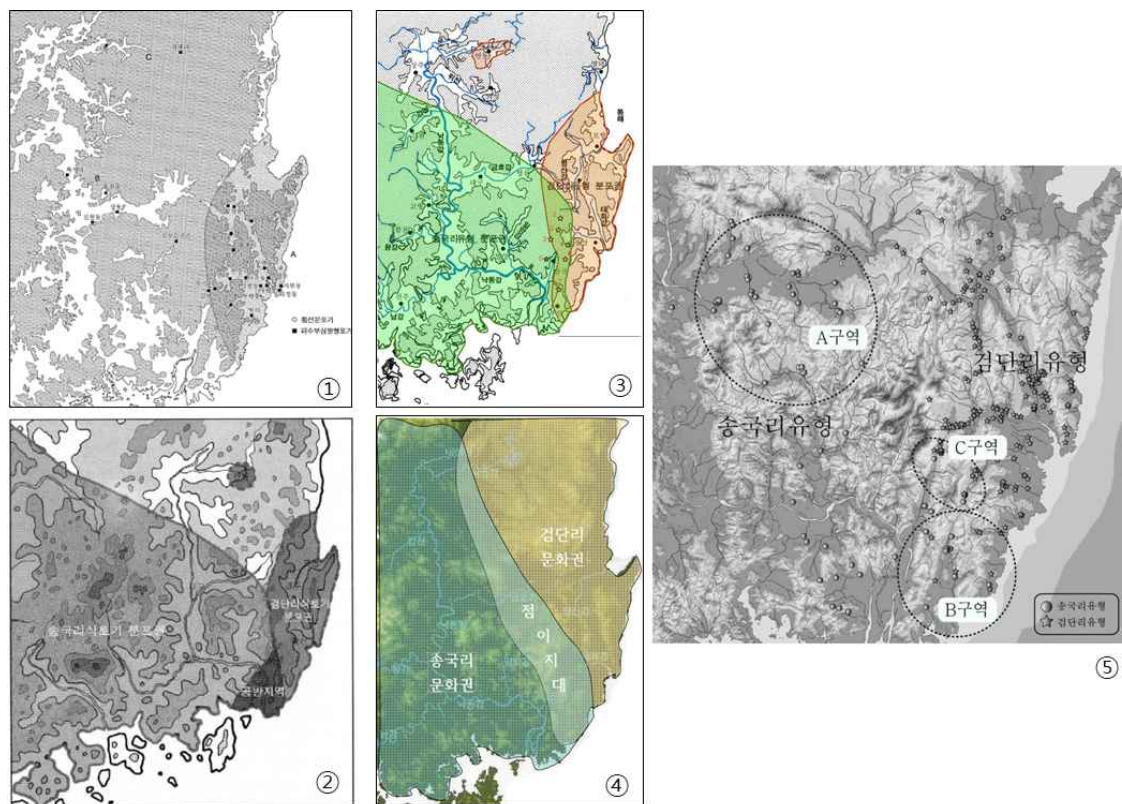


그림 6. 송국리·검단리유형 분포권(①배진성 2005, ②이수홍 2005, ③배균열 2018, ④유병록 2019, ⑤오효성 2022)
우선 광역적 차원에서 검단리유형과 송국리유형의 분포패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통

해 두 유형이 단일 권역이 아닌 지역적 또는 국지적 차원에서 상호 교차·분산하고 있는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거지와 토기를 중심으로 각 유형의 분포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두 유형의 구성요소가 겹치는 지역을 공반지역, 점이지대, 병존지대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6). 이러한 권역 설정 방식은 뚜렷한 경계를 형성하며 분포권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각 유형의 구성단위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밀집권을 형성하며 중심과 주변, 경계를 이루는 현상을 시각화하지 못한다. 또한 이는 단순히 등질적 차원에서 분포권을 구분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림 1·3>과 같은 단일원칙의 그룹(monothetic group)의 문화 구역(cultural brick)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

이 점을 염두해 두고 여기에서는 각 유형에서 전역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송국리식주거지, 울산식주거지를 기준으로 분포도를 작성하고, 커널밀도추정을 이용하여 분포패턴을 분석해 보았다. 특정 지역 가옥의 형태는 기후, 지형, 생활 등 자연·인문지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강한 전통성을 가지며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동성이 강한 유물과 달리, 주거지는 일정 기간의 거주를 전제로 만들어진 가옥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광역적 차원에서 두 유형의 분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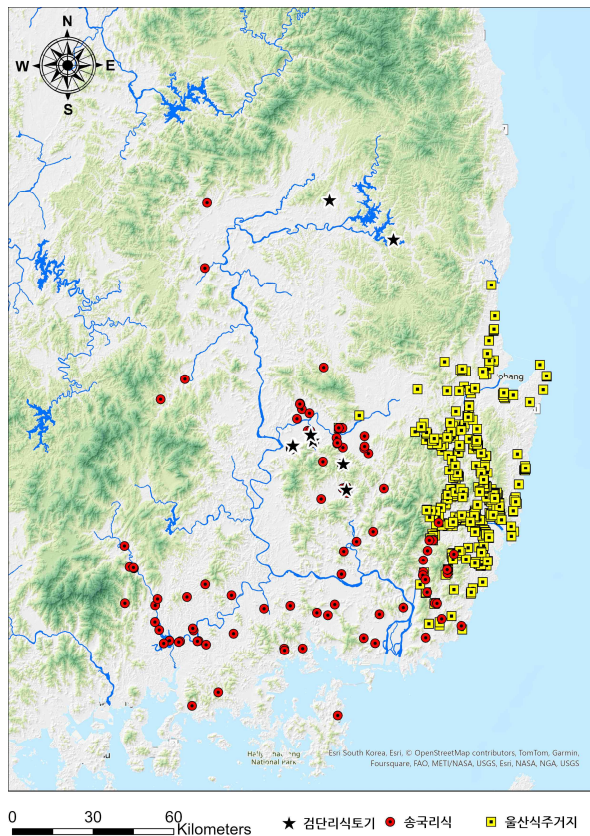


그림 7. 송국리식·울산식주거지 분포

가 제시한 방사상 등고선 모델과 같이 중핵적인 분포패턴을 이루고 있다. 울산을 중심으로 경주, 포항으로 연계되는 권역이 상대적으로 취락분포가 높은 지대를 형성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는 울산지역이 검단리문화유형이 성행할 당시,

영남지방에서 현재 파악되는 송국리식주거지는 125개소에서 1,177기가 확인되었으며, 울산식주거지는 484개소에서 6,332기이다²⁾. 울산식주거지의 분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대체로 영덕, 경주, 울산, 양산, 부산의 동편에 집중되어 있으며, 송국리식주거지는 울산식주거지가 밀집된 지역 이외에서 전역적 분포 양상을 보인다. 다만, 검단리식토기는 안동, 대구, 청동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취락 분포를 연결한 경계선은 유형의 광역적 분포권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다양한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유형 구성 간의 상호작용과 밀집권의 형성 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의 대안으로 주거지의 밀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배경은 광역적 차원의 검토라는 감안하여 20k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변수는 주거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먼저 울산식주거지 분포의 경우, 클라크

2) 송국리식주거지는 유병록(2019)와 오효성(2022)를 참고하여 파악하였으며, 울산식주거지는 김현식(2020)의 분류안을 따라 파악한 수이다.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며 높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지역에서 뚜렷한 사회복합도의 상승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광역적 차원에서 울산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교류와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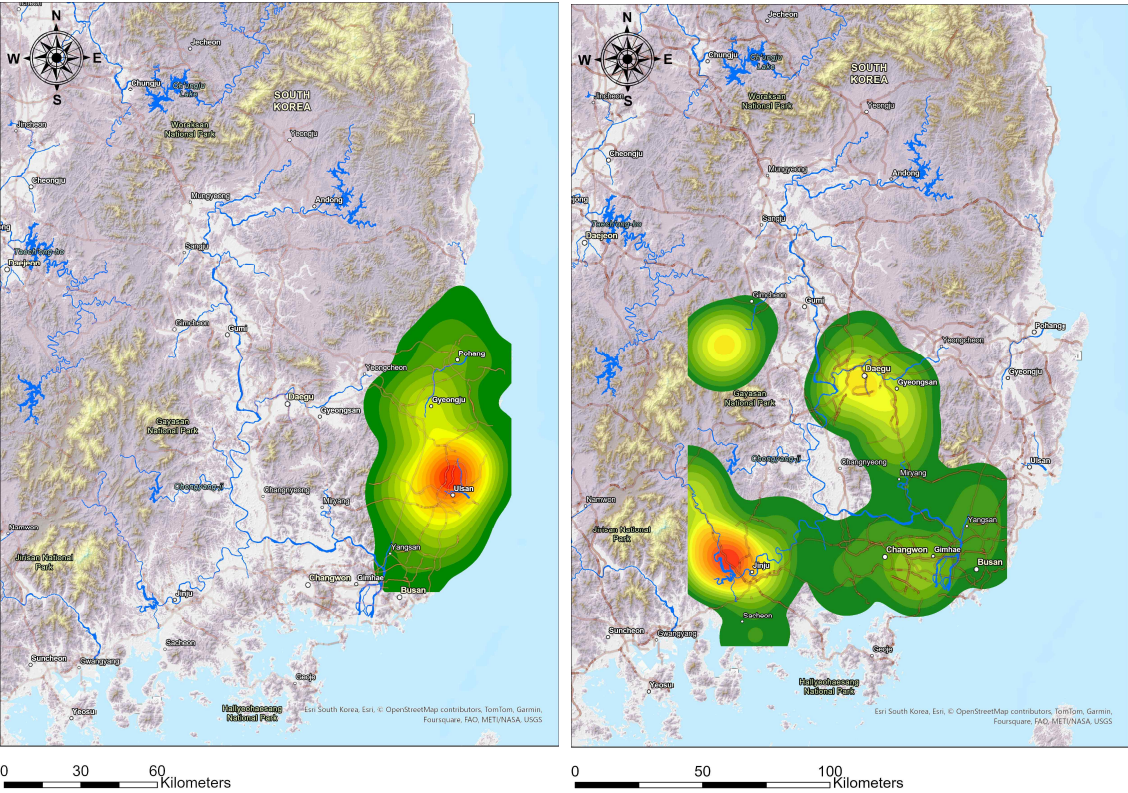


그림 8. 울산식주거지(좌)·송국리식주거지(우)의 분포 밀도(R=2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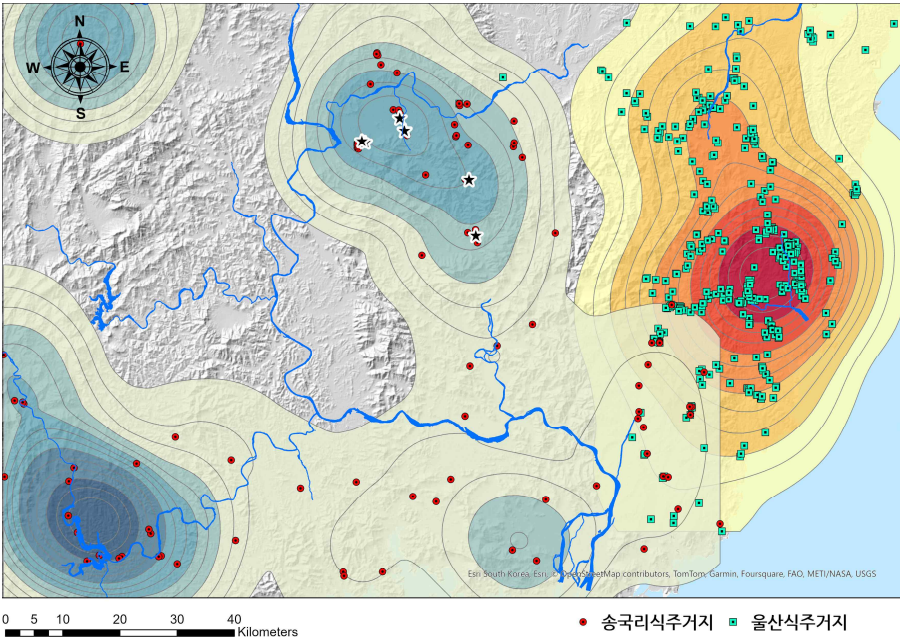


그림 9. 울산식·송국리식주거지 분포와 밀도

이와 달리, 송국리식주거지는 지역적으로 규모가 다른 권역들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가운데 진주 대평리, 평거동, 초장동 등 대규모 취락이 분포하는 남강 일원은 그 규모와 주거지 밀집도를 볼 때,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주거지의 밀도가 낮지만, 금호강유역도 단위 권역을 형성하며 울산식주거지 분포권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동천동, 월배선상지 등 중심취락을 중핵으로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유병록 2019: 182-185). 즉, 금호강유역은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하고 있었고, 이는 검단리유형과의 문화접변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산 일대에서 송국리식과 울산식주거지 분포권이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그림 9).

IV. 검단리유형의 지역적 분포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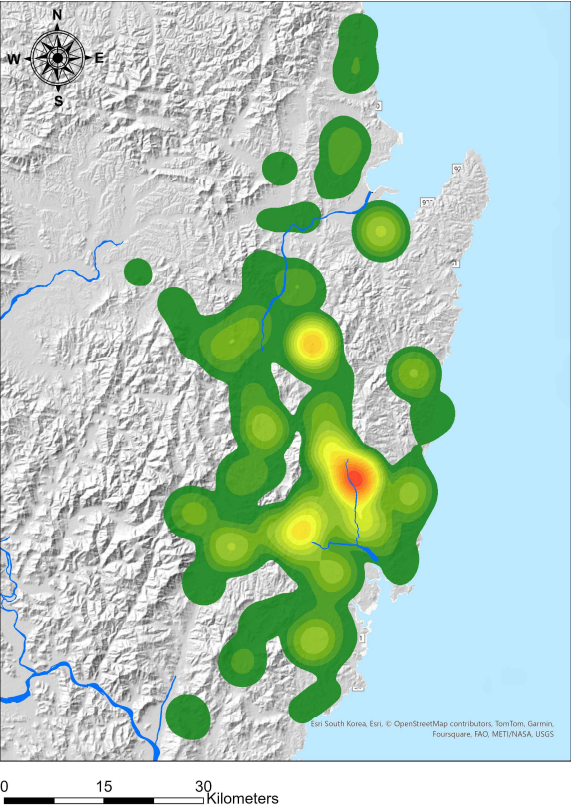


그림 10. 울산식주거지의 분포밀도(R=5)

분석한 결과이다. 광역적 차원의 분포권과 달리, 울산, 경주, 포항 등에서 각기 위상이 다른 밀집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 취락 간 상호작용 권역이 달랐으며, 유물복합체의 구성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이것은 검단리유형이 중심과 주변이 뚜렷한 단일 형태의 중핵적 분포가 아닌, 유물복합체 각각이 중첩·연계된 다중적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울산식주거지 출토유물 및 검단리유형 분포 현황

구분	종류	개소	계
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양	55	1,616

광역적 차원에서 송국리·울산식주거지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송국리유형은 다핵적 성격의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검단리유형은 중핵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문화유형의 구성요소가 다양한 차원에서 중첩되고 다층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으로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화유형 전개의 다양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적 차원의 공간스케일에서 유구·유물복합체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단일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검단리유형의 검토를 통해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검단리유형은 광역적 차원에서 중심과 주변이 분명한 중핵적 분포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각각의 취락이 반경 약 20km 공간규모에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작은 일상적 활동 반경을 기준으로 밀도분석을 실시해 보면,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그림 10>은 취락의 일상적인 개척 영역으로 상정되는 반경 5km를 기준으로 주거지의 밀도를

그동안 검단리유형을 설정한 여러 연구자들은 ‘유형’의 정의를 언급하며 당시 확인된 유적 전체를 대상으로 유구·

	구순각목+문양	91	
	공열	535	
	공열+압날문	176	
	압날문	451	
	파수부토기	157	
	적색마연토기	151	
석부	환상석부	3	936
	합인석부	499	
	편인석부	311	
	주상편인석부	91	
	유구석부	32	
석도	반월(주)형	472	486
	동북형	14	
석검	일단병식	13	53
	이단병식	38	
	유절병식	2	
분묘	지석묘(지표+발굴)	284	317
	묘역지석묘	14	
	주구묘	10	
	소형방형석관묘	9	
계		3,408	

포도 별도로 참고하였다. 전체 검토 대상은 <표 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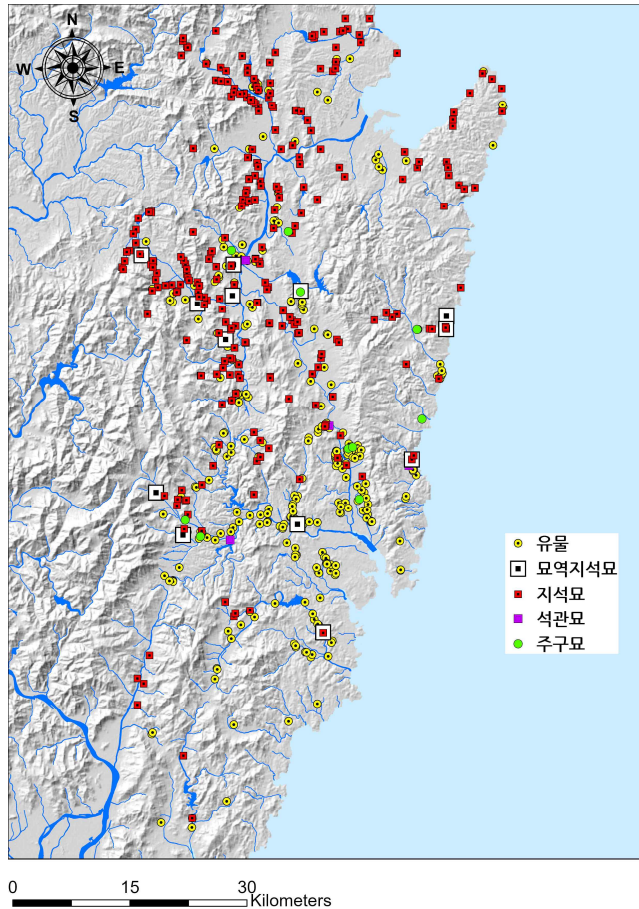


그림 11. 검단리유형분포권 분묘와 유물출토 취락 분포
묘 등이 있다.

유물의 조합 관계를 검토하였지만, 그 분포권은 검단리식토기, 울산식주거지를 기준으로 단일한 권역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러한 분포권 설정 방식은 광역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검단리 유형만의 특징을 언급하거나 대략적으로 유형의 분포권을 설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제시된 유형의 정의를 고려한다면, 기존 연구자들이 이미 시도한 것과 같이, 전체 유적을 대상으로 유구·유물의 공반 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감안, 본 발표에서는 단위 취락을 대상으로 검단리유형의 핵심 구성인 울산식주거지에서 공반하는 토기와 석기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분묘의 분포도 별도로 참고하였다. 전체 검토 대상은 <표 1>과 같다. 배진성(2006)은 처음에 검단리유형을 설정하면서 공열문·단사선문·횡선문토기, 파수부심발형토기, 적색마연토기를 검단리식토기로 보았으며, 이수홍(2005)은 날알문의 심발형토기를 검단리토기로 상정하였다. 배군열(2018)의 경우에는 날알문·횡선문·파수문이 시문된 발형토기, 적색마연소용을 검단리유형의 대표 토기군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토기들이 모두 울산식주거지에서 반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토기를 대상으로 분포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밖에 울산식주거지에서 공반한 석부는 합인·편인석부가 가장 많고, 주상편인석부와 유구석부도 확인된다. 석도는 주로 반월형석도가 출토되고, 석검은 일단병식보다 이단병식의 출토빈도가 높다.

한편 검단리유형분포권에서 확인된 분묘도 유형을 구성하는 고고학적 실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파악되는 분묘는 지표·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묘역)지석묘와 주구묘, 소형의 방형석관묘 등이 있다.

이 유물·유구는 단위취락에서 모두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단속적으로 출현한다. 이것은 앞서 유물복합체는 많은 유물 형식을 공유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형식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유물과 유구를 상호 공유하는 동질적 유물복합체의 분포는 유형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취락 내 유물·유구가 어떤 조합을 구성하며 얼마나 자주 발견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분포도로 나타낸다면 유형의 분포권 또는 경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검단리유형 분포권의 유물·유구의 출현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GIS의 커널밀도 추정과 래스터 합(Raster Sum)을 활용한 공간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절차는 <표 1>의 유물·유구 분포도를 각각 작성하여 커널밀도를 추정한 후, 이를 모두 합하는 중첩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밀도가 가장 높은 구간부터 낮은 구간까지를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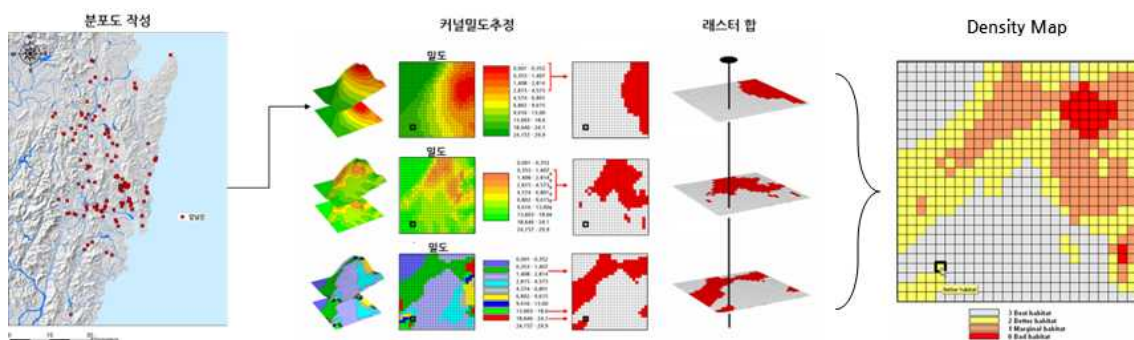


그림 12. 검단리유형 유구·유물 분포패턴 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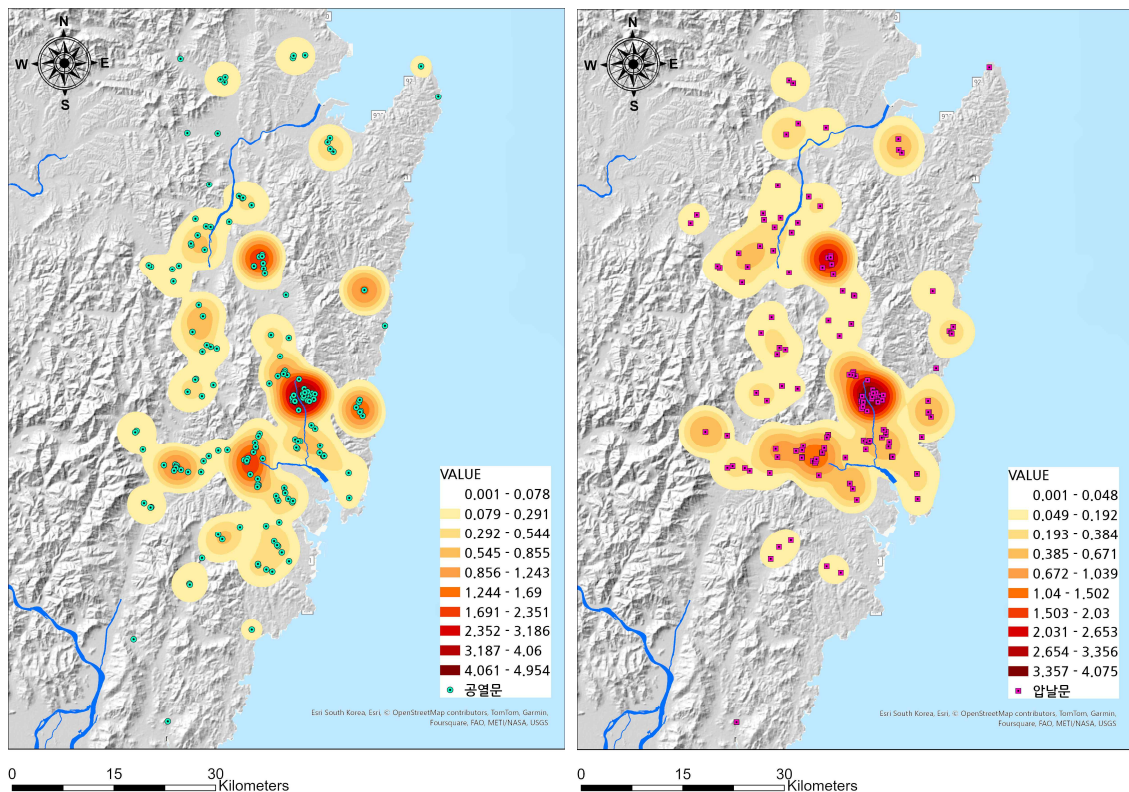


그림 13. 공열문토기(좌)와 압날문토기(우) 분포

커널밀도추정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유구·유물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배진성

(2005)은 당초 검단리유형을 설정하면서 공열문토기를 검단리식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알날문토기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검단리유형의 대표적 토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울산식주거지에서 공열문토기가 공반되고, <그림 13>에서 보듯이 국지적 차원에서 출현 빈도를 달리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토기의 공유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압날문토기는 공열문토기와 같이 차별화적인 분포 양상을 보인다. 울산 북구와 연양읍, 경주 천군동을 중심으로 고밀도 분포를 보이는데, 이것은 높은 주거지 밀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처럼 공열문과 압날문토기는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를 보이며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다르며, 토기 출토지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분포패턴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파수부토기는 공열문·압날문토기와 출토지점이 중첩되지 않는 분포 양상이 확인되며, 울산 다운동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출현하고 있다. 적색마연토기도 파수부토기와 거의 동일한 수량이 발견되었는데, 분포밀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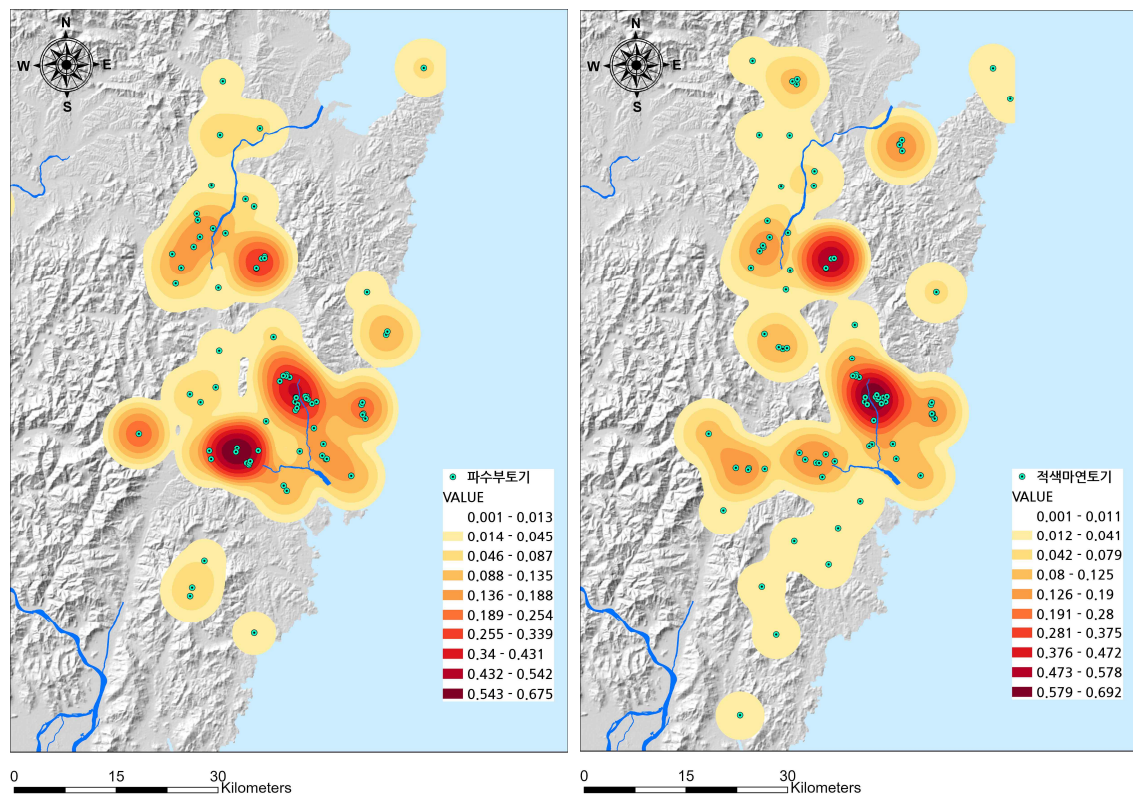


그림 14. 파수부토기(좌)와 적색마연토기(우) 분포

석부는 토기 다음으로 많은 수량이 확인된다. 합인석부와 편인석부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출토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주상편인석부는 합인·편인석부보다 수가 적지만 검단리유형 분포권 전역에서 발견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거지 출토 유구석부는 가장 적은 32개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는데, 다른 유물들이 대체로 전역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 반면, 유구석부는 울산지역에 한정하여 출현하고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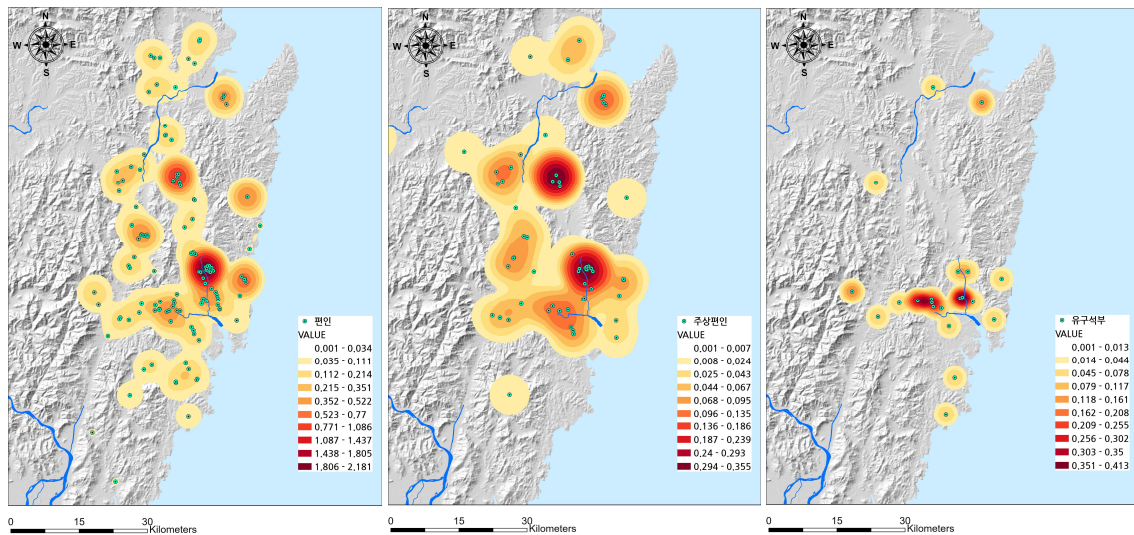


그림 15. 판인석부(좌), 주상편인석부(중), 유구석부(우) 분포

석도는 주형을 큰 범주에서 반월형으로 분류하였다. 발견된 주거지는 472기로, 합인석부와 거의 같은 수량이 확인되었다. 반월형석도도 전역적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어 검단리유형의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주거지에서 출토된 동북형석도는 주로 포항 원동에서 발견되었다. 울산지역에서도 출토빈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안재호 2018) 포항과 울산을 주요 분포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석검은 일단병식과 이단병식, 유절식석검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이단병식의 수가 가장 많다. 대규모 취락이 분포하는 울산 북구, 경주 천군동, 포항 호동에서 자주 출토되고 있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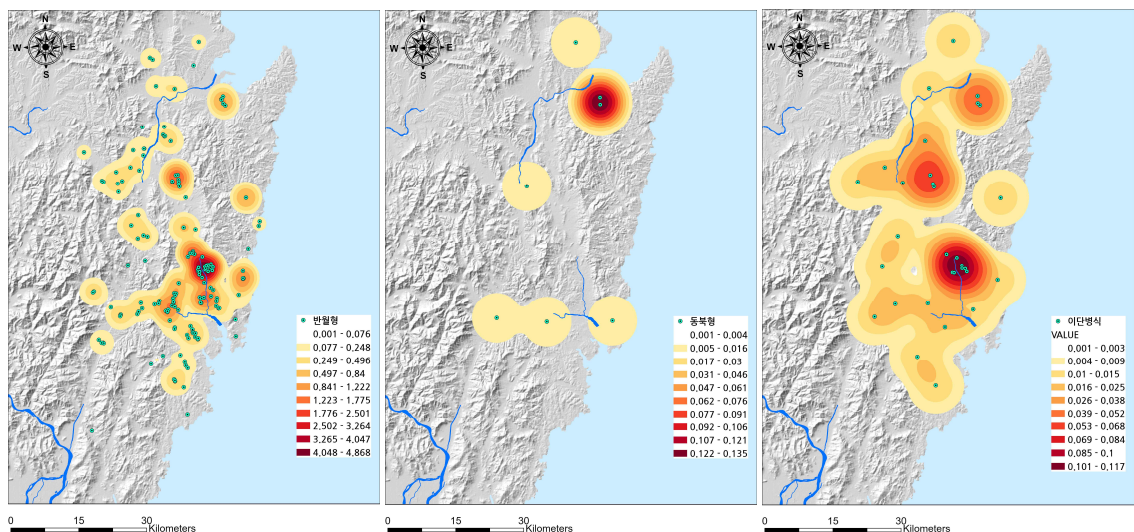


그림 16. 반월형석도(좌), 동북형석도(중), 이단병식석검(우)

검단리유형의 분묘는 소형의 방형석관묘와 주구묘로 대표된다. 이들 분묘의 수는 검단리유형 분포권의 규모와 취락 수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빈약한 편이다. 그 이유에 대해 한정된 분묘 조영 계층과 입지의 특수성(황창환 2010), 이차장 또는 화장 등 장법과의 관련성(이수홍

2012)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울산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검단리유형 전체의 현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림 17>에서 보듯이, 울산지역에서 취락이 밀집한 울산 북구 일원에는 지석묘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이수홍이 제기한 바와 같이 장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울산을 제외한 경주, 포항에서는 지석묘 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지석묘 출토유물이 매우 적기 때문에 조영 시기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경주 황성동, 천군동, 도계리, 월산리, 문산리, 포항 원동, 삼정리, 대곡리 등에서 주거지와 함께 지석묘가 확인되고 있고, 압날문이 있는 파수부심발형토기가 출토되는 사례도 있어 울산식 주거지와 공시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시 광역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지석묘도 검단리유형의 구성요소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묘역지석묘는 전촌리와 같이 초기철기시대로 상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울산식주거지와 동시기로 편년되고 있어(이수홍 2020) 분석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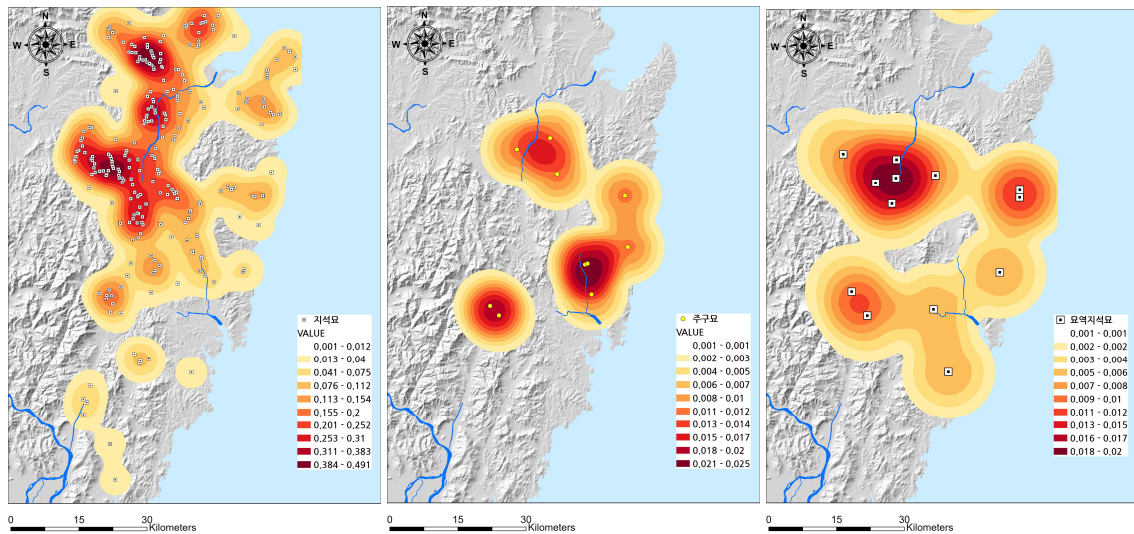


그림 17. 지석묘(좌), 주구묘(중), 묘역지석묘(우) 분포

이상, 울산식주거지 출토 유물과 분묘의 커널밀도추정 레이어를 중첩하여 총합을 구하면, <그림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밀도 총합(value)의 분포 그래프를 보면, 급격하게 값이 줄어드는 구간이 확인되는데, 이는 4.58 이상의 구간에 해당한다. 즉, 4.58~29.9구간은 유물복합체 구성요소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구역은 울산 매곡동과 다운동, 산하동, 경주 천군동 일대이다. 앞서 유물복합체를 구성하는 여러 형식의 유구와 유물들이 지리 공간상에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와 동등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를 전제하면, 이 네 구역은 특정한 유물과 유구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세부분화(subculture) 권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울산식주거지를 공통 구성요소로 하는 검단리문화유형 분포권 내에 매곡동, 다운동, 산하동, 천군동 등 네 개의 세부분화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클라크가 제시한 다중적 구조의 유형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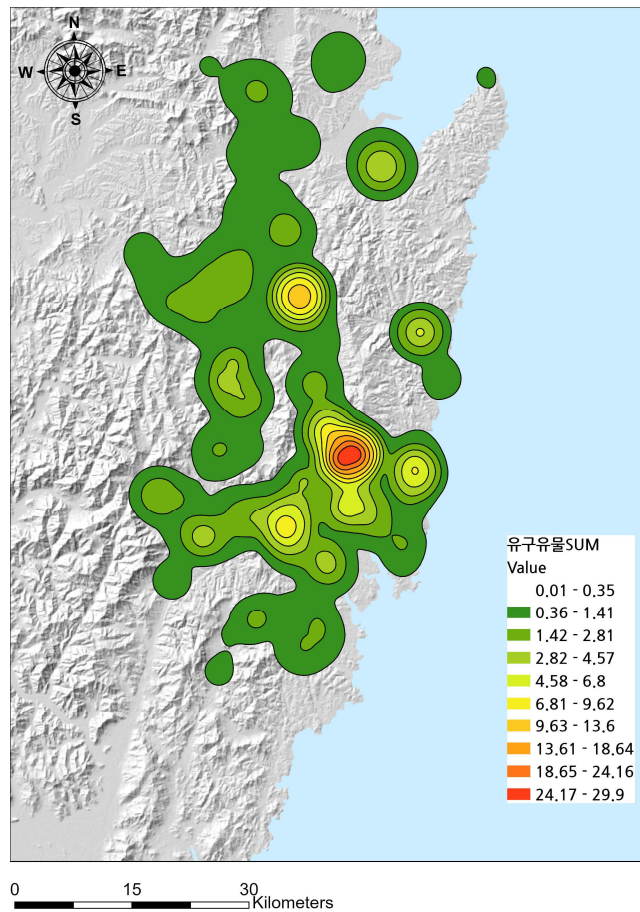


그림 18. 유물·유물 커널밀도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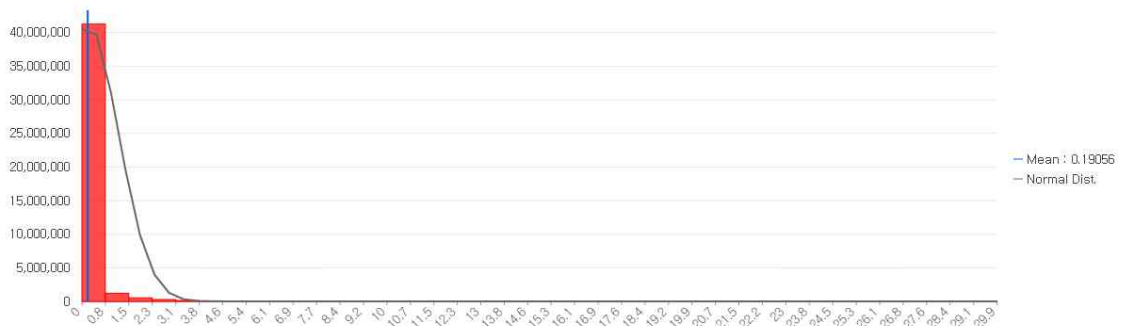


그림 19. 검단리유형 유물·유구 커널밀도추정 레이어 총합 값 분포

각 세부분화권별 유물복합체의 구성은 <그림 20>과 같다. 매곡동 일원은 반월형석도, 합인석부, 공열토기, 압날문토기가 가장 많은 출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지석묘, 석관묘, 주구묘가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 다운동 일원의 경우는 공열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양상이 확인되며, 압날문토기와 합인석부, 편인석부와 파수부토기 순으로 유물들이 확인되는 경향을 보인다. 분묘는 묘역지석묘가 있다. 산하동 일원은 합인석부와 공열토기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월형석도와 편인석부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묘역지석묘와 지석묘, 석관묘 등이 발견되었다. 천군동 일원은 합인석부와 압날문토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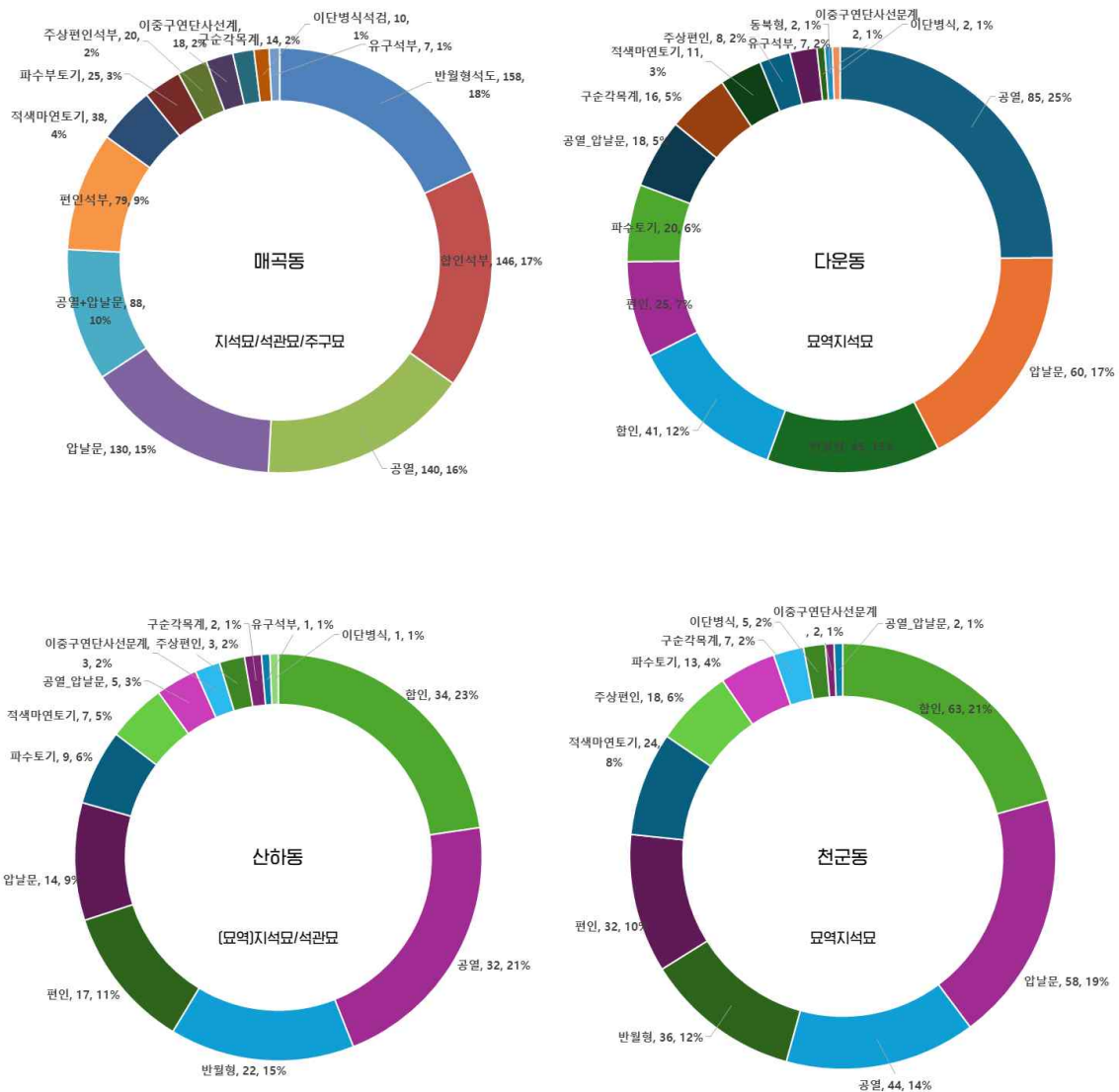


그림 20. 검단리유형의 세부분화별 유물복합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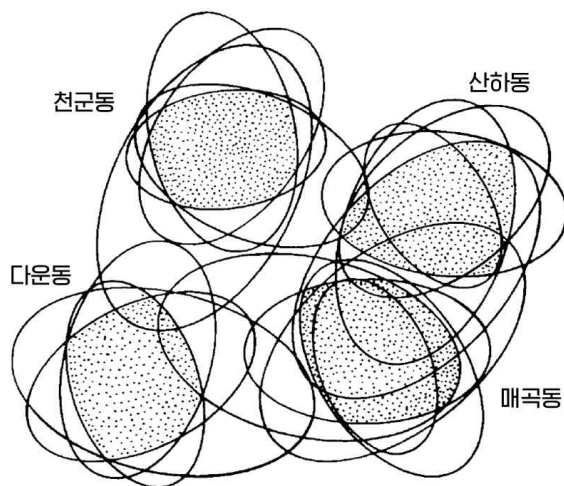


그림 21. 검단리유형의 분포 모델(Clarke 1968 수정)

이처럼 검단리유형은 세부분화유형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부분화유형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유물과 유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이지만, 그 양과 비율이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들은 울산식주거지를 공유하는 보다 상위의 범주인 검단리유형을 구성하면서도 각기 다른 패턴으로 세부분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단리유형은 동남해안지역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공간에서 균질적 양상을 이루고 있었던 문화가 아니라, 그 속에서 다양한 유물과 유구가 다중적으로 조합된 세부분화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검단리유형의

특정적 요소인 울산식주거지와 압날문토기는 광역적 차원에서 분포권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토기와 석기가 공반하며, 동일 묘제가 공유된다는 점에서 유형의 내부적 다변성도 고려하여 분포와 경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중기 문화를 대표하는 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을 중심으로 분포와 경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두 유형은 송국리유형의 경우 송국리식주거지를 표지로 하고, 검단리유형은 이에 대응되는 울산식주거지와 압날문토기에 주목하여 분포권이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두 유형은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고, 점이지대에서는 접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분포권의 설정은 광역적 차원에서 두 유형의 분포와 상호작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이것은 영남지방의 문화유형을 특정 지리 공간 내에서 균질하게 전개된 것으로 일반화하고, 유형을 구성하는 유물복합체가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상호 교차·분산되는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클라크가 제시한 분포 모델을 기초로 검단리유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검단리유형은 광역적 차원에서 중심과 주변이 뚜렷한 중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유형을 구성하는 특정 유구나 유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개별적 분포 현상도 확인된다. 이러한 다양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적 차원의 공간스케일에서 유구·유물의 분포가 교차되는 양상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GIS의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울산식주거지에서 공반한 유물과 분묘의 밀도를 계산하고, 이것을 중첩하여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구와 유물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울산 매곡동과 다운동, 산하동, 경주 천군동 일원에서 유물복합체 구성요소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은 검단리유형을 구성하는 유물복합체가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클라크가 정의한 세부문화(subculture) 권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울산식주거지를 공통 구성요소로 하는 검단리문화유형 분포권 내에 네 개의 세부문화권이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검단리유형은 광역적 차원에서 단일한 분포권을 이루고 있었지만, 지역적 수준에서 들여다보면 여러 형식의 토기, 석기, 무덤 등이 구성을 달리하며 세부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각 유형을 대표하는 표지적 유물이나 유구만을 기준으로 유형의 분포권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 현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분포와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대한지리학회.
- 박순발,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호서고고학』1, 호서고고학회.
- 배균열, 2012,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 검토」,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년 울산대국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대회.
- 배진성, 2005, 「檢丹里類型의 成立」, 『한국상고사학보』48, 한국상고사학회.
- 문수균, 2016, 「경기서북지역 청동기시대 중·소형주거지 검토」, 『한국청동기학보』19, 한국청동기학회.
- 성춘택·문수균·양혜민, 2018, 「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적 분석의 단위 -한국 청동기시대 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09, 한국고고학회.
- 안재호, 1992, 「송국리유형의 검토」, 『영남고고학』11, 영남고고학회.
- 오효성, 2022, 「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의 병존시대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 유병록, 2019, 「영남지역 송국리문화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 이동휘, 2014, 「호서지역 송국리문화 지역성 연구」,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복, 1988, 『고고학개론』, 이론과 실천.
- 이수홍, 2005, 「檢丹里式土器의 時空間的 位置와 性格에 대한 一考察」, 『영남고고학』36, 영남고고학회.
- 이수홍, 2012,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 이수홍, 2020, 「경주지역 지석묘 문화의 특징과 종말기의 양상」, 『문화재』53(4),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청규,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한국상고사학보』1: 37-92.
- 최성락, 1996, 「고고학에 있어서 문화의 개념」, 『한국상고사학보』22, 한국상고사학회.
- 황창환,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특징」, 『울산 청동기시대 태화강문화』, 울산문화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
- Batist, Z. and Roe, J., 2024, Open Archaeology, Open Source? Collaborative practices in an emerging community of archaeological software engineers, *Internet Archaeology* 67.
- Brunner, M., Julia Menne, Albert Hafner, 2024, *Borders and Interaction: Concepts of Frontiers in Archaeological Perspectives*, Universitätsforschung zur prähistorischen Archäologie.
- Clarke, D., 1968, *Analytical Archaeology*, Columbia University Press.
- Furholt, M., 2020, Social Worlds and Communities of Practice: a polythetic culture model for 3rd millennium BC Europe in the light of current migration debates, *Préhistoires Méditerranéennes* 8, pp.1-24.

「영남지방 취락유형의 분포와 경계-검단리유형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본 발표문은 GIS의 커널밀도 추정과 래스터 합(Raster Sum)을 활용한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영남지방 취락유형의 분포와 경계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솔직히 토론자가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분석방법이라 오해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검단리유형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자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 또, 분석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1. 발표자가 생각하는 검단리식토기란 어떤 토기를 얘기하는지 알고 싶다. ‘검단리식토기는 울산식주거지가 밀집된 지역 이외에 안동, 대구, 청동(청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고 하였다. 대구지역에서 출토된 검단리식토기가 어떤 토기인지 궁금하다. 필자는 날알문이 새겨진 심발형 토기로 한정하였고, 배진성(2005)은 공열문·단사선문·횡선문토기, 파수부심발형토기와 적색마연소형옹형토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화된 토기군을 말하고 있다. 배진성이 파수부심발형 토기를 검단리식토기에 속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모든 파수부토기를 지칭하지는 않은 것으로 토론자는 이해하고 있다. 발표자의 견해대로 파수부토기를 검단리식토기에 포함한다면 진주 대평리유적 일대도 검단리유형 분포권, 혹은 점이지대가 되어야 한다.

2. 발표자가 생각하는 검단리유형은 어떤 유물복합체를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특정 유구나 유물을 선별적 지표로 삼아 그것을 유무로 유형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라고 언급하였다. 검단리유형을 설정한 연구자가 울산식주거지와 검단리식토기 두 가지 지표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배진성(2005)은 검단리식토기, 석창, 동북형석도, 울산식주거지 등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청동기시대 후기의 고고학적 문화로 설정하였다. 검단리유형은 송국리문화분포권에 비해 전기의 문화가 강하게 이어져 송국리문화권에 비해 농경보다 수렵 채집의 비율이 높으며 고고학적으로는 단수의 노지를 갖춘 (장)방형주거, 검단리식토기, 소형석관과 지상식지석묘, 계곡부를 이용한 바둑판식과 계단식논 경작 등으로 나타난다(이수홍 2005).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3. 울산식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모든 유물이 검단리유형의 요소라고 생각하는지?

2번과 유사한 질문이다. ‘반월형석도가 전역적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단리유형의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반월형석도는 전국적으로 많이, 고르게 분포하는 유물이다. 발표자는 검단리유형 분포권에서 출토되는 모든 유물이 검단리유형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단리유형의 경계는 어떤 유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발표자가 만일 울산식주거지와 검단리식토기로 분포권을 설정하였다면 ‘특정 유구나 유물을 선별적 지표로 그것의 유물로 유형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는 견해와 모순되지 않을까.

4. 검단리유형 분포권에 주거지 수가 많다고 해서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발표자는 ‘울산지역이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여 높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광역적 차원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토론자는 송국리문화가 검단리문화권에 비해 사회복합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국리문화가 수도작을 바탕으로 하는데 반해 검단리문화권은 상대적으로 수렵·채집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을 것이다. 송국리문화분포권의 취락이 농경이 용이한 충적지에 자리 잡은 사례가 많은데 반해 검단리유형분포권은 대규모 충적지가 많지 않다. 취락은 대부분 경사면에 입지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정주성 면에서 검단리문화분포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만큼 이동이 잦았을 것이다. 검단리유형 분포권에서 주거지가 많이 분포하는 것은 그만큼 이동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덤이 송국리문화분포권에 비해 작게 축조되는 것이 같은 이유이다.

5. 검단리유형 분포권에서 조사된 무덤이 울산지역을 제외한다면 송국리문화분포권과 같은 비율로 무덤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검단리유형 분포권에 무덤의 수가 적은 것은 울산지역에 한정된 것이고 검단리유형 전체의 현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울산을 제외한 경주나 포항지역에서 조사된 무덤의 수가 송국리문화 분포권에 분포하는 무덤의 수와 비교해 차이 없이 많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 그림 5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또, 그림 8~10, 13~18까지의 도면을 얻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또, GIS의 커널밀도 추정과 래스터 합을 활용한 공간통계분석에 대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토론자의 이해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분석 방법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아울러 그림 13과 그림 14에서 나타내고자 한 공열문토기, 압날문토기, 파수부토기, 적색마연토기 분포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솔직히 토론자는 네 토기의 분포 차이가 있는지 그림 13과 14를 통해 이해하지 못했다.

7. 검단리유형 분포권은 중핵적양상이라고 하였는데, 중핵적 양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중심과 주변이 뚜렷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읍락’이라고 생각하는지?

송국리유형 분포권은 다핵적 성격이라고 하였는데 영남지역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송국리유형 분포권이 훨씬 넓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닌지? 송국리유형 분포권 역시 남강유역이라든지, 금호강유역을 대상으로 이런 분석을 한다면 중핵적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8. 검단리유형 내에 매곡동, 다운동, 산하동, 천군동 이 네 개 권역의 유물 비율 차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검단리유형 내에 매곡동, 다운동, 산하동, 천군동권역 등 네 개의 세부문화권역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패턴으로 세부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건 동일한 문화권이라도 출토되는 유물의 비율이 동일할 수 없다.

동남해안지역에서 유구의 밀집도가 높은 곳인 것 같은데,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면 울산역역세권 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화리·교동리 일대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신화리·교동리 일대는 단일 구릉에서 주거지만 600여 기가 확인된 검단리유형 최대의 취락이다. 신화리·교동리유적과 같이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대규모 유적이 중핵적인 취락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핵적 취락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9. ‘울산식주거지’ 라는 용어에 대해

앞으로 ‘울산식주거지’ 대신 ‘검단리식주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표현하는 용어는 대부분 유적명을 따라 ‘~식주거지’라고 하는데 유독 동남해안지역만 지역명을 사용하여 ‘울산식주거지’라고 한다. 토론자가 추정컨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검단리유적 보고서(1995)에 ‘검단리식주거지’라고 명명된 주거는 울산 지역에 드물게 확인되는 작업공이 있는 소위 송국리형주거지였다. 이 주거지를 ‘검단리식주거지’라고 먼저 명명하였기에 이후에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인 검단리유적과 검단리식토기가 있음에도 ‘검단리식주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둘째는 검단리식토기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되는데 동남해안지역의 (장)방형주거는 전기후엽부터 출현하기 때문에 시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단리식주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꺼려 했던 것 같다.

(장)방형주거가 전기 후엽에 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후기의 표지적인 유구이고, 울산 지역에 보이는 극소수 송국리형주거지를 ‘검단리식주거지’라고 부르지 않으니 이제는 동남해안지역 후기주거의 명칭도 유적명을 넣어 ‘검단리식주거지’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김권중 등 2019). 한국고고학전문사전(2022)에서도 ‘검단리식집자리’가 동남해안지역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에 축조된 (장)장형주거라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國立文化財研究院, 2022, 『韓國考古學專門事典 青銅器時代編』.

裴眞晟, 2005, 「檢丹里類型의 成立」, 『韓國上古史學報』48, 韓國上古史學會.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蔚山檢丹里마을遺蹟』.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의 時空間的 位置와 性格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36, 嶺南考古學會.

김권중·박경신·황대일·공봉석, 2019, 『수혈주거지 조사방법론』, 백두문화재연구원.

